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7-40-01
연구보고 17-R18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II

책임연구원 김현철

공동연구원 백혜정 이지연

RESEARCH REPORT 2017

NYPI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I

- ▶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백혜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이지연(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선임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선애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청년의 고용악화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진로교육에 관심을 쏟는 이유입니다. 아시아 국가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아시아 각국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은 매우 다양합니다. 본 연구는 그간 국내에서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 상황을 비교하는 연구입니다. 지금까지 불모지였던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 의의가 있지만, 진로교육의 발전을 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연구함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진로교육이론을 정립하는 데 공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타의 사회과학 연구가 그렇듯이 진로교육이론도 거의 대부분 서구의 이론과 시각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로교육을 한 발 앞서 발전시켜온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후발국들도 서구의 진로교육이론을 토대로 삼아왔습니다. 진로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후기산업사회라는 배경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으나, 사회과학 연구는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을 비교연구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2017년 본 연구과제 차원에서 추진한 국제학술회의에 한국의 포함한 아시아 10개 지역이 참가하여 각자의 진로교육의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자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나아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과의 비교를 위해 진로교육 담당자들간의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향후 보다 활발한 아시아 국가간 진로교육 연구자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시아 진로교육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아시아 각국의 비교를 위해 진일보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헌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진로교육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진로교육의 선진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아시아 각국 진로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송 병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I”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I -총괄보고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7-40-02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I - 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사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현철 (총괄책임자)	백혜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 (선임연구위원)	-
협력 연구기관	아시아 진로개발학회 (ARACD,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Career Development)	미무라 타카오 교수 (ARACD 회장, 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
		Fujita Teruyuki (ARACD 이사, Tsukuba University 교수)	-
		Hsiu-Lan Tien (ARACD 이사,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교수)	-
		Mantak Yuen (ARACD 이사, The University of Hong Kong)	Flora YAU, Joe TSUI, Joseph TSANG, Brian LEE
		Tan Soo Yin (ARACD 이사,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Lui Hah Wah Elena
		Steven Krauss (ARACD 이사, University Putra Malaysia)	-
		Mohamad Surya (ARACD 이사, PGRI Adibuana University)	-
		Gideon Arulmani (ARACD 이사, Indian Association for Career and Livelihood Planning)	Sachin Kumar, Jyothis Paul
		Saeid Safai Movahhed (ARACD 이사, University of Tehran)	Reza Ali Tarkhan
		Raza Abbas(ARACD 이사, Pathway Global Career Institute)	-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 각국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현황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1차년도에는 아시아 주요국의 진로체험활동 관련 사회환경을 분석하고, 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활동 참여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년도에는 아시아 10개 지역이 참가하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진로체험활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로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2012년 PISA 조사결과에서처럼 아시아 국가들간의 비교에서도 대체로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많은 나라가 직업역량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로체험활동이 활발한 나라들은 더 양호한 사회문화적, 교육적 환경이 진로체험활동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진로체험활동 경험이 많지 않고, 관련한 공공정책의 규모가 작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란과 같은 아시아 국가의 경우에는 진로체험활동의 기회도 부족하고, 진로역량개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진로역량과 비례한다고 해서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반드시 진로역량개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경향일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보다 더 많은 진로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직업역량도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두 그룹 중 어느 그룹의 진로교육이 더 효과적인지를 가늠하기 어렵다. 한국과 일본은 진로체험의 양은 많으나 교과활동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교과 통합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교과와 경험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취학율이 높은 대중교육사회인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진로체험활동 중심모델과 교과통합형 모델로 나뉜다. 진로체험활동 중심인 한국과 일본의 경우, 체험의 양에 비해서 역량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은 교과 통합적인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진로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진로체험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통합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과와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면, 진로체험활동은 더 좋은 진로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제언은 결국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정책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생태계 조성, 교사들의 진로교육 역량 제고, 컨설팅 추진 및 지역 전문인력 간 학습조직화,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생태계 조성 필요성에 대한 가치 공유, 일선학교에서의 통합적인 진로교육추진, 진로센터의 체질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아시아 진로교육연구와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국가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으로는 아시아 국가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2017년 국제학술회의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아시아 국가비교, 진로체험활동, 아시아 진로교육 연구네트워크, 진로교육 지역생태계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아시아 각국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현황을 수집·분석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 아시아 국가 간 진로교육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방안 등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함.

2. 연구방법

- 아시아 각국의 진로체험활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
-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의 동향을 분석하고, 진로체험활동에 이론적 관점을 정립함.
- 국내 진로체험활동 관련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분석함.
- 2016년에 실시한 국내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참여 실태조사와 기타 조사자료를 토대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현황을 파악함.
-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한 아시아 국가들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
- 연구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음.

1차 년도 (2016)	문헌연구	◦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연구동향
	아시아 주요국의 사회환경분석	◦ 아시아 주요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사회환경 분석
	국내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 중고등학생 대상 진로체험활동 참여실태 조사 ◦ 학교 및 지역의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 조사
진로체험활동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2차 년도 (2017)	문헌연구	◦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의 동향과 쟁점 분석
	국제학술회의 개최	◦ 아시아 국가의 진로교육 현황 비교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개최 - 각국 국가보고서 발표 세션 운영 - 학술발표 세션 운영 - 청소년 진로교육 한일 비교 세션 운영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현황 분석	◦ 학술대회 발표물과 추가적인 현황자료 분석을 통한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현황 분석 및 사례 발굴
	국내외 사례조사	◦ 한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조사 실시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과의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내실화를 위한 정책방안 제시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 연구 네트워크 운영 방안 제시		

3. 주요결과

1) 이론적 배경

-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체험 그 자체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진로체험활동의 양적인 도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진로교육이론들이 진로체험활동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함. 진로체험활동의 의미는 진로교육이론보다는 경험학습이나 체험과 관련된 전통적인 이론, 예를 들면 존 듀이나 콜브 등의 체험론에 기반을 두고 있음.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체험은 기존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지만, 모든 체험이 교육적 효과적인 것은 아님. 기존의 연구들은 흥미나 동기 또는 자발적이거나 자기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고전적인 진로이론인 개인-직업매칭이론에서 혼돈이론적인 관점 등을 응용한 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이나 생애진로발달과정은 단순한 경로라기보다는 복잡한 경로인데 4차 산업혁명 등의 급격한 사회환경과 직업세계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생애과정의 변화 등 많은 요인들로 인해 생애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성을 발견해서 평생직업으로서의 특정 직업을 매칭하는 일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음. 또한 진로발달의 궁극적인 목표 중의 하나인 진로성숙이나 진로자기효능감 같은 변인은 반드시 진로체험활동과 같은 투입요인에 의해서만 달성되지 않고 진로체험활동 이외의 다양한 체험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성된다는 것은 개인-직업매칭이론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줌. 보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중요하고 동시에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중요함.

2)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현황 비교 결과

-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직업역량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시아 국가들간의 비교에서도 대체로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많은 나라가 직업역량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함. 대체로 진로체험활동이 활발한 나라들은 사회문화적, 교육적 환경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하며,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이 진로체험활동의 양과 질에 긍정적

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에서는 진로교육과 관련된 공공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이 진로체험활동 기회의 부족과 낮은 진로역량개발의 결과를 초래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진로역량과 전적으로 비례한다고 할 수는 없음.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이며, 평균적인 경향일 뿐임. 한국과 일본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보다 더 많은 진로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직업역량도 더 높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두 그룹 중 어느 그룹이 더 효과적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려움.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진로체험의 양은 많으나 교과활동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교과와의 통합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교과와 경험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취학율이 높은 이른바 대중교육사회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두 가지 다른 모델이 있음. 한국과 일본의 경우, 체험의 양에 비해서 역량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쩌면 교과와의 통합적인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수 있음. 달리 말하면 더 많은 진로체험활동과 양질의 진로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과통합을 통해서 교과와 경험이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함. 만일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면, 진로체험활동은 더 좋은 진로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임.

4. 정책제언

정책제언은 결국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음. 첫째, 한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정책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 둘째, 아시아 진로교육연구와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국가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1) 교육부 진로교육 정책에 관한 제언

첫째, 직업매칭을 넘어서 지역교육생태 조성으로의 진로교육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둘째, 교사들의 진로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

셋째, 컨설팅을 강화하고, 지역인력들을 학습조직화 해야 함.
넷째,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함.

2)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제언

첫째, 지자체는 지역사회만들기라는 장기적인 비전 하에 진로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함.
둘째, 지역내 진로교육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함.

3) 학교에 대한 제언

첫째, 단위학교는 통합적인 진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둘째, 지역사회와의 열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4)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에 대한 제언

첫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네트워킹 업무를 중심으로 한 소셜 매치메이커로서 기능해야 함.
둘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인큐베이터로서 기능해야 함.

5) 여성가족부 및 산하 기관에 대한 제언

첫째,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함.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함.

6) 아시아 국가간 진로교육 연구 및 교류협력 체계 구축 안

첫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ARACD의 협력으로 아시아 국가간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둘째, 2017년 국제학술회의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연구협력체계가 필요함.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8
3. 연구추진체계	19
II.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 비교를 위한 이론적 논의	21
1.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적 논의 : 동향과 쟁점	23
2.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의 쟁점	40
III. 한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과 전망	63
1. 한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정책동향과 그 성과	65
2. 한국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참여 현황	86
3. 소결	101
IV.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과 전망	105
1. 아시아 각국 비교의 관점	107
2.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	110
1)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	110
2) 대만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	128
3) 홍콩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	141
4) 싱가포르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	156
5) 말레이시아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	169
6) 인도네시아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	183
7) 인도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	195
8) 이란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	211
9) 파키스탄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	224
3. 아시아 국가 진로교육 현황의 종합적인 비교 분석	236

V. 결론 및 정책제언	243
1. 결론	245
2. 정책제언	249
참고문헌	279
부 록	289

표 목차

〈표 Ⅰ-1〉 국제학술회의 준비 및 개최 과정	12
〈표 Ⅰ-2〉 국가 및 지역 보고서 발표 주제 일람	13
〈표 Ⅰ-3〉 개인별 구두발표 주제 일람	14
〈표 Ⅰ-4〉 한·일 진로교육 비교 특별세션 발표 주제 일람	16
〈표 Ⅱ-1〉 진로체험 관련 용어 정리	25
〈표 Ⅱ-2〉 학교에서의 진로체험 활동 유형 및 특징	26
〈표 Ⅱ-3〉 진로체험을 하는 방법에 따른 유형 및 내용	28
〈표 Ⅱ-4〉 진로체험활동의 유형 및 활동 내용	29
〈표 Ⅱ-5〉 PISA 2012 진로체험활동참여 문항: EC03	29
〈표 Ⅱ-6〉 OECD 국가 진로지도 현황(2006 PISA)	41
〈표 Ⅱ-7〉 OECD 국가의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자(2006 PISA)	43
〈표 Ⅱ-8〉 진로 관련 척도의 국가 간 상관계수	49
〈표 Ⅱ-9〉 직업역량과 사회적 배경 및 개인별 인자정서변인의 상관관계 (핀란드, 한국,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비교)	53
〈표 Ⅲ-1〉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비교	68
〈표 Ⅲ-2〉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현황	70
〈표 Ⅲ-3〉 2016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현황	71
〈표 Ⅲ-4〉 2015~2016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의 활동분야 〈진로·직업영역〉 프로그램 현황	73
〈표 Ⅲ-5〉 「오늘은 예술학교」 지원학교 선정 결과	76
〈표 Ⅲ-6〉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구성 및 활동 현황	77
〈표 Ⅲ-7〉 지역별 참여 대상 학교 수(2013~2016년)	78
〈표 Ⅲ-8〉 학교급별 제공 수업 횟수(2013~2016년)	79
〈표 Ⅲ-9〉 참여 멘토 및 직업 종류의 고용직업분류 상 분류	79
〈표 Ⅲ-10〉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체험버스 참여 멘토링 현황	81

〈표 Ⅲ-11〉 사업 관계기관 및 진로체험 지원 프로그램 현황	82
〈표 Ⅲ-12〉 농어촌 진로체험 프로그램 모형과 세부내용	83
〈표 Ⅲ-13〉 NYPI 조사·PISA 조사·KRIVET 조사의 진로체험활동 문항 비교	88
〈표 Ⅲ-14〉 학교 진로활동 경험에 따른 진로교육 성과 차이(초·중·고별)	93
〈표 Ⅲ-15〉 자유학기제 참여 경험과 경험시기	98
〈표 Ⅲ-16〉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100
〈표 Ⅲ-17〉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	100
〈표 Ⅳ-1〉 비교대상국의 지리적 권역과 경제력 규모	108
〈표 Ⅳ-2〉 일본의 중등학교 중퇴율 추이(1985~2014)	114
〈표 Ⅳ-3〉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가치 평정(8학년 학생, TIMSS 2015)	119
〈표 Ⅳ-4〉 학생들의 수학과목에 대한 도구적 동기(PISA 2012)	119
〈표 Ⅳ-5〉 대만의 사회환경 주요 지표	128
〈표 Ⅳ-6〉 대만의 학교급별 취학률	133
〈표 Ⅳ-7〉 대만의 학업중단자 수 추이	134
〈표 Ⅳ-8〉 대만의 연령별 실업률 추이	134
〈표 Ⅳ-9〉 홍콩의 학업중단학생 비율(2004-2013)	142
〈표 Ⅳ-10〉 2015학년 홍콩의 중등학교 디플로마(DSE) 이수자의 진로 현황	147
〈표 Ⅳ-11〉 싱가포르 사회환경 주요 지표	156
〈표 Ⅳ-12〉 말레이시아 사회환경 주요 지표	169
〈표 Ⅳ-13〉 말레이시아의 교육 보급 상황	170
〈표 Ⅳ-14〉 말레이시아 교육 훈련 체계의 주요 흐름(Leong, 2011)	178
〈표 Ⅳ-15〉 인도네시아 사회환경 주요 지표	183
〈표 Ⅳ-16〉 인도네시아의 학교, 학생 및 교사수(2015/2016 학년도)	189
〈표 Ⅳ-17〉 인도네시아의 교육 보급 상황	189
〈표 Ⅳ-18〉 인도의 사회환경 주요지표	195
〈표 Ⅳ-19〉 인도의 교육 보급 상황	196

〈표 IV-20〉 이란의 사회환경 주요지표	211
〈표 IV-21〉 이란의 교육 보급 상황	212
〈표 IV-22〉 이란의 공공부문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비공식)의 성과 (2016-2017)	222
〈표 IV-23〉 파키스탄의 사회환경 주요지표	224
〈표 IV-24〉 파키스탄의 교육 보급 상황	225
〈표 IV-25〉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 유형	239
〈표 V-1〉 정책제언 영역별 도출 근거	250
〈표 V-2〉 정책제언 영역별 도출 근거	251

그림 목차

【그림 Ⅰ-1】 국제학술회의 공식 홈페이지 화면	18
【그림 Ⅰ-2】 국제학술회의 공동 주최 및 후원기관	18
【그림 Ⅰ-3】 연구추진체계	19
【그림 Ⅱ-1】 학교급별 진로교육 단계	31
【그림 Ⅱ-2】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의 종합모형	34
【그림 Ⅱ-3】 혼돈이론적 상담 효과의 만족도의 지속성	36
【그림 Ⅱ-4】 진로상담의 나비효과 모델	36
【그림 Ⅱ-5】 진로체험 활동의 효과유형	37
【그림 Ⅱ-6】 진로체험 활동 참여와 직업역량 인식	45
【그림 Ⅱ-7】 직업역량의 자원으로서 인식된 학교와 학교 외의 자원	46
【그림 Ⅱ-8】 진로체험활동 참여 항목별 국가 간의 차이	47
【그림 Ⅱ-9】 공부 및 학교 내 변인과 직업역량과의 상관관계 (핀란드, 한국,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비교)	52
【그림 Ⅲ-1】 자유학기제 확산 로드맵	68
【그림 Ⅲ-2】 진로체험 지원체계	70
【그림 Ⅲ-3】 예술 블록타임 운영 예시	75
【그림 Ⅲ-4】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흐름도	78
【그림 Ⅲ-5】 농어촌 지역 특성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절차 모형	84
【그림 Ⅲ-6】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85
【그림 Ⅲ-7】 지역 특화벨트 사업 추진도	85
【그림 Ⅲ-8】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률(%)	89
【그림 Ⅲ-9】 진로교육 유형별 경험률(%)	90
【그림 Ⅲ-10】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률의 변화(2014년-2016년)	92
【그림 Ⅲ-11】 진로교육 유형별 만족도	94
【그림 Ⅲ-12】 진로체험 유형별 도움에 대한 인식 정도	95
【그림 Ⅲ-13】 학교 내 진로체험활동별 실시 정도	96

【그림 Ⅲ-14】 학교에서 역점을 두는 진로체험활동	97
【그림 Ⅲ-15】 체험활동 유형별 프로그램 비중	98
【그림 Ⅲ-16】 학교 내 진로체험활동별 실시 정도	99
【그림 Ⅲ-17】 진로교육 인프라 구성도	103
【그림 Ⅳ-1】 아시아 비교대상국의 지리적 위치	107
【그림 Ⅳ-2】 아시아 2050년 경제 전망	109
【그림 Ⅳ-3】 일본의 학교시스템(2015년 기준)	112
【그림 Ⅳ-4】 한국과 일본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진학률 추이 비교	113
【그림 Ⅳ-5】 일본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공별 학생비율(2015)	115
【그림 Ⅳ-6】 3일 직장체험과 5일 직장체험의 성과 비교(일본)	117
【그림 Ⅳ-7】 일본의 진로교육이 추구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역량	120
【그림 Ⅳ-8】 일본의 학교 간 연계 체계	123
【그림 Ⅳ-9】 신규 졸업생에 대한 주요 기업의 기대역량(일본)	126
【그림 Ⅳ-10】 대만의 인구성장률 추이	129
【그림 Ⅳ-11】 대만의 교육시스템	131
【그림 Ⅳ-12】 대만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132
【그림 Ⅳ-13】 대만의 초등생, 중학생 학업중단 인구 수	133
【그림 Ⅳ-14】 대만의 대학진학률	134
【그림 Ⅳ-15】 홍콩의 교육시스템	143
【그림 Ⅳ-16】 홍콩 DSE 이수자들의 진로 현황(2016)	145
【그림 Ⅳ-17】 홍콩의 학업중단학생 대상 진로교육 지원 체계	151
【그림 Ⅳ-18】 싱가포르의 교육시스템	158
【그림 Ⅳ-19】 싱가포르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159
【그림 Ⅳ-20】 싱가포르의 ECG 교육 및 진로지도 모델	161
【그림 Ⅳ-21】 싱가포르 교육, 훈련 그리고 경력개발을 위한 통합시스템 (스킬스퓨처)	162

【그림 IV-22】 내 눈을 통해서 보는 세계(The World Through My Eyes) 홈페이지(홍콩)	164
【그림 IV-23】 SBB 홈페이지(홍콩)	166
【그림 IV-24】 말레이시아의 교육시스템	171
【그림 IV-25】 말레이시아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172
【그림 IV-26】 말레이시아 실업률(연령계급별, 2014-2015)	174
【그림 IV-27】 말레이시아 청년고용정책의 방향	175
【그림 IV-28】 말레이시아의 통합인재개발 시스템	175
【그림 IV-29】 말레이시아 교육시스템과 진학경로	179
【그림 IV-30】 인도네시아의 교육시스템	187
【그림 IV-31】 인도네시아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188
【그림 IV-32】 인도의 교육시스템	199
【그림 IV-33】 인도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200
【그림 IV-34】 인도의 대학 및 직업교육 경로	201
【그림 IV-35】 케랄라의 진로지도 및 청소년 상담: 행정체계(인도)	205
【그림 IV-36】 이란의 교육시스템	213
【그림 IV-37】 이란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214
【그림 IV-38】 이란의 TVET 시스템	216
【그림 IV-39】 이란의 TVET 기구의 서비스	220
【그림 IV-40】 파키스탄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유	226
【그림 IV-41】 파키스탄의 교육시스템	228
【그림 IV-42】 파키스탄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229
【그림 IV-43】 아시아 국가별 진로교육 유형 분류	237
【그림 IV-44】 진로체험의 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아시아 국가 비교)	238
【그림 V-1】 진로교육 지원 중심 청소년꿈벨트 사업 추진체계	271
【그림 V-2】 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체계	274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 연구추진체계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2개년(2016년~2017년)에 걸친 연구로서 2017년도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 각국의 진로체험활동을 포함한 진로교육현황¹⁾을 비교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아시아 국가 간 진로교육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아울러 2016년에 수행한 1차년도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국내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실태조사 등의 통계자료 분석 등을 바탕으로 현행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상황 및 진로교육현황을 비교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국내에서 수행되는 외국과의 비교연구는 대부분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한다. 만일 한국이 진로체험활동 및 진로교육에 있어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에 놓여 있다고 가정한다면 당장은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벤치마킹할 것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시아에서 더 이상 둘러볼 곳이 없다는 시각은 편견일지 모른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아시아의 네 마리 용(홍콩, 대만, 한국, 싱가포르)을 중심으로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가 주목을 받았다(Huntington, 1997). 서구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본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에 대항적인 개념인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이 등장하기까지 했지만 흔히 회자되는 ‘아시아적인 가치’는 ‘동아시아’적 가치, 즉 가족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와 같은 것에 한정되고 정책적으로는 중앙집권적인 정책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김경동, 2011; 신현중, 1997). 즉

1) 본 연구는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이나 한국과 일본 등 소수의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회적 특성상 진로체험활동보다는 진로교육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실정므로 부득이하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진로체험활동 뿐 아니라 진로교육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보다 자세히 서술하였다.

대체로 아시아적 가치란 지역적으로 동아시아라는 제한적인 지역의 가치일 뿐이다. 장기적인 전망들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심지어 교육이나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아시아적 가치’가 단순히 동아시아의 가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잠룡들은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Huntington, 1997). 헌팅턴(Huntington, 1997)과 사이몬(Simon, 2014) 등의 전망치처럼 중국과 인도에 주목하는 것은 이미 흔한 일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헌팅턴이 예견하듯이 2020년까지 몇몇 아시아 국가들의 약진은 주목할 만하다. 단순히 경제력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력을 토대로 중등교육 취학을 등 여타의 지표들도 동반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김경근, 2004), 장기적으로 아시아의 상황은 현재의 상황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PWC(Price Waterhouse Coopers, 2017)는 최근 2050년의 전망을 통해 중국, 인도는 물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란 등 아시아 국가의 GDP가 한국을 앞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약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 때쯤이면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 양상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교육 상황을 비교하는 일은 미래에 부상할 새로운 ‘아시아적 가치’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일본과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을 제외하면 현시점에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상황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체험’이라는 요소에 방점을 찍고 보면 큰 틀에서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교육은 물론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진로교육보다는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의 진로교육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활동’의 외연을 넓혀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2장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이 같이 ‘진로체험활동’의 외연을 넓혀서 비교하게 되면 각국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의 변화가 국가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교교육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아시아 각국의 진로체험활동이나 진로교육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거의 축적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의 진로교육사례가 한국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유사하고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소개되고 있으나 이 역시 단편적으로 소개되었을 뿐이다. 아시아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국가만 참여했다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12년에 실시된 PISA 조사의 진로교육 관련 조사자료는 아시아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유일한 자료이다. 특히 2012년 PISA 조사의 부가조사로 이루어진 진로교육조사는 불충분하나마 아시아 국가 간 진로교육을 비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2016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이 조사결과로부터

아시아 국가 간 진로교육의 비교를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2012년 PISA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진로체험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청소년이 지각한 직업역량도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체험의 양이 낮았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역량을 낮게 인식한 그룹에 속했다. 이 같은 결과는 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하는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준다. ‘왜, 진로체험활동을 많이 하는 나라가 그 활동을 통해서 직업역량을 계발했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가’ 라는 질문과 관련된다. 이 질문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왜,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의 경험률이 낮으며 그 경험이 자신의 직업역량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은가’ 라는 질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질문을 다시 양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진로교육에 던져보면 ‘진로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의 직업역량을 키우는 데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 라는 질문이 될 것이다.

2012년 PISA 자료 분석에 대한 내용을 한국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Sweet 등(2014)이 2012년 PISA 자료를 분석한대로 한국은 같은 아시아에 위치해 있는 상하이, 마카오, 홍콩 등 중국의 도시와 도시국가 싱가포르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 속하였다. 단 한국은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의 기회가 많고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직업역량도 높게 나왔다. 그러나 이지연(2015)이 지적한 대로 한국은 진로체험활동 기회의 양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직업역량은 높지 않았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정책의 효율성이 낮다고 선불리 결론지을 수도 없다. 단지 Sweet 등(2014)의 연구결과에서 한국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역량이 낮게 지각하는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Sweet 등(2014)은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직업역량은 ‘전문적인’ 진로상담의 기회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진로체험활동의 양보다는 체험의 질이 직업역량 향상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2012 PISA 조사에 의하면, 한국은 “전문적인” 진로상담의 기회가 낮은 국가에 속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진로체험활동의 질이 전문적인 진로상담의 유무에 의해 결정된다는 국내 연구결과(황매향, 2016)를 종합하면, 청소년들의 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활동의 양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체험활동의 질 역시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진로체험현황은 2012년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012년도 조사시점 당시 한국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지 않았고 「진로교육법」도 제정되지 않았으며 진로진학상담교사도 일부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었다. 이후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16년에는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다. 자유학기제에서 진로체험활

동만이 강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의 기회는 많아졌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2015년과 2016년에 실시된 「진로교육현황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2016)에서도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까지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었다(교육부, 2016). 분명히 2012년에 비해 진로체험활동의 상황은 많이 진전되었다. 즉 진로체험활동의 양도 증가하였고 진로체험활동의 질 확보를 위한 조건도 강화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정보만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직업역량이 높아졌는지 알 수는 없다. 단 2016년 1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참여실태조사」의 결과를 비롯한 많은 연구들이 진로체험활동 참여가 진로성숙의 결과(김현철·백혜정·이지연, 2016)를 가져온다는 점을 밝히고 있어 진로체험활동 참여도와 진로성숙이나 직업역량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2012년 PISA 조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체험활동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몇몇 연구들(김신영, 최운실, 2014; 어운경, 2015; 최운정, 2012)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직업역량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시 2012년에 실시된 PISA 조사의 진로교육 관련 조사 자료로 돌아가 보자. 싱가포르는 2012 PISA 조사결과 한국과 근접한 위치에 있지만 양 국가의 교육시스템은 매우 다르며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다. 진로체험활동의 양과 지각된 역량의 수준만을 보면 한국과 싱가포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지만 작동시스템은 크게 다를 것으로 추측된다. 나머지 상하이, 홍콩, 마카오는 한국이나 싱가포르에 비해서 진로체험활동의 양과 지각된 직업역량수준이 낮지만 중국 내에서 이 세 도시는 어느 정도 교육시스템이 갖춰지고 교육열도 있는 도시라는 측면에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일정 수준 진로체험활동의 기회가 주어지고 어느 정도의 직업역량을 갖추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2012 PISA 진로교육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다른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이 얼마나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부터 습득되었다고 생각하는 직업역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할 수 없다. 만일 2012 PISA 조사결과에 따른 국가 간 비교에서 드러나는 진로체험활동의 양과 직업역량 수준간의 관계가 보편적인 패턴이라면 아마도 일본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 싱가포르 그리고 마카오, 홍콩, 상하이 등 도시에 비해서 진로체험활동의 양은 적고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직업역량의 수준은 낮을 것이다.

일본이 2012 PISA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짧은 기간 내에 배치하지는 않았지만 오랜 기간 학교를 중심으로 진로담당교사를 둔 역사(Mimura, 2015)나 학교가 조직적으로 직업알선을 해 온 역사(荊屋, 1991; 김현철, 2002), 그리고 1990년대 말 시작한 「유토리 교육」으로 시작하여 2004년에 시작된 「커리어 스타트 워크」 사업 등의 성과(김현철, 2013)를 고려하면 일본은 적어도 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가장 많거나 최소한 한국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2016년 연구에서 분석한 아시아 국가들의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사회환경 상황, 즉 각국의 인구, 노동, 경제, 교육 등의 상황에 비춰보면(김현철 외, 2016) 진로체험활동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 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룰마니(Arulmami, 2015; 2017)의 지적대로 ‘진로(Career)’는 서구적인 개념으로 진로교육 및 진로 체험활동은 어느 정도 근대화가 진전된 국가에서나 관심을 갖는 영역이다. 근대적인 직업과 노동시장의 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중등학교 취학율이 일정수준에 도달한 국가에서의 관심사인 것이다. 즉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산업발달 및 교육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관심 밖의 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향후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체험 및 교육 상황이 크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 활동 및 교육에 있어서 ‘아시아적 가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의 변화가 국가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아시아 및 국내 진로체험활동의 현실 속에서 본 연구는 서두에 제시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7년 5월에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학술회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국제교육진로지도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duc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IAEVG) 산하 학회인 아시아진로개발학회(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Career Development, 이하 ARACD)가 주도적으로 준비했다.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과제로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내 협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하였고 ARACD는 해외 협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하였다. ARACD는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 전문가들 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학회이다. 따라서 이 학회와의 국제학술회의의 공동 개최는 아시아 각국의 비교연구를 위해서 먼저 각 아시아 국가의 진로교육 연구자들의 협력체계가 필요할 뿐 아니라 향후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을 보다 심도 있게 비교하기 위해서도 전문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되었다. 2017년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참가국 및 도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0개 지역(9개국, 1개 도시)으로 모두 ARACD 회원국이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2012년 PISA조사 참가지역인 홍콩이 참여하였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2012년 PISA 조사 참가국인 싱가포르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참가하였고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서남아시아에서는 이란이 참가하였다. 국제학술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각국의 진로교육 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발표하였고 아시아 각국 연구자들의 진로교육 관련 연구성과도 발표하였다. 이로써 아시아 국가의 진로교육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최초의 학술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었다. 또한 본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아시아 각국 연구자들은 공동의 아젠다를 만들고 상호협력의 방안을 모색했다. ARACD는 지금까지 11회에 걸쳐 회원국 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왔으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최가 된 2017년 국제학술회의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국가가 참여했으며 지금까지 수행된 적이 없었던 국가 간 비교자료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의 국가보고서를 기초자료로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 상황을 비교분석하고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포함한 진로교육의 개선방안을 ‘총괄보고서’에 수록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사례집을 별권으로 발간하였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연구내용

(1)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 분석

- 진로교육과 관련된 행정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의 진로교육 정책의 흐름과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참여실태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2년 이후 조사해 온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및 2015년과 2016년에 실시한 「진로교육현황조사」 등 진로체험활동 관련 조사 자료의 비교분석 및 심층 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2) 아시아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 비교분석

- 2017년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각국의 국가보고서 및 각국 관련 보고서 분석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별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 아시아 각국에서 생산하는 통계자료나 정책관련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 진로교육 상황을 비교분석하였다.

(3) 청소년 진로체험 활성화 방안 제시

- 국내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분석 자료, 아시아 국가별 진로교육 현황 비교자료 그리고 2016년에 제시한 정책대안을 토대로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진로교육법 등 관련법 및 조례 개선방안, 직업체험터 및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자원 인프라 확충 및 개선방안,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방안,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수집·분석하였다.

(4) 아시아 지역 청소년 진로교육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 마련

-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교육관련 연구와 정책의 개선을 위한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 연구협의체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아시아 국가 간 진로교육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을 위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진로교육현황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2016),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참여실태 조사」(2016) 등 국내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 관련 조사보고서를 분석하였다.
- 2017년 본원 주관 국제학술회의를 통해서 발표된 국가보고서 및 각국 관련 통계 및 문헌자료를 분석하였다.

(2) 사례조사연구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지자체·교육청 및 지역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현장견학 및 인터뷰를 통해서 사례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 국제학술회의에서 참가한 국가의 사례를 각국의 진로교육현황에 수록하였으며 한국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진로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일본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국제학술회의 중 한일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원탁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 출장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 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는 별권의 사례집으로 발간하였다. 학교의 사례와 지역 사례, 체험의 사례 등으로 분류하여 사례집을 구성하였다.

(3) 전문가 자문회의

- 국내외 진로교육현황 분석을 위해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국제학술회의 각국 국가보고서 검토를 위한 전문가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4)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 진로교육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제안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교육청 등과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5) 국제학술회의 개최

-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Career Education and VET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for Youth in Asia)’ 을 주제로 5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서울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 국제학술회의 준비 및 개최과정은 다음과 같다(〈표 I-1〉 참조).
 - ① 아시아진로개발학회(ARACD)와 공동으로 ARACD 회원국 이사와 임원진을 중심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총 4회 이상 실행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에 각 1회씩 총2회에 걸쳐 국제학술회의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② 국내 진로교육 관련 학회를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주최 기관으로 참가하였고 기타 일본의

진로교육 관련 학회와 한국의 여성가족부, 진로교육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이 후원 기관으로 참가하였다. 국내 진로교육 관련 학회 회장과 연구진을 중심으로 국내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내 학회는 2일차의 개인발표 세션의 사회자와 발표자 구성과 운영을 주관하였다.

- ③ 국제학술회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아시아 진로개발학회 홈페이지(<http://www.ARACD.asia>)와 연동하여 행사 홍보와 함께 참가국과 개인발표자 및 참가자 접수를 진행하였다.
- 5월 17일에는 10개 국가 및 지역 보고서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국가 및 지역 보고서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파키스탄의 대표가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 국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I-2〉 참조).
 - ① 학교교육시스템(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을 포함한 학교체제도, 의무교육 이후의 진학률과 중학교 중퇴율 등 교육시스템의 특징 등)
 - ② 학교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의 특징(실업률, NEET 현황 등 청소년노동시장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고등교육 진학을 및 취업률 등 의무교육 이후 또는 중등교육 졸업 후의 진로상황, 진로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등)
 - ③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정책 개요 및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평가
 - ④ 중등학교 중퇴자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교육, 직업훈련, 직업교육정책의 개요 및 평가
 - ⑤ 청소년대상 진로교육과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의 대표적인 사례(정책 또는 프로그램)
 - ⑥ 이상의 내용과 관련된 추가적인 자원출처 제시

표 1-1 국제학술회의 준비 및 개최 과정

일정	내용
2016년 7월	◦ 아시아진로개발학회와의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실행위원회 구성
2016년 9월	◦ 국제학술회의 주제 선정(실행위원회 개최 및 온라인 협의)
2016년 10월	◦ 국제학술회의 일본 홍보(제38차 일본진로교육학회 삿포로 대회) 및 실행위원회 개최
2016년 12월	◦ 아시아진로개발학회와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준비 제1차 워크숍 개최
2017년 1월	◦ 아시아진로개발학회와 공동 국제학술회의 개최 준비 제2차 워크숍 개최
2017년 2월	◦ 국제학술회의 한국 실행위원회 구성
2017년 2월	◦ 국제학술회의 홈페이지 구축(https://www.nypiarcd2017.com) 및 ARACD(http://www.ARACD.asia) 홈페이지와 연동
2017년 2월	◦ 국제학술회의 국가보고서 발표 참가국 접수 완료
2017년 3월	◦ 국제학술회의 한국실행위원회 개최(공동 주최 및 후원기관 협력사항 협의)
2017년 3월	◦ 국제학술회의 개인발표자 접수 완료
2017년 5월 17일	◦ 국제학술회의 개최(1일차) 아시아 각국 국가 및 지역 보고서 발표
2017년 5월 18일	◦ 국제학술회의 개최(2일차) 각국 개인발표세션 및 한일 진로교육전문가 특별세션 개최

표 1-2 국가 및 지역 보고서 발표 주제 일람

주제	발표 주제/발표자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 훈련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for Youth in Asia)	① 한국의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Country Report for Career Education in Korea) /Ji-Yeon Lee
	②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n Japan) /Fujita Teruyuki
	③ 대만의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Career Education in Taiwan) /Hsiu-Lan Tien
	④ 홍콩의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Career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in Hong Kong) /Mantak Yuen
	⑤ 말레이시아의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Career Education and VET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n Malaysia) /Steven Krauss
	⑥ 싱가포르의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Career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Singapore) /Tan Soo Yin
	⑦ 인도네시아의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NDONESIA COUNTRY REPORT) /Mohamad Surya
	⑧ 인도의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Career Education and Job Training in Asian Countries Country Paper from India) /Gideon Arulmani
	⑨ 파키스탄의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Career Education and VET for Youth in Asia: Pakistan- Overview & Career Education Initiatives) /Raza Abbas
	⑩ 이란의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A Report of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Iran) /Saeid Safei Movahhed

○ 5월 18일에는 개인학술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총 16개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주제영역은 다음과 같다(〈표 1-3〉 참조).

- ①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과 진로상담
- ② 진로발달을 위한 대안적이거나 혁신적인 진로교육 또는 진로상담
- ③ 직업교육, 직업훈련, 도제교육 및 창업프로그램
- ④ 청소년 진로발달을 위한 부모와 지역의 역할과 지원

표 1-3 개인별 구두발표 주제 일람

주제영역	발표 주제
1세션 진로체험의 효과	① 사회인지진로이론이 제안하는 삶의 만족 모형: 이해와 적용 (Career/academic satisfac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adolescents)
	② 부모의 지원 형태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arents' Support types on Adolescents' Career Maturity)
	③ 학생 진로개발 프로그램의 효과: 졸업생과의 인터뷰 (The effect of students' career development program: interviews with alumni)
	④ 자신감을 잃은 학생들을 위한 내러티브적 접근의 진로교육 (Career Education to the students who don't have confidence by narrative approach)
2세션 진로교육이론과 실제	① 한국에서 통합적인 STEAM 교육의 효과: 진로관련효과에 대한 예비메타분석 (Effects of integrative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ematics (STEAM) education in South Korea: A preliminary meta-analysis on career related benefits)
	② 문화적 준비: 개인의 진로개발 열망과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참여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 (Cultural Preparedness: A Framework to understand the interplay between individuals' career development aspirations and their engagement with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③ 미래의 국제적인 인물 양성을 위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 탐색 (Navigating International Education Programs to Prepare for the Global Jobs of Tomorrow)
	④ 인생 이야기를 바탕으로 진로 보드게임으로 만들기 (Making career board game from life story)

주제영역	발표 주제
3세션 진로상담과 진로교육의 성과	① 북한이탈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위한 포괄적인 접근방법 (The Comprehensive Career Guidance Approach for North Korean young Refugees)
	② 어떻게 학생들을 국제적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How can we foster students with global competency?)
	③ 아시아 부모 - 자녀의 진로 상담 및 지도를 위한 브릿징 대화 (Asian Parents- Bridging Dialogue for Children' s Career Counseling & Guidance)
	④ 한국 중학생의 학교 진로교육 활동 참여 효과 분석 (The Effects of School Career Education on the Educational Growth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4세션 직업교육과 생애설계 교육	① 'HKACMGM(홍콩진로지도전문가협회)' 이 홍콩에서 60년간 기여하며 축적한 생애설계교육 및 진로지도에 대한 평가 (A Review of HKACMGM' s 6 - decade contribution to Life Planning Education and Career Guidance in Hong Kong)
	② 변화하는 시대의 진로 교육: 일, 진로적응, 맥락적 요인을 중심으로 (Career Education in a Changing Society: Meeting New Demands for Career Education)
	③ 한국 직업교육의 제도 및 정책 (TVET System and Policies in Korea)
	④ 직업교육 이수자들의 특성 및 노동시장 이행 성과(Young people in vocational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labour outcomes)

○ 5월 18일에는 한국과 일본의 진로담당교사와 현장전문가들이 함께 양국의 진로교육의 현황과 전망을 논의하는 특별 세션을 운영하였다. 여기에는 11명의 한국 진로교육 전문가와 13명의 일본 진로교육 전문가가 참석하였다(〈표 I-4〉 참조).

표 1-4 한·일 진로교육 비교 특별세션 발표 주제 일람

주제영역	발표 주제
한국사례	① 한국의 진로교육 정책사례와 진단
	② 한국 진로교육의 개선점 및 사례
	③ 특성화고등학교 진로교육 사례
	④ 자유학기제에서의 진로교육 운영사례
	⑤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 동네 일터 스탬프 투어
	⑥ 지역자원연계 직업체험의 날, 마포진로박람회 사례
	⑦ 지역사회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사례 - 약령직업탐험대
	⑧ 일에 대한 호기심, 질문이 생생한 '초등 동네일터스탬프 투어'
	⑨ 꿈꾸는 날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콘서트
	⑩ Star Gate 진로학교 운영사례
	⑪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의 진로교육사례
일본사례	① 배움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커리어 교육의 추진과 그 과제
	② 식품제조 공장에서, 지역에서, 커리어를 추구하는 고등학생
	③ 사회적 포섭을 지향하는 커리어 교육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④ 사립 레이타쿠 중·고등학교 커리어 교육에 대하여
	⑤ 학교 교육에 특화된 컨설팅으로 사회와 연결된 커리어 교육 지원을 실현
	⑥ 커리어 교육에서 익힐 수 있는 능력은 반영한 초등학교의 학급활동 - 보호자의 바람을 학급 목표로 반영시킨 활동을 통하여
	⑦ 오키나와현의 초 중생에 대한 산업 단체와 연계된 업계별 커리어 교육
	⑧ 마을의 발전에 열정을 다한 조상 되돌아보기와 자신만의 마을만들기, 다양한 일과 자신의 흥미를 연결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 - '꿈·마을 두근 두근 워크 프로그램' 에 대하여
	⑨ 도쿄도의 교외와 도심부의 커리어 교육을 비교하며
	⑩ 일본의 전문학교 - 직업과 관련된 '배움' 과 '교육' 시스템

- 국제학술회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시아진로개발학회,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여성가족부, 서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협의회, 서울보라매청소년수련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일본진로교육연구회, 일본진로지도협회가 후원하였다.

주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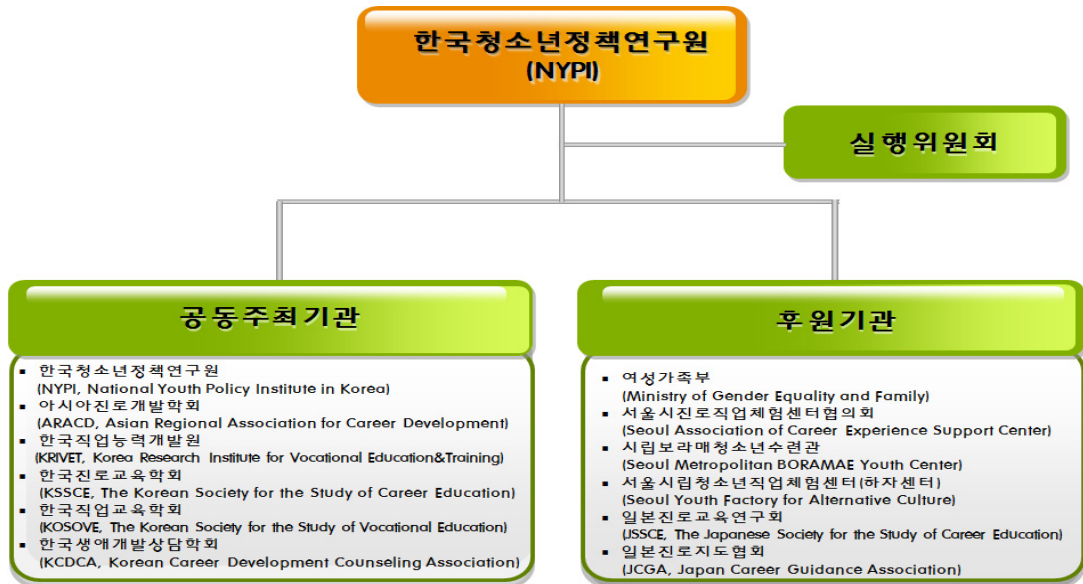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Korea)
- 아시아진로개발학회(ARACD, Asian Regional Association for Career Development)
- 한국진로교육학회(KSSCE,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 한국직업교육학회(KOSOVE, Th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Vocational Education)
- 한국생애개발상담학회(KCDCA, Korean Career Development Counseling Association)
-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후원기관

-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서울시진로직업체험센터협의회(Seoul Association of Career Experience Support Center)
 -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Seoul Metropolitan BORAMAE Youth Center)
 -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Seoul Youth Factory for Alternative Culture)
 - 일본진로교육연구회(JSSCE,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tudy of Career Education)
 - 일본진로지도협회(JCGA, Japan Career Guidance Association)
- 2017년 2월에 국제학술회의 홈페이지(<https://www.nypiarcd2017.com>)를 구축하여 행사를 홍보하고, 각국 및 각 지역 발표자와 개인발표자 접수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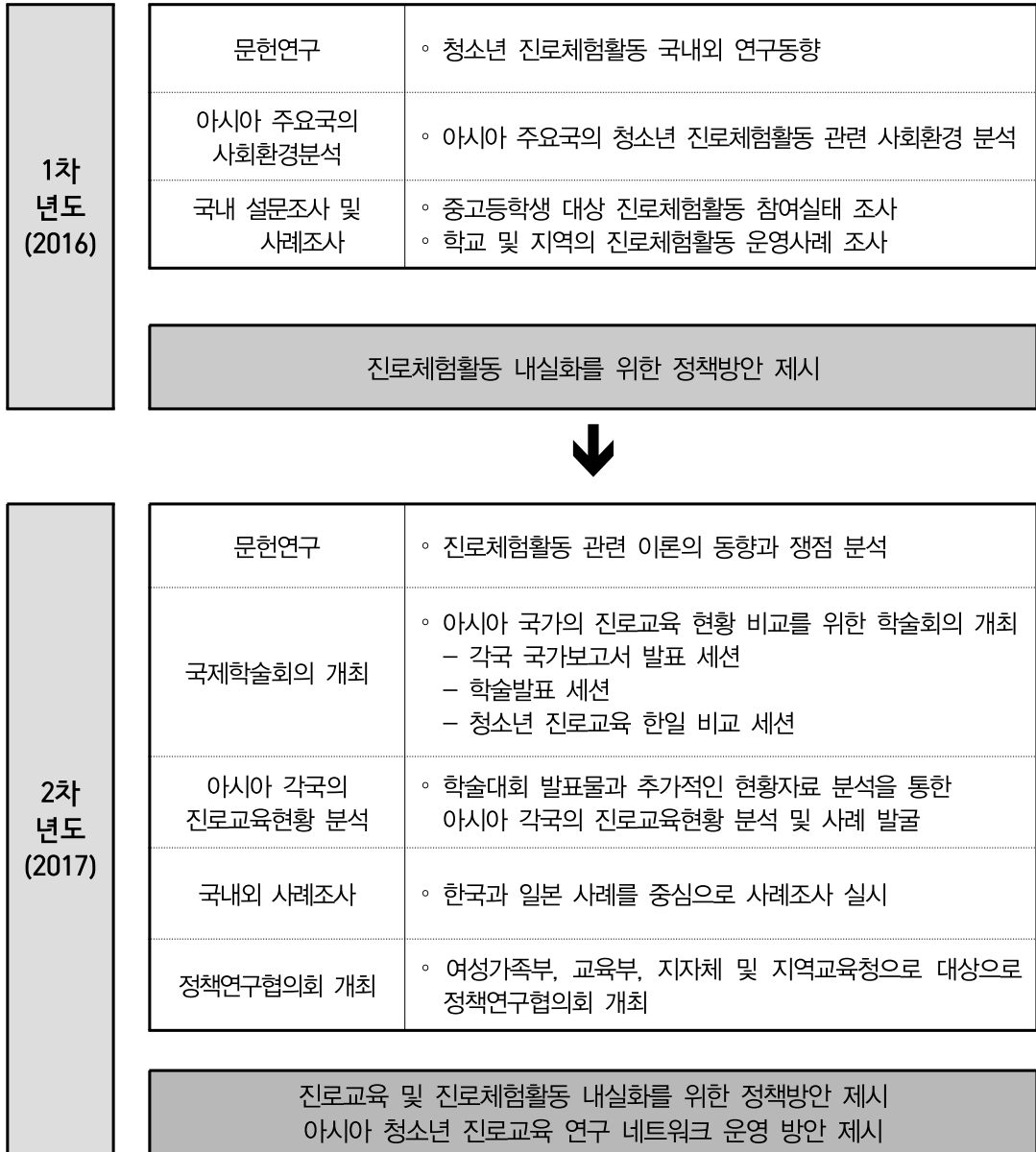


【그림 1-1】 국제학술회의 공식 홈페이지 화면



【그림 1-2】 국제학술회의 공동 주최 및 후원기관

3. 연구추진체계



【그림 1-3】 연구추진체계

제 II 장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 비교를 위한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적 논의 : 동향과 쟁점
2.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의 쟁점

제 II 장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 비교를 위한 이론적 논의

1.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적 논의 : 동향과 쟁점

1) 진로체험활동의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과의 관련성

진로교육(Career Education)과 관련된 개념으로는 진로지도(Career Guidance),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진로상담(Career Counseling), 진로정보제공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지만(진미석, 손유미, 김도협, 2012; 한국진로교육학회, 2000), 각 개념들간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된 것은 아니다. 진미석 등이 지적한대로 진로교육이 주로 관련교과목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자성을 찾기 어려운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진미석, 손유미, 김도협, 2012:352). 더욱이 진로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이 추진되면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활동 간의 관계가 다소 혼돈스럽게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로교육이 직업교육 개념으로부터 확장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진로체험활동은 직업교육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진로체험활동이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예외적인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진로체험활동이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 진로체험활동과 진로교육 간의 관련성

한국에서 진로교육(Career Education)과 진로지도(Career Guidance)의 개념이 새롭게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00: 5). 반면 진로체험활동이 강조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어서 진로체험활동을 진로교육이론에서 어떻게 개념화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진로체험활동은 간단히 ‘진로교육의 일환으로서 체험학습 형태로 이어지는 진로지도 활동’ (김기현 외, 2014)으로 정의될 수 있다. 김승보, 주휘정, 김영식 (2016)은 체험학습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여 ‘체험·실천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반추함으로써 진로개발이나 진로성숙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태도·사고방식을 스스로 발전시키도록 북돋는 학습의 기법(혹은 형태)’ 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진로교육의 방법과 과정 그리고 목표를 포함하고 있어 진로체험활동의 성격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 정의에 따르면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교육 또는 직업교육의 수단이다. 정책적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육정책을 통해 강조되면서 교과와는 구분되는 비교과활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진로교육에 있어서 체험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첫째, 진로교육이 기존의 교과위주 또는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교육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흔히 ‘학교교육이 학문적이고 주지적인 면으로만 편중됨으로써 조화를 잃고 있다’ 는 점이 강조되는 것은(한국진로교육학회, 2000: 4) 그 만큼 체험이 진로교육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 피아제(J. Piaget), 학습과정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한 존 듀이(John Dewey), 능동적 참여학습을 중요시한 레빈(Kurt Lewin), 구체적인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인 개념화, 능동적 실험의 과정으로 경험학습의 과정의 설명한 콜브(David A. Kolb) 등의 경험주의 이론들은 이론적인 계보는 달라도 주지적인 교육 일변도의 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경험 또는 체험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진로체험활동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각 이론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험학습 관련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첫째, 체험활동이 학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본다는 점, 둘째, 경험을 통해서 ‘지식, 기능, 태도를 전환시키거나’ (Javis, 1987: 이지연, 2016에서 재인용),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수정하여 해석하는 과정’ (Mezirow, 1991: 이지연, 2016에서 재인용)을 중요시 한다는 점, 셋째, 진정한 학습은 바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교육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만 진정한 진로교육은 진로체험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실제로 진로교육은 거의 대부분 진로체험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진로체험이란 직장체험이나 직업체험 등 직접적인 체험을 포괄하는 것은 물론 진로멘토링이나 진로상담활동까지 포괄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된다. 진로체험활동의 영역을 어디까지 포괄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교육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며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II-1>과 같이 진로교육법

제2조에서는 진로교육,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정보의 용어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은 <표 II-2>, <표 II-3>과 같이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로수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진로체험활동에 포함된다. 교과통합적인 진로교육의 경우에도 진로체험활동이 중요한 매개수단이 된다(정윤경 외, 2010)²⁾. 따라서 진로체험활동을 넓은 의미로 정의할 때는 내용상으로는 진로교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2016년도 연구에서 분류한 진로체험활동의 영역구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2016년도 연구에서는 간접체험활동과 직업체험활동 그리고 혼합형(원격화상진로멘토링)으로 구분하였지만 <표 II-4>, 기타의 진로체험활동도 혼합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진로관련 수업이나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혼용되기 때문에 위의 세 가지 진로체험활동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2012년 PISA 조사의 진로교육 부가조사에서도 진로체험활동의 범위를 직간접적인 직업체험활동, 진로상담활동,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온오프상의 정보활동 등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다(<표 II-5>).

결국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교육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교육의 일부분이라기보다는 진로교육의 핵심적인 수단이거나 대부분의 진로교육을 이행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진로체험활동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표 II-1 진로체험 관련 용어 정리

구분	내용
진로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
진로상담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 포함)
진로체험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
진로정보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

출처: 진로교육법 제2조

2) 정윤경 등(2010)이 제시하고 있는 교과연계 진로교육은 크게 교과와 비교과(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연계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교과든 교과외든 관련된 적절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160쪽).

표 II-2 학교에서의 진로체험 활동 유형 및 특징

진로체험 유형	체험방식	장점	단점	주체 기관1)	
직접 체험	인턴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현장에서 일정기간동안 업무보조, 견습 등 실제로 근무를 하며 해당 직업 및 직장을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진로체험 ■ 향후 취업 시 경력활용 가능 ■ 직업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 체험의 유용성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시간경제적 부담 ■ 일시에 다수를 수용하기 어려움 ■ 재학생들의 경우 장기간 참여가 어려움 	학교 밖
	현장직업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원하는 직업현장에 개인별, 조별로 방문하여 실제 업무 체험 및 멘토 인터뷰를 통해 직업세계 탐색 및 일하는 태도를 배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견학보다 수준 높은 진로체험 가능 ■ 자기주도적 체험 ■ 학생의 높은 관심 집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및 직업인의 인식이 부족할 경우 실제적인 진로탐색 어려움 ■ 기관의 체계적 지원 및 운영 필요 	학교 밖
	현장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로 인솔자를 따라 작업장을 방문하여 일하는 모습을 단시간(2~3시간)에 순차적으로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 체험 ■ 학교 또는 일터의 관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운영하기 쉬운 방식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솔자의 역할에 따라 교육적 효과가 다를 수 있음 ■ 현장직업체험, 인턴십에 비해 체험의 질적 수준이 낮음 	학교 밖
	직업체험의 날 (부모일터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체험의 날을 운영하여 부모를 비롯한 친지의 직업세계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가져 봄 ■ 학생 진로선택을 제고하고 인성교육의 측면에서 부모의 노고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높은 관심, 집중도 ■ 친밀한 관계에서 수준 높은 진로체험 가능 ■ 진로탐색 외에도 가족관계개선·인성함양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 달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일터 방문 자녀를 환영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에서 부모·자녀·일터 모두에게 부담 ■ 부모의 대응에 따라 체험의 질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학교 밖
	직업인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개인·그룹별로 직업인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일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 학습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적 진로정보 탐색이 가능 ■ 학생의 높은 관심, 집중도 ■ 해당 직업을 대하는 직업인의 직업가치관 이해에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섭외준비 어려움 ■ 직업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음 	학교안 밖

진로체험 유형		체험방식	장점	단점	주체 기관)
	진로 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직업체험·상담·멘토링·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6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계적으로 진로탐색·진로선택 지원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용 부담 문제 학생의 자발적 참여보다는 학부모나 교사의 권유에 의존할 가능성 있음 	학교 밖
	직업 체험관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시설에 다양한 직종의 직업현장(기계설비 및 기자재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만들어 상시 방문·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한 장소에서 다양한 직업을 접할 수 있음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직업 현장감 다양하고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체험관 설치, 설비 및 운영비용의 부담 	학교 밖
	직업인 학교 강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의 직업인을 학교 및 기관에 초청하여 강연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 학생 참여 가능 학생의 요구에 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인 선정의 어려움 직업인에게 의존 직업에 대한 개별 궁금증 충족시키기 어려움 	학교 안
간접 체험	연수 및 대화시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 주간 등을 이용하여 성공한 직장인, 전문가, 선배와의 장을 만들어 대화를 하고 질문도 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직업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 학생 참여 가능 직업인과 친밀한 관계 형성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에 아이스브레이크 필요 직업인 선정의 어려움 직업인에게 의존 	학교 안밖
	시청각 직업정보 자료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직업을 소개하는 시청각 영상자료, 도서자료를 통해 직업을 이해 학교정보자료실 및 컴퓨터실 활용 영상자료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직업을 소개하는 시청각 영상자료, 도서자료를 통해 직업을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험 범위가 제한적 직업 현장감 부족 자료실 설치, 설비 및 운영 비용 부담 	학교 안
	진로지도 집단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잘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 진로탐색 지원 및 진로성숙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로선택에 필요한 요소 습득 성숙한 진로의식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그램 운영자 전문성에 따라 효과 차별 개별 직업세계에 대한 궁금증 해결 미흡 	학교 밖

진로체험 유형	체험방식	장점	단점	주체 기관)
학급 게시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 환경미화 진로란 등을 이용하여 진로정보를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주도적 참여 가능 ■ 진로 관련 다양한 정보 공유 가능 ■ 시설 설치 및 운영이 시청각 자료에 비해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기를 갖고 있는 학생에게만 교육적 효과 있음. ■ 상호작용 결여 ■ 공급자 중심 	학교 안

출처: 이지연 외(2014). 안전한 진로체험 안내서(교사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 주체기관은 소재지에 따라 학교 안밖으로 구분.

표 II-3 진로체험을 하는 방법에 따른 유형 및 내용

유형	활동내용
현장직업체험형	- 학생들이 관공서, 회사, 병원, 가게, 시장과 같은 현장 직업 일터에서 직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 ※ 멘토 1인당 10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직업실무체험형 (모의일터 직업체험)	-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모의 일터에서 현장직업인과 인터뷰 및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체험하는 활동(현장직업인 멘토 필요) ※ 멘토 1인당 15명 내외 학생 지도 권장
현장견학형	-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과정, 산업 분야의 흐름과 전망 등을 개괄적으로 견학하는 활동
학과체험형	- 특성화고, 대학교(원)를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특정 학과와 관련된 직업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하는 활동
진로캠프형	-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직업체험·상담·멘토링·특강 등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활동(1일 6시간 이상 운영)
강연형·대화형	- 기업 CEO,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직업인들의 강연(대화)을 통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는 활동(대화형은 40명 내외 학생 기준)

출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 진로체험 매뉴얼.

표 II-4 진로체험활동의 유형 및 활동 내용

유형	활동내용
간접체험	영상미디어 자료활용, 전문직업인 초청, 진로상담(진로심리검사 포함)
직접체험	현장견학형, 학과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캠프형, 아르바이트 등 임금노동, 농업 및 상업 등 가내노동
혼합형	원격화상진로멘토링

출처: 김현철 외(2016).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2

표 II-5 PISA 2012 진로체험활동참여 문항: EC03

PISA 2012 진로체험활동참여 문항: EC03문항
● 인턴십 활동
● 직업체험(job Shadowing)이나 일터 방문
● 직업박람회 참여
● 학교진로상담교사와의 대화
● 학교 밖 진로상담사와의 대화
● 흥미, 능력 등에 대한 검사지 작성
● 인터넷을 활용한 진로 관련 정보 활용
● 조직화된 대학 투어활동
● 대학투어활동에 관한 인터넷 탐색활동

출처: 영문문항출처는 OECD(2011). Educational Career Questionnaire for PISA 2012, 국문문항출처는 이지연(2015). 학교 진로상담(지도) 종합 지원체계, 2015년 제4차 진로교육 국제포럼 자료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며, 김현철 외(2016)에 제시된 문항을 위의 항목으로 재구성함.

(2) 진로체험활동과 직업교육과의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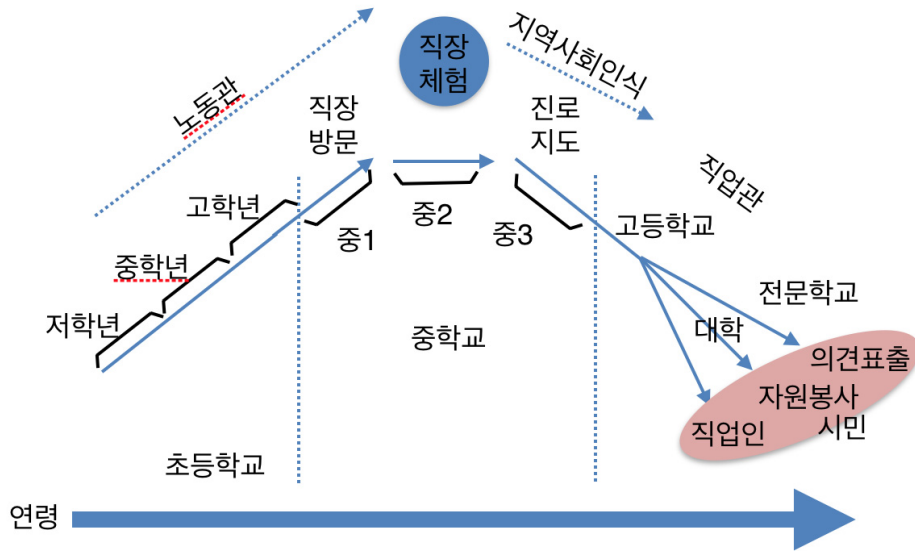
진로교육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이나 직업지도(Vocational Guidance)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지만 오늘날 직업은 대학 진학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사가 되었고 직업교육이나 직업지도가 일반 교양교육의 일부로서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00). 더욱이 지금처럼 청년의 취업난이 심각한 때에 진로교육과 진로체험활동은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과 더욱 깊게 관련된다.

직업교육이 구체적인 직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진로교육은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정의석, 2013). 진로교육은 일의 세계를 포함한 모든 인생진로문제와 관련시켜 재구조화하고 재편성하여 지도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한국진로교육학회, 2000: 6) 직업교육보다 상위개념이다. OECD가 직업과 교육을 연계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을 ‘작업 근로자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세계, 작업환경 속 업무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듯이(OECD, 1997: 이지연, 2016에서 재인용), 직업체험은 활동 구성 및 운영방식, 도제제도(Apprenticeship)와 직업체험(work experience), 그리고 방학이나 휴일을 활용하는 시간제 작업(part-time and holiday jobs) 등까지도 포함한다(이지연, 2016). 따라서 직업교육에서도 진로체험활동은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직업교육이나 직업지도에서는 교과지도 이외에 직업에 대한 정보나 취업정보 등이 중요하고 기술교육, 직업훈련과 같은 체험이나 경험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직업교육이 인문교육과 차별화되면서 진로체험활동을 인문교육과정의 보완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이 강조되면서 진로체험활동은 거의 비교과활동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직업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로의 진학이 진로교육의 중요한 관심사인 이상 중학교에서도 직업교육은 진로교육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

진로체험활동과 직업교육의 관계는 학교급별 또는 연령별 진로교육의 단계로 구분할 때 보다 명확해진다. 일반적으로 학교급별로 나눠서 분류하여 초등학교는 진로인식의 단계 중학교는 진로탐색의 단계 고등학교는 진로준비 및 결정의 단계로 구분하곤 한다(이지연, 2016; 한국진로교육학회, 2000: 32~37).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학생에 대한 5일간의 직업체험활동을 ‘직장체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있다(文部科学省, 2017).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탐색활동은 직업체험이라기보다는 직장체험이라고 본다. 초등학교에서 노동관 등 진로의식을 갖게 한다면 중학교 직장체험을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 내에서의 직업의 의미 등 지역사회를 인식하는 단계이며 고등학교 단계에 가서는 자신의 진로를 보다 명확히 하여 직업교육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로체험활동이라고 할 때 청소년기의 직업교육은 진로체험활동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1】 학교급별 진로교육 단계

출처: 大塚様(2017). 小中高生のキャリア発達段階(미발간자료).

그러나 중등교육이 보편적인 교육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 즉 중등학교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는 진로교육보다는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국가간의 진로체험활동의 상황을 비교할 때는 직업교육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나 국가간 비교를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직업교육은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간의 진로체험활동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포괄하여 비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혼돈이론을 응용한 진로교육이론

(1) 직업매칭이론으로서의 진로교육이론

진로교육이론은 주로 진로상담이론의 틀 안에서 설명되어 왔고 그 이론적 뿌리는 학습이론에 있다. 그러나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지는 않다. 진로체험활동과 관련된 이론이 체험학습 관련 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진로교육에서 진로체험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김현철 외, 2016: 22). 성격이론의 하나인 홀랜드의 RIASEC이론은 직업심리학과 진로상담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으로 평가된다(김봉환 외, 2015:37). 그 밖에 많은 이론의 갈래가 있지만 진로교육 관련 이론의 기본전제 중의 하나는 직업에 대한 매칭(matching)이다(김봉환 외, 2015:16). 달리 말하면 진로교육이론은 고도로 개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인과 직업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과학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 개인의 특성을 식별하여 직업특성에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이다(김봉환 외, 2015:18). 대부분의 전통이론들은 파슨스(Parsons) 이론의 틀에서 대체적으로 수용되고 있다(손은령, 2009). 파슨스는 개인분석, 직업분석, 과학적 조언을 통한 매칭(matching)을 주장하였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포함한 개인적 성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어진 직업에서의 성공조건 및 보상과 승진에 관한 정보를 알아야 하며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과정에서 ‘진실한 추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파슨스 주장의 요점이다(김봉환 외, 2015:16).

슈퍼(Super)의 진로발달이론은 이러한 매칭과정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직업발달과정은 주로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다. 즉 그것은 타고난 적성과 생리적 체질,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역할 수행의 결과로 선배나 동료로부터 받은 인정에 대한 평가 등이 상호작용해서 형성되는 자아개념 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타협과정이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00:47). 이 타협과정에 진로체험활동이 개입된다. 개인과 사회적 요인간의 타협, 즉, 자아개념과 현실간의 타협은 직업발달과정에서의 역할 수행의 과정이며 이러한 역할수행은 환상, 상담, 면접 또는 학습이나 클럽에서의 활동과 여가활동이나 취업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00:47). 이 이론은 파슨스(Parsons)의 이론보다 매칭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파슨스(Parsons) 등의 특성요인이론이든 슈퍼(Super) 등의 진로발달이론이든 그 밖의 욕구이론이나 사회학습이론이든 궁극적으로는 직업과의 연계, 직업과의 매칭을 위한 이론들이다(Holland, 1959;1997, Pryor & Bright, 2011:15에서 재인용). 단지 그 메카니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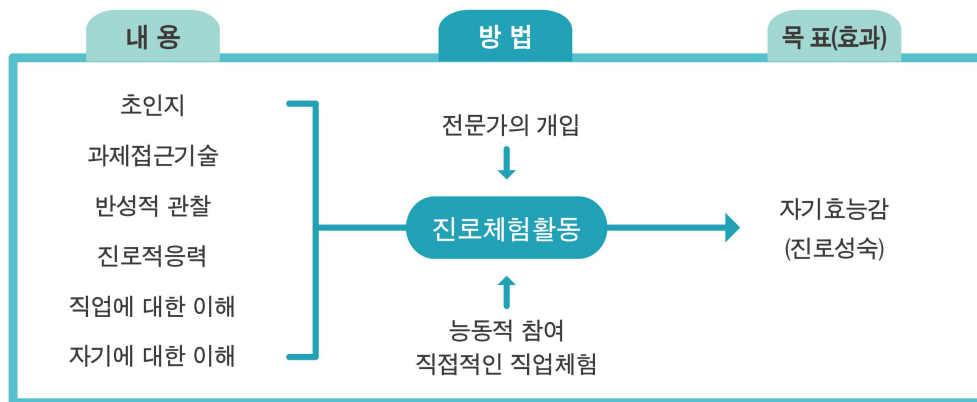
이러한 매칭이론들은 이론적인 한계가 명백하다. 특성이 직업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가의 쟁점을 포함한 검사도구가 갖는 예언타당도의 문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김봉환 외, 2015:19). 예언타당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윌리엄슨이 말한대로 인간의 내적인 요인, 이를테면 정서불안이 있다. 정서불안은 직업선택을 불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하도록 돕는 것이 진로교육의 목표이다(Williamson, 1939, 김봉환 외, 2015: 20에서 재인용). 그렇지만 정서불안과 같은 내적인 요인만이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다. 이후 많은 진로교육이론들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왔다.

2016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진로체험활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진로선택이론, 진로발달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의 이론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12가지 핵심개념을 도출한 바 있다(김현철 외, 2016:31).

- ① 자기에 대한 이해
- ② 직업에 대한 이해나 정보
- ③ 진로의사결정력
- ④ 진로적응력
- ⑤ 반성적 관찰
- ⑥ 초인지 기술
- ⑦ 과제접근기술
- ⑧ 능동적 참여
- ⑨ 우연기술의 습득
- ⑩ 시뮬레이션을 통한 직업체험
- ⑪ 자기효능감의 향상
- ⑫ 전문가의 개입

이 12가지 핵심개념은 서로 다른 수준의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이 개념들을 진로체험활동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목표(또는 효과)로 구분하여 도식적으로 제시하였다(그림 II-2).



【그림 II-2】 진로체험활동 관련 이론의 종합모형

출처: 김현철, 백혜정, 이지연 (2016).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림 II-2]는 진로교육의 내용, 방법, 목표(또는 효과), 즉 진로체험활동이나 진로교육 또는 직업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어떻게 운영되거나 실천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결국 적절한 내용과 적절한 방법의 선택(전문가의 개입이나 능동적 참여와 직접적인 직업체험 등)은 진로발달(진로성숙이나 진로자기효능감)을 높여주며 그 결과 보다 바람직한 또는 적절한 직업적 매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로교육이론들의 종합적인 결론이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진로교육이론은 직업매칭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진로체험활동은 직업적 매칭을 위한 진로교육의 수단으로 이해한다. OECD가 직업과 교육을 연계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을 ‘작업 근로자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세계, 작업환경 속 업무에 대해 경험할 수 있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도(OECD, 1997: 이지연, 2016에서 재인용)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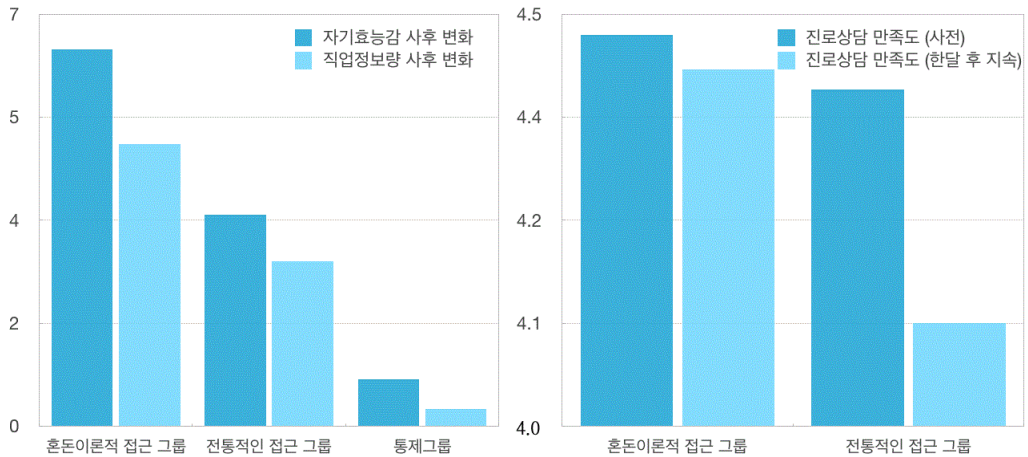
(2) 혼돈진로이론(CTC, Chaos theory of careers)을 통해서 본 진로체험활동의 의미

가. 개인-직업 매칭이론의 한계

만일 개인의 대한 정보가 충분하고 각자에게 맞는 직업의 특성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직업을 원하기만 하면 획득 가능한 것이라면 진로교육의 목표설정과 실천은 매우 명료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진로교육이론들이 자신의 적성 또는 특성과 직업의 특성을 매칭하는 데

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비교적 불확실성이 낮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점점 직업적 선택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증대할 것이다. 윌리엄슨이 얘기한 것처럼 직업선택을 불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서불안과 같은 요인을 제거한다면(Williamson, 1939, 김봉환 외, 2015: 20에서 재인용) 직업선택은 보다 용이해질 것이고 다른 심리적인 변인들을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확실성을 높이는 요인들은 심리적인 변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불확실성이 높고 또 점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이론에도 혼돈이론(Chaos theory)의 적용은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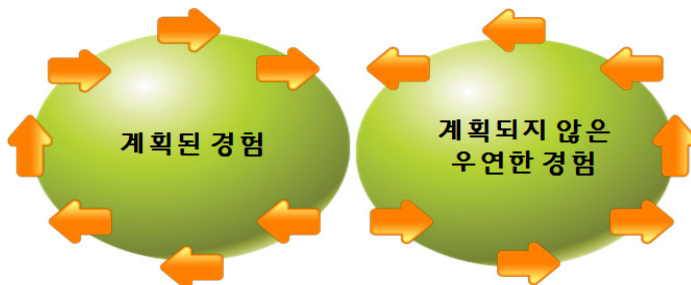
최근에는 개인-직업간의 매칭과 동기이론을 토대로 한 기존의 진로이론들이 불충분하고 제한적이며 순진하다는 비판으로부터 출발해서 기존의 이론들이 간과해 왔던 현상들, 예를 들면 맥락, 복잡성, 체계의 영향들, 직관 또는 영성 등을 탐구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손은령, 2009). 특히 사회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하면서 전통적인 진로이론의 설명력은 감소하고 있다. 프라이어와 브라이트(Pryor & Bright, 2011)는 진로교육이론에 혼돈이론을 접목시켰다. 확실한 것이 반드시 최선의 직업선택이나 진로지도의 성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불확실성이 높고 복잡하고 다변적이며 비예측적인 세계에서는 종종 계획되거나 결정되지 않은 것이 더 적절한 경우가 있다는 입장이다(Pryor & Bright, 2011:82). 예를 들어 진로상담에서 전통적인 특성매칭(Trait-matching) 상담에서는 주로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 현재의 상황(공부나 취업), 강점과 약점, 선호하는 것과 선호하지 않는 것, 직업적인 관심, 진로선택과 같은 것들을 다룬다면 혼돈이론을 적용한 진로상담에서는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 현재의 상황(공부나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유형과 체계, 계획되지 않는 사건, 이상적인 직업적 선호사항 등을 다룬다. 프라이어와 브라이트(Pryor & Bright)가 ‘전통적인 특성매칭 진로상담 진행 그룹(traditonal)’ 과 ‘혼돈이론적인 진로상담 진행 그룹(chaos)’, 그리고 ‘통제그룹(control)’ 을 상담 이후 한 달 뒤 비교한 결과, 전통적인 접근 그룹과 혼돈이론 적용 그룹 모두 통제그룹보다 자기효능감과 직업정보 습득정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두 점수 모두 전통적인 접근 그룹보다 혼돈이론을 적용한 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상담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전통적인 접근 그룹과 혼돈이론을 적용한 그룹의 사전 상담 시점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한달 후 만족도의 지속성에 있어서는 혼돈이론을 적용한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났다(Pryor & Bright, 2011:84-85).



【그림 11-3】 혼돈이론적 상담 효과의 만족도의 지속성

출처: Pryor & Bright (2011), The Chaos Theory of Careers, p. 84~85

위와 같은 실험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프라이어와 브라이트(Pryor & Bright, 2011)는 자신들이 제안한 ‘진로의 나비효과 모델’이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하다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Pryor & Bright, 2011:84-85). 혼돈진로이론(CTC)은 복잡한 그리고 복잡해져가는, 또는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가는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지만 프라이어와 브라이트가 제시한 ‘진로의 나비효과 모델’은 비교적 단순한 모델이다. ‘계획된 것’과 ‘계획되지 않은 것’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모델이다. ‘계획된 것’과 ‘계획되지 않은 것’의 연속적인 순환 속에서 진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입장이다. 진로상담에서는 혼돈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학생들을 상담한다.



【그림 11-4】 진로상담의 나비효과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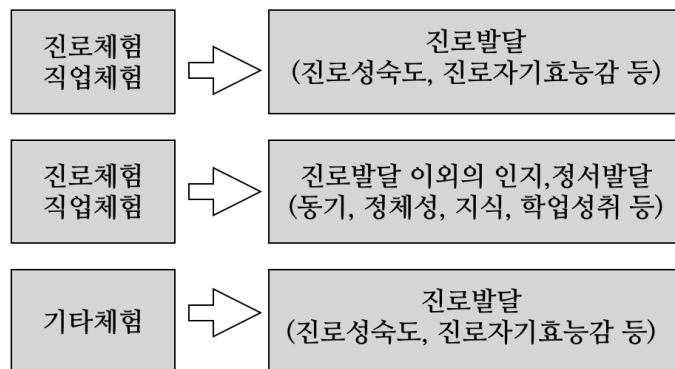
출처: Pryor & Bright (2011), The Chaos Theory of Careers, p. 86

혼돈진로이론과 관련된 연구들이 축적된다면 상담자들은 보다 풍부한 정보들을 토대로 내담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려는 도전적인 자세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손은령, 2009:393). 그러나 손은령(2009)이 지적한대로 ‘우연’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인에 대한 개념적인 정리 작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진로성과와의 관련성을 추적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 초기값의 민감성과 진로체험활동의 다양성

진로교육이론에 혼돈이론을 적용할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연적인 것 또는 우연적인 체험만이 아니다. ‘초기값의 민감성’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즉 투입요인에 따라서 진로교육의 성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진로체험활동을 투입요인이라고 볼 때 진로체험활동의 유형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아직 진로교육이론에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이론화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2016년도 1차년도 연구에서 고찰한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크게 진로체험활동과 진로발달과의 관계는 [그림 II-5]와 같이 세 가지 패턴을 보인다.



【그림 II-5】 진로체험 활동의 효과유형

하나는 진로체험활동이 진로발달의 효과, 즉 진로성숙도나 진로자기효능감과 같은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진로체험활동의 효과 관련 연구들이 가장 많이 설정하고 있는 효과변인은 진로성숙도, 진로자기효능감이며, 그 밖에도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진로선

택준비도, 진로개발성과, 직업의 이해, 자기이해, 직업의식 등의 변인이다(김현철 외, 2016:39). 이와 같이 ‘진로체험활동 → 진로발달’의 유형이 전형적인 진로체험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두 번째 유형의 연구는 진로체험활동이 진로발달과 관련된 변인이 아닌 기타 심리적인 변인, 예를 들어 동기나 성취감과 같은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몇몇 연구들은 진로체험활동이 성취동기, 자기주도성, 학습태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김현철 외, 2016:39~44). ‘진로체험활동 → 진로발달변인 이외의 심리적 변인’의 유형이다. 이것은 진로체험활동이 단순히 진로발달변인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세 번째 유형은 진로체험활동이 아닌 청소년 수련활동이나 봉사활동 등과 같은 체험활동이 진로발달 관련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김재철 등(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의 연구는 진로체험활동이 아닌 수련활동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체험활동경험이 긍정적인 자아관이나 직업적 가치관을 매개로 진로성숙 등 진로관련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투입요인이 진로체험활동이 아닌 경우에도 긍정적인 진로발달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러 진로교육이론들이 ‘자기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인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진로교육에 있어서 자기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은 진로교육의 투입요인이거나 진로체험활동의 내용이 직업체험활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한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II-5]에서처럼 진로체험 또는 직업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변인은 진로적응력이나 직업에 대한 이해와 같은 변인들이지만 자기이해, 반성적 관찰, 과제접근 기술, 초인지 등 정의적 변인에서부터 인지적 영역까지 투입요인이 다양하다. 투입요인으로서의 진로체험활동은 교과교육에서부터 직업체험, 진로상담 등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연령, 학교급 등 많은 요인을 고려할 경우에는 더 다양한 형태의 내용으로 구성되고 그 결과나 효과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복잡한 투입요인에 따른 결과나 효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김현철 외(2012)는 이와 같은 복잡한 경로를 ‘보이지 않는 경로(invisible path)’라고 명명한 바 있다. 체험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경로는 파악하기 힘든 매우 복잡한 ‘혼돈’ 현상과 같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진로발달효과를 입증하는 사례, 예를 들어 일회적인 진로체험활동의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여 진로발달상황을 비교하는 사례들은 많지만 장기적인 진로발달 효과를 예측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진로체험활동이 가져오는 장기적인 진로발달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진로교육과 진로체험활동이 단기적인 직업적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생애전반에 걸친 그리고

최소한 성인기 이행이라는 장기적인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기적인 효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 때 ‘계획적인 것’ 이외에 ‘비계획적인 것(또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손은령(2009)이 지적한대로 우연을 어떻게 기회로 전환하느냐의 문제가 남지만, 비계획적인 것을 반드시 우연적인 경험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비계획적인 것은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스스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선형적인’ 진로체험활동일 수도 있다. 따라서 투입요인으로서 진로체험활동을 직업선택이나 직업매칭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자기이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심리적 변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실천적 전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 진로예측 불확실성의 증대

이미 전통적인 진로교육이론이나 비교적 최근에 거론되는 진로교육이론에서도 이미 사회환경 변인은 진로교육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인의 하나이다. 슈퍼(Super)도 진로유형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인구변화, 저출산, 글로벌 경제 등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와 같은 거시적인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직업의 선택이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직업의 특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학과 교육사회학의 중요한 연구주제였다. 블라우(Blau)와 던컨(Duncan)은 직업의 선택이 학업성취 또는 학력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다고 본 반면 젠크스(Jencks)는 직업의 선택은 오히려 가정적 배경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Halsey, 2011). 그러나 사회학적인 이론들도 결국은 직업매칭 또는 직업적 선발을 사회적 배경요인으로 설명한 셈이다.

청년노동시장의 경색은 전통적인 진로이론의 한계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성인기 이행은 연장되었고 과거의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경험했던 진로발달과정과 오늘날의 청년들이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직업선택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Schwab, 2016). 이제 더 이상 직업선택이나 성인기로의 이행은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며,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진로교육이 전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슈퍼(Super)도 강조한 바 있다. 슈퍼에 의하면, 직업의 선택과 적응은 일생을 통해 변화하는 일련의 계속적인 과정이지만(한국진로교육학회, 2000:47), 오늘날의 그리고 향후에 벌어질 인구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2009년에 유엔은 이미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를 선포했고 제1연령기(유년기)와 제2연령기(아동기~성인기)에 이어 노년기인

제4연령기의 중간지대인 제3연령기(Third Age)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KBS, 2017). 저출산 상황은 한국은 선진국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며(Matsuda, 2017), 종신고용과 평생직장 개념은 퇴색한지 오래되었다. 이제 평생 한 직장을 추구하는 경향은 점점 낡은 선택이 되어 가고 있다. 이것은 진로교육이 어떤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 관련된다. 성인기 또한 알파에이지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생의 선택은 더욱 복잡화되고 장기화되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성장기의 진로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개인-직업매칭이라는 논리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며 혼돈진로이론(CTC)가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진로체험활동이 직업매칭을 전제로 한 직업체험활동만이 아닌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2.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의 쟁점

1) PISA 진로교육조사 결과를 이용한 아시아 진로교육 비교분석

PISA조사는 제한적이거나 아시아 국가들간의 진로교육 상황을 비교한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진로교육 관련 조사는 2006년과 2012년에 두 차례에 이루어졌다. 2006년에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각 학교에서 직업박람회 참여, 기업인 초청강연, 기업체방문을 1년에 1회 이상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임연, 2009). 2006년 조사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모든 국가가 진로교육 부가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조사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상세한 비교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Sweet et al., 2014), 학교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반면 2012년 조사는 각국의 공공정책 이슈와 진로교육의 관련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학생, 학부모, 학교의 배경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유용한 자료이다(김현철 외, 2016). 2006년 조사에는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만이 참여하였고, 2012년 조사에는 한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의 상하이, 마카오, 홍콩만이 참여하여 광범위한 아시아 국가의 상황을 비교하는 데는 두 자료 모두 한계가 있다. 또한 2006년 조사와 2012년 조사는 조사대상과 조사항목, 조사참여국에 차이가 있어서³⁾ 시계열분석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의 상대적 상황을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서 두 자료의 가치는 크다.

3) 2012년도 조사항목은 '학생들이 참여한 직업박람회, 직업정보의 인터넷 조사 등 학생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활동(진로개발 활동) 총 9개 문항' 과 '직업정보를 어떻게 찾으며 취업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과 같은 직업역량 습득 유형 총 6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김현철 외, 2016).

(1) 2006년 PISA 조사결과를 통해서 본 아시아의 진로교육 현황

2006년 PISA 조사결과를 분석한 임언(2009)의 연구에 의하면 OECD 국가별 진로체험점수(진로지도 점수) 비교에서 한국은 최하위권(26위)이었다. 일본은 직업박람회 점수가 미상으로 전체순위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업인 강연은 한국보다 많았던 반면 기업체 방문은 한국보다 낮게 나왔다. 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 점수는 기타 유럽국가들이나 미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표 II-6). 한국의 경우에는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의 전면도입,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중고등학교 배치, 진로교육법 제정 등의 변화를 고려하면 2006년과 현재의 상황에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2004년 커리어 스타트 위크(Career Start Week)가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된 것을 고려하면(김현철, 2013) 2006년과 현재의 상황 간에는 많은 격차가 있을 것이다.

표 II-6 OECD 국가 진로지도 현황(2006 PISA) (단위: 1년에 한 번 이상 제공하는 학교의 비율)

국가명	직업박람회	기업인 강연	기업체 방문	진로지도 점수*
호주	94.6 (2)	86.8 (3)	78.9 (12)	396.7 (3)
오스트리아	74.0 (10)	89.2 (1)	92.4 (4)	421.6 (1)
벨기에	17.5 (27)	24.8 (28)	58.5 (24)	125.0 (27)
캐나다	79.4 (7)	87.4 (2)	74.2 (17)	336.9 (7)
체코	76.3 (8)	74.6 (8)	84.1 (11)	344.0 (5)
덴마크	75.3 (9)	85.0 (5)	93.1 (3)	343.9 (6)
핀란드	69.8 (11)	80.6 (6)	94.0 (2)	326.5 (8)
프랑스	-	-	-	-
독일	89.4 (4)	78.9 (7)	94.5 (1)	412.9 (2)
그리스	65.4 (14)	38.9 (27)	76.8 (14)	240.4 (19)
헝가리	38.1 (25)	50.9 (24)	77.9 (13)	227.8 (22)
아이슬란드	50.9 (21)	64.5 (13)	71.9 (18)	244.7 (18)
아일랜드	43.6 (22)	51.6 (22)	43.4 (27)	187.2 (23)
이탈리아	58.3 (17)	62.3 (15)	66.7 (20)	272.3 (14)

일본	-	63.4 (14)	27.2 (28)	-
한국	38.4 (24)	51.8 (21)	44.1 (26)	157.6 (26)
룩셈부르크	58.9 (16)	60.6 (16)	84.5 (9)	248.9 (17)
멕시코	17.7 (26)	46.3 (25)	57.5 (35)	176.3 (25)
네덜란드	69.3 (12)	57.5 (17)	71.6 (19)	278.1 (12)
뉴질랜드	80.2 (6)	70.0 (10)	58.7 (23)	302.0 (11)
노르웨이	97.6 (1)	69.0 (11)	84.9 (8)	325.4 (9)
폴란드	-	-	-	-
포르투갈	66.0 (13)	56.1 (18)	85.5 (6)	265.5 (15)
슬로바키아	41.7 (23)	65.1 (12)	75.5 (15)	235.7 (20)
스페인	51.0 (19)	54.9 (19)	75.1 (16)	231.1 (21)
스웨덴	61.0 (15)	51.0 (23)	87.3 (5)	255.5 (16)
스위스	82.9 (5)	54.1 (20)	85.2 (7)	311.1 (10)
터키	51.0 (20)	43.8 (26)	60.9 (21)	182.5 (24)
영국	92.0 (3)	85.0 (4)	84.4 (10)	369.6 (4)
미국	54.6 (18)	73.2 (9)	60.6 (22)	272.7 (13)

출처: 임연(2009). OECD 국가의 직업교육 유형별 진로지도 현황 비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0.

주: 1) 괄호 안은 국가별 순위임.

2) * 진로지도 점수는 1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교의 비율을 각각 0, 1, 2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였음.

다음으로 ‘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핀란드는 고용된 진로 상담가가 책임을 진다는 학교가 95.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2.7%에 불과하였다. 일본은 0.0%를 보여 한국보다 낮았으나 특정교사가 맡는다는 응답은 한국이 19.9%인 반면 일본은 61.5%로 일본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특정교사 또는 고용된 진로상담가가 맡는다는 응답이 벨기에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게 나타나 2006년 조사시점에서 학교의 진로교육 전문인력 배치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2012년 이후 진로상담교사배치가 이루어졌고 현재는 거의 100% 배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차이가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는 달리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를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6년 상황과 현재의 상황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7 OECD 국가의 진로교육의 주된 책임자(2006 PISA)

국가명	실시하지 않음	모든 교사	특정 교사	고용된 진로 상담가	방문 진로 상담가
일본	0.69	37.04	61.45	0.00	0.00
이탈리아	26.93	16.41	50.50	0.52	0.79
독일	1.75	6.26	43.05	0.63	27.18
헝가리	6.21	44.02	42.27	1.23	1.79
한국	0.00	70.91	19.92	2.70	3.75
벨기에	31.68	33.72	13.91	5.22	9.48
체코	0.86	4.81	78.52	10.27	2.32
터키	3.35	50.71	30.31	11.69	1.22
스위스	8.44	24.42	23.66	11.74	15.34
오스트리아	16.39	19.37	42.75	14.46	0.00
네덜란드	1.97	7.08	58.85	14.59	8.93
그리스	7.30	40.27	27.29	18.67	3.41
영국	0.00	1.34	30.16	19.90	40.74
멕시코	8.18	37.43	23.58	21.44	1.23
노르웨이	0.00	3.58	56.49	36.40	0.15
룩셈부르크	7.78	7.79	41.06	36.63	0.00
덴마크	0.00	0.98	10.53	41.00	45.70
호주	0.39	2.43	49.79	42.70	0.79
캐나다	0.71	7.36	27.79	52.68	2.40
포르투갈	6.22	3.49	9.80	70.26	7.84
미국	2.90	14.20	6.02	70.40	1.33
아이슬란드	7.85	1.69	9.50	72.12	4.38
스페인	1.06	3.58	14.04	76.36	0.40
슬로바키아	9.26	5.79	4.42	79.94	0.00
뉴질랜드	0.00	3.10	8.38	82.04	0.00
아일랜드	0.00	3.62	8.50	82.87	0.00
스웨덴	0.62	0.67	1.24	87.52	8.44
핀란드	0.00	0.00	0.00	95.62	0.00

출처: 임연(2009). OECD 국가의 직업교육 유형별 진로지도 현황 비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4

2006년 PISA조사에서 한국과 일본은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활동은 저조하며 진로상담 전문가의 학교배치도 다른 비교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일본은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지정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2006년도 상황에서는 적어도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추진은 한국에 비해 좀 더 원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진로지도점수(진로체험활동 참여율)는 일본이 낮게 나왔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1998년부터 한국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학습시간’ 이 학교교육에 도입되었고(김현철, 2013), 다양한 체험활동이 강조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진로체험활동의 양도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2) 2012년 PISA 조사를 통해서 본 아시아의 진로교육 현황

가. 2012년 PISA 조사 진로교육 부가조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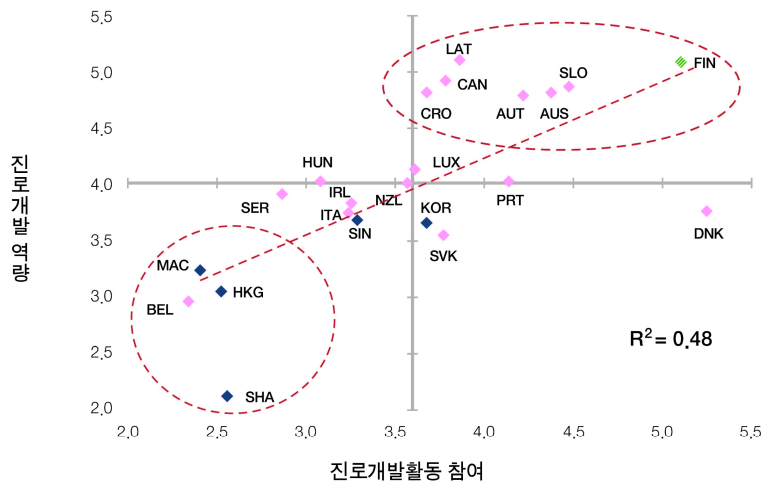
2012년 PISA 조사에 참여한 65개 국가 중 22개 국가가 진로교육 부가조사에 참여하였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홍콩-중국,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마카오-중국, 뉴질랜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상하이-중국,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공화국, 그리고 슬로베니아이다. 홍콩, 상하이, 마카오,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등은 OECD 국가가 아니다. 진로교육 부가조사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의 마카오, 상하이, 홍콩이 참여하였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을 비교하는 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유럽생애지도정책 네트워크(ELGPN, European Lifelong Guidance Policy Network)는 진로교육의 현황과 공공정책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15세 학생들의 진로개발 활동 참여유형과 학생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직업역량의 각국 간 차이를 분석하고, 학생 그리고 가정의 특성과 진로개발 활동 간의 관계에 대한 일차적인 분석을 제공하였다. 이 보고서는 각국 비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턴과 추세의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여타 변수들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Sweet R et al., 2014; 김현철 외, 2016:72~73에서 재인용).

나. 진로체험활동 참여 정도와 직업역량과의 관계

[그림 II-6]은 2012년 PISA 조사결과가 보여주는 국가 간 비교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첫째,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높은 나라가 직업역량인식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한 그룹은 라트비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호주, 슬로바키아, 핀란드와 같이 진로체험활동 참여도와 인식된 직업역량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그룹이며, 다른 한 그룹은 벨기에, 마카오, 홍콩, 상하이와 같이 참여도와 인식된 역량이 모두 낮은 그룹이다. 한국을 포함한 나머지 나라는 중간그룹에 속한다. 둘째,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전반적으로 참여도가 낮고 역량인식도 낮다. 한국은 참여도는 평균 이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나 지역에 비해 높지만 인식된 역량점수는 평균 이하이다. 이지연(2015)이 지적한대로 한국은 진로개발활동 참여도의 수준에 비해 인식된 진로개발역량(진로관리능력)은 저조하다(이지연, 2015: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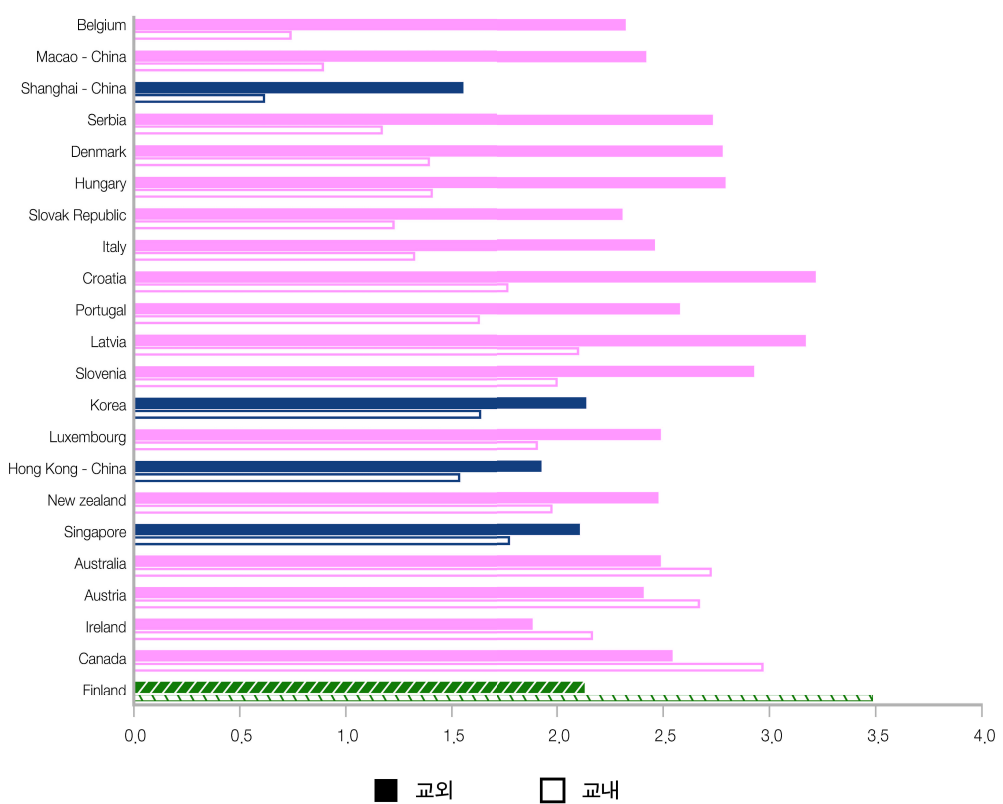


【그림 II-6】 진로체험 활동 참여와 직업역량 인식

출처: Sweet R. et al. (2014), 김현철 외(2016)에서 재인용.

2012년 PISA 진로교육 부가조사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진로체험활동이 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지느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이다. [그림 II- 7]에서 알 수 있듯이 핀란드, 캐나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등 5개국은 학교에서의 활동이 학교 밖에서의 활동보다 많은 나라이며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은 학교 밖에서의 활동이 더 많다. [그림 II-6]과 비교해보면 아일랜드를 제외한 핀란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는 진로체험 활동 참여도와 인식된 직업역량이 높은 그룹에 속한다. 학교 내에서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한가가 진로교육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경향, 즉 진로체험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인식된 직업역량이 높게 나타나는 점과 동시에 학교 내 활동이 활발할수록 인식된 직업역량도 높게 나타나는 점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12년 시점은 한국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된 시기이고, 2010년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15세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는 2006년 PISA조사 시점보다는 활발해졌을 것이다. 2006년 PISA 조사결과에서 한국의 진로체험활동 참여율이 최하위(<표 II-6>)였던 반면 2012년 PISA 조사에서는 중위권으로 나타난 것은 최근 한국에서의 진로교육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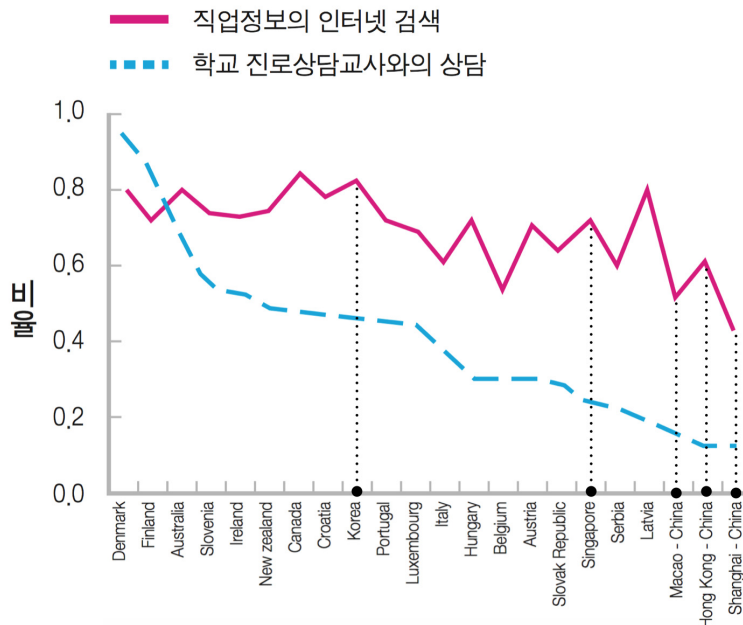
[그림 II-7] 직업역량의 자원으로 인식된 학교와 학교 외의 자원

출처: Sweet R. et al. (2014), 김현철 외(2016)에서 재인용.

다. 학교 진로상담교사와의 상담 경험의 영향

한 가지 더 주목할만한 점은 학교에서의 진로상담의 경험이다. [그림 II-6], [그림 II-8]에서 보듯이 진로체험활동 참여도가 높고 인식된 직업역량이 높은 그룹의 나라들이 대체로 학교에서의

진로상담의 경험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학교에서의 진로상담 경험비율이 진로상담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림 II-6]에서 덴마크의 경우 진로체험활동 참여는 높지만 인식된 직업역량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진로체험활동을 경험하는 장소는 학교보다는 학교밖이 더 많다. 반면 학교에서의 진로상담비율은 높은 그룹에 속해 있다.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와 지역은 학교에서의 진로상담경험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항목에 비해서 학교에서의 진로상담의 경험이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PISA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표 II-7〉), 2006년 당시에는 전문적인 상담사나 특정교사가 진로상담업무를 담당하는 비율이 지극히 적었고 대부분 모든 교사가 분담하는 형태였던 것에 비해 2012년 중위권까지 상승한 것은 2011년부터 중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한 것(김승보 외, 2013)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각국 비교를 통해서 학교 내에서 전문적인 진로상담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도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 상황을 비교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그림 II-8】 진로체험활동 참여 항목별 국가 간의 차이

출처: Sweet R. et al. (2014). 김현철 외(2016)에서 재인용.

라. 교육 및 사회환경 변수에 따른 국가간 차이

(가)항에서 ~ (다)항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시아 각국은 전반적으로 ①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경험률, ② 그 중 학교 밖에서의 경험에 대한 학교 안에서의 경험률, ③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습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직업역량, 그리고 ④ 학교 진로상담교사와의 상담경험을 모두 낮게 나타냈다.

이 밖에 각국의 교육 및 사회환경 변수들을 이용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이들 변수들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 역시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지만 <표 II-8>에서 알 수 있듯이 진로체험활동에 더 참여하게 하거나 진로체험활동이 졸업 후의 진로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게 된다고 믿는 경향을 강하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변인들이다.

- 졸업 후의 삶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 학교생활에 충실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견해
-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 높은 부모의 교육수준
-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의 낮은 비율
- 학교에 대한 높은 소속감
- 작은 학교규모
- 낮은 사립학교 학생비율
- 낮은 훈육적인 태도의 분위기
- 충분한 교원인력 등

단순한 비교를 통해서도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6년도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상관관계를 의미 있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김현철 외, 2016: 87). PISA의 수학 성취도 점수와 직업역량 습득 간에 나타나는 역의 상관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일부 국가에서 진로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학교에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집중되어 있거나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보다 이른 나이에 학업을 종료하고 취업에 집중하기 때문일 수 있다(김현철 외, 2016). 이러한 설명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떨어진다. 또한 PISA의 성취도 점수도 높고 직업역량

점수도 높은 핀란드와 같은 경우에도 설명력이 떨어진다. 문제는 국가 간 비교를 너무 단순한 지표로 비교한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표 II-8 진로 관련 척도의 국가 간 상관계수

	진로체험활동 참여	직업 역량		
		전체	교내 습득	교외 습득
국가 경제 지표				
GDP	-0.052	-0.087	0.143	-0.273
교육비	0.199	0.076	0.215	-0.110
국가 사회경제적 지표				
사회경제적 지위	0.631	0.443	0.561	0.070
취약계층 청소년 비율	-0.583	-0.428	-0.519	-0.059
부모학력	0.382	0.417	0.482	0.095
이민 여부	-0.324	-0.102	-0.019	-0.059
부모취업상태	0.404	0.117	0.284	-0.118
가족 구성	-0.089	-0.137	-0.102	-0.210
Equity(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설명되는 수학점수의 변량)	0.144	-0.052	-0.176	0.142
국가 교육제도 구조 지표				
학교 크기	-0.385	-0.403	-0.189	-0.482
지역 규모 (농산어촌~대도시)	-0.519	-0.497	-0.250	-0.536
사립학교 학생 비율	-0.484	-0.475	-0.292	-0.382
학생을 위한 학교 간 대회	-0.444	-0.389	-0.354	-0.136
학교 간 수평적 계층화(Horizontal stratification)	-0.369	-0.098	-0.363	0.189
직업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	-0.093	0.124	-0.175	0.341
학교 자원 지표				
교사 부족	-0.280	-0.430	-0.190	-0.475
학생-교사 비율	-0.247	-0.202	0.025	-0.335
교육 자원	-0.152	-0.091	0.117	-0.289
교사 질	0.150	-0.060	0.181	-0.296
교사-학생 관계	-0.094	-0.230	-0.049	-0.262

	진로체험활동 참여	직업 역량		
		전체	교내 습득	교외 습득
학교 분위기 지표				
교육과정 및 평가에 대한 자율성	-0.191	-0.311	-0.117	-0.358
학교에 대한 부모기대	0.020	-0.146	0.045	-0.281
특별교육(extracurricular) 활동	-0.353	-0.066	0.044	-0.127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성	-0.296	-0.358	-0.401	-0.181
학교에 대한 소속감	0.291	0.441	0.285	0.386
훈육(Disciplinary) 분위기	-0.456	-0.562	-0.400	-0.484
학부모 참여	-0.156	-0.258	-0.353	-0.017
개인특성 지표				
PISA 수학	-0.295	-0.537	-0.148	-0.730
PISA 문제해결	-0.211	-0.348	0.048	-0.683
인내심	-0.072	0.126	0.161	-0.003
문제해결 개방성	0.143	0.271	0.125	0.290
학교에 대한 태도: 학습 결과	0.526	0.647	0.582	0.351
학교에 대한 태도: 학습활동	0.447	0.538	0.526	0.317

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셀은 음영으로 표시함.
출처: Sweet R. et al. (2014): 김현철 외(2106)의 p.85에서 재인용.

마. 각 국가 내 집단간 차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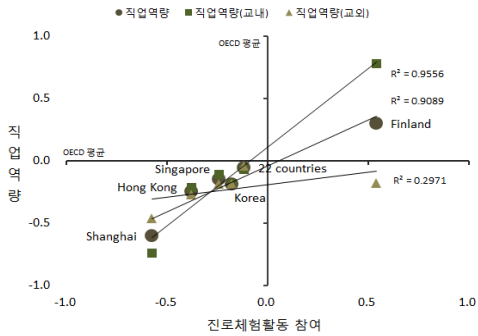
각 국가 간 비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2016년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서는 PISA 2012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핀란드, 한국,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간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비교하였다. 핀란드를 포함시킨 것은 서구 국가와의 간접적인 비교를 위해서였다.

여기서 진로체험활동 참여와 직업역량과의 관계에서 각 국가 간에 차이 뿐 아니라 국가 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아울러 직업역량에 영향을 미칠 예측변수로 성별, 사회·경제·문화적 지위,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사-학생 간의 관계 등을 설정한 후, 각각의 변수들과 직업역량 간의 관계를 살폈다. 국가 내 비교에서만 예측변인으로 활용한 변인은 성별과 사회경제문화적 지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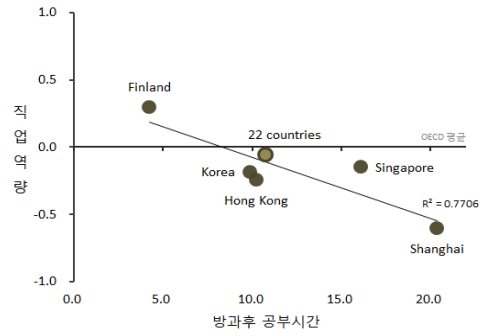
먼저 5개국(핀란드, 한국, 싱가포르, 상하이, 마카오, 홍콩)의 공부 및 학교 내 변인의 평균을 이용한 직업역량 분석결과를 요약하면(그림 II-9)), 진로체험활동 참여는 직업역량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점수, 문제해결력, 학교에 대한 소속감, 학생-교사의

관계와 직업역량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진로체험활동 참여가 높은 국가일수록 직업역량의 국가평균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 소속감, 교사-학생관계 정도가 낮은 국가일수록 직업역량의 국가평균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국가 간 비교를 단순하게 비교할 때 나타나는 한계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또한 [그림 II-9]는 단순회귀분석의 결과로 핀란드가 특이한 점수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각 변인과 직업역량과의 관계를 과도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김현철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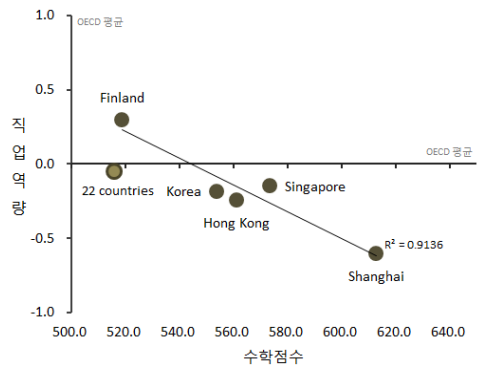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각각의 교육 및 사회경제 변인이 직업역량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II-9>에서 모든 독립변인은 직업역량(종속변수인)과 양의 상관을 갖는다. 다만 상하이는 학교소속감과 교사-학생 간의 관계 점수가 종속변인과 부적 상관을 보인다. 사회경제문화 지위와의 관계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특히 한국의 경우에 $r=.166$ 으로 가장 높았다. 방과후 공부시간 역시 모든 국가에서 정적 상관을 보이며, 한국이 $r=.163$ 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수학점수에 있어서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핀란드와 한국이 각각 $r=.178$ 과 $r=.153$ 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지 않다. 문제해결 개방성은 국가 간 비교에서와 달리 국가 내 비교에서는 직업역량과 정적 상관($r=.150$ 이상)이며,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교사-학생 간의 관계는 모든 나라에서 정적 상관을 보인다. 그러나 진로체험활동참여 변인 이외의 변인들과 직업역량 간의 상관계수는 낮다. 반면 진로체험활동 참여는 국가 내 비교에서도 다른 변인들에 비해서 직업역량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다($r=.350$ 이상). 결국 진로체험활동과 직업역량과의 관계는 국가 간 비교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변인들의 경우에는 국가 간 분석결과와 국가 내 분석결과가 대조적이다. 즉, 국가 간 비교에서는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점수, 문제해결개방성, 학교 소속감, 교사-학생관계가 직업역량과 부적 관계를 보였지만 국가 내 분석에서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료의 수준(국가 간 또는 국가 내)에 따라서 상호배치되는 통계적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분석단위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지만 각 국가별로 진로교육과 관련된 환경요인이 매우 다른 것을 감안하면, 국가 내 분석을 통해서 비교를 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즉 국가 간 비교를 통하여 진로체험과 직업역량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 내 분석을 통하여 개별 국가의 진로교육 체계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비교국가가 제한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한계점이다. 또한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요인, 아니면 적어도 교육환경 변인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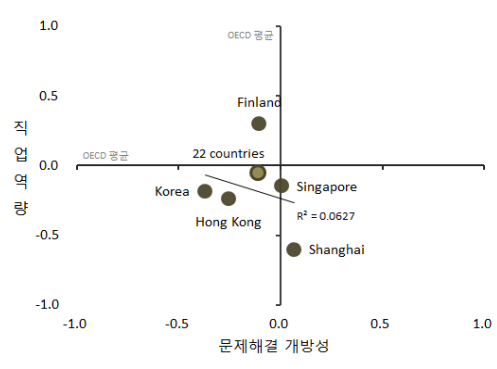
진로체험활동 참여에 따른 직업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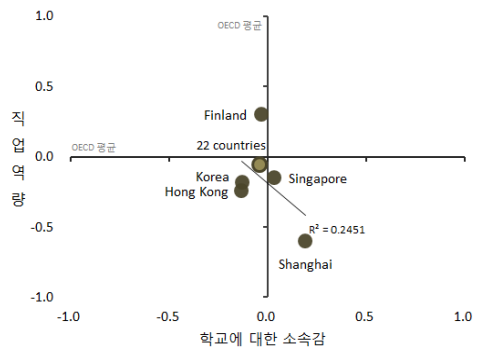
방과후 공부시간에 따른 직업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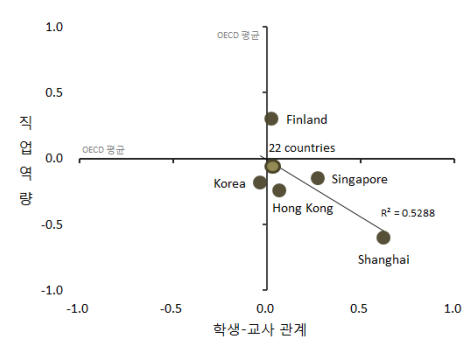
수학평균점수에 따른 직업역량



문제해결력에 대한 개방성에 따른 직업역량



학교에 대한 소속감에 따른 직업역량



학생-교사 관계에 따른 직업역량

【그림 II-9】 공부 및 학교 내 변인과 직업역량과의 상관관계 (핀란드, 한국,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비교)

표 II-9

직업역량과 사회적 배경 및 개인별 인지·정서변인의 상관관계(핀란드, 한국, 홍콩, 상하이, 싱가포르 비교)

국가명	사회경제 문화지위	방과후 공부시간	수학 점수	문제해결 개방성	학교에 대한 소속감	교사학생 관계	진로개발 활동참여
핀란드	.093	.022	.178	.154	.068	.076	.358
한국	.166	.163	.153	.267	.066	.078	.424
홍콩	.131	.130	.057	.170	.076	.060	.499
상하이	.141	.011	.004	.243	-.010	-.015	.489
싱가포르	.065	.066	.015	.180	.023	.013	.420

출처: 김현철 외(2016).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98에서 재구성

(3) 2012년 PISA 조사결과 중 핀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비교와 시사점

가. 핀란드-룩셈부르크 진로교육 비교의 의미

2012 PISA 조사 진로교육부가조사결과를 분석한 Sweet 등(Sweet R et al., 2014)의 보고서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각 국가간 비교에 덧붙여 핀란드와 룩셈부르크의 진로교육상황을 비교하였다. 이들이 핀란드와 룩셈부르크를 비교한 것은 진로교육조사 결과만으로 각국을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16년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서 핀란드와 아시아지역 국가와 도시를 비교한 바 있으나, 이 비교가 국가별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여국 전체를 비교한 Sweet 등(Sweet R et al., 2014)의 결과보다 아시아 국가들 간의 비교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각국의 차이와 유사성을 찾거나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Sweet 등(Sweet R et al., 2014)이 핀란드와 룩셈부르크를 세부적으로 비교한 것은 국가 간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이다. 각국의 진로교육상황은 제한된 단순한 몇몇 문항과 배경변인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표면적으로 밖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핀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비교는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상황을 비교할 때 중요한 단서와 비교의 관점을 제공해준다. 룩셈부르크는 2012 PISA 조사의 진로교육조사나 2006 PISA 조사결과로 봤을 때 비교적 아시아 국가들에 근접해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비교의 의미가 더 크다. 2012 PISA 조사의 진로교육조사로 보자면 룩셈부르크는 진로체험활동의 양과

인식된 직업역량 수준이 한국과 유사한 그룹에 속해 있다. 비록 룩셈부르크의 진로교육의 상황을 아시아의 상황으로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유사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두 국가의 비교를 통해서 아시아 국가 간 비교의 관점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나. 핀란드-룩셈부르크 진로교육 상황 비교⁴⁾

PISA 2012 진로 개발 자료 분석 목적의 하나가 진로교육정책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 수 있고 어느 범위까지 국가 진로 개발 시스템의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가에 있었다면 핀란드와 룩셈부르크 양국의 전문가들로부터 제시된 자료들은 더 구체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요약하자면 룩셈부르크보다는 핀란드가 중등학교에 대한 훨씬 통일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에서는 진로교육을 1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커리큘럼 안에 내재시키는 진로교육전략을 사용한다. 반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룩셈부르크가 핀란드보다 훨씬 다양하다. 즉 학교 외부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더 많고 학교는 서비스 제공 여부와 제공할 서비스 유형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더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 룩셈부르크는 교육과정으로부터 접근하는 내적 접근법보다는 정보제공이나 개인적 조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중점을 둔다. 이런 차이는 PISA 자료에 나타나는 내용과 상당히 일치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핀란드가 룩셈부르크보다 더 높은 진로체험활동 참여도와 인식된 직업역량을 보인다.
- 룩셈부르크가 핀란드보다 학교 내외에서의 진로체험활동 모두에서 진로체험활동 참여도와 인식된 직업역량에 있어서 더 큰 편차를 보인다.
- 룩셈부르크가 핀란드보다 진로 관련 성과가 사회경제적 수준, 학교의 특성 그리고 학생의 특성에 더 강한 영향을 받는다.
- 룩셈부르크가 핀란드보다 진로발달 촉진을 위해서 학교보다 학교 밖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가) 핀란드의 진로교육 상황

2012 PISA 조사결과의 내용으로부터 나타나는 핀란드 진로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4) 본 절의 내용은 Sweet 등(Sweet R et al., 2014)의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된 핀란드와 룩셈부르크를 비교한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첫째, 핀란드의 진로체험활동 참여도와 학교를 통한 참여도가 22개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학교 외부에서의 진로체험활동 참여도는 평균보다 상당히 낮다. 이는 핀란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진로 서비스 제공에서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II-71 참고).

둘째, 학교 내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획득된 직업역량의 편차가 적으며 학교 안팎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획득된 직업역량의 총량에 있어서도 편차가 적다.

셋째, 높은 진로체험활동 참여도, 높은 직업역량, 학교 간의 낮은 편차, 그리고 학교의 큰 역할은 핀란드의 진로교육이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의무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직업역량의 학교 간 편차가 적으며 학교특성으로 인한 진로체험활동의 참여도와 직업역량 수준의 편차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다섯째, 더 작은 규모의 학교와 수학과 문제 해결 점수가 더 높은 학교에서 진로체험활동 참여도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교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직업역량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섯째, 학생들이 학습성과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며 학생-교사 간 관계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학교 내 진로체험활동을 통해서 획득된 직업역량이 더 높았고, 반대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학교-교사 간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 외부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직업역량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일곱째, 수학 성적, 끈기, 문제해결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태도와 진로체험활동 참여도 및 그로부터 획득된 직업역량 간의 관계는 거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인다.

여덟째,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모의 교육 수준도 진로체험활동 참여도, 획득된 기능의 수, 학교에서 획득된 기능의 수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었다. 비이주자들이 이주자들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학교에서 더 많은 기능을 획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학교에서 더 많은 기능을 획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2012 PISA 조사가 말해주는 핀란드의 진로교육 상황은 어떤 교육상황에서 비롯된 것일까? 먼저 핀란드 진로교육이 법률상 학생의 권리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과 상담교사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상 의무로서 우리나라의 중학생에 해당하는 7~9학년 학생들은 76시간의 진로교육활동에 참여한다. 학급위주 활동들은 대개 훈련받은 학교 상담사들이 진행한다. 1~6학년에 대한 지도는 담임 교사의 업무이며 개인지도, 그룹상담, 직업체험기간에 대한 업무도 맡는다. 학교 상담사의 자격요건과 기능은 규정되어 있는데 대개

학교상담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60 ECTS24(유럽내 교환학점 시스템)’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해야 한다.

국가의 핵심교육과정은 진로교육을 주요 전략으로 삼고 있다. 국가교육과정 안에는 모든 교직원의 책임과 76시간의 진로교육과 개인지도의 목적과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지도와 상담을 위한 교육과정 지침의 기본목표는 (1)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과 발달 지원, (2) 학습 기술의 발달 촉진과 학습 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 (3) 교육적이고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학생 상담과 지도이다.

학교는 학교 차원의 진로교육과 지도계획을 제공해야 하며 여러 교직원들에게 직무를 할당해야 한다. 또한 지역 교육과정에는 지역 노동시장과 사업체 간에 어떻게 협력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노동시장 대표들의 학급방문, 작업장 방문, 프로젝트 작업, 서로 다른 분야의 정보 자료의 사용, 일의 세계에 대한 소개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서 강조되는 점이다. 이 같은 여러 주제들을 다루면서 교과를 통해서 제공되는 지식과 기술을 일의 세계에서 요구되거나 일어날 수 있는 것과 연결시키려고 한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기본교육 안에서 일에 대한 접근법과 선택의 가능성들에 대한 정보, 이런 선택들이 학업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지도와 상담 서비스의 제공, 학생복지, 지원 서비스에 관한 학교 차원의 사안들에 대한 설명 역시 학생과 학부모나 보호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학부모나 보호자에게는 교사, 학업상담사, 학생과의 집단 만남을 통해 학생의 학업과 기회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교의 진로교육 이외에도 국가의 교육당국과 고용당국, 지자체, 여러 지역단체, 청소년정보센터 등이 주요 고객집단의 정보, 자문, 지도 필요를 해결해주기 위해 개발한 여러 가지 인터넷 포털들도 있다.

(나) 룩셈부르크의 진로교육 상황

먼저 2012 PISA 조사결과의 내용으로부터 나타나는 룩셈부르크 진로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학교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획득된 직업역량은 22개국 평균에 근접해 있지만 학교 내 그리고 학교 간의 진로체험활동 참여도의 편차는 22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경향이 있다. 학교 안팎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획득된 직업역량의 총계에서도 학교 간 편차가 높으며 학교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획득된 직업역량 수준은 학교 내 편차가 높다. 이것은

진로교육 서비스가 학교 간에도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다소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이 높은 편차는 룩셈부르크 학교가 갖는 자율성을 반영하는 듯하다. 이 때문일 것이지만, 진로체험활동 참여도와 획득된 직업역량 수준 모두에서 학교 특성이 학교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편차는 그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진로교육의) 성과는 부모의 기대, 커리큘럼 외 활동의 양, 학습에 대한 태도⁵⁾, 그리고 교사-학생 관계의 역할⁶⁾에 따라 다르며, 진로체험활동 참여도와 획득된 직업역량 수준은 학교의 수학 성적 수준 및 사회경제적 수준과 부적인 상관을 보인다.

둘째, 수학 성적이 더 낮고 끈기가 더 강하고 문제해결 개방성이 높으며 졸업 후 삶에 학교가 갖는 연관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개인들이 진로체험활동 참여도가 더 높고 그로 인해 획득된 직업역량 수준이 높고 학교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획득한 직업역량이 더 높다.

셋째, 사회경제적 수준 배경이 더 낮은 학생들이 사회경제적 수준 배경이 더 높은 학생들보다 획득된 직업역량 수준이 높은 반면 사회경제적 수준 배경이 더 높은 학생들과 수학 성적이 더 높은 학생들은 학교 외부에서의 활동을 통해 획득한 직업역량이 더 높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획득된 직업역량 수준이 높고 특히 학교 외부에서의 활동을 통해 획득된 직업역량 수준이 높다.

넷째, 직업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이 직업 프로그램을 듣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진로체험활동 참여도가 높고 획득된 직업역량 수준이 더 높으며 학교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직업역량 수준도 높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2012 PISA 조사가 말해주는 룩셈부르크의 진로교육 상황은 어떤 교육상황에서 비롯된 것일까? 룩셈부르크의 지도와 상담은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학교를 통해서 제공되며 외부 서비스와 활동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중등교육 전체에 걸쳐 학생들은 다양한 지도, 상담, 정보활동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서비스는 학교, 지역,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특정 학업을 통해서도 조직된다.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환경을 탐구하고 이해력을 높여 자신이 받는 교육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데 있다. 웹사이트, 문서 보관 센터, 진로행사와 학생박람회, 학생과 부모를 위한 정보 세션, 고용주들이나 특정 전문 프로그램 수요자들과의

5) 더 나쁜 학습태도와 더 높은 진로체험활동 참여도가 직업역량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

6) 진로체험활동 참여도와 학교에서의 활동을 통해 획득된 직업역량은 정적 상관을 보이지만, 학교 밖에서의 활동을 통해 획득된 직업역량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

토의, 학급이나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학적 프로젝트, 인턴십 조직이나 여러 다른 유형의 업체방문,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적 접근, 개별 지원과 상담, 심리검사와 기능 프로파일 작성 등과 같은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조직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등학교: 중등학교의 자율성 때문에 참여도, 참여 유형의 학교 간 편차가 크다.
- 교육심리와 지도센터, 교육 심리와 지도를 위한 학교 서비스
- 고용개발을 위한 기관의 진로지도 서비스
- 고용주와 고용인 회의소, 지역 청소년 행동(Local Youth Action), 고등교육 관련 문서와 정보 제공

룩셈부르크의 진로교육은 최근 다음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 다양한 단체와 서비스 간의 협력이 강화되었다. 2006년에 여러 진로교육 서비스를 위한 합동위원회가 설립되었고 공동 웹사이트(www.anelo.lu)와 같은 공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으며 2012년 9월에는 서로 다른 유형의 지도와 상담을 제공하던 주체들이 단일한 상담센터로 통합되었다.
- 학생들의 의사 결정과 진로역량 개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외부’ 지도에만 의존하기 보다 학생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 핀란드-룩셈부르크의 진로교육 비교를 통한 시사점

핀란드는 학교를 통한 통합적인 진로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 룩셈부르크는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학교 밖에서의 서비스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룩셈부르크는 굳이 말하자면 한국형 모델에 가깝다. 최근 한국이 갖추어 놓은 여러 가지 진로교육정책 인프라(특히 진로체험활동 인프라)의 성격을 보면 분명 룩셈부르크는 한국에 가까운 모형이다. 룩셈부르크가 상대적으로 학교 밖 서비스 중심이기 때문에 핀란드에 비해 좋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핀란드와 같이 학교 내에서 통합적인 진로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달리 말해 양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변화, 특히 학교 내에서의 변화가 중요하다.

핀란드의 경우, 학교 내에서의 진로상담을 진로상담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 것은 주효했을 것으로 보인다. 핀란드가 PISA에서 최상위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의 배경에 양질의 교사가 있는 것처럼(Ripley, 2014) 좋은 진로교육의 성과에도 같은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듯하다. 룩셈부르크의 상황은 한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학교 내 활동과 학교 밖 활동의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과 룩셈부르크의 비중은 비슷하다. 전반적으로 학교 밖 서비스가 더 많다. 그러나 학교 안이든 밖이든 룩셈부르크가 한국에 비해 더 많은 경험을 하지만 사실 양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한국이 체험의 양에 비해 역량점수가 다소 낮다면 거꾸로 룩셈부르크는 체험의 양에 비해서는 역량점수가 높은 편이다. 비록 룩셈부르크는 학교 내의 서비스의 양이 적더라도 학교의 자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점이 체험의 질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여기서 살펴 본 핀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비교의 관점이 아시아 각국의 비교를 위한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초·중등교육 또는 의무교육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가 중요할 것이다. 나라에 따라서는 진로교육보다는 직업교육을 더 강조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기본적인 교육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진로교육이 독립적인 영역이 아닌 교육과정 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핀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비교에서처럼 각국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2) 소결: 아시아 진로교육 비교를 위한 쟁점

본 장에서 크게 진로체험활동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PISA 조사를 중심으로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의 상황비교를 위한 쟁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진로체험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서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며 넓은 의미에서 체험과 경험을 강조하는 직업교육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여러 나라를 비교할 경우에는 진로교육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직업교육이 진로교육으로 확장되지 못하는 나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면 진로체험활동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라마다 진로교육의 발달 정도는 결국 진로교육정책이 직업교육이나 훈련(VET)의 수준에 머무느냐 아니면 직업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넘어 생애개발영역까지 확장된 진로교육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둘째, 진로교육이나 진로체험활동이 얼마나 미래의 직업역량개발에 도움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각국이 이를 증명할 만한 조사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와 관련하여 PISA 조사자료로부터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였지만, 각국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게다가 오늘날은 사회전반적인 불확실성의 증대로 개인-직업매칭이 원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즉 진로개발과정의 혼돈성(또는 경로의 복잡성)을 감안하면, 진로체험활동의 양을 늘리는 것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는 단순한 도식은 성립하기 힘들다. 한 마디로 진로체험활동 또는 진로교육의 긍정적 효과는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아닌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더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각국의 어떤 요인들이 인력개발 또는 직업역량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메카니즘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마도 핀란드와 룩셈부르크를 비교하는 수준 이상의 비교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소한 각국의 진로교육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라도 수집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진전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진로교육의 운영 패턴이다. 진로교육을 별도의 분리된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별도의 진로교육정책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교육과정 또는 교과교육과의 통합을 기본원칙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있을 수 있다. 핀란드와 룩셈부르크를 보면 보다 학교교육과 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핀란드이다. 반드시 어느 쪽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두 가지 패턴만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양자를 조화시킨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사회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

넷째, 진로담당 교사의 질 또는 운영방식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PISA조사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얻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의 교육이든 그것을 가르치고 운영하는 사람의 역량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은 보편적인 교육현상일 것이다. 2006 PISA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나라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전담교사가 있을 수 있고 교과담당교사나 담임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으며 특정한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담임교사와 교과교사의 몫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몫으로 전환되었다. 물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모든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것은 아니다. 진로담당 전문인력의 문제는 각국의 진로교육의 유형이나 질적 수준을 설명할 때 매우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다섯째, 진로교육이나 진로교육정책의 유형이 비슷하더라도 교육의 편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 진로교육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핀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비교는

시사점을 주었다. 진로교육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진로교육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또는 공평하게 주어지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각국의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진로교육의 양상은 크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국가 내에서의 진로교육의 편차의 문제와 국가 간 편차의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진로교육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국의 교육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제에는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양상을 비롯한 진로교육의 유형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제 Ⅲ 장

한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과 전망

1. 한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정책동향과 그 성과
2. 한국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참여 현황
3. 소결

제 III 장 한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과 전망

1. 한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관련 정책동향과 그 성과⁷⁾

1) 한국의 진로체험활동 강화 정책의 동향

한국의 진로교육정책이 본격적인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과기부 등 9개 부처가 공동으로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2007~2011)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전국민의 자기주도적 평생진로개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 계획은 평생진로개발 활성화를 위한 진로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①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제고, ②학습과 고용이 통합된 성인의 진로개발 확대, ③진로개발 지원체제 구축의 3대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 진로개발 역량 제고’를 위해서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진로교육을 강조하였다. 각 교과 및 단원과 관련한 직업 일화(episode), 성공 직업인 사례, 진로 활동 자료 등을 개발하여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반영하는 등 시간 및 예산이 들어가는 직접적인 직업체험보다는 간접적인 진로체험이 가능한 정보와 자료를 개발하여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하였다. 이때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일반교과와 진로교육을 연계하는 교과통합 진로교육운동이 시작된 시기이며 관련 기초연구가 수행되고 교과별 교과통합 진로교육 자료가 개발되어 학교에 보급되었다. 단위교과에서 관련 직업과 진로개발역량 요소를 연계하는 간접적인 진로체험이 주된 내용이었다. 다만 「일터 탐방 주간」지정(5월 셋째주), ‘1校 1社 직업 체험의 날’, ‘부모님 회사 탐방의 날’, ‘진로체험주간’, ‘진로체험의 날’ 등 학교에서의 직접적인 체험학습의 운영을 전국 규모의 캠페인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파급효과는 제한적이었다(이지연, 2015).

7) 이 절은 「2017년 NYPI & ARACD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지연 박사가 발표한 ‘Country Report for Career Education in Korea’의 원고와 2016년에 이지연 박사가 본 연구에 참여하여 제출한 원고 ‘한국의 진로체험’ (미발간자료)를 토대로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내용임.

2010년에 발표된 「진로교육 종합계획(2009~2013)」은 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진로교육정책 로드맵이다. ①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②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③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가 주요 정책영역으로 특히 체험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가 강조되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강화, ‘진로의 달’ 운영,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우수 학교 인증,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뉴얼의 개발·보급 등이 이루어졌다.

그 간에 진로교육정책이 교육부 내 연관된 부서에 의해 제 각기 추진되었던 것과 달리 2011년에는 교육부 내에 진로교육정책과가 설치되어 진로교육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진로교육 관련 인프라들이 빠른 속도로 확충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진로활동을 포함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된 것도 진로체험활동이 활성화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단체, 업종별 인력관리 위원회(SC: Sector Council),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중앙단위의 협업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직업체험처가 개발되었다. 청소년들의 직업체험기회가 확대되었고 기업체 등의 민간 인프라를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교육기부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민간시설인 키자니아(www.kidzania.co.kr)와 국립시설인 한국잡월드(Job World)가 설립된 것도, 중고등학교에 진로 진학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한 것도 이때다. 서울에서는 「청진기(청소년 진로체험의 기적)」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청진기」 모델은 2017년 현재 전국에 219개가 설립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모델이 되었다. 「진로교육 종합계획(2009~2013)」의 일환이 아닌 박근혜 정부 교육공약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활동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립이 확산되었다.

‘행복교육, 창의인재양성’이라는 교육정책의 비전 하에 도입된 자유학기제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모토로 2013년 42개, 2014년 약 800여개, 2015년 약 2,551개의 시범학교 운영을 거쳐 2016년에 전국의 3,200여개의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이지연, 2016). 자유학기제가 수업개선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냐 진로체험활동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냐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2013년 5월 29일)에서 자유학기제의 추진 목적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진로교육과의 연계성이 제시되었다. 실제로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된 2016년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운영현황을 분석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분석에 의하면 자유학기제에서 운영하는 가장 많은 체험활동은 진로탐색 활동으로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이는 자유학기제가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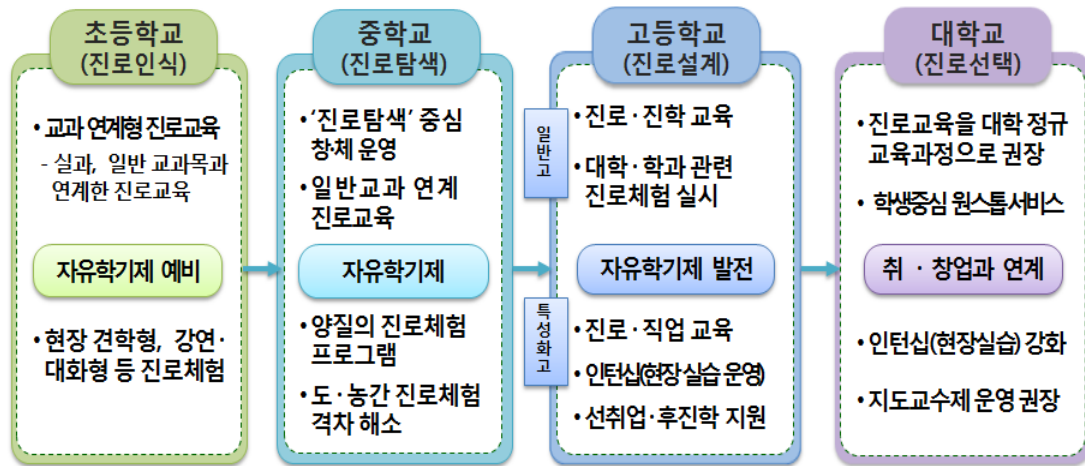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기 앞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이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 및 시행」이다. 진로교육의 추진이 법적인 근거를 갖게 됨으로써 진로체험활동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더욱 용이해졌다. 진로교육법 제5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제20조에 의거하여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한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도 용이해졌고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활발해졌다. 진로교육법은 자유학기제의 안착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진로교육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각 학교는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운영이 가능해졌으며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시와 충청남도 등의 지역에서는 이미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또는 1년간의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등 진로체험활동 강화를 골간으로 한 자유학기제의 확대·운영계획은 2016년에 수립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을 통해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 계획은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것이다.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신장’, 학교의 ‘내실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 체계 확립’, 사회의 ‘국민의 행복한 삶과 평생학습 사회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①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② 진로교육 대상 확대, ③ 진로체험 활성화, ④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을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는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를 확대·운영하는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를 연장하여 진로교육 집중학년제를 실시하고(〈표 III-1〉) 중학교 단계의 자유학기제를 연계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일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시범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에는 초·중·고등학교 37개의 연구학교, 일반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37개 시범학교, 초·중·고 300개교의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2020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일반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1,000개의 시범학교와 중학교 3학년, 일반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2,000개의 협력학교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학기제의 확산과 더불어 초·중·고 및 대학까지 연계되는 진로교육 추진 로드맵을 제시하였다(그림 III-1). 또한 진로교육의 담당자인 진로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이다. 향후에는 진로상담을 전공한 석사 학위 소지자를 양성하여 일선학교에 배치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대학원에 진로상담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교육부, 2016).

표 III-1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의 비교

구분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목적	교과 수업 혁신 및 학생 중심 활동 운영을 통한 학생의 꿈끼 교육 강화	진로체험교육과정 연계 운영을 통한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강화
운영 시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과정 중 한 학기	초·중고 모든 학년 또는 학기중 특정 학년 또는 학기
수업 내용	교과별 핵심성취기준 중심 학생 참여형 수업운영 토의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등	진로 관련 내용 재구성을 통한 교과연계 수업 운영
평가 방법	과정중심 평가	지필평가 + 과정중심 평가

출처: 교육부(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그림 III-1】 자유학기제 확산 로드맵

출처: 교육부(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2) 한국의 진로체험활동 활성화 정책의 성과

(1)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확산

최근 몇 년간 확충된 진로체험활동 인프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립이다.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진로체험활동에 적합한 지역사회 체험처를 확보하여 학교에 배정하고 체험처 특성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컨설팅하며 학교와 체험처의 의견 조율 역할 등을 수행한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 체험처와 학교를 매칭하는 일이다. 이 때 매칭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꿈길(www.ggoomgil.go.kr)’이다. [그림 III-2]는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진로체험 지원체계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 설치된 ‘국가진로 교육센터’⁸⁾가 중앙 컨트롤 타워역할을 한다면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는 전국의 센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모니터링과 컨설팅이 주된 역할이다. 각 지역의 진로직업체험지원 센터는 지자체와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양자로부터 매칭으로 예산을 지원받기도 하고 한 쪽으로부터만 지원받기도 한다. 대체로 한 쪽으로부터만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로 대체로 예산 규모가 작다. 예산 규모가 작은 이유 때문이라도 주로 교육지원청이 직영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영하는 경우와 위탁운영하는 경우로 나뉘며 후자의 경우 위탁운영 주체로 가장 많은 곳이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다. 기타 일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산하 관련 재단, 민간단체나 기관 또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예산의 규모는 가장 적게는 500만원에서 가장 많게는 10억까지 다양하다. 예산의 규모가 큰 경우는 대체로 지자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지만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50:50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양쪽이 관리주체가 된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역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력정도에 따라, 센터 운영 주체에 따라 운영방식이나 성과가 다양하지만 진로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임에는 틀림없다.

8) 국가진로교육센터는 진로교육법 제정에 따라 설립된 진로교육 중앙컨트롤 타워이다.



【그림 III-2】 진로체험 지원체계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활성화 및 대상기관별 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 매뉴얼. p.77.

표 III-2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센터 수				인원 수		
	위탁운영	지자체직영 운영	교육청직영 운영	총계	정규직	계약직	총계
서울	21	4	0	25	68	48	116
부산	7	0	5	12	34	15	49
대구	0	0	4	4	13	2	15
인천	7	2	2	11	45	12	57
광주	5	1	0	6	11	6	17
대전	4	0	0	4	13	4	17
울산	5	0	0	5	14	3	17
세종	0	0	1	1	3	1	4
경기	22	7	2	31	82	47	129
강원	15	0	3	18	45	14	59
충북	10	0	0	10	19	16	35
충남	14	0	0	14	23	16	39
전북	5	0	9	14	23	12	35
전남	10	0	12	22	34	32	66
경북	10	0	13	23	57	16	73
경남	3	0	15	18	40	12	52
제주	2	0	0	2	3	4	7
총계	140	14	66	220	527	260	787

출처: 교육부(2017).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단) 현황(10월23일기준) 자료(내부자료).

(2) 공공부문의 진로체험활동 지원현황

가. 중앙행정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현황

진로체험활동이 활성화되고, 특히 진로교육법에 의해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관련 사업 운영이 의무화되면서 다양한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진로체험 관련 체험처 및 프로그램 현황은 다음의 <표 Ⅲ-3>과 같다.

표 Ⅲ-3 2016년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진로체험 관련 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기관명	체험처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명
경찰청	163	166	청소년 경찰학교 체험교실, 과학수사교실, 학생 방법순찰대
고용노동부	117	130	청소년 권리보호캠프, 내꿈을 잡(job)아라, 진로탐험버스, 숙련기술 캠프, 드론조종, 3D프린터 모델링 등 신기술 체험
공정거래위원회	3	3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참관, 소비자업무 체험학습
관세청	14	14	세관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항직업 체험프로그램
교육부	15	21	장애인식 개선 체험 교실, 학술원회원과의 만남, 중학교 경영·경제 진로탐색교실, 꿈을 잇(IT)다 소프트웨어스쿨
국가보훈처	26	91	청소년 독립군체험캠프, 우리고장현충시설 탐방, 독립기념관 청소년학교, 우리고장현충시설 탐방
국민권익위원회	1	1	찾아가는 청렴교실
국민안전처	114	143	미래 소방관 체험교실, 우리지역 전문구조대 탐방체험, 119 구급대 체험
국방부	4	7	군 진로직업체험 Camp, 계룡대 나라사랑 체험학교
국세청	121	121	세금체험 프로그램, 세금신고체험 프로그램
국토교통부	9	20	안전한 하늘길을 지키는 항공교통관제사, 자동차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항공우주 진로체험 프로그램, 물드림캠프
금융위원회	5	8	경제캠프, 증권시장 이야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장체험
기상청	10	19	기상청진로체험, 기후과학 체험교실
기획재정부	1	1	기획재정부 청소년방문 프로그램
농림축산식품부	31	43	축산물 DNA 분석 체험교육, 말산업 진로직업체험
농촌진흥청	2	2	농업과학관 녹색체험교실, 원예체험 프로그램
대법원	18	42	청소년법률가 과정, 사법캠프, 청소년모의재판 프로그램, 중고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법무부/검찰청	77	90	꿈키움 법체험 진로교실, 모의법정 및 Law & Career 체험

기관명	체험처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명
문화재청	49	69	고고학체험교실, 자유학기마린스쿨, 최고의 궁중요리사
문화체육관광부	66	101	오늘은 나도 PD와 DJ, 원데이 호텔리어, 박물관 청소년 진로체험 '큐레이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연출편
미래창조과학부	30	48	KIST 고등학생 사이언스캠프, KARI Dream Space, DGIST와 함께하는 다빈치 과학창의교실
방송통신위원회	8	31	꿈자람 미디어교실, 광고로 키우는 꿈과 끼
방위사업청	2	2	우리나라 안보현황과 무기의 탄생과정 알아보기
법제처	1	1	청소년 법제관
병무청	15	23	현역병 입영문화제, 징병검사 과정 참관 및 신체검사 체험
보건복지부	44	44	국립검역소 검역관이 하는 일, 검역업무-검사업무-감염병 예방홍보 업무체험, 사회복지 직업 실무 체험
산림청	63	114	1일 식물학자 되어보기, 산림항공직업 체험, 숲길 탐방, 숲 오감 체험, 목공예 체험
산업통상자원부	76	96	로봇창의교육 진로체험, 가스업계 진로체험, 지질학자가 하는 일 체험, 원자력 교실
새만금개발청	1	1	나도 새만금 홍보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13	13	식약약 주니어, 식품안전체험 프로그램, 청소년건강지킴이 캠프, 의료기기분야 업무 체험
여성가족부	11	36	리더십, 안전, 인성, 진로활동 프로그램 캠프, 우주탐사 과정 캠프, 달 표면 걷기, 2박3일 진로탐색형 농업생명과학체험
외교부	3	5	Visiting KF Program, 코이카 정기 견학
원자력안전위원회	1	1	원자력안전 체험 학습
인사혁신처	4	4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공무원연공공단 현장체험, 소청심사 안내, 대한민국 공무원 바로알기
조달청	1	1	조달청 직업 체험
중소기업청	2	4	청소년 비즈쿨, 자유학기제 강소기업 체험
통계청	21	25	통계체험 교실, 통계 직업 체험프로그램
통일부	2	2	통일리더캠프, 미리 가보는 통일한국
특허청	2	2	발명교육 진로캠프
해양수산부	31	58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업무체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 해양수산 아카데미, 해양조사원 탐방하기, 나도 해양과학자
행정자치부	8	14	과학수사체험교실, 찾아오는 기록문화 체험교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 '행복도시 세종 이해하기'
환경부	29	60	에코 뷰티연구원 되어보기, 생태진로캠프, 기후변화전문가 되기
합계	1,215	1,678	

주1)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미운영

주2) 유관기관 : 소속, 산하기관 외 관련 공공기관 / 기타기관 : 보조 민간단체 및 유관협회

출처: 교육부, (2016.4.28.), 2016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유학기제 체험처 지원 현황(국무회의의 보고), 보도자료, 이지원 (2016)에서 재인용.

〈표 III-3〉은 어디까지나 각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앙부처 중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이기도 하지만, 이전부터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 등 시설을 기반으로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또한 전국 219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중 거의 1/3 가량을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이 위탁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 만큼 다양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제공이다. 〈표 III-4〉은 최근 2년간(2015~2016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진로·직업영역에 선정된 프로그램 현황이다.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산하 기관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일 뿐이다.

표 III-4 2015~2016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의 활동분야 <진로·직업영역> 프로그램 현황

연도	지역	단체 및 기관명	프로그램명
2015	강원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다양JOB色
		군포탁틴내일	알로하[ALOHA] : [앞을 향한 길(路)은 하하하^^(즐겁다)]
	경기	안산기독교청년회	2015 청소년 건축학교 - 행복한 우리마을을 만드는 미래의 건축가
		광교청소년수련관	청소년 푸드창업 프로젝트'유리병 속 달콤한 휴식[茶]'
		권선청소년수련관	청소년모의창업"PLAY ON"시즌 2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	꿈빛나래
		(사) 좋은친구들	청소년진로감수성 up [꿈을 깨워라]
		금촌청소년문화의집	내.꿈.꿔(내가 꿈꾸는 즐거운 삶으로 바꿔!!)
		김포시청소년수련원	꿈은 이루어진다. 청소년 C.E.O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너의 꿈, 탐나도대!
	대구	(사)밝은미래 진로지원센터	꿈열정을 키우는 자유학기제 수업
	부산	부산광역시여자단기 청소년쉼터	위기(가능)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지역사회나눔활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프로젝트"마술카페 "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꿈길 리포터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너도 나도 즐기는 작지만 큰 학교 <골목학교>
		(사)한국청소년교육연구원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다! "꿈 주는 교실"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Dream에 도전하는 U를 위한 청소년 CEO카페 'DruWa(드루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농어촌청소년과 함께하는 직업,진로탐방 프로젝트 "보여줘yo! 나의미래!"
		강남청소년수련관	나와 꿈의 색다른만남 '나를 찾go! 꿈은job고!'
		홍은청소년문화의집	마을을 탐(探) 찾다)하다!
	세종	세종시청소년문화의집	dream 콕 진로콕콕

연도	지역	단체 및 기관명	프로그램명
	인천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청소년 진로탐색프로그램 <진로탐색 집단프로그램 '내 꿈은 내가 만든다!>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서구 청소년수련관	O! Yes~ (Open Your eyes)
	전남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직업체험장 해(Hi) 나(무) 목공소
	전북	솔내청소년수련관	푸른 청소년이 꿈꾸는 진로 "청출어Job"
		군산청소년수련관	'우리 마을 희망씨앗이 피었습니다'
	제주	(사)삶의예술문화원	삶의예술학교 사하라
	충남	아힘나운동본부	안성맞춤 장인정신을 이어가는 직업체험활동
2016	경기	광고청소년수련관	셰프(요리사)의 스토리 쿡(cook)
		권선청소년수련관	청소년협력창업활동"도,드,림"
		김포시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온(마을로) 통(하는) 행복한 꿈
		문산청소년문화의집	MY 마.진.개(문산청소년들의 '마을 진로직업 여행가' 되기)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지역은 살아있는 학교! 그로잉-업(Growing-up)
		서울특별시립근로 청소년복지관	청(靑)자(自)를 빛다
		안양시동안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진로 방송국 『On Air』 -우리가 꿈꿔(은) 직업(에) 뛰(어) 들자-
		안양시호계청소년문화의집	우리들의 꿈을 커다. "Dream On"
	광주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여기는 커피로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진로프로젝트 "창업의 품격"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나 do, 나 do!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진로탐색프로젝트 '공존공생'
	부산	부산광역시여자단기 청소년센터	위기(가능)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뽕다방'
		해운대청소년수련관	꿈길 리포터
	서울	(사)한국청소년보호연맹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체험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노원청소년수련관	아빠Dream 꿈드림
도봉구립쌍문동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이 스스로 찾아가는 꿈 인터뷰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우리동네 진로 예체능	
서울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미래의 대한민국 주역 만들기 프로젝트 『Made 人KOREA』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꿈꾸는 교실 몽실몽실(夢室)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대학생-농산어촌 중학생의 Dream 멘토링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Dream에 도전하는 U를 위한 청소년CEO카페 "DruWa" II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스스로 함께 만드는 창작	
한국신문협회		찾아가는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젝트	

연도	지역	단체 및 기관명	프로그램명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청소년해양진로체험 프로그램 "나가자!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흥은청소년문화의집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활동 "양성평등 진로체험활동"
	인천	가정청소년문화의집	꿈꾸는 직업여행 스토리Job古
	전북	군산청소년수련관	'우리 마을 희망씨앗이 피었습니다'
		순례청소년수련관	하나 되는 자유학기제 '내 꿈을 UP GO'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결과(청소년활동분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3개 시도 교육청(서울, 경기, 경남)과 함께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오늘은 예술학교(Arts Day)’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매주 하루를 ‘아트데이’로 지정하고, 예술교과(미술, 음악)와 자유학기 활동시간을 연계하여 연극과 뮤지컬, 공예, 사진 등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늘은 예술학교’는 예술교과와 자유학기 활동시간을 2~3시간씩 묶는 블록타임(Block-Time)을 운영하여 학생 및 학교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별 맞춤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예술에 대한 학생들의 지속적 동기 부여를 위한 문화예술축제,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문화예술 명예교사 특별프로그램 등이 집중 지원된다.

〈자유학기 일반시간표 예시〉						〈아트데이(수요일) 운영 예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1	국어	과학	도덕	영어	영어	1	국어	과학	도덕	영어	영어
2	사회	수학	사회	국어	과학	2	사회	수학	사회	국어	과학
3	도덕	음악	과학	체육	사회	3	도덕	국어	과학	수학	사회
4	체육	한문	도덕	한문	미술	4	체육	한문	예술	한문	도덕
5	수학	진로 탐색 활동	국어	주제 선택 활동	창체	5	체육	진로 탐색 활동	예술	주제 선택 활동	창체
6	체육 활동		예술 활동		동아리 활동	6	체육 활동		예술 활동		동아리 활동
7						7					

□ 기본교과(391시수), □ 자유학기활동(170시수) □ 기본교과(391시수), □ 자유학기활동(170시수)

【그림 III-3】 예술 블록타임 운영 예시

출처: 문체부·교육부 보도자료(2016. 6. 29). 자유학기제 연계 ‘오늘은 예술학교’ 본격 추진.

문체부와 교육부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 경남 등 3개 지역의 35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시도교육청의 학교추천을 받아 신청한 46개 학교 중 35개 학교를 선정하였다(서울 11개, 경기 10개, 경남 14개).

표 III-5 「오늘은 예술학교」 지원학교 선정 결과

구분	선정학교	선정학교 내역(지역)
서울	11	목동중(양천), 영남중(영등포), 천왕중(구로), 서라벌중(강북), 성일중(동대문), 거원중(송파), 온곡중(노원), 천일중(강동), 등명중(강서), 선린중(용산), 잠실중(송파)
경기	10	대안중(안양), 덕이중/중산중/일산양일중(고양), 덕장중(의왕), 비전중(평택), 정천중(수원), 푸른중(화성), 화광중(남양주), 해솔중(파주)
경남	14	내덕중/수남중/한얼중(김해), 마산제일여중/양곡중/웅남중/창덕중(창원), 물금동아중/웅상중(양산), 밀양여중(밀양), 용남중(사천), 지세포중(거제), 진주중(진주), 통영여중(통영)
계	35개	

출처: 문체부·교육부 보도자료(2016. 6. 29.), 자유학기제 연계 ‘오늘은 예술학교’ 본격 추진

나. 지방행정기관의 진로체험활동 지원현황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관 등을 해당 지역 내 진로체험교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진로·직업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서는 실무담당자들로 구성된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 17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원단별로 체험처 발굴, 체험처 발굴 지원, 체험처 발굴 역할 분담 협의, 센터 설립·운영 실무 협의 등의 활동을 수행 중에 있으며 체험처의 경우 전국에서 총 5,543개의 체험처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6) 참조).

표 III-6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단 구성 및 활동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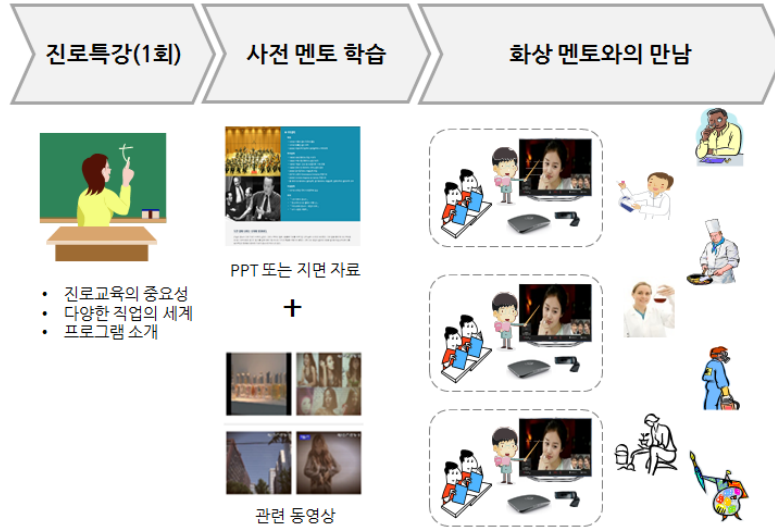
구분	지원단 수	주요 활동별 지원단 수			
		체험처 발굴 (발굴 체험처수)	체험처 발굴 지원 ; 공문, 유선, MOU	체험처 발굴 역할 분담 협의	센터 설립운영 실무협의
서울	11	5(1834)	6	10	6
부산	5	4(214)	1	5	4
대구	4	2(176)	2	2	2
인천	5	1(30)	1	5	1
광주	2	2(163)	1	2	0
대전	2	1(173)	1	2	2
울산	2	0	0	0	0
세종	1	1(40)	1	1	1
경기	23	12(600)	13	19	14
강원	16	10(225)	7	15	14
충북	10	5(276)	5	10	6
충남	14	3(96)	7	11	6
전북	14	5(242)	4	10	10
전남	22	16(765)	18	20	6
경북	23	11(455)	11	16	5
경남	18	7(254)	10	15	4
제주	2	0	1	2	2
총계	174	85(5,543)	89	145	83

출처 : 이지연(2016). 한국의 진로체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미발간 자료.

다. 기타 진로정책 인프라

(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사업 현황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산들바람 멘토링)은 체험터 자원이 부족한 농산어촌 학교 지원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2013년도 총 사업비 1억 2천만원으로 시작하여 2014년 15억, 2015년 27억, 2016년에는 33억 4천만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5년에는 57개 학교가 참여했으나,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는 초·중·고를 포함하여 1,90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 초·중·고 중 중학교 수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림 III-4】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흐름도

출처: 교육부 (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표 III-7 지역별 참여 대상 학교 수(2013~2016년)

지역	13년 대상(참여) 학교수				14년 대상(참여) 학교수				15년 대상(참여) 학교수				16년 대상(참여) 학교수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강원	6	11	-	17	10	36	-	46	42	112	-	154	52	131	8	191
경기	-	1	-	1	11	34	2	47	32	173	19	224	46	207	26	279
경남	-	1	-	1	11	36	1	48	29	140	2	171	51	151	11	213
경북	-	-	-	-	32	45	1	78	48	187	8	243	64	187	24	275
광주	-	1	-	1	-	1	1	2	-	2	1	3	-	2	1	3
대구	-	1	-	1	-	2	1	3	22	43	17	82	22	43	17	82
대전	-	1	-	1	-	2	1	3	1	2	1	4	1	2	1	4
부산	-	1	-	1	-	2	1	3	6	9	2	17	6	10	2	18
서울	-	1	-	1	-	1	1	2	-	1	1	2	-	1	1	2
세종	-	1	-	1	-	2	-	2	2	17	-	19	6	17	-	23
울산	-	1	-	1	-	2	1	3	1	13	1	15	1	16	1	18
인천	-	1	-	1	-	2	1	3	1	17	1	19	1	18	1	20
전남	-	1	-	1	43	61	1	105	29	124	1	154	44	204	14	262
전북	-	1	-	1	9	29	1	39	24	78	2	104	31	134	4	169
제주	-	1	-	1	1	6	1	8	1	45	1	47	7	43	2	52
충남	12	14	-	26	12	28	1	41	13	122	10	145	34	136	12	182
충북	-	1	-	1	6	17	1	24	14	80	3	97	19	85	9	113
총계	18	39	-	57	135	306	16	457	265	1,165	70	1,500	385	1,387	134	1,906

출처: 이지연(2016). 한국의 진로체험(미간행자료).

표 III-8 학교급별 제공 수업 횟수(2013~2016년)

학교급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초	93	1077	2204	775
중	192	2663	7071	2591
고	-	144	484	188
합계	285	3884	9759	3554

출처: 이지연(2016). 한국의 진로체험(미간행자료).

2016년도에 멘토 참여 인원은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48.0%)이 가장 많으며 다음은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15.8%), 경영·회계·사무 관련직(8.2%), 정보통신 관련직(6.4%)순이다. 2015년도 농산어촌 진로체험 현황조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에 따르면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학교의 원격영상 참여율은 83.4%이었으며 향후 참여의사는 61.4%로 호응이 좋았다.

표 III-9 참여 멘토 및 직업 종류의 고용직업분류 상 분류 (단위: 명, 종)

고용직업분류	13년		14년		15년		16년	
	참여 인원	직업 종류	참여 인원	직업 종류	참여 인원	직업 종류	참여 인원	직업 종류
건설 관련직	-	-	2	2	6	3	2	1
경비 및 청소 관련직	-	-	-	-	2	2	-	-
경영·회계·사무 관련직	-	-	20	15	39	24	14	11
관리직	1	1	2	2	2	2	-	-
교육 및 자연과학, 사회과학 연구 관련직	-	-	5	4	19	16	3	3
군인	-	-	4	1	4	4	-	-
금융·보험 관련직	-	-	2	1	5	5	2	2
기계 관련직	-	-	5	3	15	9	2	2
농림어업 관련직	-	-	2	1	2	2	1	1
문화·예술·디자인·방송 관련직	5	5	46	31	100	59	82	58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관련직	1	1	16	9	49	21	27	17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련직	-	-	6	3	14	5	6	3
보건·의료 관련직	-	-	8	6	24	19	9	7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	8	5	6	4	3	3

고용직업분류	13년		14년		15년		16년	
	참여 인원	직업 종류	참여 인원	직업 종류	참여 인원	직업 종류	참여 인원	직업 종류
섬유 및 의복 관련직	-	-	-	-	2	2	-	-
식품가공 관련직	-	-	1	1	5	3	2	2
영업 및 판매 관련직	-	-	-	-	6	6	-	-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	5	2	5	1	-	-
음식 서비스 관련직	1	1	4	4	21	13	6	5
재료 관련직 (금속·유리·점토·시멘트)	-	-	-	-	2	2	1	1
전기·전자 관련직	-	-	-	-	2	2	-	-
정보통신 관련직	1	1	4	4	26	22	11	10
화학 관련직	-	-	1	1	8	6	-	-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1	1	-	-	2	2	-	-
총계	10	10	141	95	366	234	171	126

출처: 이지연(2016). 한국의 진로체험(미간행자료).

(나) 진로체험버스 운영 현황

교육부는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이외에도 진로체험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체험의 기회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에 진로체험 및 진로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 학생은 도시지역에 비해 강연·대화형 체험이 부족한 점(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에 착안한 사업으로 전문직업인 및 진로교육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는 중앙에서, 지역교육청은 해당 지역 내 진로체험버스 관련 진로멘토단을 구축을 하여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를 운영한다.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가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민간기업이 버스를 활용하여 농산어촌 학교로 찾아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대학에서는 인근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과에 대한 체험 및 정보탐색 등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2015년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총 80명의 멘토를 활용하여 총 17회의 진로체험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개인, 공공기관, 민간협회,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대학,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 전국에서 다양한 분야의 멘토가 참여하였다. 2015년 참여인력은 ‘한국고용직업분류’ 상 총 29개 직업의 직업인들이었다(〈표 III-10〉 참조).

표 III-10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체험버스 참여 멘토링 현황

연번	유형	멘토(인원수)	한국고용직업분류(인원수)
1	개인	발레리나(1), 안무가(1)	무용가 및 안무가(2)
2		사진작가(1)	사진작가 사진사(1)
3		문화재/미술 전문가(1)	큐레이터 및 문화재보존원(1)
4		영화감독(1), 소셜라이브 방송인(1), 기자/콘텐츠PD(1)	영화·연극 및 방송 관련 전문가(3)
5		요리사(4)	주방장 및 조리사(4)
6		보험 전문가(1)	금융 및 보험 관리자(1)
7		승무원(1)	항공기객식승무원(1)
8		의사(2)	의사(2)
9		간호사(2)	간호사(2)
10		출판업계 종사자(1)	출판물 전문가(1)
11		마케팅전문가(1)	기획 및 마케팅 사무원(1)
12		진로교육 전문가(1)	서비스강사(1)
13		기업 사회공헌팀 종사자(1), 국제기구 종사자(4)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5)
14		회계사(1)	회계사(1)
15		변호사(1)	변호사(1)
16		공익법무관(1)	법률 관련 사무원(1)
17		공인노무사(1)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1)
18		창업가(2)	경영 및 진단 전문가(1)
19		네일아트 전문가(1), 헤어&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1)	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2)
20	공공기관	연구원(1)	인문사회과학 전문가(1)
21		드론 전문가(2)	기계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2)
22	민간협회, 사회적협 동조합	성우(2), 연극 전문가(8)	배우 및 모델(10)
23		칠기명장(1), 시계명장(1)	공예원(2)
24	음악 전문가(5)	음악강사(5)	
25	민간기업	비행기조종사(2)	항공기조종사(2)
26		금융 전문가(5)	금융 관련 사무원(5)
27	대학	심리치료사(4)	임상심리사(심리치료사)(4)
28	기타	스포츠국제협력매니저(1), 스포츠이벤트기획자(1), 스포츠국제심판&자원봉사(1), 스포츠마케팅 전문가(1), 스포츠매니저(1), 스포츠브랜드 보호담당자(1)	기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원(6)
29		스노보드 전문가(10)	스포츠 강사(10)

출처: 김승보 외 (2015). 2015년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사업.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187.

2015년에는 농어촌 967개교를 대상으로 전체 385회 진로 멘토링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표 III-11〉 참조). 2015년도 읍면지역 및 도서벽지 학교의 진로체험버스 참여율은 16.6%이며, 향후 참여의사는 90.4%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보다 참여율은 낮지만, 호감도는 높게 나타났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표 III-11 사업 관계기관 및 진로체험 지원 프로그램 현황

구분	기관명	운영 횟수	내용
민간기업	삼성전자사회봉사단	32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대차정몽구재단	16	중학교 동아리 멘토링 지원 (동아리 주제별 전문 직업인 멘토링)
	MBC	1	방송인 진로 멘토링 및 관련 체험활동
	청주MBC	2	방송중계차를 활용한 방송 직업체험 지원
	삼성디스플레이(충남)	7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견학 및 진로 특강
	PARU	2	대체 에너지 기술과 관련한 진로체험 제공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21	지역 센터별 특화된 산업 관련 진로체험 제공
대학	17개 국공립대학	58	대학의 특색 있는 학과 체험 운영
국책기관 및 교육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력 풀을 활용한 전문직업인 멘토링
	KERIS	4	ICT 관련 멘토링 및 체험 프로그램
	한국인터넷진흥원	3	정보보호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9개 시·도교육청	215	시·도별 지역 멘토단 및 기관을 활용한 자체 프로그램
기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3	동계올림픽 관련 직업 멘토링 및 체험
합계		385	-

출처: 김승보 외 (2015). 2015년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사업.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 188.

(다) 농어촌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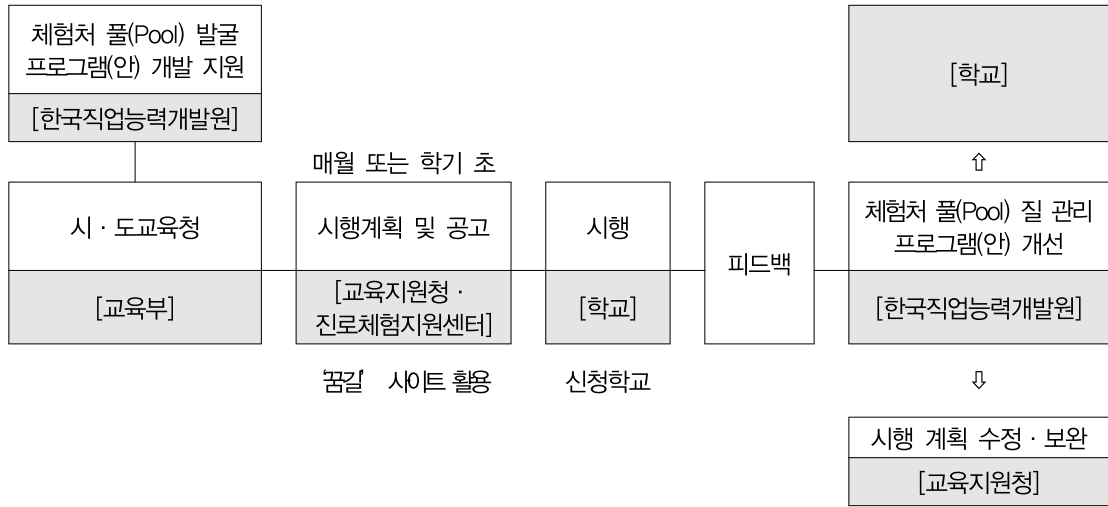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라 교육부는 상대적으로 진로체험 연건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중학교 1,228개교 재학생(2015.12.기준)을 대상으로 농어촌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크게 ‘지역 체험자원 활용 프로그램’ 과 ‘체험자원 교류 프로그램’ 으로 구분된다. ‘지역 체험자원 활용 프로그램’ 은 체험 인프라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체험 인적자원 활용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체험자원 교류 프로그램’ 은 1:1 지역 체험자원 교류·협력 프로그램과 대도시 체험자원 활용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대도시 체험자원 활용 프로그램’ 은 기존의 대도시 체험자원 활용 농어촌 진로체험 프로그램인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및 청년기업가체험프로그램(YEEP)과도 연계된다. 운영절차는 [그림 III-5]과 같으나,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명확하지 않다.

표 III-12 농어촌 진로체험 프로그램 모형과 세부내용

구분	유형	주요 내용	
지역 체험자원 활용 프로그램	체험 인프라 활용프로그램	1. 향토기업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의 우수한 향토기업 및 강소기업(전국 732개) 활용
		2. 지역특산품 연계 진로체험 캠프	지역 특산품(한우, 한지 등) 및 지역 특성(자연환경, 스포츠, 관광) 활용 캠프 개최
	체험 인적자원 활용프로그램	3. 지역 영농후계자 방문체험 프로그램	지역의 영농후계자를 체험처 멘토로 활용
		4. 농협·축협·수협 연계 진로체험 캠프	지역 농협 939개소, 지역 축협 116개소, 지역 수협 92개소를 체험처로 활용하는 한편, 신입 사원들을 멘토로 활용
		5. 도서벽지 학생 대상 공공예술 진로체험	도서벽지 지역 특성화 진로체험 및 공공예술 프로젝트 체험형
체험자원 교류 프로그램	1:1지역체험 자원교류 협력프로그램	6. 교육지원청 간 진로 체험처 교류 프로그램	국내 172개 지역특화발전특구(양송이 특구, 딸기특구 등)를 교차 활용함으로써 지역 간 교류
	대도시 체험자원 활용프로그램	7. 도서벽지 학생 대상 주한 대사관 방문 체험 프로그램	주한 대사관 및 외국문화원 체험 제공
		- 진로체험버스(*)	직접 찾아가는 농어촌 진로체험 및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
		- 원격영상멘토링(*)	전문직업인 멘토의 온라인 멘토링 수업을 통한 진로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 청소년기업가 체험프로그램(*)	기업 및 창업에 대한 온라인시스템 기반 체험 교육 프로그램		

출처: 김승보 외 (2015). 2015년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사업.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p.199.



【그림 III-5】 농어촌 지역 특성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절차 모형

출처: 김승보 외 (2015). 2015년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사업,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p.200.

(라) 지역 특화벨트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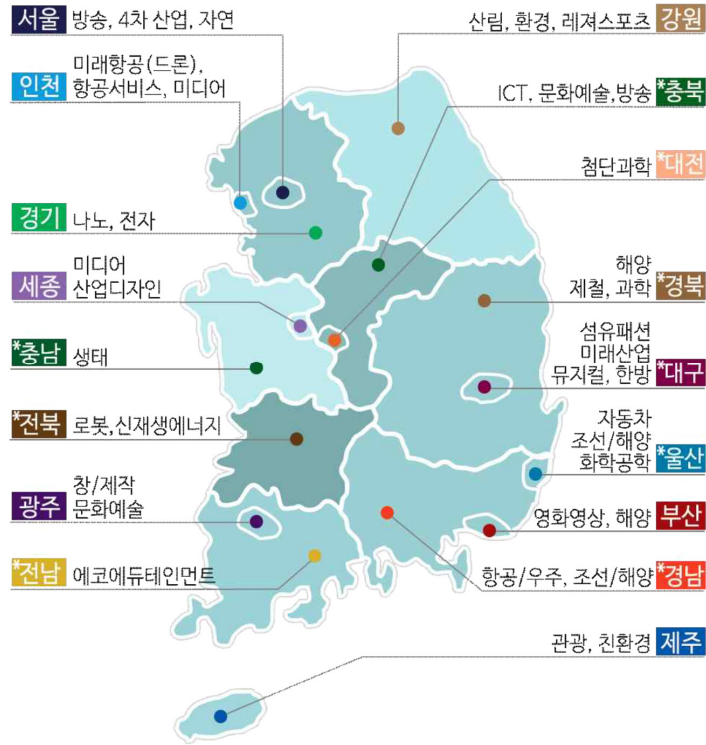
교육부는 농산어촌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역별 산업특성에 부합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양질의 심도 있는 진로체험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지역벨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벨트사업은 17개 지역의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컨소시엄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탐색-현장견학-직업캠프 등을 단계적으로 구성한 종합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다.

둘째, 프로그램은 당일 프로그램, 1박2일/2박3일 캠프형, 박람회 및 페스티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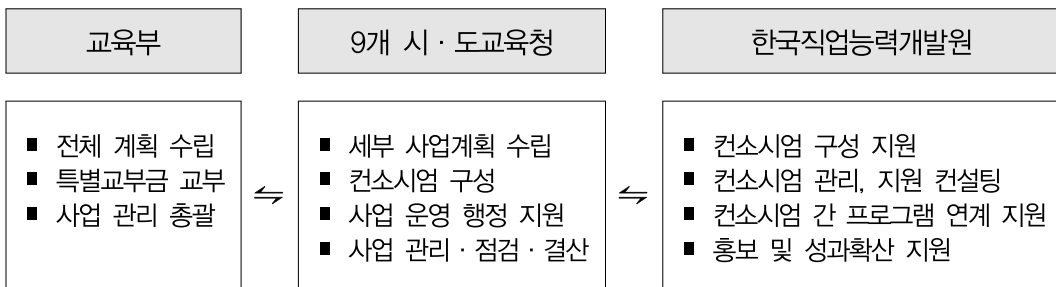
셋째,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꿈길을 통한 학교매칭이다.



【그림 III-6】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

출처: 교육부(2017).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요(교육부 내부자료).

사업은 전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되 농산어촌 학생을 우선 선발하며 지역의 기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다.



【그림 III-7】 지역 특화벨트 사업 추진도

출처: 교육부 (2016).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

2. 한국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 참여 현황

1) 분석자료개요

PISA 조사 결과와 최근 한국의 진로교육정책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 현황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경험률이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2006년과 2012년 PISA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절대적인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도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2년 이후의 상황은 어떠할까? 2012년 이후 진로교육정책이 크게 활성화되고 관련 인프라가 크게 확충된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의 상황과 최근 몇 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둘째, 진로체험활동의 경험이 어떤 효과로 나타나는지이다. 2012년 PISA 조사의 분석(Sweet R et al, 2014, 김현철 외, 2016)의 주된 관심은 진로체험활동이 장래의 직업역량을 습득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였다. 이는 학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해서 진로와 관련된 역량이나 진로성숙도 등의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현단계의 진로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셋째, 자유학기제 경험이 진로체험활동 참여나 진로성숙도 또는 진로역량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되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의 도입이 진로교육, 특히 진로체험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2가지 조사자료를 교차비교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2016년 1차년도 연구에서 수행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실태조사(이하 2016 NYPI 조사)」이다. 이 조사는 2016년에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중학생 3,000명과 고등학생 3,000명, 총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6년에 분석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자유학기제 관련 문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진로교

육현황조사(이하 2016 KRIVET 조사)」이다. 이 조사는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다. 2016년에는 2015년에 제정된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법적 조사항목을 반영하여 조사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7,346명, 중학교 3학년 9,626명과 고등학교 2학년 10,292명 등 총 27,264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2016 NYPI 조사와 2016 KRIVET 조사는 조사대상, 경험 구간(즉, 전자는 일 년간의 경험, 후자는 경험기간 미지정), 진로체험활동의 내용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조사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해석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일 조사보다는 두 조사를 교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2) 진로체험활동 참여현황

(1) 진로체험활동 경험률

가. 진로체험활동의 정의

2016 NYPI 조사에서는 선행연구분석을 토대로 진로체험활동을 <표 III-13>과 같이 간접체험과 직접체험으로 나누었다. 간접체험에는 영상미디어 자료활용, 전문직업인 초청,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이 포함시켰고 직접체험에는 현장견학형, 학과체험형, 현장직업체험형, 캠프형, 아르바이트 등 임금노동, 농업 및 상업 등 가내노동 등을 포함시켰다. 원격화상진로멘토링은 운영방식에 따라서 간접체험인 경우도 있고 직접체험인 경우도 있어서 혼합형의 체험으로 분류하였다(김현철, 백혜정, 이지연, 2016: 22). 단 아르바이트와 같은 임금노동 형태의 체험은 별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진로체험활동 경험이란 아르바이트 경험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의 경험이다.

아르바이트와 원격화상진로멘토링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진로체험활동 항목은 2012 PISA 조사의 진로교육 부가조사의 진로체험활동 항목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III-13>참조). 2016 NYPI 조사결과를 2012 PISA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조사항목으로 구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간접적인 비교나 추론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016년 1차년도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진로체험활동의 경험을 학교 내 활동과 학교밖의 활동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던 것도 2012년도 PISA 조사의 진로교육 부가조사에서 국가별로 학교 내 경험과 학교 밖 경험의 차이가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Sweet R et al., 2014; 김현철 외, 2016).

반면 2016 KRIVET 조사에서는 학교진로활동과 진로체험활동을 별도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표 III-13>에서 알 수 있듯이 2016 KRIVET 조사는 학교 내 활동을 ‘학교진로활동’ 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진로체험활동’ 으로 구분하고 있어 2016 NYPI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표 III-13 NYPI 조사·PISA 조사·KRIVET 조사의 진로체험활동 문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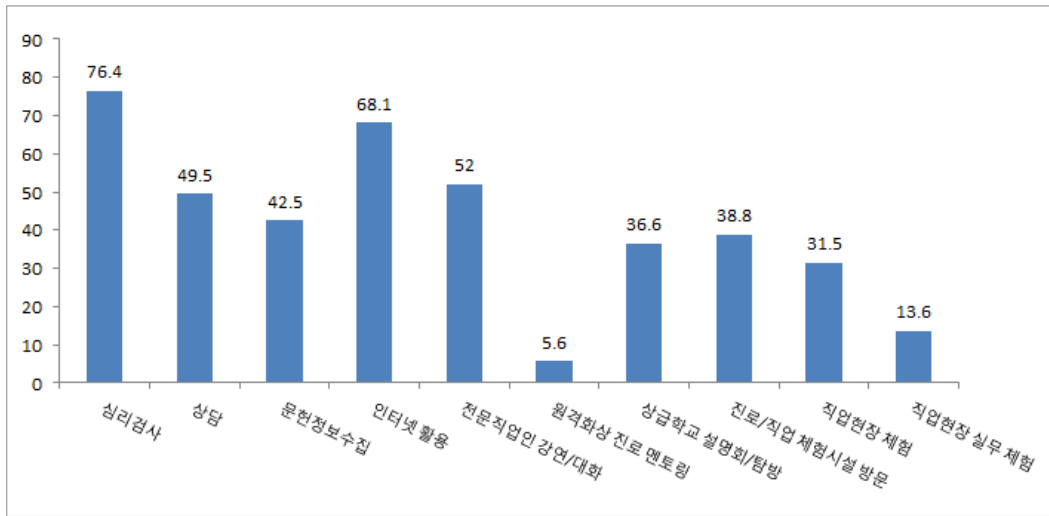
2016 NYPI 조사	2012 PISA 조사	2016 KRIVET 조사
(간접체험) 영상미디어 자료활용 전문직업인 초청 진로상담(진로심리검사포함)	진로상담교사와의 대화 학교 밖 진로상담사와의 대화 흥미, 능력 탐색을 위한 설문작성 진로 관련 정보의 인터넷 탐색 상급학교 프로그램정보 검색	(학교진로활동) 「진로와 직업」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
(직접체험) 현장견학 학과체험 현장직업체험 진로캠프	인턴십 활동 직업박람회 참여 직업체험(Job Shadowing) 또는 일터 방문 상급학교 투어(학과체험)	(진로체험) 직업인 멘토 특강 현장견학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
(혼합형) 원격화상 진로멘토링	-	-

출처: *2016 NYPI 조사=김현철 외(2016).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22에서 재구성
 **2012 PISA 조사= 원자료는 OECD 자료(Educational Career Questionnaire for PISA 2012)이며, 이지연(2015)이 번역한 것과 영문 및 국민문항을 함께 제시한 김현철 외(2016)으로부터 재구성
 ***2016 KRIVET 조사=장한진 외(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30에서 재구성

나. 진로체험활동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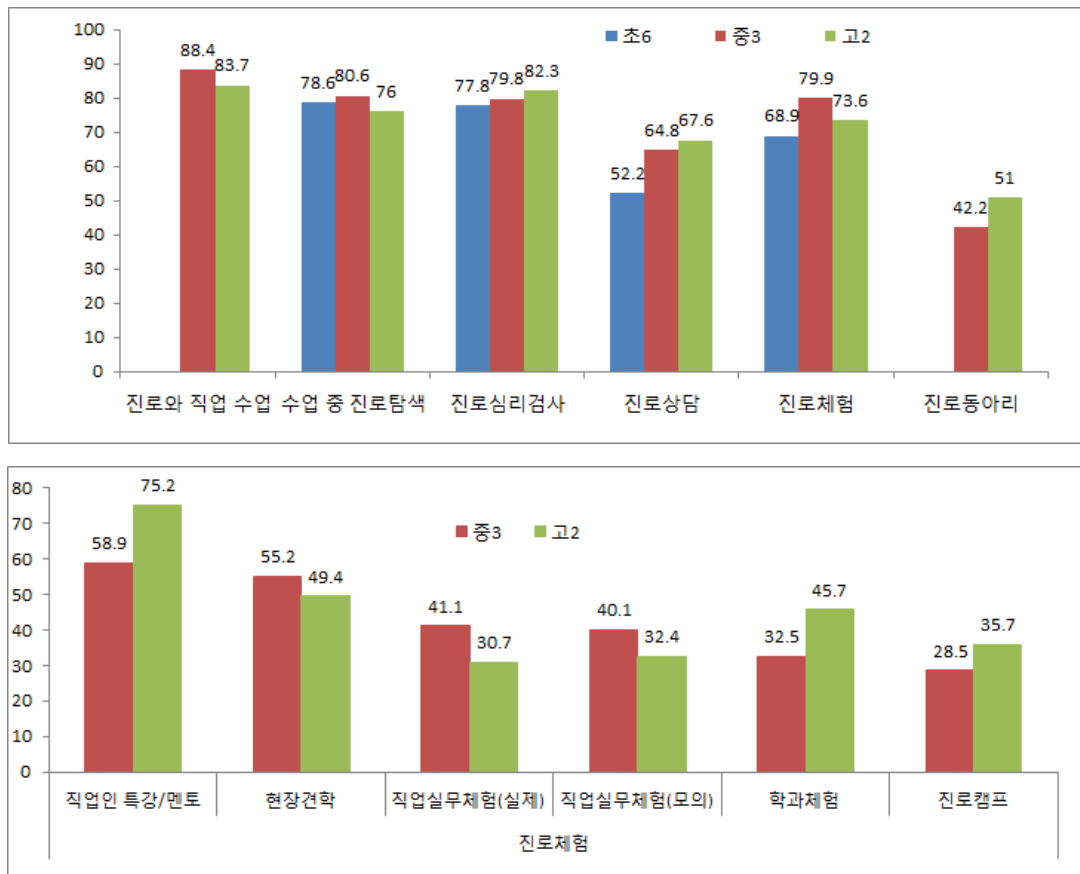
2016 NYPI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참여한 진로체험활동은 심리검사활동으로 청소년의 76.4%가 참여하였다. 다음으로 설명회/탐방이 36.6%, 직업현장 체험은 31.5%였고 직업현장 실무체험은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직접체험활동보다는 간접체험활동 참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II-8>).

그러나 상급학교 설명회 및 탐방, 진로/직업 체험시설 방문, 직업현장 체험, 직업현장실무체험과 같은 직접체험활동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은 62.5%로 나타났다(김현철 외, 2016: 163). 이와 같은 활동은 학교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2장의 2012 PISA 조사에서 한국의 경우 학교 내보다는 학교 밖에서의 경험이 높게 나온 것(김현철 외, 2016: 143-162)과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가 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학교 내와 학교 밖의 경험을 엄밀히 구분하기는 힘들다. 학교활동의 일환으로 참여하더라도 활동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학교 밖의 강사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 Ⅲ-8】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률(%)

출처: 김현철 외(2016).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63



【그림 III-9】 진로교육 유형별 경험률(%)

출처: 장현진 외(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결과(pp.73-78)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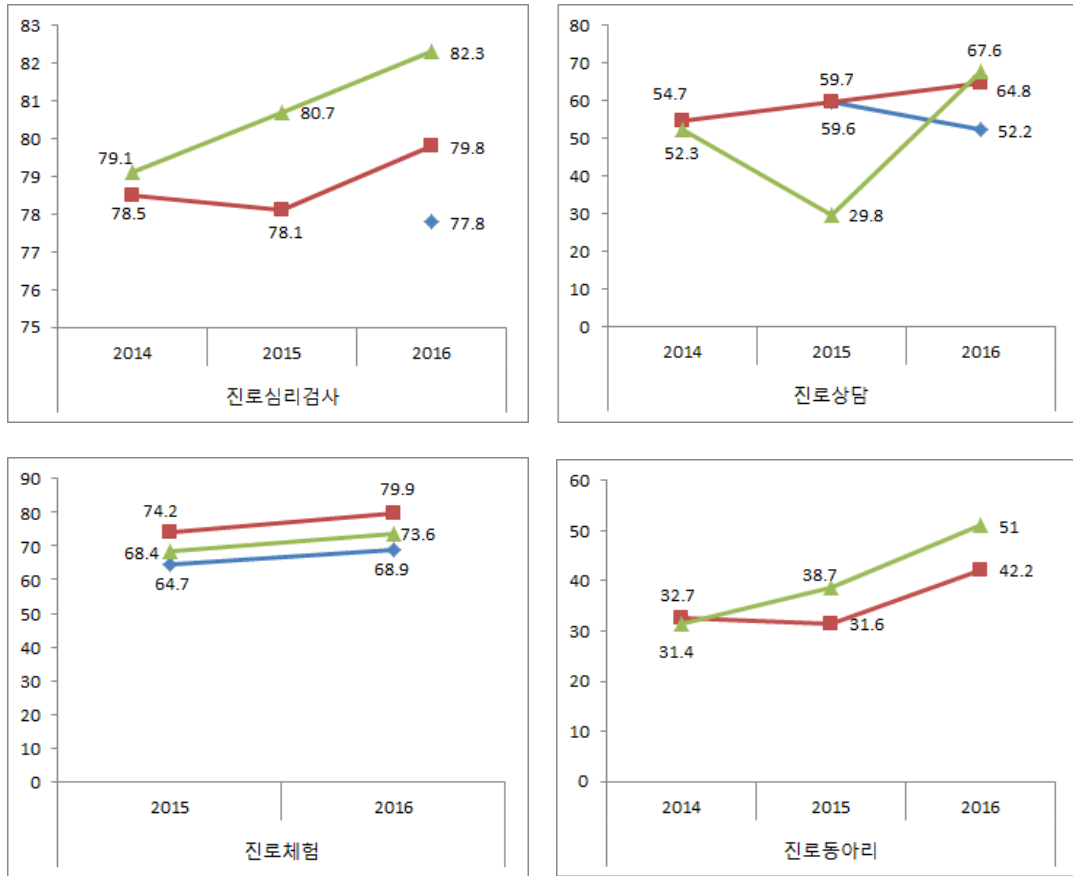
2016 KRIVET 조사 역시 2016 NYPI 조사와 모집단이 다르고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문항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차이를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학교진로활동의 경우 「진로와 직업」수업이나 수업 중 진로탐색활동을 제외하면 심리검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한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진로체험활동에서 심리검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2016 NYPI 조사와 2016 KRIVET 조사를 통해서 보건데 진로상담경험은 최소한 50% 이상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 KRIVET 조사에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진로상담경험이 많아지는 것은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한 상담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2012 PISA 조사결과가 말해주듯이 진로상담의 경험은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고(2장),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만큼(황매향, 2016;

김현철 외, 2016)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경험의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2016 KRIVET 조사에 따르면 진로상담의 경험은 최소한 중학생의 경우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그림 III-10).

2016 KRIVET 조사에 의하면(그림 III-9), 초등학교 6학년은 수업 중 진로탐색(78.6%)과 진로심리검사(77.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진로체험(68.9%), 진로상담(52.2%)순으로 나타난 반면, ‘진로와 직업’ 수업이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진로와 직업’ 수업 참여가 각각 88.4%와 83.7%로 가장 높았고 진로심리검사도 각각 79.8%와 82.3%로 높게 나타났다. 진로체험활동 참여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79.9%와 73.6%로 나왔다(그림 III-9). (장현진, 윤행한, 김민경, 류지영, 이지은, 유미애, 2016: 73-78). 진로체험의 유형별 경험률을 살펴보면, 직업인 특강·멘토 경험이 제일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6 NYPI 조사에서는 심리검사와 상담 그리고 문헌정보, 인터넷활용 등의 항목을 진로체험활동으로 같이 물었지만, 2016 KRIVET 조사에서처럼 이들 항목을 제외하면, 역시 전문직업인의 강연이나 대화가 가장 많아 진로체험활동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이 큰 틀에서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진로와 직업」 수업이나 수업 중 진로탐색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항목의 체험경험률이 높고 기타 항목 중 심리검사를 포함해서 비교할 때는 심리검사 체험경험이 많으며 나머지 진로체험활동 중에서는 직업인이나 멘토의 특강이 가장 많은 체험 유형이며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체험활동보다는 간접적인 체험활동 경험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2016 KRIVET 조사로부터 진로체험활동 참여율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III-10]에서 알 수 있듯이, 항목에 따라 학교급별 변화 양상이 일관되지는 않지만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체험활동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III-10】 진로체험 유형별 경험률의 변화(2014년-2016년)

출처: 장현진 외(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결과(pp.73-75)를 재구성함(파랑=초, 빨강=중, 초록=고)

(2)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성과, 만족도 그리고 유용성

2016 KRIVET 조사에 의하면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한 초·중·고교생 모두 참여하지 않은 초·중·고교생보다 진로역량개발의 성과가 더 긍정적이었다(표 III-14). 진로역량개발 변인의 하위변인에서 결과는 거의 대부분 동일했다(장현진 외, 2016:254-272). 즉 각각의 체험활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분명한 것은 참여한 경우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

표 III-14

학교 진로활동 경험에 따른 진로교육 성과 차이(초·중·고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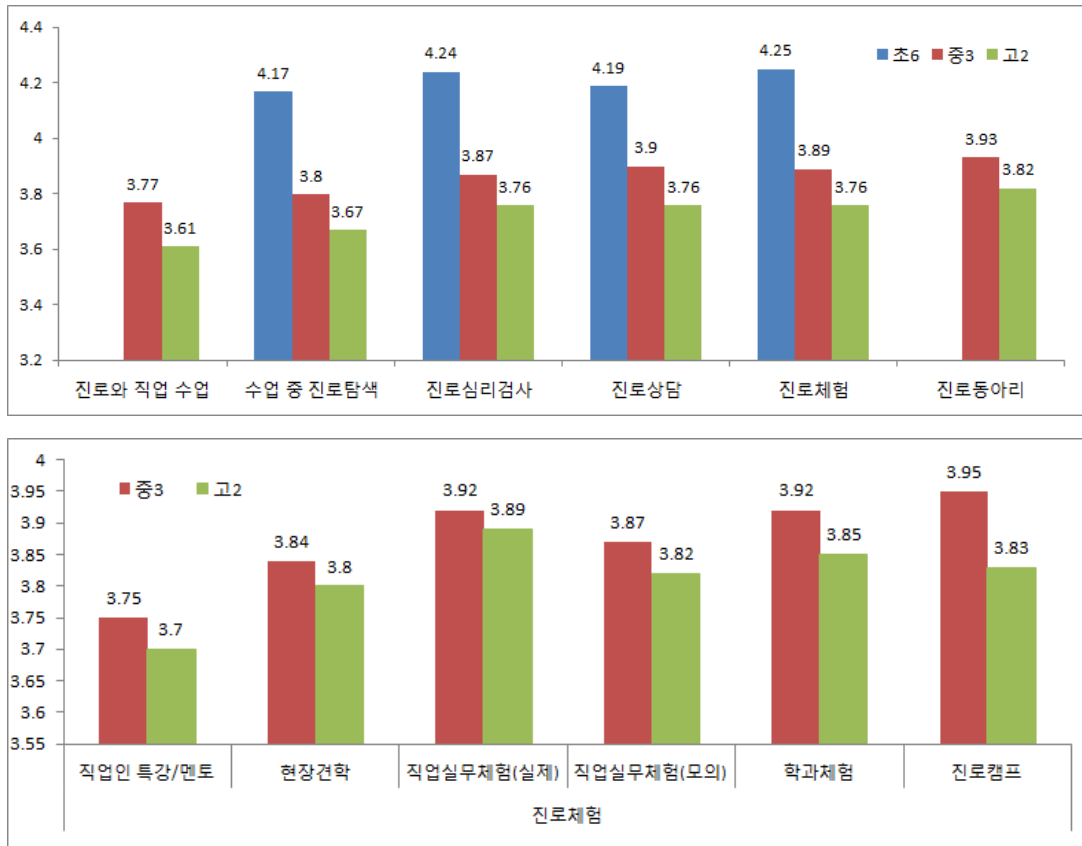
(단위: 점)

학교 진로활동		진로역량개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평균	표준편차	t값	평균	표준편차	t값	평균	표준편차	t값
『진로와 직업』 수업	예	-	-	-	3.92	0.66	10.916 (0.000)	3.72	0.67	8.198 (0.000)
	아니오	-	-	-	3.69	0.70	***	3.57	0.67	***
진로동아리	예	-	-	-	4.01	0.69	14.151 (0.000)	3.82	0.69	19.188 (0.000)
	아니오	-	-	-	3.82	0.63	***	3.57	0.64	***
진로심리검사	예	4.31	0.56	11.858 (0.000)	3.94	0.66	13.354 (0.000)	3.73	0.66	11.456 (0.000)
	아니오	4.12	0.63	***	3.72	0.67	***	3.53	0.70	***
진로상담	예	4.35	0.57	12.247 (0.973)	3.98	0.67	15.782 (0.000)	3.77	0.68	16.724 (0.000)
	아니오	4.18	0.58	***	3.75	0.64	***	3.54	0.65	***
진로체험	예	4.34	0.56	16.006 (0.006)	3.94	0.65	13.210 (0.000)	3.76	0.67	15.277 (0.000)
	아니오	4.11	0.59	**	3.72	0.68	***	3.53	0.67	***
교과 수업 중 진로탐색	예	4.33	0.55	16.625 (0.000)	3.95	0.65	16.006 (0.000)	3.75	0.67	15.407 (0.000)
	아니오	4.06	0.63	***	3.67	0.68	***	3.52	0.67	***

출처: 장현진 외(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재구성.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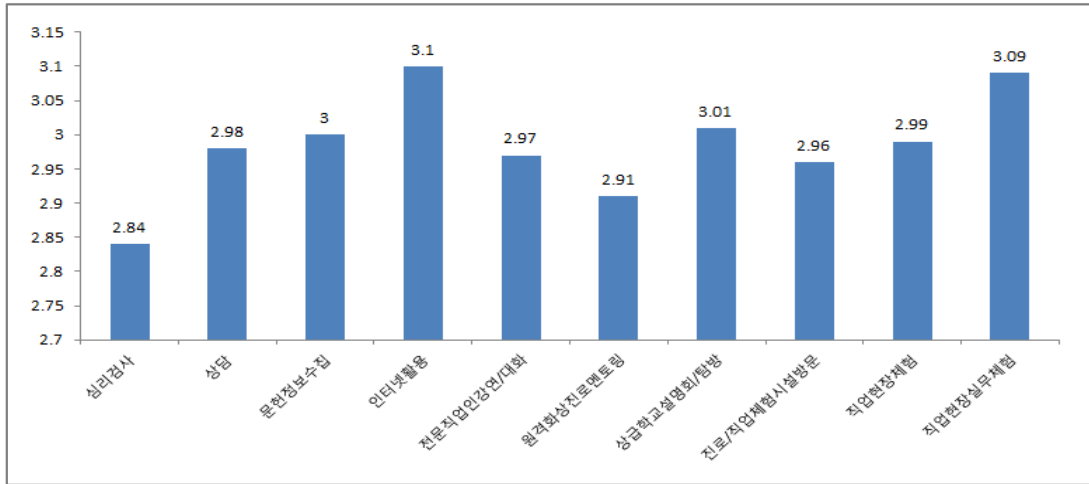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진로체험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할까? 2016 KRIVET 조사로부터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를 살펴보면(그림 III-11), 평균 5점 만점에 3.61점~4.25점의 분포를 보여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체험, 진로동아리, 진로상담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진로체험활동(2016 KRIVET 조사의 경우는 학교진로활동)에 다소 높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직간접적인 진로체험활동이 직업인이나 멘토에 의한 강의보다는 만족도가 높았다(장현진 외, 2016: 72-74).



【그림 III-11】 진로교육 유형별 만족도

출처: 장현진 외(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 결과(pp.72~78)를 재구성함.

2016 NYPI 조사로부터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진로체험활동의 도움정도(유용성)를 살펴보면 (【그림 III-12】), 유형별로 4점 만점에 최소 2.84점~최대 3.1점 사이의 평균점수를 보고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대체로 진로체험활동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철 외, 2016: 164).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인터넷 활용(3.1점)과 직업현장실무체험(3.09점)은 가장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고 기타 진로체험활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심리검사(2.84점)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가장 낮았다.



【그림 III-12】 진로체험 유형별 도움에 대한 인식 정도

출처: 김현철 외(2016),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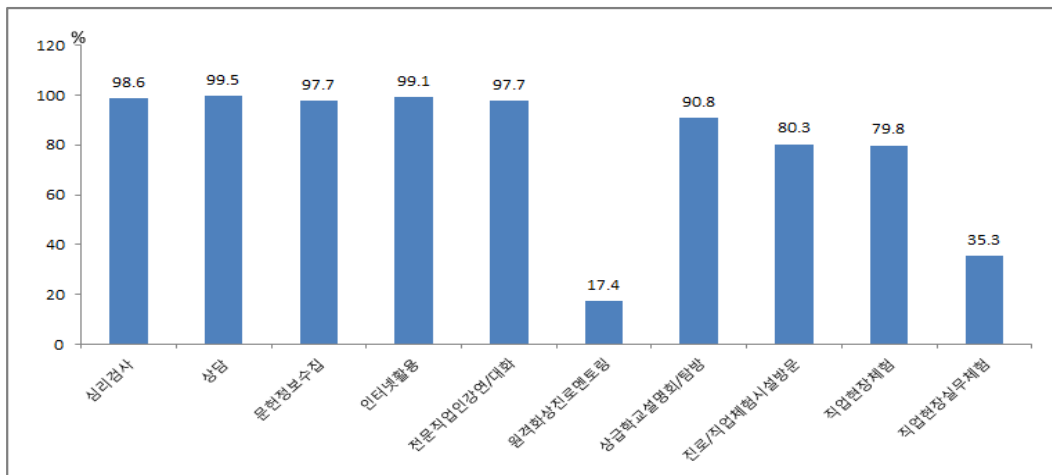
두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직업현장실무체험의 도움정도나 동아리 활동 및 진로체험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전문직업인 초청·대화나 직업인 특강·멘토 그리고 심리검사에 대한 만족도 또는 유용성 인식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높은 간접 체험활동보다는 보다 능동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직접 체험활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6 NYPI 조사로부터 청소년들이 어떤 경우에 진로체험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그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알 수 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직접적인 체험활동(진로직업 체험시설 방문, 직업현장체험, 직업현장 실무체험)을 경험할 때 첫째, 보다 효과적이며 둘째,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셋째, 더 흥미롭게 느끼며, 넷째,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도 더 많이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철 외, 2016: 165-169). 반면, 2016 KRIVET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장현진 외, 2016: 101-106). 진로심리검사는 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진로체험활동임에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진로심리검사의 활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2장에서 소개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개인-직업특성 매칭이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진로상담을 이끌기보다는 ‘혼돈적인 진로상담 접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너무 개인의 적성을 찾아서 특정 직업과 성급하게 매칭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 사회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일과 자신의 삶을 생각해보는 경험들이 중요할 것이다. 진로심리검사에 대한 만족도나 유용성 점수가 낮은 것은 대부분 검사 후 단순히 자신의 특성에 대해서만 인지시키고 그 이후의 적절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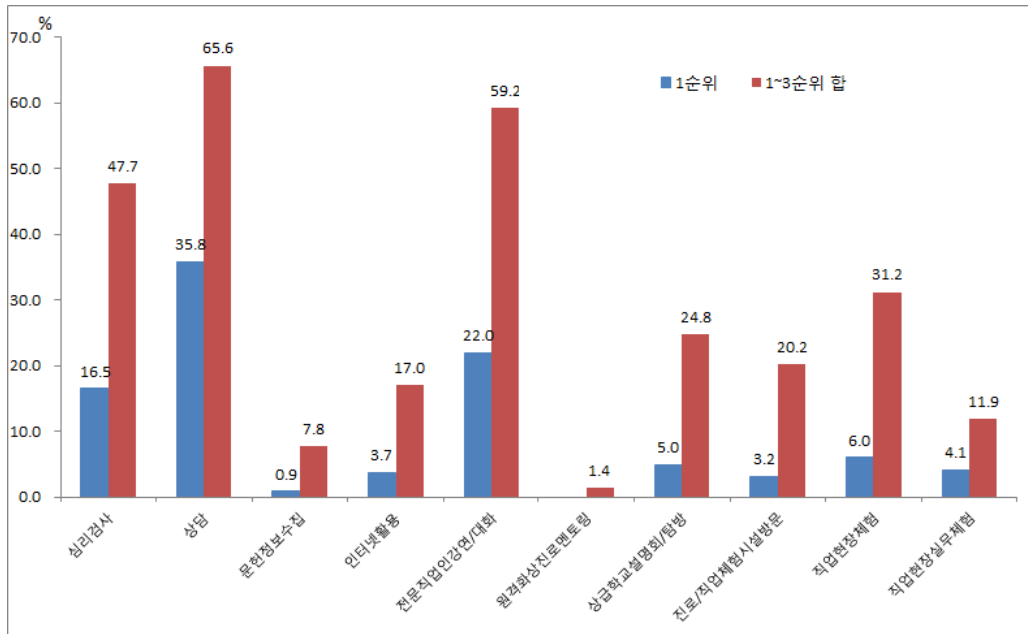
(3)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2016 NYPI 조사에서는 전국 218개교의 진로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물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림 III-13), 청소년대상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온 직업현장체험, 진로/직업체험시설 방문, 직업현장실무체험과 같은 직접체험활동보다는 간접체험활동이 더 많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철 외, 2016: 190-191).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직업전문인 강연 및 대화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역점을 두고 있는 활동이지만(그림 III-1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이들 체험활동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낮았다(김현철 외, 2016: 192). 결국 학교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역점을 두고 운영하는 진로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낮은 활동이며 유용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도 낮은 활동이어서 청소년들의 만족도나 유용성 인식이 높은 진로체험활동의 비중을 높이거나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직업전문인 강연 및 대화와 같은 체험활동을 보다 내실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III-13】 학교 내 진로체험활동별 실시 정도

출처: 김현철 외(2016).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91



【그림 Ⅲ-14】 학교에서 역점을 두는 진로체험활동

출처: 김현철 외(2016).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192

3) 자유학기제가 진로체험활동에 미치는 영향

2016년에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지만 시행시점이 다르고 따라서 1학년이라도 조사시점인 5월~7월 사이에는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이 있고 자유학기제 시범학교가 아닌 이상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못한 학생들이 더 많을 수 있다. 2016 NYPI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중 36.1%가 과거에 자유학기제 경험이 있거나 현재 경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15).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시기를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기가 77.5%, 1학년 1학기가 21.8%로 대부분의 경우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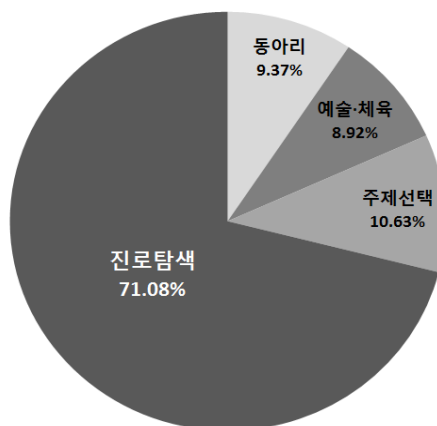
자유학기제 참여 경험과 경험시기

(단위: 명, %)

경험유무	과거에 참여	현재 참여 중	없다	모름/ 무응답	계
	1,053 (33.2)	93 (2.9)	1,971 (62.1)	57 (1.8)	3174 (100.0/100.0)
경험시기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계
	250 (21.8)	888 (77.5)	6 (0.5)	2 (0.2)	1,146 (100.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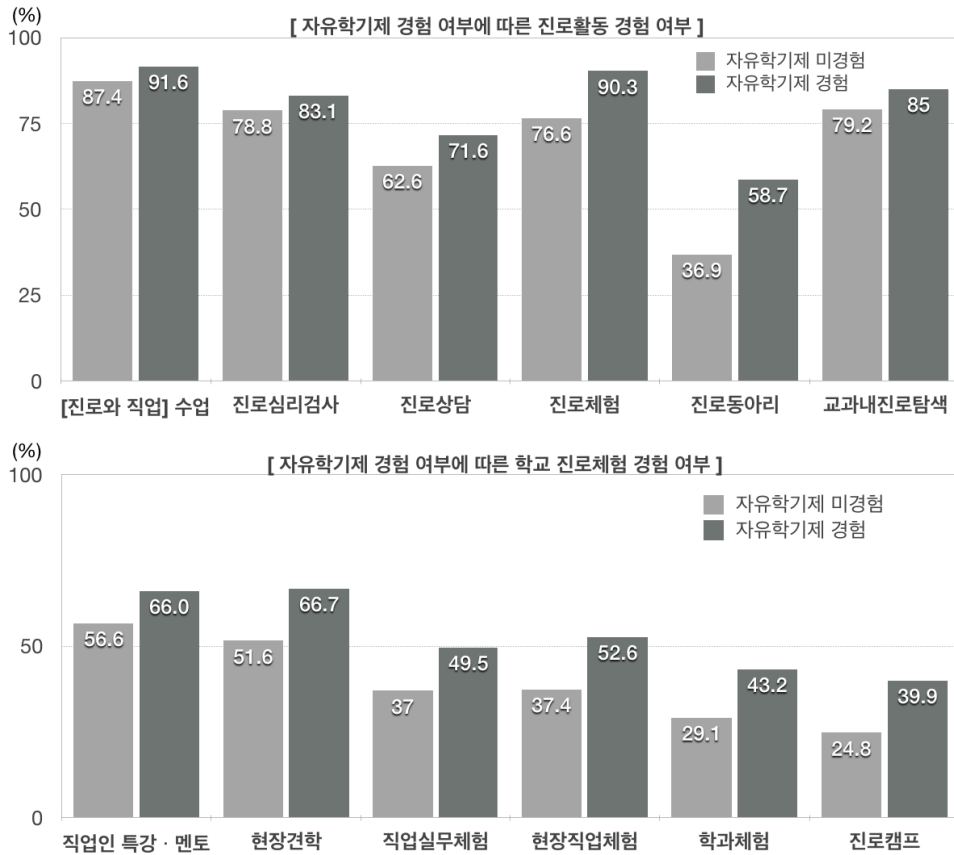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참여실태조사」

자유학기제는 전반적으로 진로체험활동의 기회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9월 시점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자유학기 체험활동 계획 분석자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에 의하면 자유학기를 통해서 운영하는 체험활동 중에는 진로탐색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활동 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진로탐색(71.08%), 주제선택(10.63%), 동아리(9.37%), 예술·체육(8.92%) 순으로 진로탐색활동이 다른 활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다(그림 III-15). 2016 KRIVET 조사에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그룹과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못한 그룹 간에 진로체험활동 경험률을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그룹이 진로체험활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6). 즉 자유학기제의 도입이 진로체험활동 경험률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 운영이 진로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의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5】 체험활동 유형별 프로그램 비중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계획 분석 2016년도 2학기에서 재구성.



【그림 III-16】 학교 내 진로체험활동별 실시 정도

출처: 장현진 외(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재구성

그러나 2016 NYPI 조사와 2016 KRIVET 조사는 자유학기제의 경험이 진로성숙도나 진로역량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016 NYPI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진로성숙도 전체와 각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자유학기제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진로성숙도 하위영역 중 자신에 대한 지식영역($F(1,3085) = 5.675, p < .05$)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III-16〉). 자신지식 영역의 경우에도 에타제곱(ϵ^2)이 .002로 자유학기제 경험여부가 갖는 설명력은 매우 작다. 2016 KRIVET 조사에서도 자유학기제 경험유무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의 하위영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7〉).

표 III-16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	자유학기제경험 여부	빈도	평균	표준편차	F(df)
진로성숙도_전체	있음	1,114	2.77	.407	.493(1, 3013)
	없음	1,901	2.78	.377	
진로성숙도_계획성	있음	1,140	2.80	.660	1.451(1, 3092)
	없음	1,954	2.83	.638	
진로성숙도_독립성	있음	1,139	2.73	.385	.023(1, 3091)
	없음	1,953	2.73	.392	
진로성숙도_태도	있음	1,140	2.54	.412	.177(1, 3091)
	없음	1,952	2.53	.406	
진로성숙도_자신지식	있음	1,138	3.18	.581	5.675(1, 3085)*
	없음	1,949	3.23	.537	
진로성숙도_진로행동	있음	1,137	2.56	.685	.863(1, 3086)
	없음	1,951	2.54	.680	
직업지식	있음	1,134	2.80	.658	.421(1, 3075)
	없음	1,943	2.81	.639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참여실태조사」

주) * $p < .05$

표 III-17 자유학기제 경험 여부에 따른 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수준 차이 (단위: 명, 점)

진로성숙도	자유학기제경험 여부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전체	있음	2,352	3.91	0.69	0.919 (0.358)
	없음	7,274	3.89	0.66	
자아이해 및 사회성	있음	2,352	4.11	0.73	0.749 (0.454)
	없음	7,274	4.10	0.71	
직업이해	있음	2,352	3.73	0.80	0.457 (0.647)
	없음	7,274	3.73	0.78	
진로탐색	있음	2,352	3.94	0.80	0.974 (0.330)
	없음	7,274	3.92	0.77	
진로설계 및 준비	있음	2,352	3.79	0.84	1.143 (0.253)
	없음	7,274	3.76	0.80	

출처: 장현진 외(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p.301.

주) * $p < .05$ ** $p < .01$ *** $p < .001$

결국 자유학기제가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활동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는 기여하였지만 그 결과가 진로역량개발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어디까지나 프로그램의 평균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개별적인 프로그램들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직은 자유학기제 시행 초기이기도 하고 혼돈이론적 관점에서 보자면 단기의 효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 효과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결국 보다 긍정적인 프로그램 사례를 늘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며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소결

지금까지 언급한 진로교육정책의 흐름과 진로체험활동 지원 인프라를 총망라하면 [그림 III-17]과 같다.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에 있어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컨트롤 타워역할을 하고 있다. 진로교육법 개정에 따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에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설치되고 자유학기제 중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컨트롤 타워였던 한국과학창의재단도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서 자유학기제와 진로체험활동 지원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서울 청진기 사업이 만들어지기 전 모델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중앙차원의 또 다른 지원축이다. 온라인 지원시스템으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커리어넷,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하는 크레존이 있으며 각 지역교육청이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자유학기제 차원의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학교-체험터 매칭 시스템인 꿈길(www.ggomgil.go.kr)도 운영되고 있으며 부족한 진로체험자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원격화상진로멘토링 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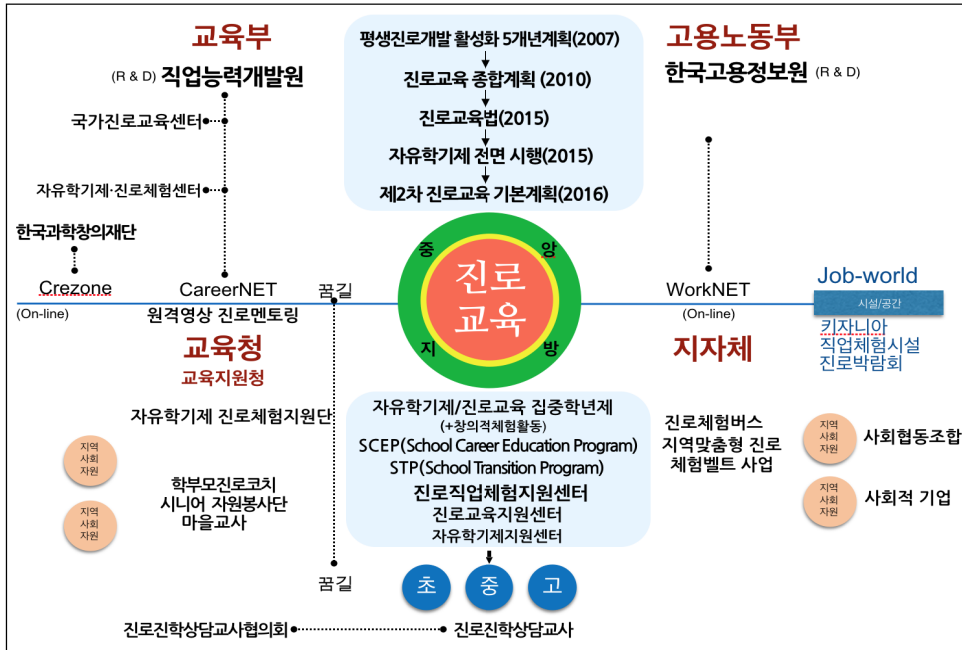
직업체험시설이나 공간으로서는 국립시설인 한국잡월드(고용부 산하)가 있고 대구에 또 하나의 직업체험시설(여성가족부 산하)이 만들어질 계획이며 몇몇 지자체 또는 교육청이 설립한 직업체험시설(대전위캔센터, 강원진로교육원 등) 이외에 추가적인 시설의 설립이 계획되고 있다. 민간 시설인 키자니아도 직업체험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진로박람회가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중학교에서의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된 후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등의 형식으로 초중고로 확산될 예정에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 내에서의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hool Career Education Program, SCEP), 학교전환기 진로지도 프로그램(School Transition Program, STP)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진로교육 운영자료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부족한 체험처 자원을 보강하고 소외지역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원격화상진로멘토링 사업과 진로체험버스 사업도 운영 중이다.

진로교육 전문인력 등 인력자원의 차원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중고등학교에 배치되었고 향후에는 석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진로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그 밖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인력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인력들이 배치되거나 양성되고 있으며 학부모진로코치, 마을교사, 시니어자원봉사단이 양성·활용되고 있다.

한 마디로 진로교육정책을 보면 주로 진로체험활동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진로교육법의 시행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전반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지역간 격차가 크지만 민간부문의 참여도 크게 늘었다. 여전히 모든 청소년들이 충분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이 개발되어야 하지만 자원의 양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와 좋은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전반적으로 단순한 ‘매칭’에 주력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체험의 공간을 만들고(부스화), 외부인력에 프로그램을 맡기는(외주화)의 경향이 강했다. 물론 ‘부스화’와 ‘외주화’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부스’도 있고 좋은 ‘외주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살펴본 진로체험활동의 현황을 보면 한 마디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으로도 증가하고 다양성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직접체험보다는 간접체험활동이 더 많다.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운영하는 직업인 또는 멘토 강의나 심리검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다른 활동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것은 향후 진로체험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2016년에 전면도입된 자유학기제로 인하여 최소한 중학교 단위에서 진로체험활동의 기회는 늘어났으나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체험활동이 이른바 직업역량개발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진로체험활동의 질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림 Ⅲ-17】 진로교육 인프라 구성도

제 IV 장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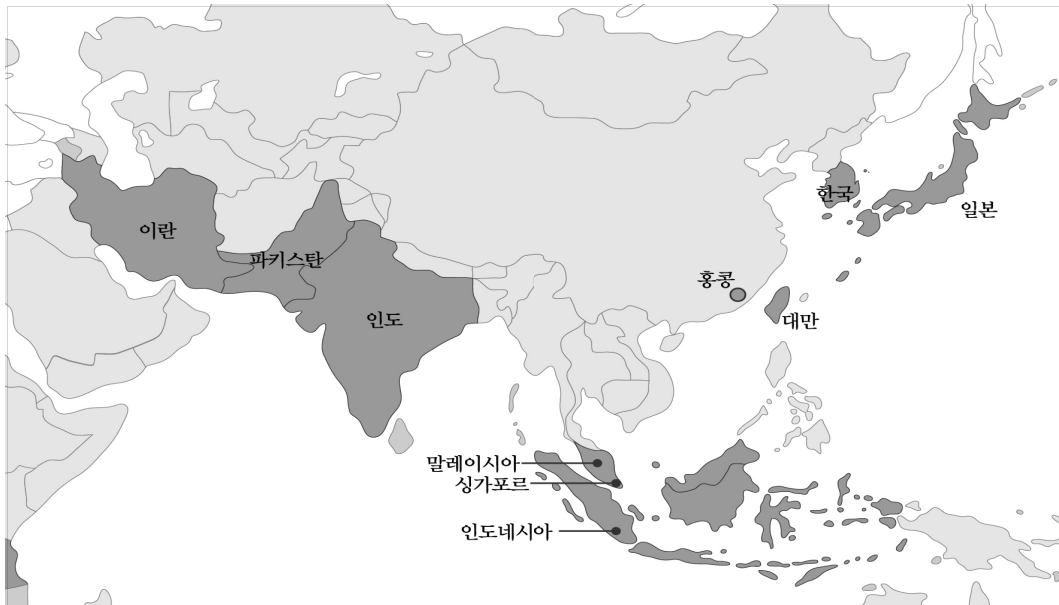
1. 아시아 각국 비교의 관점
2.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
3. 아시아 국가 진로교육 현황의
종합적인 비교 분석

제 IV 장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과 전망

1. 아시아 각국 비교의 관점

비교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지역 총 10개 지역이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아시아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서남아시아에서는 이란이 비교대상국이다. 북아시아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는 제외되었다. ARACD 회원국 중 국제학술회의 참가국에 한정하여 비교하였다.



【그림 IV-1】 아시아 비교대상국의 지리적 위치

참가국과 참가지역을 지리적 권역과 경제적 규모 기준으로 분류하면, <표 IV-1>과 같다. 경제력 규모에 있어서 A 그룹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B 그룹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이란, C 그룹은 인도네시아, D 그룹은 인도와 파키스탄이다.

표 IV-1 비교대상국의 지리적 권역과 경제력 규모

경제력 규모 지리적 권역	A	B	C	D
동아시아	일본 홍콩	한국 대만	-	-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
남아시아	-	-	-	인도 파키스탄
서남아시아	-	이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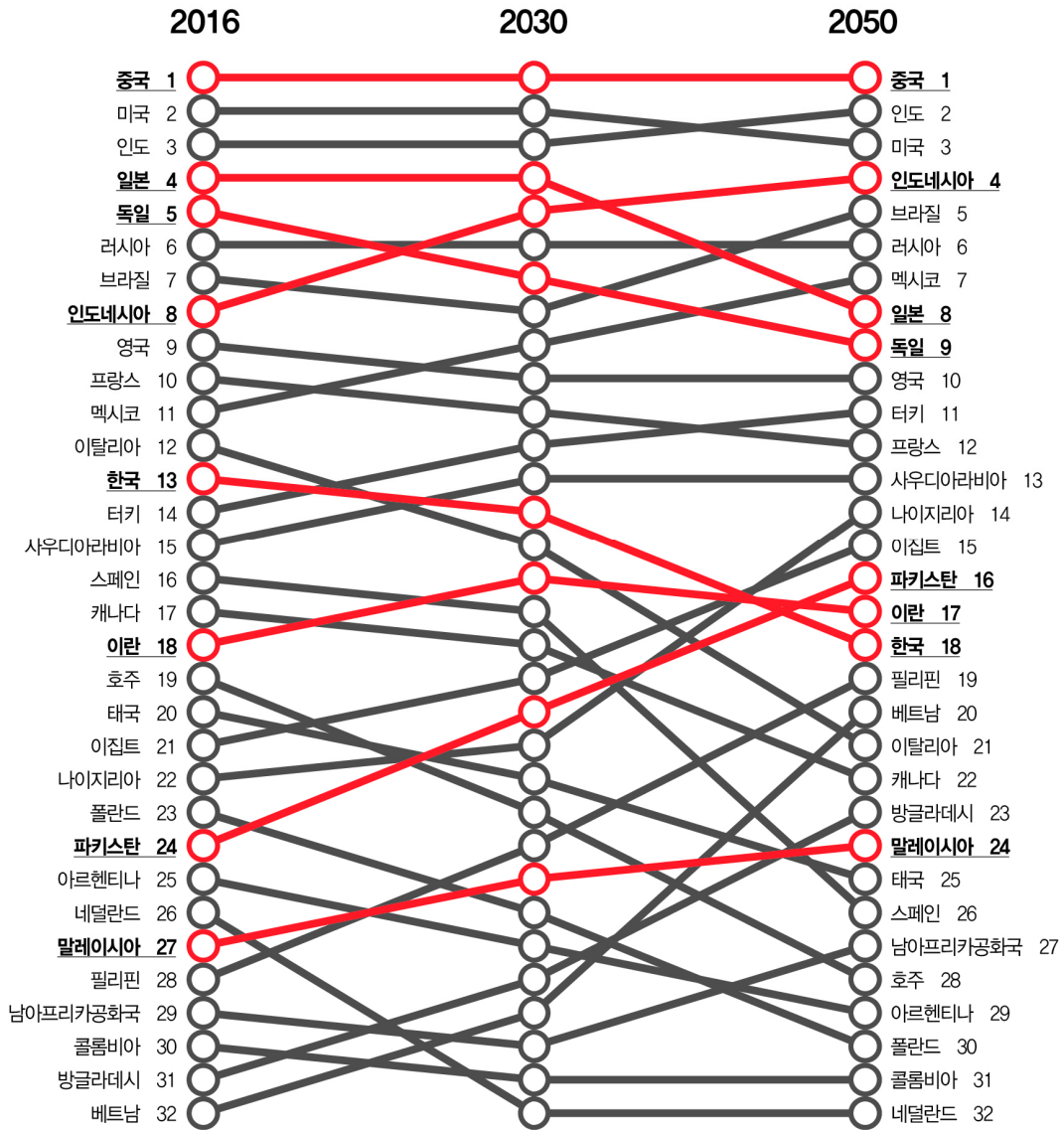
주1) 경제력 규모=2012년 IMF 기준 1인당 GDP(달러)를 기준으로 함.

주2) IMF 기준 1인당 GDP(달러)의 아시아 5개 권역의 국가를 4분위로 구분한 것으로 A=상위 25%, B=상위 50%, C=하위 50%, D=하위 25%를 의미한다.

주3) 이상의 기준은 엄문영 외(2013), 「아시아 국가 대상 교육지표 개발 연구」의 분류에서 비교대상국만 적용한 것임.

현재까지의 경제력과 여타의 사회지표 그리고 통념에 비추어 보자면, 1980년대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즉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일본을 포함한 5개국과 나머지 5개국으로 두 그룹을 상정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1장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PWC(Price Waterhouse Coopers, 2017)의 2050년의 세계 경제 전망을 통해서 볼 때 이와 같은 틀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이미 2016년 GDP를 기준으로 봐도 2012년 기준인 <표 IV-1>이 유효한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이다. PWC보고서는 2050년에 중국, 인도는 물론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이란 등 아시아 국가의 GDP가 한국을 앞서는 것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크게 약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림 IV-2]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의 비교대상국 중 2016년 현재 한국보다 상위에 위치한 국가는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3개국이다. 그러나 2050년에는 한국보다 하위에 위치한 나라는 말레이시아 한 나라만 남는다. <표 IV-1>에서 D 그룹에 속해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조차 2050년에는 한국보다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GDP만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아시아 각국의 상대적 위치가 충분히 변동가능하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림 IV-2】 아시아 2050년 경제 전망

출처: Price Waterhouse Coopers(2017), The Long View How will the global economic order change by 2050, p.5

비단, 경제력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지표상의 지위가 변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즉 아시아를 비교하는 일은 지금 당장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진로교육 부문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몇몇 나라들은 여전히

빈곤과 낮은 취학율, 그리고 학업중단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에서도 파트너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을 나라들이 증가할 것이다.

2.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

1) 일본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⁹⁾

(1) 일본의 사회현황 및 교육현황

가. 일본의 교육 시스템

일본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이후 1951년까지 연합군 군정 하에 있었다. 이 때 전후 교육개혁의 기본요소는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본틀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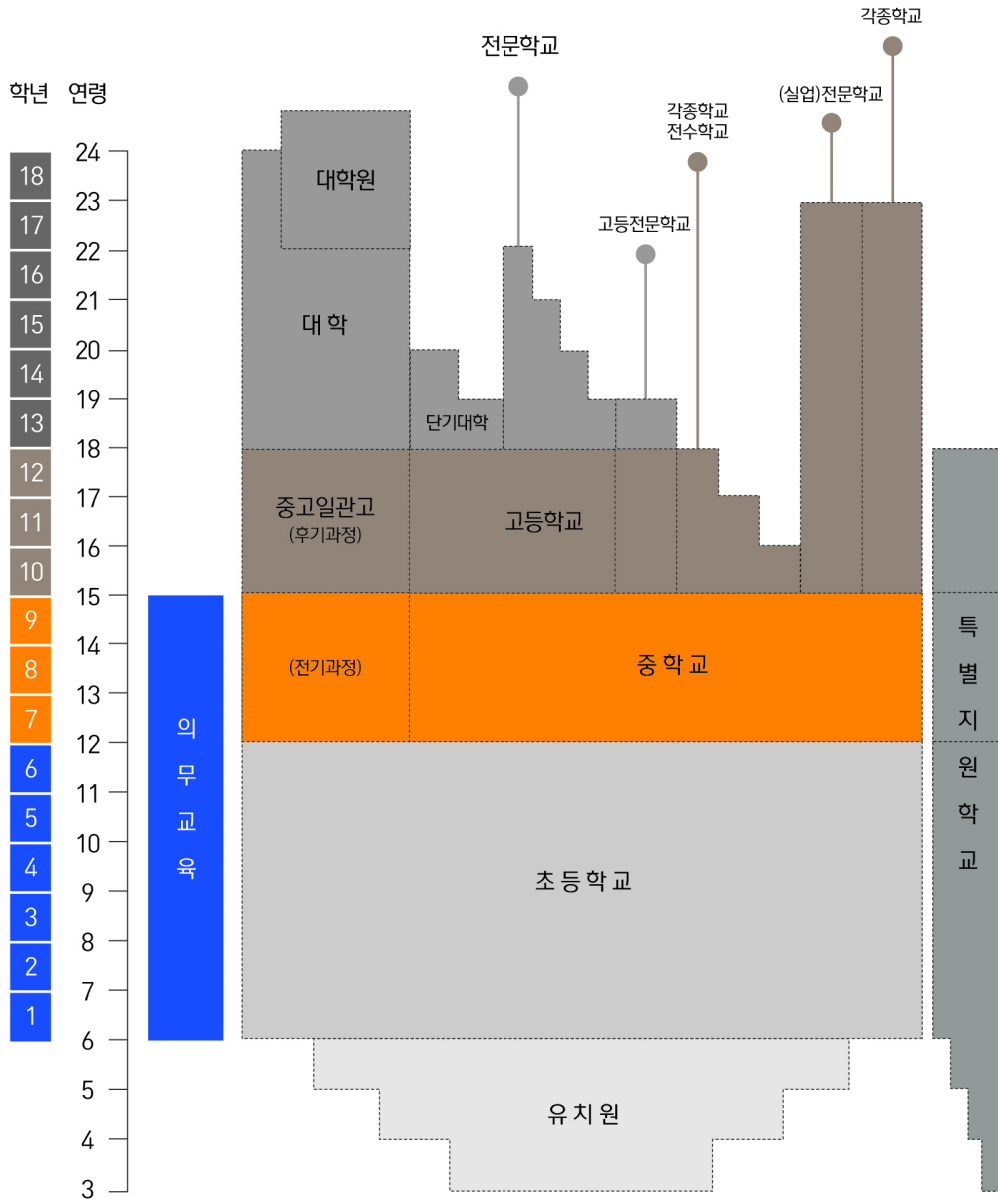
- ① 학교체제를 폐전의 복선제에서 ‘6-3-3-4’의 단선제로 전환
- ②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포함한 9년으로 의무교육 연장
- ③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남녀공학교육 원칙
- ④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에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에 대한 국가적 통제력 약화
- ⑤ 국가통제의 보통학교 폐지 및 대학기반의 예비교사 양성시스템 구축

다음은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의 각기 다른 유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학제와 유사하다(그림 IV-2). 2015년 현재 유치원은 전국에 11,674개교가 있으며 3~5세 아동을 보호하고 1년에서 3년 과정을 제공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치원 이외에 보육원이 전국에 24,036개 있다(2013년 현재). 보육원은 보건복지부의 관할 하에 있으며 부모/보호자가 일하는 동안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보호한다. 보육원은 3~5세 아동을 위한 유치원과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교는 20,601개로 6세 아동은 향후 6년간 초등학교에 다녀야 한다. 중학교는 10,484개로 초등학교를 마친 모든 아동은 15세가 되는 학년 말까지 3년간 다닌다.

9) 본 내용은 2017 NYPI & ARACD 국제학술회의에서 Fujita가 발표한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n Japan’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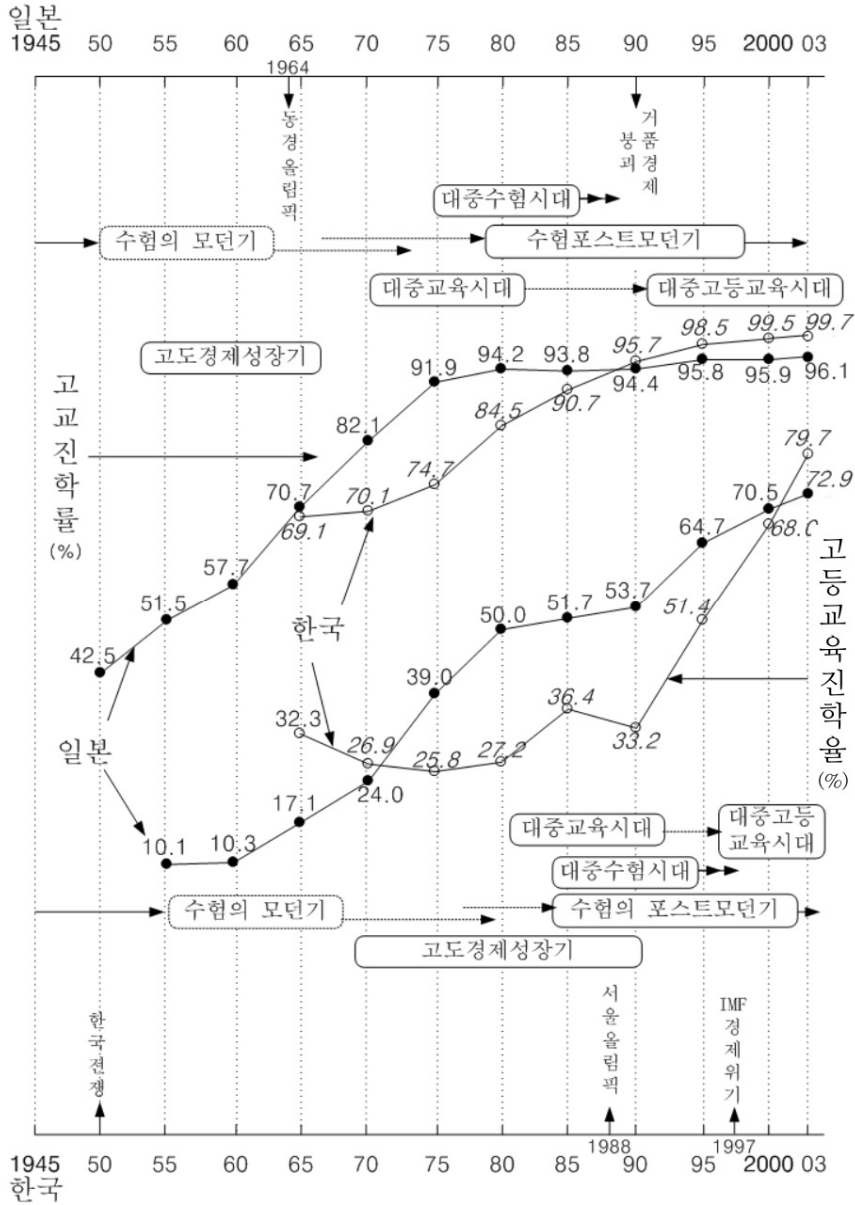
고등학교는 4,939개로 학교 9년간의 의무 교육을 마친 사람들은 중등학교에 진학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입학시험을 치러야 한다. 중등학교 졸업생 중 약 98%는 고등학교에 진학한다. 또한 1999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6년제 ‘중고일관고’가 설립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6년제 의무학교도 설립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그 수는 매우 적다. 특수학교로는 시각 장애인 학교, 청각 장애인 학교, 지적 장애인 학교, 신체장애인 학교, 건강 장애인 학교와 같이 장애 유형에 따라 별도로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장애 유형을 수용 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지원학교’ 제도가 바뀌었다. 2015년 현재 1,114개의 특수학교가 있다.

일본에서는 90% 이상이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를 ‘대중교육시대’라고 부르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 해당된다. 이후에는 다시 고등교육이 일반화되는 시기인 ‘대중고등교육시대’가 도래하였으며, 이 시기를 1990년대 이후로 본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볼 때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대중교육시대와 대중고등교육시대에 먼저 진입하였지만 먼저 고도경제성장기를 거치면서 대중교육시대를 맞고 다시 대중고등교육시대가 연차적으로 도래했다는 점은 공통된다(김현철, 2005: 164-166). 아울러 대중교육시대에서 대중고등교육시대로 옮겨가는 즈음에 대중수험시대가 도래한다는 점도 유사하다. 이후 진로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는데 이 또한 일본이 한국에 앞서 진행되었다. 진로교육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학력경쟁과 대중수험시대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도 공통된다.



【그림 IV-3】 일본의 학교시스템(2015년 기준)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http://www.mext.go.jp/en/policy/education/overview/index.htm>, and Statistics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Stat (Portal Site of Official Statistics of Japan)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bid=000001015843&cycode=0>, Fujita, 2017에서 재인용



【그림 IV-4】 한국과 일본의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진학률 추이 비교

출처: 金鉉哲(2005), 日本の学歴社会・学歴主義の歴史—韓国との比較, p.166.

나. 일본의 전통적인 학교-직장 이행

일본의 학교-직장 이행은 1950년대 이래 종신고용시스템을 기반으로 작동해왔다. 예를 들어 신규 학교졸업생의 동시 채용, 고용 이후 회사 전체 실무교육시스템, 기업 내 직원의 정기적인

인사, 특히 대기업의 경우 부서간에 사무직 및 관리직원이 이동하는 경향이 컸다. 대부분의 기업은 전문적인 경험이나 기술이 없는 신규 졸업생만을 고용하고 처음부터 교육하는 것이 일본의 전통적인 고용방식이다. 1991년 산업노동보고서(Industry Labor Report)에서 ‘신입 사원 모집은 신규 졸업생 모집이다. 이들은 전문적인 경험이나 기술이 없다. 이것이 일반적인 채용의 관행이다’ 라고 명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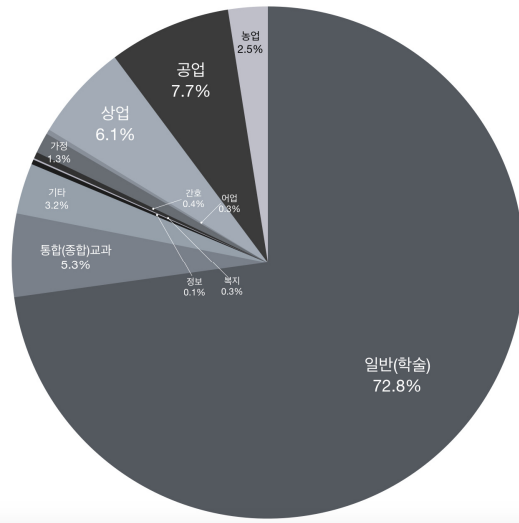
따라서 훈련능력은 구직자가 직책을 확보할 때 작용하는 주요 요인이었다. 최상위 대학생들은 K-12 수준, 대개 고등학교 수준에서 두 번, 대학 수준에서 두 번 등 두 번 이상 매우 경쟁력 있는 입학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강한 훈련능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 향후 진로계획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입학시험이 오랫동안 이들의 주된 걱정거리였다. 이렇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다른 경로를 살필 필요 없이 초등학교부터 퇴직까지 ‘직선 파이프 라인’ 의 인생을 살았다. 이것이 의무교육기관에서의 매우 낮은 중퇴율을 보인 주된 이유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1년 중퇴율은 2014년 1.5%이다. 지난 30년간 가장 높은 비율은 2.6%였다(〈표 IV-2〉).

표 IV-2 일본의 중등학교 중퇴율 추이(1985~2014)

연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	2.2	2.2	2.1	2.1	2.2	2.2	2.1	1.9	1.9	2.0	2.1	2.5	2.6	2.6	2.5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2.6	2.6	2.3	2.2	2.1	2.1	2.2	2.1	2.0	1.7	1.6	1.6	1.5	1.7	1.5

출처: Statistics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Stat (Portal Site of Official Statistics of Japan)

https://www.e-stat.go.jp/SG1/estat/GL08020103.do?_toGL08020103_&tclassID=000001062616&cycleCode=0&requestSender=estat, Fujita, 2017에서 재인용



【그림 IV-5】 일본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공별 학생비율(2015)

출처: Statistics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Stat (Portal Site of Official Statistics of Japan)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bid=000001079864&cycode=0>, Fujita,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전통적인 학교-직장 이행패턴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선택 패턴에도 영향을 미쳤다. 2015년 현재 학생의 약73%가 일반계(인문계) 과정을 선택한 반면, 농업, 산업 및 상업과 같은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비율은 약25%였다(그림 IV-5).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의 진로지도와 카운셀링은 학생들이 학교-직장 이행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장의 2006 PISA의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의 학교는 진로지도와 상담에 대한 책임을 교과교사에게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담임제도’와 관련이 있다. ‘학급활동’ 또는 ‘홈활동’으로 알려진 교육활동은 모든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열린다. 여기에는 집단작업과 토론활동이 포함되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은 긍정적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수업 및 학교 활동을 즐기는 방법을 계획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 이 활동을 이끄는 사람은 담임교사이다. 담임교사는 정서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모범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기대된다.

(2) 일본의 진로교육 현황

가. 진로교육 추진의 배경

일본 정부가 진로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9년 12월부터이다. 중앙교육심의회가 문부성에 초등학교 수준부터 진로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는 답신을 보낸 시기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동의 발달상황에 맞춰 학교급에 따라 수준을 달리하여 진로교육을 도입함으로써 학교에서 사회로 원만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취업과 일에 대한 바람직한 전망을 갖게 된다. 그리고 일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며, 동시에 자신의 장점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로써 각자 자신의 경력을 개발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익힐 수 있게 된다(中央教育審議會, 1999, Fujita, 2017에서 재인용).”

이 같은 조치는 당시 증가일로에 있던 프리터(Freeter)¹⁰⁾에 대한 긴급한 대처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교육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점점 많은 신규학교졸업자(신소츠:新卒)¹¹⁾가 프리터가 되는 데 관심을 보이며 약 9%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거나 취업하지 않고 학교를 떠나고 있다. 더욱이 문부성의 조사에 따르면, 신규 고교졸업자의 47%, 신규 대학졸업자의 32%가 3년 안에 직장을 그만둔다(中央教育審議會, 1999, Fujita, 2017에서 재인용).”

파트타임 노동과 젊은이들의 높은 이직이 정부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일본은 종신고용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변화는 처음에는 학교현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중등학교에서도 전통적인 취업지도(Career Guidance)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특히 성적이 좋은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대학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간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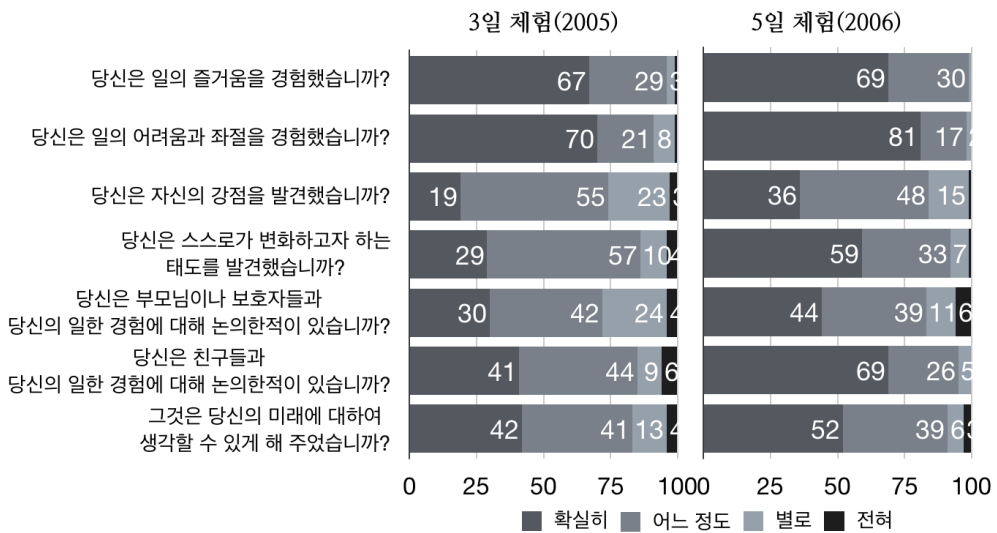
10) 프리터는 프리랜서(freelance)와 Arbeiter(노동자를 의미하는 독일어)를 일본식으로 조합한 것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미숙련의 노동자를 말한다.

11) 신소츠(新卒)는 신규학교졸업자, 주로 고졸자와 대졸자를 의미하지만, 패전하기 전까지는 초등학교 졸업생, 패전후부터 고등성장기까지는 중졸자, 고등성장기에는 고졸자를 주로 의미했으며, 고등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대졸자로 중심이 이동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버블경제이전까지 이른바 ‘신소츠 신화’를 만들어낸다(김현철, 2003).

나. 진로체험활동: 중학교에 초점을 맞춘 직장체험

일본 진로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중학생 직장체험이다. 2005년 문부성은 모든 중학교에 대해서 5일간의 직장체험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 캠페인에서는 불안정한 청년노동시장에 대한 대처라는 점이 크게 강조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2008년 회계연도까지 계속되었다. 4억 6천만엔이 2005년 회계연도 내에 할당되었고 2008년 회계연도까지는 1조 1천억엔이 계상되었다.

캠페인은 4가지 성과를 낳았다. 첫째, 학생들은 장기간의 직장 체험을 통해서 직장에서 하루 하루 벌어지는 일을 경험하면서 내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림 IV-6]는 5일간의 직장체험을 한 중학교 2학년생의 평가경험을 보여준다. 2006년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5일간의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결과를 동일한 학교에서 전년도에 실시한 3일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 5일간의 체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깊은 자기 이해와 사회적 인식을 갖게 했다. “자신의 강점을 발견했습니까?“, “바꾸고 싶은 자신의 특징을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일의 어려움과 좌절을 경험했습니까?“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IV-6】 3일 직장체험과 5일 직장체험의 성과 비교(일본)

출처: Results of questionnaire completed by 8th grade students of Johoku Lower Secondary School, Joetsu City, Niigata Prefecture, regarding their work experience programs (comparison of three-day experience (2005) and five-day experience (2006)) [Re-compiled from data included in Niigata Prefectural Education Council (2009), Towards Career Education that Allows Niigata's Children to Realize Their Dreams—Measures Taken as Part of Niigata Prefecture Career Start Week, Fiscal 2008], Fujita, 2017에서 재인용

이 같은 결과를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조사결과는 조에츠시의 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일 뿐 아니라, 조에츠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5일간의 직장체험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모든 지역이 5일간 체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5일간의 직장체험 사업은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 첫째, 많은 고등학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직장경험이나 인턴십을 제공하지 않았다. 국가별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 17.9%만 인턴십을 경험했다. 둘째, 전체 학교 커리큘럼 안에서 종합적인 직업교육은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보인다. 학교연간계획을 보면 중등학교의 60% 이상이 진로교육을 학교과목에 반영하지 않았다. 많은 교사들은 여전히 직장체험을 진로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거나 때로는 전형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한다. 즉 교과와 연계된 진로교육이 취약하며 지나치게 진로교육을 진로체험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다. 청소년고용문제 대책에서 교육이니셔티브로의 전환

문부과학성은 2005년부터 시작된 “학습지도요령”(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개정 과정에서 세계화되어가는 지식기반사회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만드는 관점에서 학업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 및 관심의 부족은 교육자와 연구자들의 관심사가 되었다(〈표 IV-3〉 및 〈표 IV-4〉).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일본의 학생들이 시민의 평생학습과 성장 마인드를 분명히 요구하는 사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국설문조사에 따르면 신규 학교졸업생 가운데 “프리터” 또는 니트(NEET)로 분류되는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예를 들어 15~19세 인구의 니트(NEET) 수는 2015년에 약 8 만명으로 이는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중앙교육교육심의회(Central Council for Education)는 직업교육(Career Education)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개인의 사회적 및 직업적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태도를 배양함으로써 직업 개발을 장려하는 교육”(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2011, Fujita, 2017에서 재인용)

표 IV-3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가치 평정(8학년 학생, TIMSS 2015)

	성취 (평균 척도 점수)	가치 있다		어느 정도 가치 있다		가치 없다	
		%	S.E.	%	S.E.	%	S.E.
참가국 평균	500	42	(0.2)	45	(0.1)	13	(0.1)
미국	539	44	(0.8)	45	(0.6)	11	(0.4)
영국	546	46	(1.1)	46	(0.9)	8	(0.6)
호주	517	43	(0.9)	46	(0.8)	12	(0.7)
싱가포르	618	34	(0.8)	58	(0.7)	8	(0.4)
홍콩	615	19	(0.8)	52	(1.0)	29	(1.0)
한국	608	13	(0.6)	63	(0.9)	24	(0.9)
일본	593	11	(0.6)	59	(0.7)	29	(1.1)

출처: Exhibit 10.7 (Downloaded from TIMSS 2015 International Results in Mathematics, Download Center (<http://timssandpiris.bc.edu/timss2015/international-results/download-center/>), Fujita, 2017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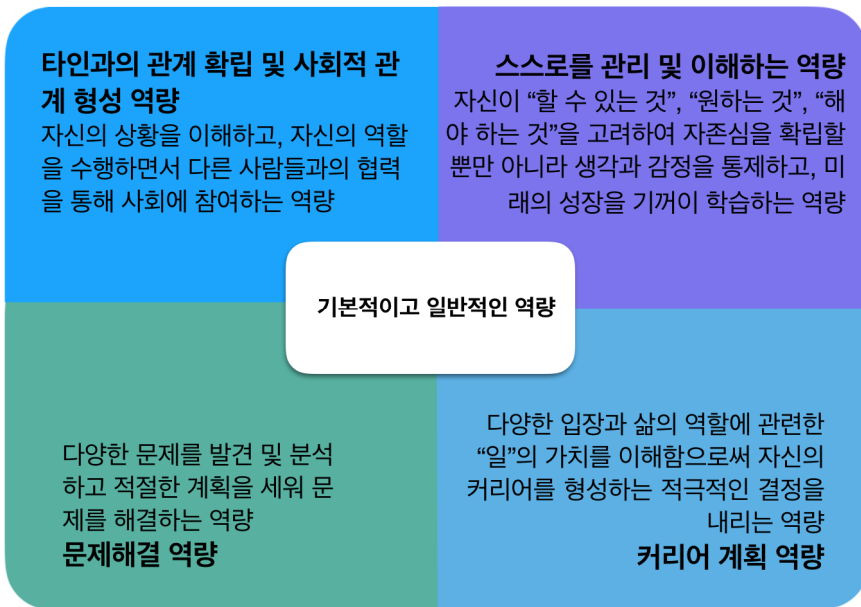
표 IV-4 학생들의 수학과목에 대한 도구적 동기(PISA 2012)

	성취 (평균)	각 문항에 동의하는 학생의 비율								문항에 동의하는 학생의 평균비율
		수학공부는 장래의 직업관련 업에 도움이 된다		수학공부는 장래의 직업전망과 기회에 도움을 준다		수학공부는 장래의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수학공부를 통해 장래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을 많이 배운다		
		%	S.E.	%	S.E.	%	S.E.	%	S.E.	
OECD 평균	494	75.0	(0.1)	78.2	(0.1)	66.3	(0.2)	70.5	(0.2)	72.5
영국	494	88.0	(0.6)	90.8	(0.5)	73.0	(0.9)	81.1	(0.6)	83.2
호주	504	84.3	(0.4)	86.1	(0.4)	73.8	(0.5)	80.0	(0.4)	81.0
미국	481	80.6	(0.7)	80.2	(0.7)	70.0	(0.9)	80.2	(0.8)	77.8
홍콩	561	69.2	(0.9)	71.7	(0.8)	66.3	(0.9)	58.6	(1.0)	66.5
인도네시아	375	88.6	(0.7)	89.0	(0.6)	87.2	(0.6)	89.6	(0.6)	88.6
말레이시아	421	91.2	(0.6)	91.4	(0.6)	91.6	(0.6)	88.7	(0.7)	90.7
싱가포르	573	90.4	(0.6)	88.2	(0.6)	87.4	(0.6)	85.5	(0.7)	87.9
한국	554	59.3	(1.1)	63.1	(1.3)	61.4	(1.1)	50.2	(1.3)	58.5
일본	536	56.5	(1.1)	51.6	(1.1)	47.9	(1.0)	53.5	(1.1)	52.4

출처: OECD (2013), PISA 2012 Results: Ready to Learn - Students' Engagement, Drive and Self-Beliefs (Volume III), PISA, OECD Publishing, Table III.3.5a, Fujita, 2017에서 재인용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청년고용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이다. 즉 진로교육을 고용문제와 관련 짓던 것을 모든 사람이 전문가, 가족 구성원, 더 큰 공동체 구성원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짓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중앙교육심의회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각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직업교육을 통해 육성되어야 할 역량과 관련하여 “기본 및 일반 역량”에 대한 명확한 권고안을 제안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역량은 아래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역량
- 자신을 관리하고 이해하는 역량
- 문제해결 역량
- 진로계획 역량



【그림 IV-7】 일본의 진로교육이 추구하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역량

출처: Central Council for Education (2011), Future Vision on Career Education and Vocational Education at Schools, Fujita, 2017에서 재인용

라. 일본 진로교육의 전망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된 것은 2014년이고 2017년 3월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를 위한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이 개정되었다. 2018년 3월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발표될 예정이다. 2017년 개정 학습지도요령 제1장에서는 각 학교가 육성해야 할 전체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있다. 급속하게 진화하는 사회 경제적 개발 및 기술 진보와 더불어 다가오는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지식과 기술(알아야 할 것)
- 비판적 사고, 분별력 및 의사소통과 같은 역량 (지식 활용 방법)
- 성장에 필요한 사고와 성격 (사회 참여와 더 나은 삶의 영유)

제1장은 모든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전체 커리큘럼을 통해 진로교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각 학교는 모든 과목과 활동을 통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풍부하게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일본의 학교는 교과교사(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추진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데에 이점으로 작용한다.

새로운 ‘학습지도요령’은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전국단위의 ‘진로여권’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제6장, 중등학교의 경우 제5장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각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대한 전망을 보고 그것을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학습과 미래의 삶에 대한 성장 마인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학생들은 그와 같은 활동을 기록하고 추적할 수 있다(Fujita, 2017).“

위에서 언급한 포트폴리오를 2016년 중앙교육위원회 (Central Education of Education)의 국가교육과정 지침 개정 권고에 따라 「진로여권 (Career Passport)」이라고 부른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국가모델과 교사용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이 같은 모든 노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촉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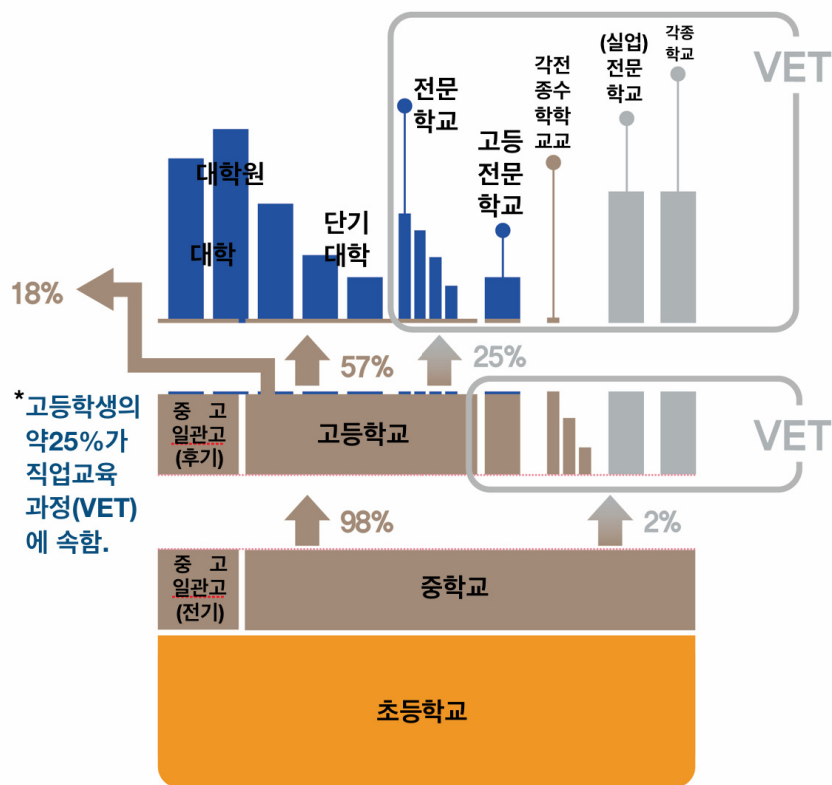
- 진로교육 코디네이터 컨소시엄: 학교-지역/기업과 협업을 조력
- 진로교육상(Career Education Award): 학교, 교육위원회, 기업 및 NPO/NGO의 우수 사례에 대한 전국적 단위의 인정을 위해 부처간 협력
- 진로교육지도자를 위한 전국 현직 교원 연수 프로그램: 도도부현 및 시정촌 모델 프로그램 제공
- MEXT(문부과학성) 및 NIER(국립교육연구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지침 및 소책자 무료 배포 및 YouTube를 통한 강연 비디오 및 심포지엄 비디오

(3)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가. 다양한 VET 프로그램 전달 시스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약25%는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닌다. 중학교를 마치고 직업교육훈련과정에 들어가는 비율은 2%정도에 불과하다. 다시 중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마친 학생의 약25%는 ‘전문학교(전문직업학교)’ 및 ‘각종 학교’ 와 같이 실질적인 직업 교육 및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으로 진학한다. 기상대학, 민간항공대학, 해양연수원, 일본해안 경비대, 국방의학대학, 국방학교 등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설립된 고등교육 기관도 있다.

1962년에 설립된 기술대학은 VET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독특한 교육기관이다. 3년간의 고등학교교육과 2년의 고등교육으로 이루어지는 5년간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기술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대학입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림 IV-8】 일본의 학교 간 연계 체계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http://www.mext.go.jp/en/policy/education/overview/index.htm>, and Statistics Bureau,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Stat (Portal Site of Official Statistics of Japan) <http://www.e-stat.go.jp/SG1/estat/List.do?bid=000001015843&cycocode=0>, Fujita, 2017에서 재인용

나. 새로운 요구 및 새로운 노력

일본은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숙박시설 및 레스토랑 비즈니스와 같은 노동 집약적 분야와 노인간호 부문의 노동력이 특히 부족한 상황이다. 고령화와 함께 의료 및 복지 서비스 부문에서 직원수가 급격히 증가했다. 인구 및 사회보장연구원의 「일본 인구 계획」에 따르면 일본의 총인구는 2060년 약8,674만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4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에 최저의 합계출산율 인 1.26이 기록되었다.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긴 했으나 여전히 대체 출산율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2014년 현재 1.42명).

마찬가지로 노동력의 증가는 외국 관광객의 수가 증가한 도매 및 소매업, 레스토랑 사업에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해일 이후 대규모 재해 복구 사업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임금이 상승했다. 동시에 파트타임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를 포함해 비정규직의 저임금 근로자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현재 노동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노무라 연구소와 옥스포드 대학의 학자들은 일본의 노동력 중 49%가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Nomura Research Institute, 2015, Fujita, 2017에서 재인용).

문부과학성은 기술발전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따른 VET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2014년에 SPH (Super Professional High School)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선도적인 산업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을 위한 뛰어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학교는 정보 통신 기술과 세계 경제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대학, 연구 기관 및 산업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016년에는 30개의 고등학교가 SPH로 지정되었다.

또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점차 가시화되고 명백해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VET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청에서 운영하는 「잡카페(Job Cafes)」는 젊은이들에게 원 스톱 취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이다. 지역 상황에 따라 적성평가, 상담, 세미나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5년 현재 46개 도현에 110개 설립되어 있다.

「지역 청년지원 센터」는 학교와 직장 간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NEET 및 기타 젊은이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기지 역할을 한다. 다른 서비스들 중에서도 직업적 독립성을 구축하고 취업 후 업그레йд 및 업그레йд 표준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된 전문적인 조언과 직장 경험을 제공한다. 2016년 현재 모든 현에는 160개의 방송국이 있다. 2015년 현재 전국 지역 청년 지원 방송국에 27,046명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년 내에 15,479 명이 취업했다. 취업률은 57.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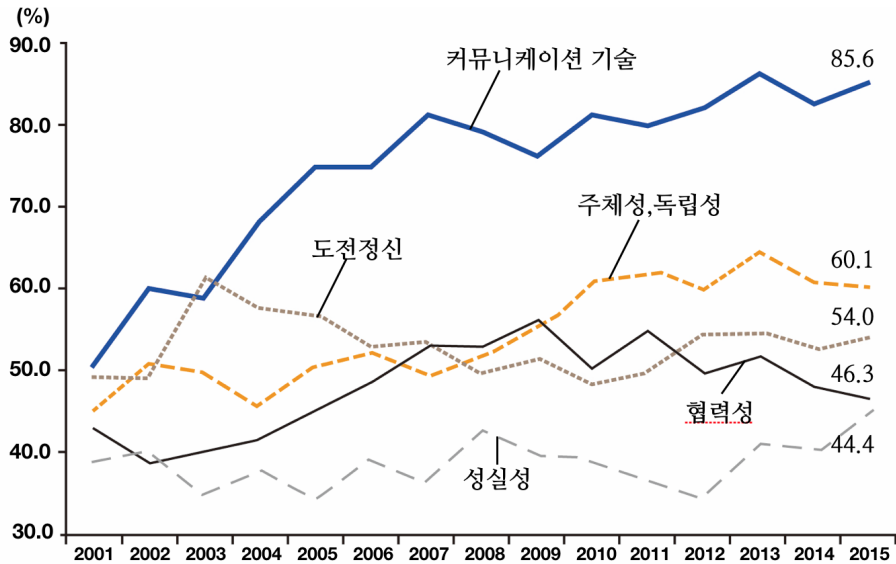
2009년 아동·청년 진흥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 제정을 통해서 모든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니트(NEET) 및 학교 중퇴와 같은 취약 계층 아동 및 지역 청년을 위한 교육, 복지, 건강, 의료, 교정, 범죄자 재활 및 취업 등의 업무를 하는 지역지원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했지만, 지방정부 중 67개소(2017년 4월 현재)에만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이는 전국 지방정부의 3.9%에 그치는 것이다.

다. 향후 과제

특정 노동력 부족(특히 호텔, 레스토랑 비즈니스, 노인 간호 및 건축)에 대응해서는 공인된 전문가의 훈련 프로그램(간호사, 사회 복지사, 공인 된 의료 종사자, 건설 관리 엔지니어 등)을 제외하고는 기술 훈련은 주로 직장내 훈련(ON-THE-JOB)을 통해 제공된다.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분야에서의 인증된 전문가 양성 훈련을 촉진을 위한 일본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무부는 「제5차 이민통제기본계획(2015)」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이러한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하여 당연히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 및 잠재력 활용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여성, 젊은이, 노인의 노동력 등이 있다. 이러한 노력을 전제로 일본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비추어 미래의 외국인 수용 과정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 자연적으로 전문적이거나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간주되지 않는 분야에서의 외국인 수용에 관해서는 필요성을 감시하고 수용함으로써 초래될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광범위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교육, 복지 등의 사회적 비용, 일본인 노동자 확보 노력, 수용을 통한 산업 구조에 대한 영향, 수용과 관련한 환경 준비, 안보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이러한 고려는 국가적 함의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Fujita, 2017에서 재인용).“

오랫동안 일본식 고용관행에 뿌리를 둔 일본의 VET 프로그램은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업들이 전문적인 경험이나 기술 없이도 신규 졸업생을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에 이어 회사전체의 실무교육이 인적자원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행은 대다수의 사무직에 적용되며 종종 높은 수준의 전문기술과 전문지식이 필요 없는 비사무직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신규졸업생을 모집할 때 신청자의 직업자격이나 전문성에 기대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많은 기업이 의사소통기술 및 독립성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변형가능한(transferable) 역량을 기대한다(그림 IV-8).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VET 프로그램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으며 특히 학교중퇴자와 NEET 청년 등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노동시장 편입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2015년의 경우 전문지식은 10.7%, 직업관련 자격은 0.4%에 불과함.

【그림 IV-9】 신규 졸업생에 대한 주요 기업의 기대역량(일본)

출처: Yearly Surveys by KEIDANREN (Japan Business Federation)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6/108_gaiyo.pdf, Fujita, 2017에서 재인용

(3) 소결

역량기반의 교육은 현재 일본의 교육개혁의 주류 중 하나이다. 진로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역량’을 추구하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편으로는 일본도 OECD DeSeCo 프로젝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탓이기도 하지만, 진로체험활동을 포함한 체험활동 그리고 ‘종합적인 학습시간’¹²⁾을 포함한 ‘유토리교육’에 대한 비판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체험활동의 효과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을 찾아야 했다. VET 프로그램도 예외는 아니다. 의사소통기술 및 독립성과 같은 일반적인 전이가 가능한 역량을 육성함에 있어서 그 효과성을 입증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진로여권」을 도입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평가도구의 도구로 보는 것이다. 각 학교는 평가를 위해 자체기준과 척도(rubric)을

12) 우리나라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함.

작성해야 하지만, 평가시트를 평정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즉 「진로여권」으로 직면한 상황을 모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각적인 평가가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수업 중 학생들의 일상행동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직면한 과제이다.

일본은 한국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가장 닮아 있다. 교육의 상황도 그렇고 진로교육이 추진되는 전체적인 방향도 그렇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보다 진로교육 또는 진로체험활동의 성과와 그 효과가 무엇인지 더 적극적으로 답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일본 내 주요 진로체험 활동이 하나인 중학생 5일간 직장체험의 경우, 엄밀히 말해 그 효과가 과학적으로 명쾌하게 증명된 것은 아니다. 2012 PISA 조사의 진로교육 부가조사에 일본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비교할만한 자료는 빈약하다. 부분적으로 2012 PISA 조사와 2015 TIMSS 조사에서 수학공부를 장래의 직업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영역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는 점이 간접적인 정보를 줄 뿐이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교과와 연계한 진로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며 긍정적인 효과를 반드시 역량이라는 결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로교육의 과정이나 체험활동의 결과가 혼돈의 상황에 있고, 또 점점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효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효과가 단기적인 효과(예를 들면, 사전점수보다 높은 사후점수)로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로체험활동이 가져올 진로역량개발의 효과에 대해 속단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중학생들에게 5일간 직장체험을 실시한 이후 부분적으로는 5일체험보다는 3일체험이 많아지는 등 운영 그 자체가 난항을 겪기도 하지만 5일 직장체험이 대부분 소인수로 운영되고 있고, 계속해서 하루체험이나 일회적인 체험이 아닌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대만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¹³⁾

(1) 대만의 사회현황 및 교육현황¹⁴⁾

가. 대만의 사회환경

대만은 인구가 약2,350만 명(2016년 4월)이고, 면적은 약3만 6천 평방 킬로미터(한국의 약 1/4정도)다. 언어는 중국어, 대만어, 하카어 등을 사용하며 주요 도시로는 타이페이, 가오슝 등이 있다. 정치 체제는 삼민주의(민족 독립, 민권 신장, 민생 안정)에 의거한 민주공화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5권(행정, 입법, 감찰, 사법, 고시) 분립으로 되어 있다.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2,294달러고, 통화단위는 신대만 달러다(일본외무성 홈페이지).¹⁵⁾

표 IV-5 대만의 사회환경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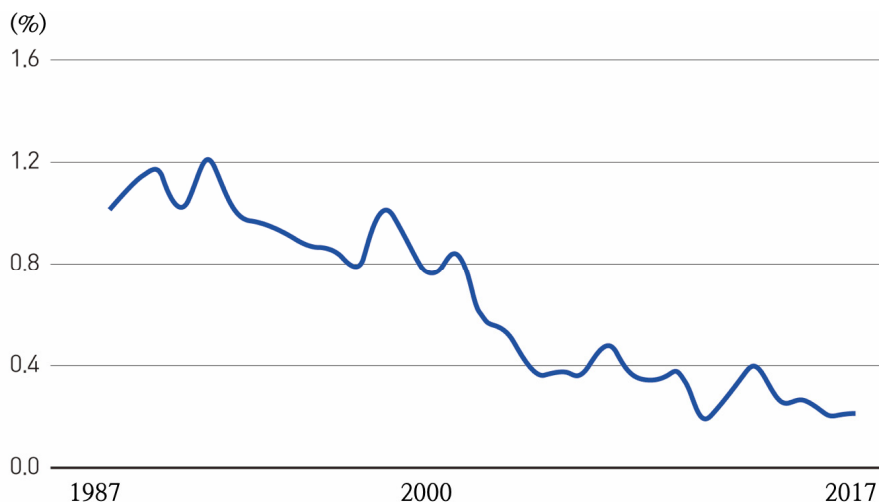
인구	면적	정치체제	언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도	통화단위
23,500,000	36,000km ²	민주공화제	중국어, 대만어, 하카어	22,294달러	타이페이	신대만 달러

대만인구의 성장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대만의 경우에도 저출산이 가장 큰 원인이다. 대만은 2014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17로 2014년 기준으로는 한국(1.21)보다 낮은 수준이다 (Mastusa, 2017). [그림 IV-10]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성장률은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과 2017년에는 0.2% 수준의 인구성장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낮은 출산율과 인구감소 현상에 따라 학령인구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13) 본 내용은 2017 NYPI & ARACD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한 'Career Education in Taiwan' (Tien, 2017)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한 것임

14) 출처: 教育部 『中華民國 105年版 教育統計』; Australian Government, Country Education Profiles (<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cep/Asia-Pacific/Taiwan/Education-System/Pages/SystemDiagram-Default.aspx>) (2016年 7月 5日 閱覽)

15) <http://www.mofa.go.jp/mofaj/area/taiwan/data.html>/검색일=2016.6.10



【그림 IV-10】 대만의 인구성장률 추이

출처: Tien(2017). Career Education in Taiwan.

나. 대만의 교육시스템

대만의 행정제도는 중앙정부인 행정원 아래에 지방정부인 직할시 정부(타이페이, 가오슝) 및 시·도의 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원에는 교육부가 있고 직할시 및 시·도에는 교육국이 있다(문부과학성, 2107). 학교체제를 보면 학년도는 8월에서 시작해서 이듬해 7월에 끝난다.

학교제도는 6-3-3-4제이다. 취학전 교육은 2~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교육과 보육 기능을 겸비한 유아원에서 실시한다. 취학전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유아원에 다닌다. 공립유아원은 취학전 교육으로서 국민초등학교 병설로 설립되는 경향이 있으나 전체 유아원의 30% 정도이며 사립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비용은 공립은 월 4,000 신대만 달러이고 사립은 10,000 신대만 달러이다. 취학율은 58%이다(<표 IV-6>참조).

의무교육은 6~15세의 9년간(국민초등학교 1학년~국민중학교 3학년)이다. 현행 교육제도는 「중화민국헌법」 제19조의 교육기회균등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취학율은 거의 100%에 달한다. 「중화민국헌법」 제158조는 교육의 목적을 ‘국민의 민족정신, 자치정신, 국민도덕, 건전한 신체와 과학, 그리고 생활지능을 발전시키는’ 것에 두고 있다.

초등학교는 6세에 입학하며 6년간 국민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중등교육은 전기와 후기로 나뉘며, 전기 중등교육은 국민중학교에서 3년간 실시하고 졸업자에게는 국민중학 졸업증이 수여된다. 후기 중등교육은 고급중등학교에서 3년간 실시하며 졸업자에게는 고급중등 학교

수료증이 수여된다. 고급중등학교는 일반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형, 직업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술형,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모두를 실시하는 종합형, 특정 분야를 교육하는 단과형 4 종류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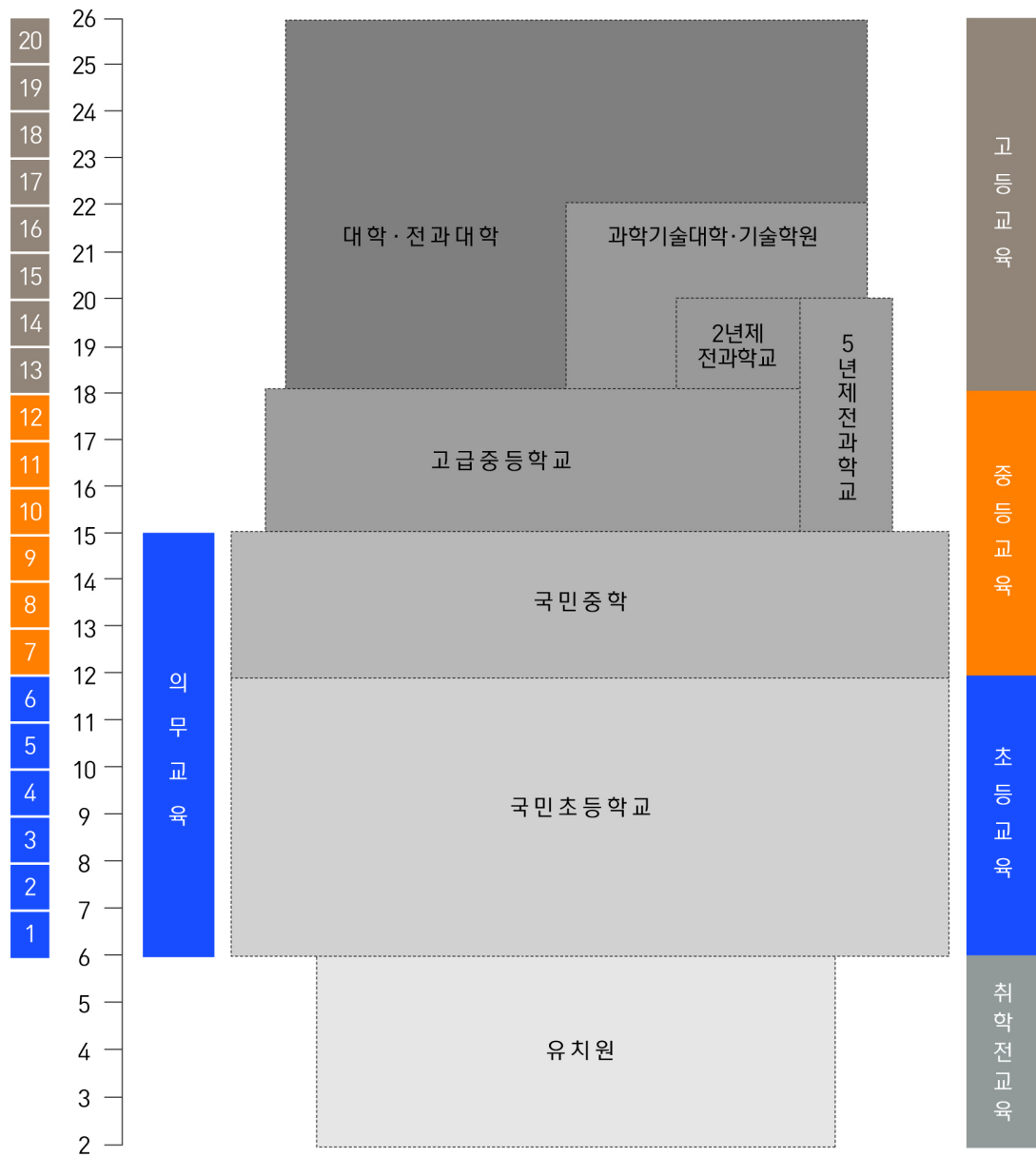
고등교육은 전과(專科)학교, 기술학원, 과학기술대학, 단과대학(원어: 독립학원), 대학에서 실시한다. 앞의 세 교육기관(전과(專科)학교, 기술학원, 과학기술대학)은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그 이후 두 교육기관은 학술에 의거한 전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전과학교는 5년제와 2년제 두 종류가 있다. 5년제의 전과학교는 국민 중학 졸업자가 입학하고 2년제 전과학교에는 고급중등 학교 졸업자가 입학한다. 졸업자에게는 준학사의 학위가 수여된다.

대학 및 독립학원에는 학사과정(4~7년), 석사과정(1~4년), 박사과정(2~7년)이 있다. 기술학원 및 과학기술대학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과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2년제 과정 및 고급중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4년제 과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대만의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거의 100% 취학하고 있으며 고등교육 취학율도 80%를 넘고 있다. 대만에서도 진학률이 높은 학교에 입학하려는 이른바 학력경쟁이 심해지고 있다(일본 외무성 홈페이지).¹⁶⁾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러한 경향이 대만의 진로교육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6) http://www.mofa.go.jp/mofaj/toko/world_school/01asia/infoC18100.html/검색일:2017.10.22.

학년 연령



【그림 IV-11】 대만의 교육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학년 연령



【그림 IV-12】 대만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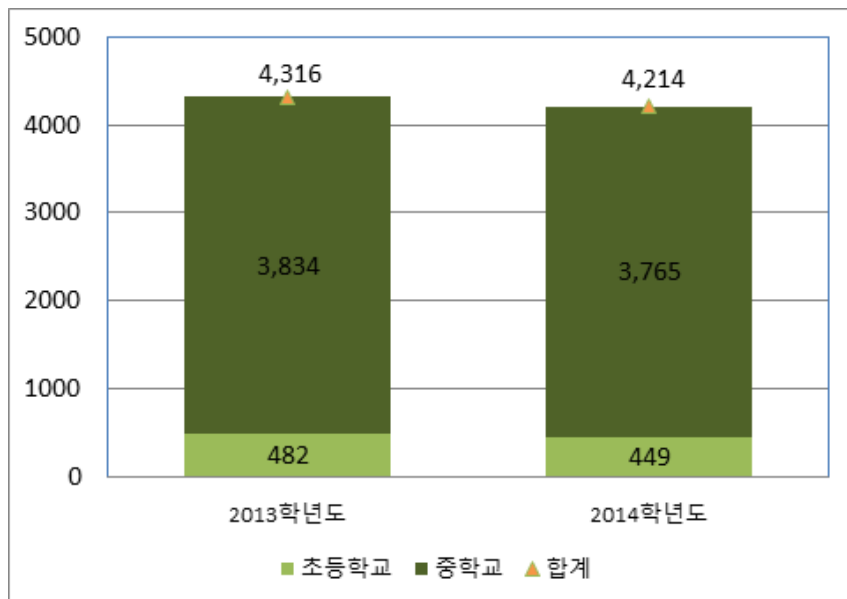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표 IV-6 대만의 학교급별 취학률

교육 단계	연도	재적율	성별	
			남	여
취학 전 교육	2015년	57%	58%	57%
초등교육	2015년	99%	99%	100%
중등교육	2015년	101%	101%	102%
고등교육	2015년	84%	80%	88%

주) 보통 연령보다 빠르거나 또는 늦은 입학과 유급 등을 이유로 하는 해당 연령 외의 재적자를 포함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대만의 초중학교의 학업중단율을 보면 2013년과 2014년에 4,000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최근 5년간의 학업중단율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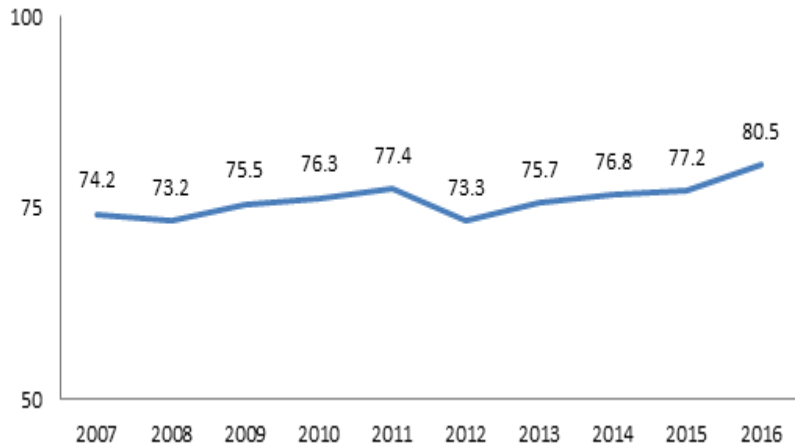
【그림 IV-13】 대만의 초등생, 중학생 학업중단 인구 수

출처: Tien(2017). Career Education in Taiwan.

표 IV-7 대만의 학업중단자 수 추이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중학교	4,792	3,918	3,834	3,765	3,500
초등학교	587	488	482	449	434
합계	5,379	4,406	4,316	452,765	3,934



【그림 IV-14】 대만의 대학진학률

출처: Tien(2017). Career Education in Taiwan.

표 IV-8 대만의 연령별 실업률 추이

연도/연령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2012	9.80	13.17	7.08	4.34	3.37	2.76	2.55	2.35	2.14	1.69	0.17
2013	9.65	13.75	7.11	4.20	3.37	2.51	2.59	2.26	2.15	1.32	0.14
2014	8.78	13.25	6.84	4.04	3.26	2.58	2.37	2.12	2.04	1.23	0.10
2015	8.63	12.59	6.55	3.97	3.14	2.37	2.36	2.06	1.76	1.16	0.14
2016	8.94	12.62	6.76	3.79	3.41	2.66	2.51	2.15	1.92	1.63	0.17
2017	9.67	12.43	6.64	3.63	3.23	2.67	2.30	2.12	1.57	1.89	0.15

출처: Tien(2017). Career Education in Taiwan.

대만의 청년실업률을 보면, 최근 몇 년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대체로 20~24세의 실업률은 12.5%을 전후한 수치가 지속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25~29세의 실업률이 7%이하로 떨어지고 30대 이후에는 3%이하로 떨어지는 등 청년의 고용상황은 매우 양호하다는 점이다.

(2) 대만의 진로교육 현황

가. 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대만의 초등학교(국민초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주로 모든 교과에 통합되어 운영된다. 즉 초등학교에서는 통합적인 활동수업이 진로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담임교사나 통합활동수업 담당교사가 진로교육의 주체가 된다.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진로교육은 필수과목은 아니지만 진로 프로그램 설계는 통합활동수업에 반영된다(MOE in Taiwan, 2011, Tien, 2017에서 재인용).

나.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중학교에서의 진로교육과 카운슬링은 진로교육과 카운슬링 코스, 그리고 진로교육전략에 담겨 있다. 전자는 통합활동수업으로 진행하며, 자기계발, 직업 및 진로 정보 탐색, 의사결정기술 등을 포함한다. 후자는 다양하다. 평가관리(assessment administrating), 기술적 예술교육 제공, 진로 포트폴리와 작성 등이 포함된다. 통합활동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48단위가 필수이다. 통합활동 담당교사의 수는 학교규모에 따라 다르다. 대만정부는 최근 12년간의 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학교에서의 적성지도를 권장하고 학생들에게 진로계발을 위한 매우 풍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진로교육을 위해서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몇 가지 계획을 수립했다.

(가) 기술교육

기술교육은 대만정부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실시해 온 주목할만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이다. 목적은 학생들의 자기계발, 진로계발, 시뮬레이션 관찰, 실천적 기술의 계발, 진로준비를 위한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다. 기술교육 프로그램은 13개 직업군(그룹)을 포함한 직업그룹계획을 포함한다. 즉 전기전자공학 그룹, 기계공학그룹, 파워기계공학 그룹, 화학공학그룹, 도시공학 및 건축공학 그룹, 디자인 그룹, 여행자 그룹, 통상 및 경영 그룹, 가정 경제그룹, 농업그룹, 음식과학그룹, 어업경영그룹, 해양기술그룹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1개에서 4개의 직업그룹을 만들 수 있다. 학습에 재능, 소질, 관심이 많거나 또는 성적이 나쁜 9학년생들은 1, 2학기 중에 하나 또는 두 개의 직업 그룹을 선택할 수 있다. 중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과정도 있으며,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 관련 기관, 직업훈련센터 또는 비정부조직과의 협력을 통해서 제공되는 과정도 있다. 기술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실천적인 기술개발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기술과목은 중학교마다 매우 다양하다.

기술교육프로그램은 중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다. 기술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몇 가지 실천적인 직업과정수업을 들을 수 있는데 이들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 관련된 직업과정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입학시험을 치르기 전에 5년제 주니어 칼리지 입학을 추천받는다. 고등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이 직업학교 과정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기술과목은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매우 유용하다. 게다가 기술과정의 학습은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북돋아주고 자아정체성 확립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커리어 네비게이터 대쉬보드(디지털 학생 진로교육 시스템)

커리어 네비게이터 대쉬보드(Career Navigator Dashboard, 이하 CND)는 타이페이시가 개발한 디지털 교육프로그램이다. CND는 학생들의 공부와 일상생활에서의 성취를 통합하는 데 사용되며 중학교 졸업 때 수여되는 일종의 ‘졸업선물(Taken-Away Gift for the graduates)’로서 향후 받게 될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진로교육을 위한 참고자료가 되는 e-북이다. CND는 나의 성장일기, 학업성취와 특별한 수행성과, 서비스 러닝(Service Learning), 심리검사결과, 진로통합과 미래계획, 담임교사와 부모의 피드백 등을 포함한 일상의 다양한 수행결과를 통합한 것이다. 대만의 중학생들에게 학교교사와 부모는 미래 진로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담임교사와 부모도 이 디지털 학생 진로교육 시스템을 평가한다. 담임교사와 학교지도상담가(school guidance counselors)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관찰과 피드백과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며, 부모는 교사로부터의 정보에 기초하여 자녀와 향후 진로에 대해 토론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CND의 가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들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데이터를 기록하면서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합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의 장점과 강점이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게 된다. CND를 구축한 이후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게 되는지 일자리를 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 CND 상의 모든 데이터는 취업 시에 자기이해나 이력서 작성을 위해 유용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들이 학생들로 하여금 의미있는 목표와 장래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자신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CND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와 데이터 기록 등 중학교 카운슬러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간도 필요하고 담임교사와 부모의 개입도 필요하다.

중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열정, 그리고 목표를 계발하기 시작하는 적정시기이다. 대만정부는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지난 50년간 학교가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도 이제는 평가받아야 할 때가 도래했다.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진로지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첫째, 대만의 시험제도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중학교의 진로지도 체계가 탐다운 방식이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와 과정은 모든 학생에 대해 천편일률적이다. 자기계발, 직업지식, 자기평가 진로선택 등 모든 과정들이 그랬다. 학생들은 시험과 인벤토리를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발전시켰다. 흥미와 인벤토리를 통해서 공부하도록 가르쳐왔다. 예를 들면 흥미 인벤토리, 적성검사, 가치 인벤토리 같은 것이다. 학생들은 시험결과로부터 자신을 평가하고 결정해 왔다. 학생들은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지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계발하는 데 있어서는 수동적이게 되었다. 부모, 또래압력, 그리고 학업성취와 같은 상황적인 요인은 무시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가치와 강점 및 약점을 평가하는 데 시험을 활용해왔으며 그것을 토대로 진로선택을 해왔다. 이 방법의 약점은 학생들의 동기와 요구의 차이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도하지 못했고 학생들을 위해 시험결과를 활용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둘째, 진로 포트폴리오 구축이다. 정부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계발노력과 그 결과를 기록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도록 요구한다. 포트폴리오는 학생들의 진로목표, 학업성취, 선호과목, 시험 및 인벤토리 결과, 부모의 면담결과 등을 포함한다. 포트폴리오 작성의 목적은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시키며 미래의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지만 그 효과성의 관건은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이다. 충분한 지도를 받는 대신 학생들은 대개 숙제를 해야하고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을 듣지 못한다.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질문도 형식에 그칠 뿐이다. 자신의 관심을 확장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존성은 낮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흥미를 발견하고 열정과 목표를 세워야 하는 적정 시기인 중학교에서는 효과적으로 진로지도하기 위한 시스템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 진로지도 시스템의 문제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이다. 학생들은 시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활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대만의 중학교 진로지도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하나 오늘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대만의 중학교 교육과 진로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과거,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현재의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다.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일 년간의 장기 진로계획 과정을 겪어야 한다. 진로교육과정은 고등학교의 각 학년에 맞게 제공될 수 있다. 진로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고등학교에서 진로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들은 고등학교 교사자격과 함께 진로교육 관련 과정(진로교육이행, 진로계획과정, 직업 및 진로정보 분석과정 등)도 이수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계획과정 이외에도 카운슬링과 가이드언스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기계발과 대학에서 배울 전공에 대한 이해, 진학경로 등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고등학교와 직업학교에는 2013년 현재 779명의 진로교육담당 교사가 배치되어 있다(Department of Statistics, 2013, Tien, 2017에서 재인용).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합활동 학습프로그램 등 고등학교 진로 계획 과정 담당교사가 취득해야 하는 단위수는 48단위이다.

(가) 진로지도 프로그램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자기계발, 대학전공선택 또는 직업계발, 그리고 가족과 사회환경 환경으로부터의 자신의 경력 선택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카운슬링 센터는 한 학기 또는 일 년 과정의 진로과정을 디자인하고 제공한다. 주간지도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특성과 흥미, 소질과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

(나) 진로카운셀링의 유형

개인 또는 그룹 진로 카운슬링과 진로평가, 카운슬링 센터의 진로 카운슬러는 그룹활동이나 개인별 심리검사, 카드분류, 진로계발그룹 등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학생들을 돕는다.

(다) 진로지도 활동

카운슬링 센터는 학생들에게 대학진학과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방문, 다양한 대학 세미나, 전문적인 대학소개 세미나, 대학캠프, 대학입시준비를 위한 모의면접, 진로정보 웹사이트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 자신이 선호하는 전공을 이해하고 선택한다. 진로지도개발은 거의 30년간 이루어져왔다. 2002년 대학입학프로그램 다양화가 도입된 이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크게 발전했다. 그러나 대만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이 부모와 사회상황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즉,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없다. 둘째, 대만이 너무 시험위주의 사회여서 학생의 관심과 잠재력이 제대로 평가되거나 개발되지 못한다. 하나의 해결책은 부모들이 학교의 진로교육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가족이 진로선택에 대한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모와의 껍을 줄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로 카운슬러가 하는 역할이다.

라. 정부와 지역에서 제공하는 진로 서비스

정부가 진로 카운슬링과 학생들에 대한 카운슬링의 중요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 청소년 가이드스국은 대학생의 진로개발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1~9학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탐색도 포함된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계획과정을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교육정책의 일환이다. 대학생들의 진로 컨설팅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당수의 대학들이 진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한다. 2006년에 교육부는 “대학의 우수 교수 진작 프로그램 (Program for encouraging universities with excellent teaching)” 을 발표하고, 2015년에는 “기술 및 직업교육법(Technical and Occupational Education Law)” 을 제정하여 코스와 활동을 통한 진로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법과 핵심정책이 담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교육부 청소년개발국의 계획에는 대학졸업생의 창업을 돕는 보조금 지급이 포함되어 있다. 졸업과 고용 사이의 껍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산학이 협조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둘째, 대학생들의 진로 카운슬링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이 지급 된다. 대학생 자신이 진로 청사진을 개발하고 경력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대학이 내외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하고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여 교사연수를 지원한다.

셋째, 「캠퍼스 진로 대사 훈련 프로그램(Campus Career Ambassador Training Program/Propaganda Ambassador Program)」,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을 위한 실험적 프로그램(Experimental Program on the Whole Process of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정보시대의 진로문제해결 프로그램(Career Problem Solving Program in the Information Era)」, 「진로개발과 생애프로그램(Career Development and Meaning of Life Program)」 그리고 학교 특성에 맞는 진로서비스와 활동 등이 학교 간 협력 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청년 꿈실현 프로그램은 두 가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계획(Youth Employment Promotion Plan)” 과 “청년 창업 시작 프로젝트(Youth’s Starting a Business Project)” 는 노동부와 경제부가 각각 추진하는 등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적은 청년고용율을 높이고, 창업(문화창작, 신농업, 사회적 기업 등)을 지원하는 데 있다.

(3) 소결

대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은 기본적으로 교과와 연계하거나 기술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만에서도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다. 커리어 대쉬보드의 도입은 대만의 진로교육이 통합적인 교육을 지향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중학교에서는 기술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각 영역별 기술의 습득을 진로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직장 체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 단 한국과 일본이 중학교 단계에서는 인문교육을 중심으로 가르치면서 진로체험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에서도 기술교육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통합활동 담당교사를 두고 통합활동 차원에서 진로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대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내 상담사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다. 대만의 진로교육은 기본적으로 교과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기 때문에 진로교육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같은 점은 한국과 일본이 향후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험위주의 교육풍토 때문에 진로교육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 점은 한국이나 일본과 유사하다.

3) 홍콩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¹⁷⁾

(1) 홍콩의 교육 환경

가. 교육개혁과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기간 동안 홍콩의 교육시스템은 자연스럽게 영국의 교육시스템을 그 모델로 삼았으며 현재도 여전히 그 특징의 일부가 남아 있다. 그러나 홍콩은 2009년 교육과정 개혁을 통해 그 구조와 교수방법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운영되는 것에 맞춰 조정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중등교육과정을 6년으로 연장하고 대학교육을 4년으로 조정한 것이다. 이는 홍콩의 교육시스템을 고도의 선별식 시스템에서 모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시스템으로 바꿈으로써 학생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Lee, Pavlova & Maclean, 2016,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 ‘학습자 중심의 전인적인 발달’ 이 다양한 능력과 관심사 및 장래희망에 맞추어 설계된 새로운 교육과정의 근간이 되는 원칙 중 하나이다(EDB, 2001,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

홍콩의 학제는 2009년 교육과정 개혁에 의해 기존의 6-5-2-3제에서 6-3-3-4제로 변경되었다. 현재는 구제도와 신제도가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12년 이후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고교 3년과정을 거친 후 대학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3년제 구제도로 입학한 대학생과 4년제 신제도로 입학한 학생이 공존한 바 있다.

의무교육 기간은 총 9년으로 그 중 6년은 초등학교 과정이며, 나머지 3년은 중학교 과정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무상 교육을 감안할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2017/18 학년도에는 총 15년간 학교교육을 받게 된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홍콩의 학교는 3학기제로 운영되며 학교연도는 9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7월에 끝난다.

홍콩에서는 유치원과 육아센터가 3-6세 아동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그러나 2017/18학년도부터 유치원교육은 정부의 전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초등교육은 6세부터 시작하며 이후 6년간 초등수준의 학교교육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전일 운영되며 소수의 학교만이 오전 혹은 오후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전 오후 수업 운영 구조는 과거에 초등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17) 본 내용은 2017 NYPI & ARACD 국제학술회의에서 Yuen이 발표한 ‘Career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in Hong Kong’ 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임.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중국어를 사용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중등학교는 주로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정부가 전액 재정지원을 하지만 자원봉사 기관이나 학교 후원기관이 운영하는 지원학교(aided school), 그리고 사립학교가 그것이다. 사립학교의 일부는 정부로부터 재정보조를 받는다. 공립학교와 정부지원학교는 정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한다. 이들 학교는 6년간 무상으로 중등교육을 제공한다. 그 밖에 홍콩의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주로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이나 홍콩 거주 외국인이나 주재원을 위한 국제학교도 몇 군데 있다. 최근의 교육과정 및 평가개혁을 통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 개의 공인시험을 폐지했다. 이러한 개혁 조치의 결과 더 많은 학생들이 12년간의 초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홍콩에서 학업중단자(drop-out)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의무교육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6~15세 연령대의 아동을 의미한다. 2013년까지 10년간 퇴학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는 매우 낮다(〈표 IV-9〉 참고). 학교 후 프로그램 중 학업중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준학위 코스로 나타났다.

표 IV-9 **홍콩의 학업중단학생 비율(2004-2013)**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0.18	0.20	0.29	0.29	0.30	0.31	0.34	0.31	0.31	0.32

출처: <http://www.socialindicators.org.hk/en/indicators/children/29.14>,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

2017년 현재 홍콩에는 학위수여 고등교육기관이 총 20개가 있다(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곳이 9개, 나머지는 자체 재원조달). 학사과정과는 별도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의 준학위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가장 적합한 다양한 계속 교육 및 직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2014/15학년도에의 경우, 중등교육 이수자의 46%가 공립교육기관과 자체 재원조달 교육기관에서 학부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대학진학율은 약 17~20% 정도이지만(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준학위 과정까지 고려하면 중등 이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중등교육 이수자의 수는 거의 70%에 육박한다.

학년 연령



【그림 IV-15】 홍콩의 교육시스템

나. 직업 및 전문 교육훈련(VPET)

홍콩의 대다수 직업 및 전문 교육훈련(VPET)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위원회(Vocational Training Council: VTC)가 운영하는데 VTC는 13개 회원기관을 통해 매년 약 25만 개의 훈련 시설을 제공한다. 이들 기관은 다양한 교육수준을 가진 사람들에게 채용 전 및 재직 중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170개 이상의 자체 재정조달 고등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타 중등 이후 교육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교육기관의 경우, 최소한 교육과정의 60%가 특수한 분야와 업종 및 직업기술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산업협회(Construction Industry Council), 의류산업훈련국(Clothing Industry Training Authority), 고용재훈련협의회(Employment Retraining Council) 등이 중등교육 이수자들에게 다양한 직업 및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각자의 능력과 장래희망에 따라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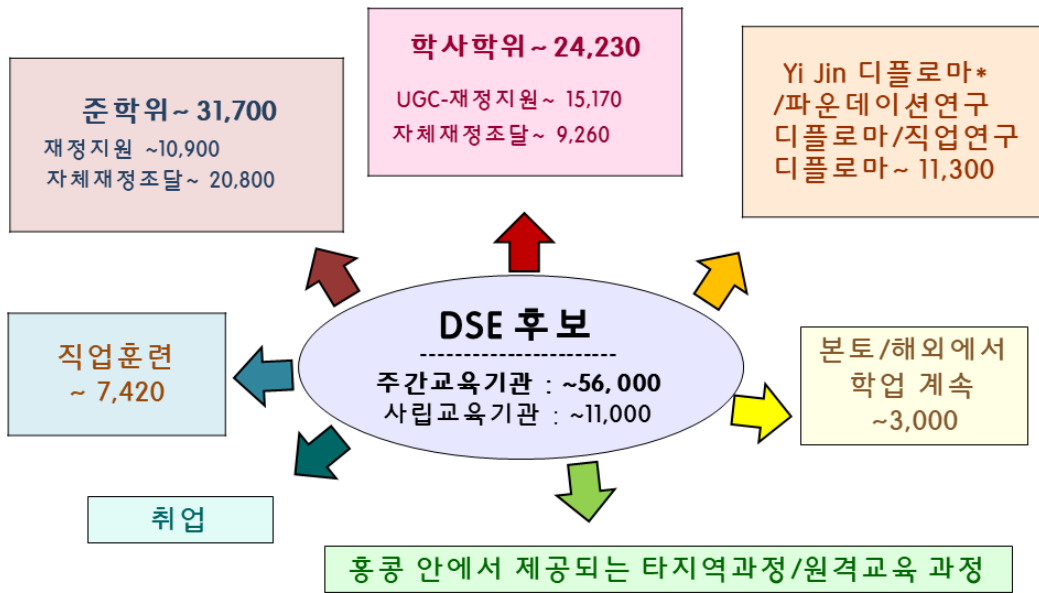
다. 청소년에서 성인기 이행

2000년도에 새로운 고등교육구조가 시행된 이후, 현재 홍콩의 학생들은 직업을 갖고 성인으로서 독립하기 전에 더 많은 중등 이후의 교육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교육구조에 대한 보고서: 중간 평가 및 그 이후(Report on the New Academic Structure: Medium-term Review and Beyond)」(2016)는 추가 교육을 위한 경쟁을 통해 소수의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던 것에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현재 홍콩의 교육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교육을 계속 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현재 학생들은 중등교육과 중등교육 이후에 여러 가지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

2016년 중등교육 이수자들의 진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한 홍콩 커리어 마스터 및 지도 마스터 협회(Hong Kong Association of Career Masters and Guidance Masters: HKACMGM)의 통계자료에 따르면(그림 IV-16), 홍콩 중등교육 디플로마(HKDSE) 후보는 총 약 67,000명이었다. 여기에는 주간학교 후보자와 사립학교 후보자가 모두 포함되며, 지역 내 가용한 추가 교육과정은 총 74,650개이다(직업훈련 프로그램 7,420개, 준학위 프로그램 31,000개, 학위과정 프로그램 24,230개, YiJin 디플로마/ 직업연구과정 및 파운데이션 과정 디플로마 11,300개).

2015/2016 학년도 학생등록 현황에 대한 교육청(Education Bureau)의 보고서에 따르면 Form 6(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 학생들의 수가 2011년에 70,799명에서 2015년에 57,714명으로

상당히 줄었다. 그러나 고등교육과정의 가용 재정지원 학위 프로그램과 준학위 프로그램의 정원은 여전히 동일했다(혹은 오히려 증가했다). 여기에는 2014 Policy Address에 따른 새로운 구상으로 출범한 지정분야에 대한 연구재정지원계획(Study Subsidy Scheme for Designated Professions/Sectors(SSSDP)이 포함된 것이다. 그 목표는 2015/16 학년도부터 코호트 당 약 1,000명의 학생들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이들 학생들이 풀타임으로 선별된 분야의 지역 내 인가받은 자체 재정조달 학부 프로그램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IV-16】 홍콩 DSE 이수자들의 진로 현황(2016)

출처: Education Bureau 보고서,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

몇 년간 중등 이후 교육을 필요로 하는 중등교육 이수자의 수에 비해 중등 이후 교육 정원이 더 많은 추세이다. 새로운 고등교육구조 역시 중국이나 대만 등 다른 나라에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홍콩 내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수자들의 수가 더욱 줄어드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중등교육 이수자들은 이제 더 이상 고등학교 졸업 시 취업과 공부 사이에서 바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고등교육 기관에서 적합한 과정을 선택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준학위 프로그램 중도 탈락 비율이 높은 것은 아마도 고학년들이 자신의 진로 선택에 대해 심사숙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어떤 과정에 등록하여 공부하면서라도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중등 이후 교육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로지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정부의 교육 재정지원으로 인해 오늘날 중등 이후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많은 교육기회를 얻게 되었다. 따라서 홍콩의 학생들은 재정적인 이유로 계속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고등교육의 경우, 대학보조금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ttee: UGC) 프로그램이나 자체재정 조달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등교육 학생재정지원계획(Tertiary Student Finance Scheme: TSFS)에 따른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과 대출 제도를 통해 준학위 과정의 경우 2년간, 그리고 학부 과정의 경우 4년간 수업료와 기타 경비 및 학생회비를 충당할 수 있다.

계속 공부하도록 학생들에 동기를 부여하고 압박하는 것은 주로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시아 부모들의 전통적인 문화적 신념에 기인한다. 아시아 문화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으면 장래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부모가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자녀의 능력이나 장래희망과는 상관없이 자녀가 학사 학위를 받는 것은 대부분의 홍콩 부모들의 공통된 기대사항이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여전히 자녀가 대학입학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중등교육 이후 직업훈련이나 취업을 선택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Education Bureau가 홍콩의 전체 주간 중등교육 이수자 58,747명(96%)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중등교육 이수자 진로 조사(2015 Secondary 6 Students' Pathway Survey)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51,583명(87.8%)이 풀타임 교육과정에서 공부하고 있고 6.4%가 풀타임으로 고용된 상태이며 3.8%가 파트타임으로 취업하였거나 파트타임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중등교육 이수자 진로 조사(2016 Secondary 6 Students' Pathway Survey)(2017년 2월에 업데이트 됨)에서 보고된 수치 역시 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4,107명 중 48,101명(88.9%)이 풀타임 학생인 반면 3,064명(5.7%) 만이 풀타임 고용상태였으며 2,084명(3.8%)이 파트타임 고용상태이거나 혹은 파트타임 학생이었다.

표 IV-10 2015학년 홍콩의 중등학교 디플로마(DSE) 이수자의 진로 현황

DSE 진로	학업	국내/해외(%)	비율(%)
학업(88.1%) Vs. 취업 (6.3%)	국내(78.5%)	학위	15,406(28.2%) ↑
		비학위	26,972(49.3%) ↑
		반복	559(1.0) ↓
	국내 이외(9.6%)	학위	4,274(7.8%)
		비학위	980(1.8%)
	원격(0.21%)	학위	15,406(28.2%) ↑
비학위		26,972(49.3%) ↑	

출처: Education Bureau 보고서,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

라. 취업률

홍콩 내 15~24세 연령층의 실업률은 매우 낮다. Trading Economics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60개 국가 중 홍콩의 청년 실업률(5.5%)은 청년 실업률이 낮은 태국(5.2%), 일본(4.9%), 카자흐스탄(4.2%)에 이어 4번째로 낮다(2017년 4월 기준).

(2) 중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

가. 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

홍콩에서 중등교육에서의 진로지도 및 교육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오랜 기간 동안 보조적인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왔다(Ho, 2014,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 이후 2007년 홍콩진로 및 지도문제학회(Hong Kong Association of Careers Masters and Guidance Masters)와 교육청 교육과정 개발 연구소(Curriculum Development Institute of the Education Bureau)가 협력하여 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개별 학생 계획 활동 2종¹⁸⁾을 개발하여 홍콩 내 중등학생들의 진로개발 교육과정을 향상시켰다. 또한 2009년 중등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진로교사들은 중등교육 이후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관한 이해를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2년 이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진로교육이 안착되었다.

18) 중학생용으로는 "Finding your colors of Life: NSS Subject Choices and the Development of Career Aspirations", 고등학생용으로는 "Career Mapping: Career Development Tool for Senior Secondary Students" 임.

2014년에 이르러 비로소 진로교육이 홍콩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명시화되었다. 모든 공립 중등학교 학교 내에 지속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진로 및 생애설계 교육(Career and Life Planning Education, CLP)’ 을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중등학교에 ‘진로 및 생애 설계 지도(Career and Life Planning Guide)’ 를 제공함으로써 진로교육이 교육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각 학교마다 CLP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진로교사를 최소 두 명 이상씩 배치하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학교 행정가 및 교사들 사이에서 진로 및 생애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증대되었다. 일례로 교육청이 2014/15학년도와 2015/16학년도에 380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생애 설계 교육을 주요 업무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80%의 학교가 이를 위해 CLP보조금의 대부분을 교사나 보조교사와 같이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는 데 사용하였다 (Legislative Council Secretariat, 2016,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

2015년에는 Caring School Award Scheme에서 진로 및 생애 설계와 관련하여 우수학교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중등학교 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도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02/03학년도부터 초등학교에서 포괄적인 학생지도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래 진로개발은 지도과정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진로교육 정책 및 실행의 질적 수준은 학교마다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부 학교의 교장은 CLP 보조금을 진로교육과 전혀 관련이 없는 교사를 채용하는 데 사용하는 등 다른 사업에 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선 학교에 높은 수준의 진로지도 서비스를 요구하는 정부 방침에 부담을 느낀 담당교사가 사임을 하고 CLP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사가 후임으로 선정되면서 직업 및 진학에 대한 단순 정보만을 제공하는 등 질 낮은 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진로지도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비정부기구에서 제공하는 외부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이처럼 질 낮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경우 학생들 역시 진로 및 생애 설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형성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직업훈련과 진로교육의 연계

직업교육은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직업군과 산업분야에서 전문가, 숙련기술자 배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 심지어 교사들 사이에서도 주류 교육에 비해 수준이 낮은 교육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홍콩정부는 2014년

직업교육 촉진을 위한 대책본부를 설립하였다(Task Force on Promotion of Vocational Education, 2015,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

홍콩에서의 직업교육은 1939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기술 분야의 견습공으로 훈련시키는 중등 기술학교가 Caroline Hill에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69년에는 초등학교를 마친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예비 직업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비 직업학교는 1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3년 동안 학업과 직업교육을 절반씩 제공하였다(Legislative Council Secretariat, 2015, LC paper IN 15/14-15,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 1970년대에서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학교들은 기본적인 중등교육 뿐 아니라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취업이나 기술교육기관에 진학을 준비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기술학교나 예비 직업학교의 학생들은 상급학교의 진학에 대한 동기나 열정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후 1980년대 교육과정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1990년대 다시 7년으로 연장되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찾아왔다. 이들이 졸업 후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동시에 이들이 준비하는 두 개의 국가고시(Hong Kong Certificate of Education Examination, HKCEE와 the Hong Kong Advanced Level Examination, HKAL)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잘 구성함으로써 주류인 중등학교와 매우 비슷한 교육과정을 갖게 되고 주류의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동등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후 직업학교의 역할은 다소 모호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에는 New Academic Secondary 체제가 소개되면서 직업교육의 중요성과 중등교육 내에서 직업교육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다. 홍콩교육시스템 개혁안(Reform Proposals for the Education System in Hong Kong (Education Commission, 2000,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에 나타났듯이 중등교육 목적 중 하나는 예술과 스포츠 영역 뿐 아니라 학업과 직업 분야에서도 균형적이고 포괄적인 학습 및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취업, 학습, 생애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교육과 비교하여 볼 때, 고등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직업관련 체험을 제공해야 하고 직업생활에 대한 지식을 강화시키며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배양하고, 미래 취업에 대비하여 적성과 능력을 탐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Education Commission, 2000: p.32, p.100,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

직업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교육과정에 통합되었다. 첫째, 다양한 직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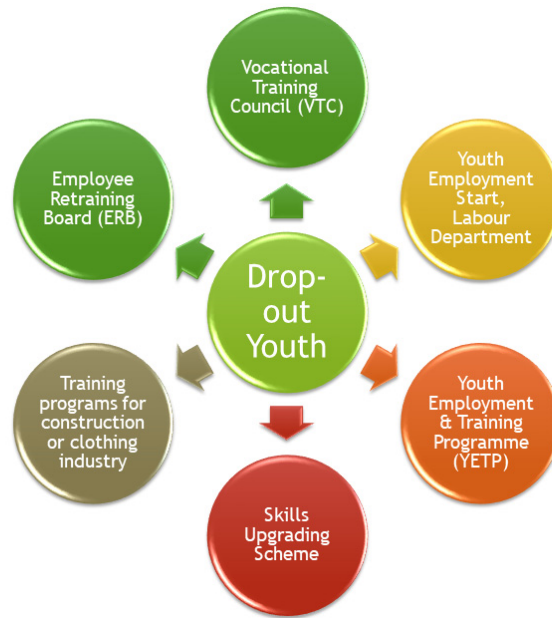
산업 분야의 이론과 실재를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는 진로 지향 과목(ApL, Applied Learning으로 명명)을 선택과목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ApL은 학생들의 선택폭을 보다 넓힘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있다. 둘째, 학교는 학생들에게 진인발달을 목표로 진로체험을 포함하는 학습 체험을 제공한다. 진로체험은 진로상담, 현장견학, 직업탐방(job shadowing), 멘토 프로그램, 직업 체험(job tasting)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직업 세계 및 관련 기술, 지식, 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셋째, 최근에는 보다 체계적인 진로교육에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진로지도가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에서 단순한 서비스가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명시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개인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홍콩 정부는 중등학교 입학과 졸업 시점에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례로 학생들은 저마다의 능력, 흥미, 포부 등이 다르다는 점에 맞추어 이들에게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것이다. 모든 하위과정(sub-degree) 프로그램에서 교육과정의 60%를 특정한 훈련이나 직업 및 전문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직업교육 및 훈련 개발 관련 법정 조직인 VTC(Vocational Training Council)에서는 중등학교 졸업자를 위한 중등학교 3-6단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이 기관 업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13개 회원 기관을 통해 중등교육 이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 VTC, 다양한 제3영역의 기관 및 산업체의 협력적 노력을 통해 견습제도, 판매경험을 통한 학습(Retail Earn and Learn) 프로그램과 같이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최근 들어 홍콩에서는 매년 대략 천 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진로상담 등을 통해 주류 학교에서 학업을 다시 이어나가기도 하지만 일부는 직업교육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NGO와 산업체의 협력을 통해 학교-직장 간 가교역할을 지원하는 영역 간(cross-sector)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기술 훈련, 일반 또는 산업 영역의 취업훈련과 지원, 직업체험, 상담 서비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및 비정부 기구들 안에는 VTC, 노동부의 YES(Youth Employment Start), ERB(Employment Retraining Board), 기타 산업 훈련 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 높은 학업중단율은 아마도 학생에 대한 지원과 지도가 지나치게 적거나 학업과 직업 요소 간의 불균형이라는 교육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Lai & Wong, 2016, Mantak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 즉 주류 교육과정인 특정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학습을 통한 진로 지원에 있어서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주류 교육과정 안에 직업 관련 요소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류 학교교육에서 직업 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된 미국,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등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홍콩에서는 중등학교에서 학업에 흥미가 덜한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직업교육 강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림 IV-17】 홍콩의 학업중단학생 대상 진로교육 지원 체계

라. 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과 훈련에서의 성공사례

(가) 교과교사에 의한 진로교육

홍콩에서는 영국 모델을 따라 정규직 교과목 교사가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에서는 교사-학생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가 학생의 특성과 포부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교사-학생 간 높은 친밀도는 홍콩 내 진로지도 및 생애 설계 교육의 효과를 높이게 된다. 반면에 이러한 모델은 교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개별적 상담 및 지도의 기회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교사가 수업이나 워크숍에서 진로교육과정을 담당할 때 주요 교재로는 ‘Finding Your Colours of Life’ 와 ‘Career Mapping’ 을 사용한다. 이 교재들은 2009년 이후 40만 부 이상이 발행되었는데 자기이해, 진로 및 생애 포부와 학업 간의 관련성, 진로의사결정 및 관리, 자기 평가 및 조정 등 진로 및 생애 설계 주기에 따른 교육과정과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정 구성요소로는 게임, 토의, 직업카드 분류, 자아성찰 연습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상당수의 진로교사가 보충 자료들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

진로지도교사는 학생들의 이행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수준에서 진로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상급학년에서 진로 면접을 진행할 때에 교사는 학생의 진로 포트폴리오, 자기 소개서, 진로 평가 기록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본다. 진로상담의 목적은 문제해결 접근방식에서 자아성찰 및 탐색을 이루기 위해 학생을 지원하는 건설적이고 인본주의적 접근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진로지원 시스템이 체계화된 학교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한 학생당 일 년에 약 2회, 고등학생의 경우 한 학생 당 3회의 진로면접을 진행하며 한 회당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일부 학교에서는 진로교사의 도움을 받아 학급 담임 교사가 진로수업이나 면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구조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학업성적 뿐 아니라 진로나 미래에 대해 교사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나) 멘토십 프로그램

멘토십은 홍콩 내 중등학교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부가적인 진로교육을 위해 사용된다. 이를 위해 일선 학교들은 학부모, 동문, 기업의 자원봉사자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 멘토십의 대표적인 예로는 Ying Wa College의 멘토십을 들 수 있다. Ying Wa College는 100명 이상의 동문으로 구성된 강력한 멘토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의 목표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가능한 진로에 대한 통찰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McMahon & Patton, 2015,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진로설계를 하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지원체계가 되는 학생-동문 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학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실습과 달리 강력한 교과과정을 가지고 있다. 교사들은 선택과목인 ‘업무현장 내 소통을 통한 영어 학습’ 과목을 활용하여 중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진로연구 프로젝트’ 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멘토를 만나는 ‘진로의 날’ 이전에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영어교사는 이 과목의 마지막 단계인 자기소개서 작성 뿐 아니라 면접 질문을 정하는 방법 및 연구 기술 등에 대해 가르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진로교사는 이 과목을 통해 직업 세계, 직업 가치, 이상적인 직업, 진로 관련 흥미와 적성 탐구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준비한다. 교사들은 학생과 동문 멘토들에게 프로그램의 목적과 학습목표를 설명할 기회를 가지며 멘토들의 채용, 멘토-멘티 매칭은 동문회와 학생위원회에서 지원한다.

프로그램 당일 멘토 및 멘티들은 자신들의 진로 흥미에 따라 몇몇 집단으로 나뉘며 각 집단은 2~3명의 멘토와 6~8명의 멘티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집단 활동은 학생들이 또래집단 안에서 활동함으로써 한결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는 현장사람들의 설명을 통해 멘토들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동일한 진로 영역 안에서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신들의 관점을 넓힐 수 있으며 멘토들과 미래 인생 목표나 학업에 대한 관심 등을 나누면서 격려를 받을 수 있다.

이후에는 업무현장 방문, 직업 탐방 등과 같은 사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학기말에는 학생들이 진로연구보고서를 영어교사에게 제출한다. 활동에 대한 마무리로 학생 대표들은 학교 조회시간에 이와 관련한 발표를 한다.

(다) HKACMGM에 의한 하계 진로 체험

이 프로그램은 HKACMGM(Hong Kong Association of Careers Masters and Guidance Masters)이 주관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7월~8월 중 3-5주간에 걸쳐 직업체험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인식과 자기이해를 높이며 취업기술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1974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2016년에는 자원봉사협회(Agency for Volunteer Service)와 같은 NGO, 공공도서관 및 병원, 개인 기업 등 약 10개 기관의 지원 아래 중등학교 5학년과 6학년 160명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을 제공하였다.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 학생들은 지원서를 제출하고 HKACMGM이 주관하는 면접에 응해야 한다. 학생들은 현장에서 훈련을 받고 그들의 능력에 맞는 곳에 배치되어 작업을 수행한다.

출석률이 80% 이상인 청소년들은 수료증과 교육청의 보조금에서 나오는 현금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체험기간 동안 자아성찰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매년 9월에 진행되는 수료식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 체험을 통해 얻은 성과를 구두로 발표해야 한다. 수년 동안 참석자들은 직업세계를 맞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 경험을 통해 생애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 프로그램에서 경험한 직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학업을 지속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진로포부를 기르는 데 광범위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Tsang, 2016, YUEN et al., 2017에서 재인용).

(3) 소결

홍콩의 2009년 교육개혁은 중등교육 전반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진로교육에 대한 변화도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진로지도가 교육정책에 있어서 단순한 서비스였다면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홍콩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의 특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등교육 이후의 선택지를 넓히는 방법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혁신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중등 이후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홍콩 정보는 중등교육 이후 과정을 얼마나 수요에 맞춰서 제공하느냐, 수요자가 얼마나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 대한 관심이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둘째, 진로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질 높은 진로지도 및 교육을 위해서는 진로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각 학교마다 CLP 책임자로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진로교사를 배치하지만 중등학교에서는 정규직 교과목 교사가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과적인 진로교육의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로담당교사의 역할이 모든 학교에서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과다 등의 문제로 진로상담의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셋째, 멘토십 프로그램이나 HKACMGM과 같은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홍콩의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확산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직업교육의 교육과정 통합을 강조하고 직업교육을 촉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며 대책본부를 설립하는 등의 변화가 있지만, 직업교육보다는 학업을 더 중시여기는 중국인들의 오래된 태도가 홍콩 내에 여전히 만연해 있다. 홍콩 부모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는 한국, 일본, 대만과 비슷하다. 부모와 가정이 자녀들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과 압력을 행사하는 전통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 및 대중을 위한 진로교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직업교육이 가치 있는 진로경로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홍콩 정부의 향후 과제이다. 이를 위해 취업자에게 요구되는 실제적인 수요(특성)에 맞추어 실습생을 공급한다든지, 홍콩 자격체제(Qualification Framework, QF¹⁹) 안에 취업과 승진을 위한 양질의 공인 프로그램을 명기한다든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진로의 기회탐험, 기술적인 진로설계와 정보에 근거한 선택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전략이 제안되고 있다.

19) 홍콩의 QF는 평생 학습을 증진하기 위해 학업, 직업 및 평생 교육 분야의 자격을 다루는 7단계 체계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품질 보증 및 인정을 받은 자격 및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등록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www.gov.hk/en/residents/education/qf/>_검색일=2017.5.25.)

4) 싱가포르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²⁰⁾

(1) 싱가포르의 사회환경 및 교육환경²¹⁾

가. 사회환경

싱가포르 인구는 약 554만 명(이 중 싱가포르인 및 영주자는 390만 명, 2015년 6월)이고, 면적은 약 719평방 킬로미터이다. 말레이어(국어), 영어, 중국어, 타밀어(공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정치 체제는 입헌공화제를 선택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2,888달러로 통화단위는 싱가포르 달러다.²²⁾

표 IV-11 싱가포르 사회환경 주요 지표

인구	면적	정치체제	언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도	통화단위
5,540,000	719km ²	입헌공화제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	52,888달러	싱가포르	싱가포르 달러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나. 교육환경

취학 전 교육은 3~5세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및 보육 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의무 교육은 6~12세의 6년이다. 초등교육은 6세에 입학하며 6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초등교육은 기초 단계(제1~4학년)와 오리엔테이션 단계(제5~6학년)의 2단계로 나뉜다. 초등학교 수료 시에는 초등학교 수료 시험(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PSLE)이 실시된다.

20) 본 내용은 2017 NYPI & ARACD 국제학술회의에서 Yin이 발표한 'Career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Singapore' 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임.

21) * Ministry of Education, Secondary School Education(<https://www.moe.gov.sg>_검색일=2016.7.29

** UNESCO, World Data on Education, 7th edition, 2010/11_검색일=2011년5월.

**Australian Government, Country Education Profiles

(<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ceplAsia-Pacific/Singapore/Pages/default.aspx>_검색일=2016년7월4일)

이상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22) <http://www.mofa.go.jp/mofaj/area/singapore/data.html>_검색일=2016.11.28.,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중등교육은 4~6년 동안 중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중등학교에서는 PSLE 결과를 토대로 고속 코스, 표준 코스로 나뉜다. 고속 코스는 수료 시에 GCE-O(Singapore-Cambridg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Ordinary)레벨 자격의 취득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표준 코스는 보통 교육 과정(아카데믹 과정)과 기술 교육 과정으로 나뉘며 수료 시에 GCE-N(Singapore-Cambridg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Normal)레벨 자격을 취득하면 계속해서 1년간 취학하여 GCE-O 레벨 자격의 취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등교육 단계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자는 나아가 중등 후 교육으로 자리매김되는 주니어 컬리지/중앙 교육 학원(2~3년)에 진학하며 수료 시에 대학 입학 자격인 GCE-A(Singapore-Cambridge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레벨 자격시험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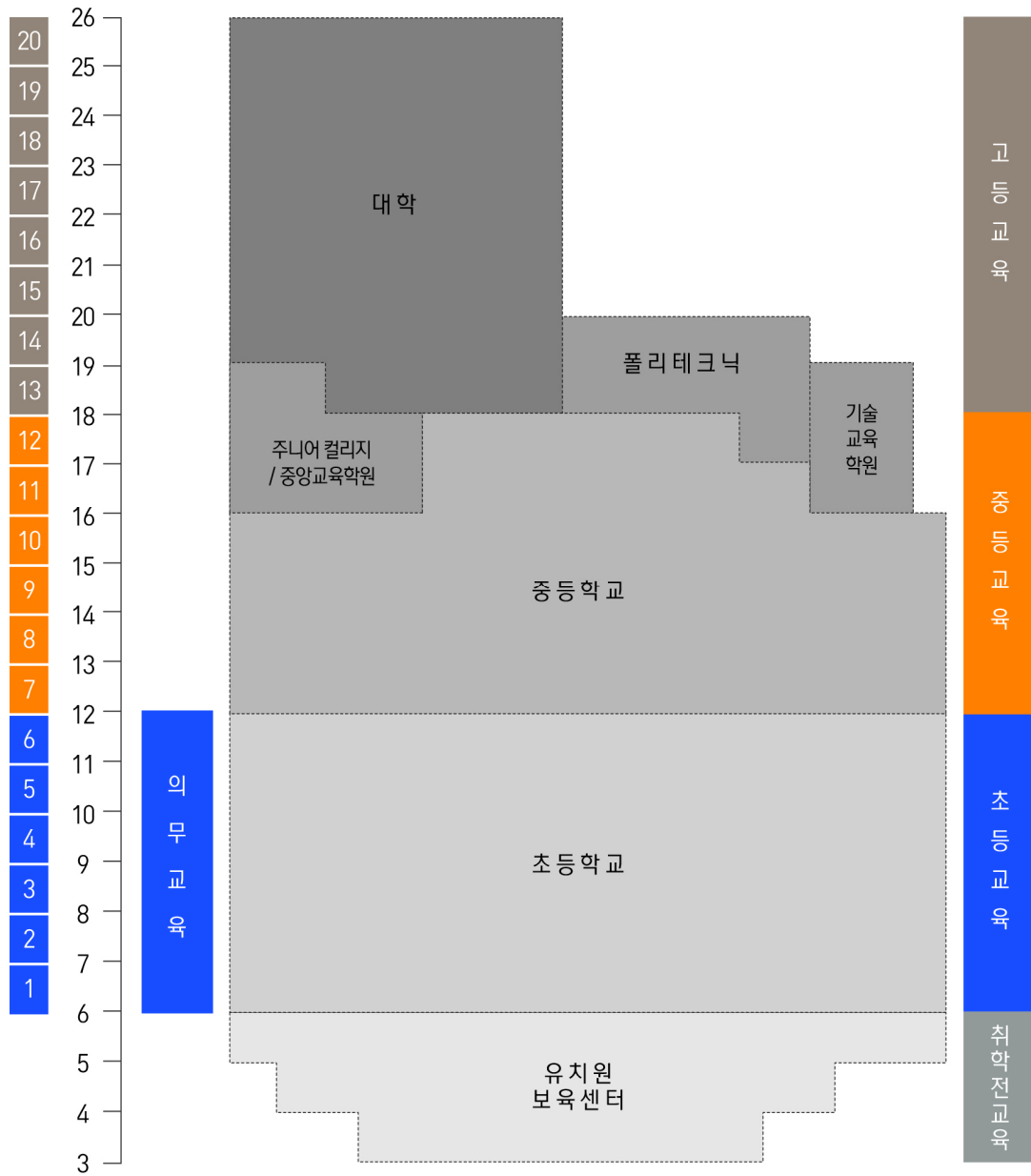
직업 교육과 관련해서는 폴리테크닉 및 기술 교육 학원(ITE) 등이 있으며 각각 GCE-O 레벨 자격이 입학 요건이다. 기술 교육 학원은 GCE-N 레벨 취득자도 입학이 가능하다. 기술 교육 학원에서는 ITE 전국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다. 폴리테크닉은 중등 후 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고등교육은 대학에서 담당한다. 대학에서는 분야별로 3~5년의 학사 과정, 1~3년의 석사 과정, 2년 이상의 박사 과정이 있다. 이 밖에 교육 디플로마(1~2년, 초등 교원), 학사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졸업 디플로마(1년) 등이 있다. 폴리테크닉에서는 준 학위 레벨의 졸업 디플로마(3년)를 기본으로 하며 상급 디플로마 등의 취득 과정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1980/1981년에 교육제도의 개혁이 있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4년, 고등학교 2년의 학제는 이때 만들어졌다. 학제는 원칙적으로 6-4-2제이지만, 어떤 과정을 밟느냐에 따라서 수료연한이 다르다. 코스는 고정되지 않고 어디서든 변경이 가능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주5일제이며, 초등학교는 오전과 오후 2부제로 운영한다. 1년이 4학기로 나뉘며 사이사이에 단기와 장기의 방학이 있다. 연간 200일이 수업일로 정해져 있다. 싱가포르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이중 언어교육이지만 영어 이외에 중국어(북경어), 말레이시아어, 타밀어 수업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싱가포르 사람들은 2개 국어 이상을 말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다.

학교에는 PTA와 같은 PTC(Parents and Teachers Conference)가 설치되어 있다. 2011년 1월 현재 20개의 특별교육학교가 장애학생들을 위해 설립되어 있다.

학년 연령



【그림 IV-18】 싱가포르의 교육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학년 연령



제 IV 장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 체험활동 현황과 전망

【그림 IV-19】 싱가포르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싱가포르의 교육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이중 언어교육이다. 이중언어주의(Bilingualism)는 싱가포르 교육의 가장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이다. 모든 학생들은 영어와 공식적인 모국어를 배운다. 학교에서는 주로 영어가 사용된다. 이중언어 교육정책은 학생들에게 동서양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언어능력과 글로벌한 감각을 길러준다. 이러한 강점은 학생들에게 개성있는 강점을 갖게 하며 자신들의 문화유산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맙게 여기도록 해줌으로써 글로벌화된 세계로 나갈 수 있게 해 준다.

두번째는 폭넓고 총체적인 학습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의 교육시스템은 교수학습에 있어서 강력한 기초를 유지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핵심역량과 심성(mindsets)을 갖추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총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교육과정을 넘어 학생들은 통합교육과정을 통한 음악, 예술,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신들을 개발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도 학교생활의 일부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학생들의 역량, 즉, 창의성, 자신감, 열정, 인내심 같은 자질, 즉, 급속도로 변하는 세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애기술을 갖추는 데 도움을 준다.

세번째 강점은 좋은 교사와 학교지도자이다. 교사들은 국가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NIE)에서 종합적인 예비교사 연수를 받고 교육전문가로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속적으로 얻는다.

네번째 강점은 ICT를 활용한 통합교육(Infused Curriculum)이다. ICT를 교과수업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ICT 활용 통합교육은 학생들이 비판적인 역량을 갖추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학교에서 혁신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별도의 예산과 자원이 지원된다.

마지막 장점은 부모와의 파트너십이다. 싱가포르에서는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의 개입과 지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와 함께 협업하여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한다.

(2) 싱가포르의 진로교육 현황

가. 진로교육의 역사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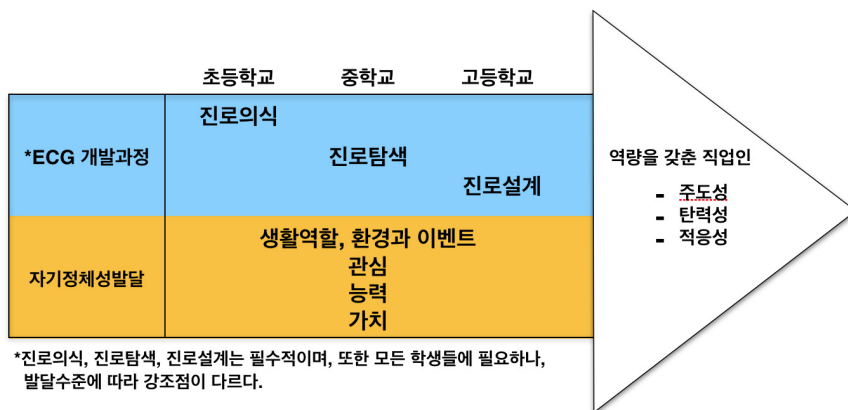
1960년대 중반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싱가포르의 일부 중등학교는 커리어 매스터가

지도하는 커리어 클럽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부는 직업정보에 초점을 맞춘 지도조직(unit)을 가지고 있었다. 1980년대말부터 2000년대까지 교육부는 사목적 돌봄과 진로지도국(Pastoral Care and Career Guidance Section)을 통해 진로지도를 활성화하였다. 국가교육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이 지난 40년간 PCCG(Pastoral Care and Career Guidance) 교사연수운영과 졸업장 수여업무를 수행해왔다.

1987년~1988년 사이 영국의 피터 랭과 안토니 와츠박사(Mr Peter Lang and Dr Anthony Watts)가 교육부로부터 초청되어 PCCG에 대한 연수와 컨설팅을 하였다. PCCG는 이때부터 싱가포르 교육을 통합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싱가포르 학교에 도입된 학교 전체적 접근(Whole School Approach)은 사목적인 돌봄과 지도와 카운슬링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all-round development)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1990년대에는 교육부에 의해 진로교육자원 팩, 생애기술 팩, 비디오, CD 등 많은 자원들이 개발되었다. 핵심이 되는 자원은 미국 미주리의 노먼 기스버와 메리 헤프너와 그들의 협회에 의해 고안된 종합적인 지도와 카운슬링 프로그램이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는 젊은이들의 능력과 잠재력 개발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교육 및 진로지도, 카운슬링과 사목적 돌봄이 모든 학교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학생들의 개별적인 진로발달 상황에 맞춘 계획이 싱가포르의 사회경제적 발달과 개인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보살핌은 궁극적으로는 공동의 미래를 위한 보살핌이기도 하다. [그림 IV-20]은 싱가포르 교육부의 교육 및 진로지도(educational and career guidance, ECG) 발달 모델이다.



[그림 IV-20] 싱가포르의 ECG 교육 및 진로지도 모델

출처: <http://www.moe.gov.sg/skillsfuture/>, Yin, 2017에서 재인용

나. 교육, 훈련 그리고 경력발달을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통합 시스템
 스킬스퓨처 위원회(SkillsFuture Council)는 3개 위원회(Tripartite Council)로 구성되며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DPM)를 의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통합적인 교육시스템으로 모든 싱가포르인들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각자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지원을 신장시키며 생애학습의 문화를 촉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ASPIR(Applied Study in Polytechnics and ITE Review)와 CET(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Masterplan) 2020의 두 가지 계획을 기반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핵심사안들을 제언한다. 위원회는 모든 싱가포르인들을 대상으로 학습과정과 취업 전후에 대해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고용주와 훈련프로그램 제공자, 그리고 노조와 개개인을 포함한다.



【그림 IV-21】 싱가포르 교육, 훈련 그리고 경력개발을 위한 통합시스템(스킬스퓨처)

출처: Yin(2017). Career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Singapore.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결정된 4가지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개인이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위원회는 학교에서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직업 및 경력훈련 과정에서 개인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려 한다. 청년들이 정부, 산업계와 기타 기관들 간의 협력 속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협력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범위의 직업을 경험하고 다양한 노동시장의 수요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둘째,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통합된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청년들에게 폭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새로운 영역의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각 영역에 교육과 훈련 기관의 리더들이 참여한다.

셋째, 기술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경력개발과 고용주들의 인식을 촉진한다. 위원회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개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구조를 개발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고용주와 노조 및 정부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각 영역에 지명하고자 한다.

넷째, 위원회는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습득한 개인의 기술과 성과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스킬스푼처 위원회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애학습 위원회 (community-led Lifelong Learning Council)의 지원을 받는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문화를 조성하는 실천적인 방법을 발전시킨다.

(가) 스킬스푼처 크레딧

싱가포르시민들이 학습하고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스킬스푼처 크레딧을 만들려고 한다(초기 크레딧은 \$500이다), 이를 모든 25세 이상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영역에서 기술을 향상시키고 그 이외의 영역으로도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나) 향상된 인턴십

고등교육기관은 산업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있는 경험과 작업장에서 구조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턴십 프로그램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새로운 산업계의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이고 질 높은 교육 시스템과 훈련, 그리고 경력개발국가 스킬스푼처 운동과 맥을 같이 한다.

다. 기술교육과 일반 기술학생을 대상으로 한 두 가지 성공적인 프로그램 사례

(가) 영화제작 경연

최근 Channel News Asia(CNA)의 영화제작 경연 프로그램인 '내 눈을 통해서 보는 세계(The World Through My Eyes)' 에 참가한 DMD, ITE College Central의 3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팀이 다른 학교에서 참가한 팀들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각 팀에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1분짜리 비디오 클립을 만드는 미션이 주어졌다. 3G 모바일 폰만을 사용하여 빨강, 노랑, 파랑 또는 초록을 주제로 제작하는 경연 프로그램이다. ITE 팀이 우승작으로 제출한 것은 “Days without Yellow”로서 노란색을 구분하는 능력을 상실한 10대 소녀의 이야기였다.

참가팀들이 개념도에서 최종 산출물까지 영화를 만드는 전체의 창의적인 과정은 CNA에 의하여 캡처되고 문서화되었다. 30분짜리 4가지 에피소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고, 4주간 송출되었다. 각각의 에피소드는 3개 팀이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1분짜리 마지막 동영상 프리젠테이션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쟁작품의 미디어 공개는 굉장한 효과를 가져왔다. CNA가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컸다. 이 경연에서 우승한 ITE 팀은 대대적으로 공개됨으로써 부수적인 이득을 얻었다.



【그림 IV-22】 내 눈을 통해서 보는 세계(The World Through My Eyes) 홈페이지(홍콩)

출처: https://www.ite.edu.sg/kmweb/ktrivia/v10_01_ITEwinsFilmMaking/index.htm, Yin, 2017에서 재인용

(나) 교과유연화(SSB) 사례

2018년부터는 일반계열과 기술계열의 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모든 학교로 확장될 예정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2014년 이후 12개 중등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일반계와 기술계 중등학교 학생 중 초등학교 졸업자격시험(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PSLE)에서 영어, 수학, 과학, 싱가포르어 과목에서 적어도 A를 받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다. 속성 과정으로 진행되는 과목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계 학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자격시험 기준과목에서 B나 C를 받거나 기초과목에서 1의 성적을 얻은 학생들은 인문계 학교에서 한 수준 높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것은 교과유연화(subject-based banding, SBB)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SBB는 2003년부터 이미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교과유연화로 직업계 학생들도 일반계 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일반계 학생들은 Sec 4의 O-level 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는 높은 수준의 과목을 3개 이수할 수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상위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는 데 제한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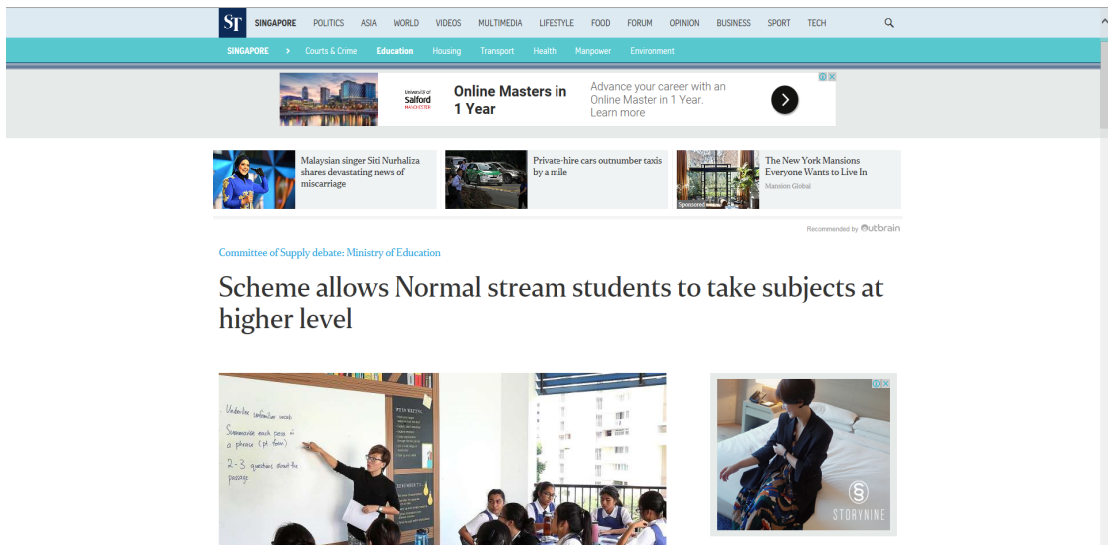
SBB를 시행한 12개 학교의 약 50%의 Sec 1 N(일반계) 학생들과 약70%의 N(기술계) 학생들이 적어도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상위수준의 과목을 이수했다. 인원으로 따지면, N(일반계) 학생 400명과 N(기술계) 학생 300명이다. 교육부에 의하면 2014년에 상위수준 과목을 이수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첫번째 그룹 대부분이 2, 3학년에도 최소한 하나의 상위수준 수업을 수강했다. 그러나 일부 소수 학생들은 빠른 수업진도와 수업부담으로 지속하지 못했다.

학교와 교사를 돕기 위해 교육부는 더 많은 교사를 배치하였다. 교육자료 뿐 아니라 교육과정과 네트워킹 세션이 교육부에 의해 조직되었고 교사들을 지도했다. 12개 학교의 하나인 CHIJ St Theresa's Convent 학교장 Pauline Wong은 SBB가 원만하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계획과 자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우리의 계획수립과정은 두 배가 더 걸린다. 복잡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학습그룹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교사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SBB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는다. 심지어 수업을 따라가지 못해 상위수준의 과목을 철회해야 했던 학생들까지도 그렇다. 폴린 왕(Pauline Wong) 교장은 “그들은 돌아가면 잘 해낼거다. 그들은 기본기가 잘 갖춰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St Theresa's Convent 의 Sec 4 N(A) 15세 프리티카 새테왕(Pritika Satewan)는 PSLE 에서 C를 받았지만, 1학년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을 때 속성반에서 수학수업을 받을 것을 제안받았다. 주니어 칼리지에 들어가길 원하는 프리티카는 상위수준 수업을 선택하는 것은 내년에 O레벨에 올라갔을 때 들어야 하는 수업의 양을 줄여준다고 말한다. “처음 상위 수학수업 수강 제안을 받았을 때, 실패할지도 몰라 걱정했다” 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잘 해냈다. “학생들이 처음에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것은 단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습하면 잘 할 수 있어요”



【그림 IV-23】 SBB 홈페이지(홍콩)

출처: <http://www.straitstimes.com/singapore/education/scheme-allows-normal-stream-students-to-take-subjects-at-higher-level>, Yin, 2017에서 재인용

라. 생애학습과 진로발달을 위한 IT 응용의 미래

1980년에 Sim Wong Kooi 박사와 Esther Tan 박사는 당시 교육연구소 안에 연구팀을 꾸려서 중등학교 학생을 위한 컴퓨터 기반 상호작용 진로지도 소프트웨어(computer-aided interactive career guidance software)를 개발했다. 이른바 “JOBS” (Job Orientation Backup System)이다. JOBS floppy disk로부터 JOBS2 CD로 이전되는 동안 프로젝트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몇몇 15세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진로를 위한 웹기반 시스템으로 업데이트했다. 다름아닌 “OSCAR” 이다. The NIE OSCAR website는 2004년 9월에 오픈했다. 5년 뒤 교육부는 포탈사이트인 ‘ecareers.sg’ 를 구축했다. 이 사이트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교육노동센터가 개발했고 운영을 맡고 있다.

새로운 포털사이트는 OSCAR의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위해 거의 300명의 데이터를 모았다. 1990년대에 인력부 역시 진로카운셀링과 취업지원을 위한 웹기반 플랫폼을 사용했다. 2017년 2월 28일 한 명의 국회의원이 스킬스퓨처와 잡뱅크 포탈-개인 학습 포트폴리오(The Individual Learning Portfolio, ILP)의 합병을 제안했다.²³⁾

- ① ILP는 개인의 학습과 경력선택의 정보를 입력하는 원스톱 온라인 포털이다. 개인들은 ILP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피드백을 받기도 하며 훈련의 성과에 대한 정보가 포털 상에서 기록되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 ② ILP는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수요가 생기면 ILP다음 단계의 형태로 만들 것을 고려 중이다.
- ③ ILP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상의 관심, 기술부족, 일의 가치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와 자원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한 개인의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가능한 직업을 찾고 그 직업을 위해 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게 한다.
- ④ 사람들의 직업적인 관심을 찾거나 필요한 기술을 찾는 것 이외에 개인들은 잡뱅크를 통하여 일자리를 검색하고 지원할 수도 있다. 이것은 ILP로 통합될 것이다. 잡뱅크에 수록된 직업들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된다. 각각의 직업에 대한 포스팅은 최대 30일간만 유효하다. 고용주들은 적절한 후보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삭제된 잡 포스팅을 복원할 수 있다. 기간만료된 잡 포스팅은 자동적으로 제거된다. 결국 잡뱅크에 있는 일자리 목록은 최신의 자료로 업데이트 된다.
- ⑤ ILP은 2017년부터 진행되며 지속적으로 진전된 사항을 공유할 것이다.

(3) 소결

싱가포르는 이중 언어교육을 통합 소통의 기술, 통합적인 교수학습을 통한 핵심적인 역량과 심성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로교육을 운영한다. 교과유연화 사례는 대표적인 예이다. 중등학교

23) 스킬스퓨처와 잡뱅크 포탈-개인 학습 포트폴리오(ILP)의 통합포탈 홈페이지

<https://www.moe.gov.sg/news/parliamentary-replies/merger-of-skillsfuture-and-jobs-bank-portals#sthash.0AITFuGW.dpuf>, Yin, 2017에서 재인용

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은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선별적이고 경쟁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로교육은 생애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의 기본틀, 이를 테면 진로의식, 진로탐색, 진로설계의 구도는 일반적인 형태를 취하지만 생애교육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조된다.

이것은 아마도 싱가포르의 학제가 의무교육 수료 후 코스를 다양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진로교육을 별개의 영역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교육시스템 전체 안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진로교육은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생애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교육시스템 자체가 하나의 진로교육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5) 말레이시아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²⁴⁾

(1) 말레이시아의 사회환경 및 교육환경

가. 말레이시아의 사회환경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2,995만 명이고, 면적은 약33만 평방 킬로미터이다. 수도는 쿠알라룸프르이며 언어는 말레이어(국어), 중국어, 타밀어, 영어 등을 사용하고 있고 정치 체제는 입헌군주제(의회제 민주주의)다. 말레이시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 548 미국 달러(명목, 2013년 IMF기준)이며 통화 단위는 링깃이다.²⁵⁾

표 IV-12 말레이시아 사회환경 주요 지표

인구	면적	정치체제	언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도	통화단위
29,950,000	330,000km ²	입헌군주제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영어	1,398달러	쿠알라 룸프르	링깃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나. 말레이시아의 교육환경²⁶⁾

말레이시아의 교육 행정은 연방, 주, 군의 세 수준으로 구분되어 있다. 연방 수준에서는 학교 교육 시책의 입안 및 조정 등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고등교육 정책의 입안 및 조정 등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부가 관할한다. 주 수준에서는 주교육국이 주 내에서의 교육계획 실시 등을 담당한다. 군 수준에서는 주 교육국의 보조기관으로서 군 교육부가 설치되어 있다.

24) 본 내용은 2017 NYPI & ARACD 국제학술회의에서 Krauss가 발표한 'Career Education and VET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n Malaysia' 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임.

25) <http://www.mofa.go.jp/mofaj/area/malaysia/data.html>/검색일=2015.9.7

26) * UNESCO World Data on Education, 7th edition, 2010/11

** 말레이시아 교육부<http://www.moe.gov.my>/검색일=2016.7.22.

*** United Nations Malaysia, 2015.

이상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학년도는 한국과 비슷하게 1월~11월로 운영된다. 학제는 6-5-2-3제이다. 4~5세에 유치원입학이 가능하며, 6세에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는 2년이다. 즉 초·중·등 과정이 총 11년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3번의 국가수준의 시험이 치러진다. 초등학교 성취시험(Primary School Achievement Test, UPSR)은 6학년말에, 중학교 평가(Lower Secondary Evaluation, PMR)는 중학교 3학년(Form 3)말에 치러진다. 이 시험은 2014년에 중학교 3학년 시험(Form Three Assessment, PT3)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고등과정 2년말(Form 5)에 치러지는 말레이시아 자격시험(Malaysia Certificate of Examination, SPM)은 O-레벨의 일반교육자격시험(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에 해당한다.

말레이시아 학교는 주로 공립학교로 운영되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말레이시아어(Bahasa Malaysia)로 가르치는 공립학교로 여기서는 영어가 제2언어가 사용된다. 다른 하나는 중국어 및 타밀어로 가르치는 정부보조학교로 여기서는 말레이시아어를 제2언어로 영어를 제3언어로 가르친다. 나머지 2% 정도의 학교가 사립이거나 미션스쿨이다. 기타 사립의 중등학교가 있고, 국방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도 있다. 그러나 학교유형에 관계없이 초등학교는 말레이시아 국가교육과정을 따른다. 총 7,758개의 공립 초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5,652개는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초등학교 6년이 의무교육이며,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그리고 예비대학과정(pre-university senior secondary study)으로 구성된다. 2012년 현재 초등학교는 거의 다 취학을 하고, 중등교육 취학율은 71%, 고등교육은 37%이지만 중등교육 취학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표 IV-13 말레이시아의 교육 보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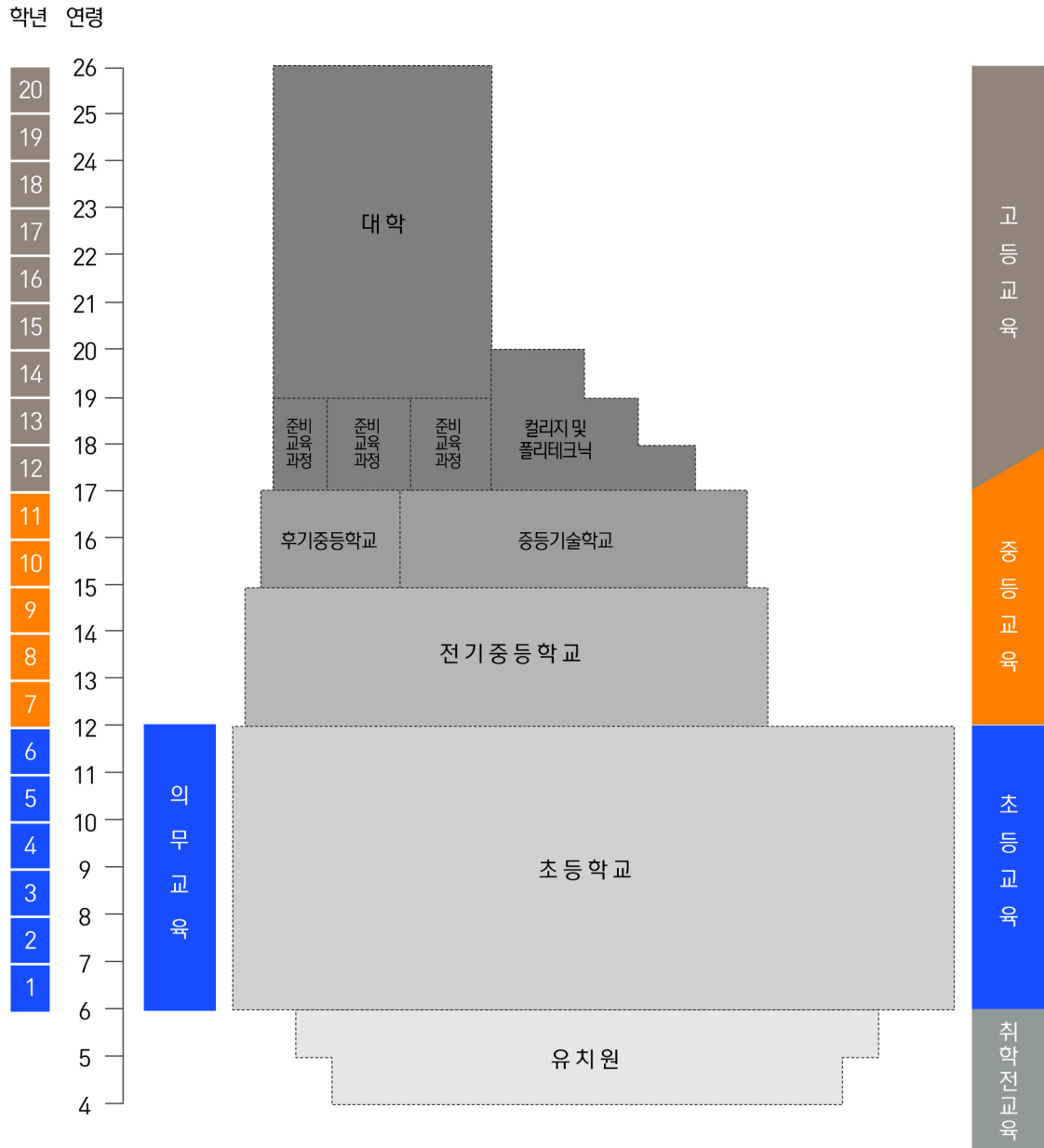
교육 단계	연도	재적율	성별	
			남	여
취학 전 교육	2013년	94%	-	-
초등교육	2013년	106%	-	-
중등교육	2012년	71%	73%	69%
고등교육	2012년	37%	34%	41%

주) 보통 연령보다 빠르거나 또는 늦은 입학과 유급 등을 이유로 하는 해당 연령 외의 재적자를 포함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중등학교 졸업 노동자의 비중은 1982년 37%에서 2012년 58%로 증가하였다. 고등학교는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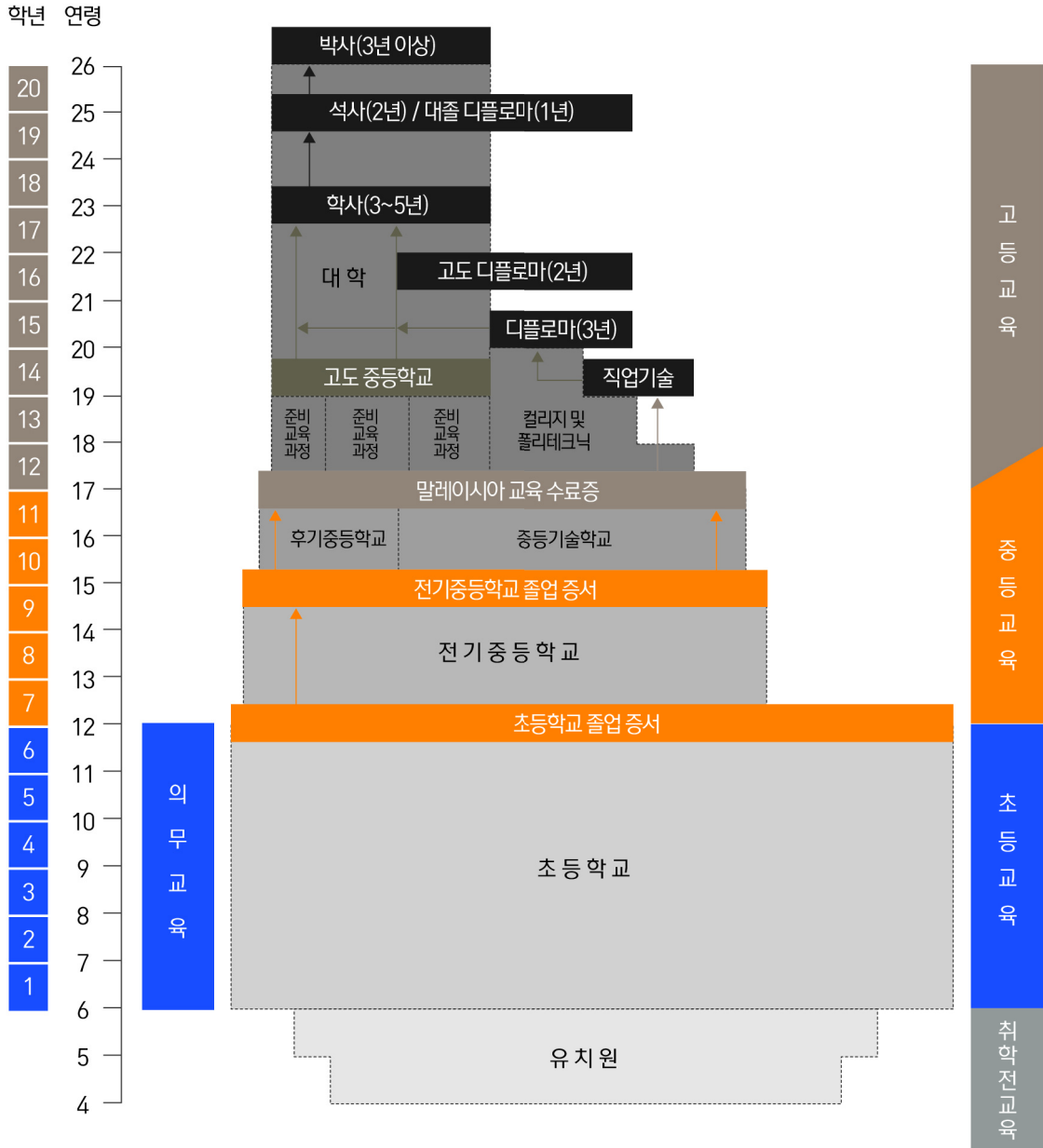
교(인문 또는 과학계열), 기술 및 직업학교(기술, 직업 또는 직업훈련 계열), 종교학교로 나누는데, 중학교 졸업시험 결과 및 개인의 선택에 따라 진학이 결정된다.



제 IV 장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과 전망

【그림 IV-24】 말레이시아의 교육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그림 IV-25】 말레이시아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고등교육은 대학, 단과대학(컬리지) 및 폴리테크닉에서 실시한다. 대학입학 시에는 중등교육 수료 후 2년간 중등학교 또는 대학에 설치된 중등학교 졸업증으로 이어지는 준비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자를 대상으로 각 대학의 입학 선발 시험이 실시된다. 대학에는 학사 과정(3-5년) 외에 대학 졸업 디플로마(1년), 석사 과정(2년) 및 박사 과정(3년 이상)이 있다. 컬리지 및 폴리테크닉에는 중등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 직업 교육 코스(1~3년)가 있으며 졸업자에게는 직업 기술 자격증 및 졸업 증서가 수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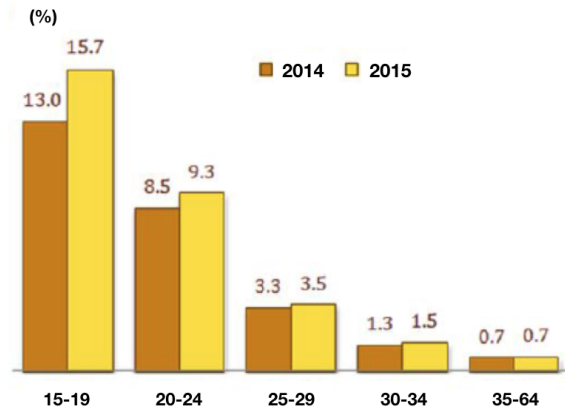
다. 말레이시아 비전 2020과 교육

말레이시아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중위소득 국가이다.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여, 경제적으로 보다 풍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 교육과 노동력 강화에 국가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1년에 수립된 ‘비전 2020’에서는 교육에 특히 비중을 두고 있다. 인문교육과 직업교육 모두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분석에 의하면, 새로운 일자리의 70%가 고등기술을 위한 TVET(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25%의 노동자만이 그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 ‘비전 2020’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백만 개의 새로운 TVET 기반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졸업생의 질관리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진로교육과 TVET을 ‘게임 바꾸기’로 천명하고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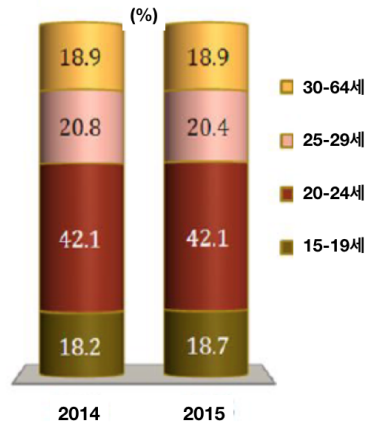
(2) 청년고용문제

청년고용문제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중요한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15~24세 노동인구 비율은 20%에 가깝지만 이 연령의 취업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15). 15~19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15.7%, 20~25세 실업률은 9.3%, 전체 실업률 3.1%이다(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15). 20~24세 연령그룹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41.1%에 달한다([그림 IV-26]).

연령계급별 실업률(2014-2015)



연령계급별 실업률 비중 (2014-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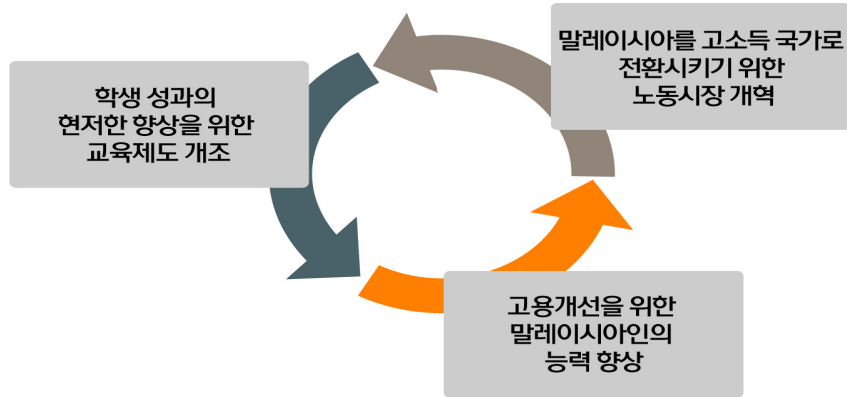
【그림 IV-26】 말레이시아 실업률(연령계급별, 2014-2015)

출처: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15, Krauss, 2017에서 재인용

젊은이들은 대부분 세일즈맨이나 사무보조와 같은 미숙련 노동자로 고용된다. 정부는 청년고용 문제가 교육과 기술의 미스매칭에 의한 것으로 보고 인적자원부가 새로운 기술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기술 장려를 위한 기술교육경로’ 같은 프로그램이다 (UNICEF, 2013; Krauss, 2017에서 재인용).

(3) 청년고용 촉진 정책

말레이시아 정부는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10개년의 계획(2011~2015) 동안 통합적인 인적자본 개발체계를 구축했다. 유아기부터 기초적인 교육을 거쳐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인들의 노동과정을 포함하는 생애전체과정을 통해 말레이시아인들의 역량을 개발한다는 접근법이다. 이 같은 접근법은 [그림 IV-27]과 같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학생들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공교육 시스템의 개조, 둘째, 청년고용률 향상을 위한 기술 습득강화, 셋째,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요구분석이다.



【그림 IV-27】 말레이시아 청년고용정책의 방향

출처: Economic Planning Unit(2010), Krauss, 2017에서 재인용

이 세 가지 요소는 생애과정접근으로 통해서 추진된다(그림 IV-28). 특히 청년들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과정에서 역량을 계발할 수 있도록 정책트러스트 센터는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을 높여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TVET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들 정책은 두 가지 이슈, 즉 불충분한 기술과 역량, 그리고 숙련노동자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에 관심을 둔다(Yunus, 2007, Krauss, 2017에서 재인용).



【그림 IV-28】 말레이시아의 통합인재개발 시스템

출처: Economic Planning Unit(2010), Krauss, 2017에서 재인용

(2) 중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정책

중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기초 직업교육프로그램(Basic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BVE)과 직업대학(Vocational Colleges, VC)이다. BVE는 중등학교(Form 1~Form3) 프로그램으로 직간접적인 체험활동을 포함하는데 이는 국가직업기술기준(National Occupational Skills Standard, NOSS)에 따른 것이다.

학생들은 3년 동안 세 가지 수준의 역량을 계발하여 인적자원부 기술개발국이 발행하는 말레이시아 기술 자격(Malaysian Skills Certificate, MSC) 레벨 2를 취득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TVET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지만 중등학교 학업중단 위험군 학생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기회를 준다. BVE가 중학교에 맞춰진 것이라면 VC는 TVET 계열에 관심을 갖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VC과정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BE 프로그램 이수자로부터 수급된다. 2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TVET 졸업장을 받게 된다. 이것은 MSC Level 3과 4를 충족시키는 것이어서 같은 종류의 자격을 얻기 위해 ITI 및 MARA 직업기관과 같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Rasul et al., 2015; Krauss, 2017에서 재인용).

교육부가 발간한 교육청서(2013~2025)는 TVET와 진로교육 기술의 겹을 분명히 함으로써 비인문 경력과정(직업교육과정)을 통한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청서는 TVET와 관련된 핵심적인 중등학교 정책으로, 학생들에게 인문과정과 직업과정을 위한 카운슬링 프로그램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여기에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가이던스와 카운슬링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진로 상담 및 지도 교사들이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과 방법을 갖추도록 훈련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로를 포함하는 훈련이다.

진로교육에서 강조되는 다른 하나는 전체 중학교 학생의 35%가 개별적인 교육경로와 진로 프로파일을 준비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프로파일은 학생들의 관심과 학업성적, 그리고 그 밖의 성취로서 결정적 시기인 중학교 동안 진로선택을 돕도록 디자인되었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학교 카운슬러가 공부 및 진로의 경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핸드북 발간을 제안하였다. 이 핸드북을 통해 6년후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안내한다(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2013, Krauss, 2017에서 재인용).

(3)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과 직업교육정책

가. TVET의 배경

말레이시아에서는 경제도약을 위해 국가 인력의 질과 기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경제계획단(Economic Planning Unit, EPU)에 따르면 특히 TVET 부문의 노동 수요는 NKEA(National Key Economic Areas) 도입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NKEA는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해 11개 산업 분야를 우선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NKEA는 2020년까지 최대 33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그 중 130만 명이 TVET 졸업생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asul et al., 2015, Krauss, 2017에서 재인용). 현재 말레이시아 노동인력의 약 28%는 고도로 숙련되어 있으며 그 중 60%가 중소기업에 고용되어 있다(Malaysia 2010; NEAC, 2010, Krauss, 2017에서 재인용). 결과적으로 TVET는 중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Leong, 2011, Krauss, 2017에서 재인용).

말레이시아 교육부의 교육청서에 따르면 직업교육은 특정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학생들에게 준비시킨다. 이러한 직업은 목공과 같은 기술 또는 직업기술에서 엔지니어링 및 기타 직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학생들의 진학을 준비하는 기술계열과는 달리, 직업계열은 직업을 지향한다.

말레이시아의 TVET가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① 일반교육으로의 통합
- ② 직업분야를 준비하고 직업세계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 ③ 평생학습의 강조와 책임있는 시민 양성
- ④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
- ⑤ 빈곤퇴치를 위한 수단

말레이시아의 TVET 시스템은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학술 교육
- ② 폴리테크닉, 기술연구소 또는 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가 제공하는 기술 및 직업 교육(이 기관의 졸업생은 기술 보조원 및 감독자를 포함한 감독직을 맡는다).

- ③ 공립 및 사립 기관의 직업 기술 훈련. 이 기관 졸업생들은 숙련 및 반숙련 직업을 갖게 된다. 공식적인 시스템 외부의 제공자나 정부가 부여한 자격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기관이 포함될 수도 있다(Cheong and Lee, 2016, Krauss, 2017에서 재인용).

표 IV-14 말레이시아 교육 훈련 체계의 주요 흐름(Leong, 2011)

경로	기관	노동력 준비
1. 고등교육	공립 및 사립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	엔지니어, 건축가 및 측량사 등 전문관리인력
2. 기술 및 직업교육	폴리 테크닉, 기술전문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최근)	기술 보조원 및 감독과 같은 수퍼바이저
3. 직업기술훈련	기술훈련 기관(공립 및 사립)	숙련, 반숙련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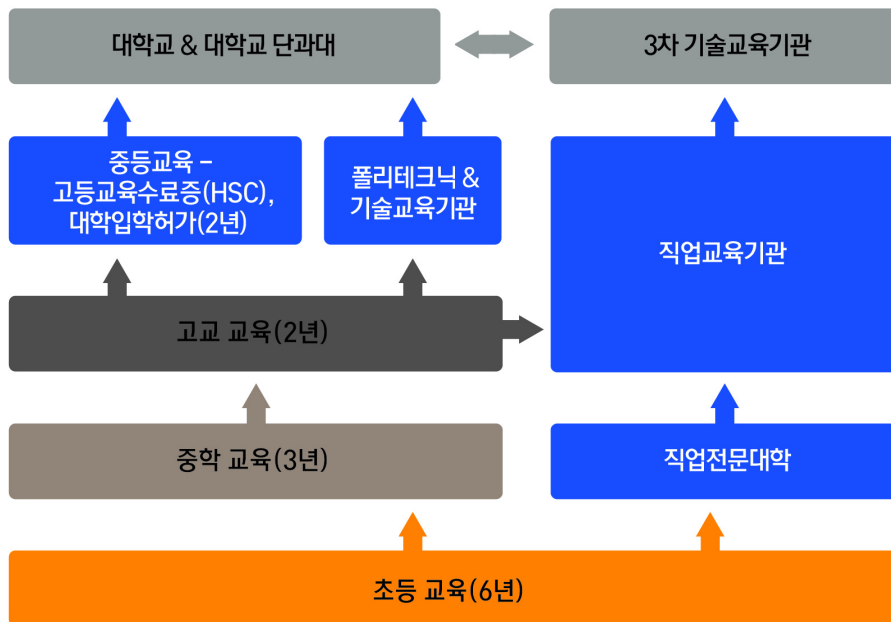
출처: Paraphrased and tabulated from Ahmad(2003: 6), Krauss, 2017에서 재인용

현재 기술개발부에 등록된 813개의 사립 교육기관과 12개의 주(state) 기술개발센터가 TVE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기술대학 네트워크(네 개의 공립 대학으로 구성)는 사립대학과 함께 TVET 학위 학위를 제공한다. 인력자원부, 고등교육부, 교육부, 청소년체육부, 농촌개발부, 농림부, 지역 및 농촌개발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등 8개 부처 산하 525개의 공공 훈련기관이 있다(Mustafa, 2016, Krauss, 2017에서 재인용).

나. 직업 훈련 및 직업 교육 관련 정책

말레이시아의 정책방향은 1991년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총리가 의회에서 제6차 말레이시아 계획을 발표하고 비전 2020(Wawasan 2020)을 수립하면서 시작됐다. ‘비전 2020’에 따라 2020년까지 TVET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고, 후속 개발 계획 안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어 제9차 말레이시아 계획(2006~2010)은 초기 직업교육훈련(IVET) (Economic Planning Unit, 2006, Krauss, 2017에서 재인용)을 통해 더욱 확대할 것이 천명되었고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은 IVET를 포함하여 TVET를 더욱더 강조하였다(Economic Planning Unit, 2010, Krauss, 2017에서 재인용). 제9차 말레이시아 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에 의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TVET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의 발전이 있었다(Cheong and Lee, 2016, Krauss, 2017에서 재인용).

- ① TVET 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법(2006)의 통과
- ② 제8차 계획과 제9차 계획 기간 동안의 예산배분증가(Economic Planning Unit, 2006, Krauss, 2017에서 재인용)
- ③ 2007년에 말레이시아 자격 체계(2005년에 승인)를 감독하는 말레이시아 자격기관(MQA) 설립
- ④ 2006년 인적자원부(MOHR)의 기술개발부 설립



【그림 IV-29】 말레이시아 교육시스템과 진학경로

출처: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15, Krauss, 2017에서 재인용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에 따라 150만 개의 일자리 중 60%가 TVET 관련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말레이시아는 연간 인력공급을 2013년의 164,000명에서 2020년의 225,000 명으로 점차 늘려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숫자가 아니다. 산업계는 졸업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및 태도와 직장에서 요구되는 것 사이의 격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Cheong and Lee, 2016, Krauss, 2017에서 재인용).

다. 기술 훈련과 관련된 기타 주요 정책

(가) 국가기술개발법(NASDA)

2006년에는 국가기술개발법(National Skills Development Act, NASDA) 652의 새로운 제정으로 국가직업훈련협의회(National Vocational Training Council, NVTC)가 인력자원부(Ministry of Human Resources, MoHR) 산하 기술개발부(Department of Skills Development, DSD)로 재편되었다. 기술개발부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훈련 표준, 기술 훈련 및 인증 시스템의 개발과 지속적 개정
- ② 기술훈련의 촉진
- ③ 전략 및 기술훈련 프로그램의 조정

(나) 국가 직업 기술 기준(NOSS)

1993년에 NTSS(National Trade Skill Standard)가 NOSS(National Occupational Skills Standard)로 대체됨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술인증서(MSC)라는 새로운 인증제도가 만들어졌다. 새로운 시스템은 훈련 및 직업 경험을 통해 습득한 기술에 대한 인식을 부여했다. 기술훈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는 DSD를 통해 2005년에 NOSS개발에 착수했다.

(다) 국가 듀얼 훈련체계(NDTS)

2005년에 훈련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체 시스템으로 NDTS(National Dual Training System)가 도입되었다. 업계가 주도하는 독일식 시스템이다. 제공되는 교육이 업계요구사항에 맞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NDTS의 주된 특징은 훈련 기관과 벤츠, 도요타, 테스코(Tesco)와 같은 민간기업 간의 협력이다. NDTS 내에서 훈련의 70~80%는 기업에서, 20~30%는 훈련 기관에서 수행된다 (Rasul et al., 2015, Krauss, 2017에서 재인용).

라. 현단계 TVET 정책에 대한 평가

Cheong and Lee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TVET 정책과 조치는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Krauss, 2017). 첫 번째는 정책 결정과정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력 수요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업계의 개입이 제한적이었다. TVET의 민간 부문 제공

업체와의 상호 작용은 민간 업체의 역할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어도 ETP(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를 도입할 때까지는 협업의 대상이 아닌 규제대상으로 간주하면서 제한되었다. 주요 이해 관계자로서 민간 부문 훈련 제공자는 정책 결정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교육시스템의 직업 교육 과정에 종사하는 학생이나 기업의 근로자를 포함한 TVET 수혜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번째는 정부 자체의 정책조정에 대한 도전이다. 2010년에는 새로운 경제 모델, 제10차 말레이시아 계획, ETP 및 GTP (Government Transformation Program)와 같은 주요 정책이 신속하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발표되었으며 경제발전을 위한 19개의 제안이 있었다. 이 제안들이 TVET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과제이다. 제11차 말레이시아 계획 (Economic Planning Unit, 2015 : 5-19, 22, Krauss, 2017에서 재인용)은 제10차 계획의 기반을 이루었던 핵심 분야인 ‘산업 수요 충족을 위한 TVET의 변화’를 포함한다. 그러나 2025년까지 국가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말레이시아 교육 청사진(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2013, Krauss, 2017에서 재인용)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정책 추진이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Cheong and Lee, 2016, Krauss, 2017에서 재인용).

말레이시아 고등교육부 과학기술교육부 TVET 특별 프로젝트 팀장 인 모하마드 네임 야크쿠브 (Mohammad Naim Yaakub)에 따르면 8개 부처에서 공공 TVET를 제공한 결과 문제점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훈련센터에서의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문제이다. 정부는 공공의 TVET 기관에 더 잘 분배되도록 조정하고 동일한 학생 집단에 대해 기관들간 중복제안을 줄이기 위해 메커니즘을 조정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단편적인 전달체계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성능에 대한 통합 평가시스템이 없이 TVET가 중복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야크쿠브는 임금이 삭감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등 전문적인 기술자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계 노출 경험 차이로 인하여 강사들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강사 프로파일을 다루는 중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Mustafa, 2016, Krauss,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품질과 수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진 비슷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1,00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TVET 기관이 산재해 있는 것이 말레이시아 TVET의 상황이다. 업체와 TVET 제공자 간의 협력은 고품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양과 질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TVET는 많은 학생들에게 여전히 매력없는 선택이다.

말레이시아 TVET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위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안되고 있다(Economic Planning Unit, 2015, Krauss, 2017에서 재인용).

- ① 수요에 부합하는 공급과 모든 공공 및 민간 기관이 품질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엄격한 품질 관리 메커니즘
- ② 업계 및 TVET 제공 업체의 학생 모집부터 커리큘럼 디자인, 전달 및 직업 배치에 이르기까지 전체 가치사슬 안에서의 협력
- ③ 학생들이 TVET가 제공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잘 알고 TVET를 매력적인 경로로 보게 해야 한다. 학생들은 또한 직장을 위해 더 잘 준비 할 수 있는 업계 주도의 혁신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이해 관계자의 분열을 줄이기 위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정하거나 간소화해야 하며, 업계 주도의 중재 및 프로그램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Economic Planning Unit, 2015, Krauss, 2017에서 재인용).

(4) 소결

말레이시아는 ‘비전 2020’ 하에 경제도약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 속에서 진로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중등교육에서 전기중등학생(우리나라 중학교 1~3학년에 해당)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대학 진학보다는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희망하는 고도중등학생(우리나라 고등학교 1~2학년에 해당)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다. 즉 말레이시아는 TVET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마저도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 듯하다. 이는 정책 수행에 있어 행정적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물론 직업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을 반드시 행정적인 기능의 부재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TVET가 많은 학생들에게 매력없는 선택인 이유는 취업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중등교육 취학율이 높아지면서 TVET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6) 인도네시아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²⁷⁾

(1) 인도네시아의 사회환경 및 교육현황²⁸⁾

가. 사회환경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약 2.55억 명이고, 면적은 약 189만 평방 킬로미터이며, 수도는 자카르타다.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고 있고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 공화제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377.1달러고, 통화 단위는 루피아다.²⁹⁾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인구의 87.2%가 무슬림이다. 그 밖에 기독교가 9.9%, 힌두교가 1.7%, 불교가 0.7%, 유교가 0.2%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섬인 자바섬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300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 민족은 자바인들이다. 민족적으로 자바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종교적으로는 무슬림이 가장 많지만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교도 다양하며 오랜 식민지 경험과 저항의 경험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국가적 모토를 ‘다양성 속의 통일성(Bhinneka Tunggalika=Unity in Diversity)’ 에 두고 있다.

표 IV-15 인도네시아 사회환경 주요 지표

인구	면적	정치체제	언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도	통화단위
255,000,000	1,890,000km ²	대통령제, 공화제	인도네시아어	3,377.1달러	자카르타	루피아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나. 교육현황

인도네시아의 교육시스템은 Pancasila와 1945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근거한다. 인도네시아 교육은 역량과 인성, 문명화를 통해 신실하고 경건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27) 본 내용은 2017 NYPI & ARACD 국제학술회의에서 Surya가 발표한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AND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DONESIA COUNTRY REPORT’ 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임.

28) UNESCO, World Data on Education, 7th edition, 2010/11, 文部科学省(2017)에서 재인용.

29) <http://www.mofa.go.jp/mofaj/area/indonesia/data.html>_검색일=2016년5월25일, 文部科学省(2017)에서 재인용.

학습자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도덕적이고 고귀한 인격, 유능하고 창조적이며 독립적인 시민으로서 민주적이며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도네시아의 교육은 정규교육, 비정규 교육(nonformal education), 비형식 교육(informal education)이 상호보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면대면 교육과 원격교육을 통해서 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체제는 기본교육(basic education), 중등교육(secondary education),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유형에는 일반교육, 직업 교육, 전문교육, 직업 및 기술 교육, 종교교육 및 특수교육이 포함된다. 학교계열과 수준, 교육의 유형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역사회가 조직하는 교육단위에 따라 다르다.

중앙 정부의 국가교육부에서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의 시책 입안 및 실시, 재정 조치, 커리큘럼 개발, 교원 양성, 학교 감독 등 교육제도를 거의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초등교육부터 중등교육까지의 이슬람교에 관한 학교 교육은 종교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지방에는 국가교육부의 파견 기관으로서 주 및 현에 사무소가 설치되어 교육 정책의 실시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학교 교육 제도는 일반 학교와 종교 관련 수업을 많이 도입한 이슬람 학교(마드라사)의 두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종교와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사회환경이 학교교육체제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무슬림이 인구의 87.2%를 차지하는 만큼 학교체제도 이를 반영하여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까지 무슬림학생을 위한 학교와 일반학교로 구분된다.

유아교육은 기본교육에 앞서 실시되며, 정규교육, 비정규교육 및 비형식 교육을 통해 제공된다. 취학 전 교육은 4~6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및 이슬람 유치원에서 담당한다. 정규교육을 통해 제공되는 유아교육은 유치원인 Taman Kanak-kanak (TK)과 Bustanul Athfal (BA)/Raudatul Athfal (RA) 또는 정규교육과 유사한 다른 유형의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비정규교육을 통해 제공되는 유아교육은 놀이그룹(KB), 탁아소 또는 비슷한 형태의 비정규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가정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교육 형태의 유아교육도 있다.

의무 교육은 7~16세의 9년간이다. 초등교육은 7세에 입학하며 6년 동안 초등학교 및 이슬람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수료 시에는 국가 시험이 실시되며 합격자는 전기 중등교육으로의 진학이 인정된다. 기본교육(basic education)은 중등교육을 위한 기초과정이다. 기본교육은 초등학교 즉, Sekolah Dasar (SD)와 Madrasah Ibtidaiyah (MI)가 있고, 같은 수준의 비형식교육 기관들이

있다.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Sekolah Menengah Pertama(SMP)와 Madrasah Tsanawiyah (MTs)가 있고 역시 같은 수준의 비형식교육 기관들이 있다. 9년간 이루어지는 기본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중등교육은 기본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중등교육은 일반 중등교육과 직업 중등교육으로 구성된다. 중등학교는 상급고등학교, 즉 Sekolah Menengah Atas (SMA)과 Madrasah Aliyah (MA), 상급직업고등학교, 즉 Sekolah Menengah Kejuruan (SMK)과 Madrasah Aliyah Kejuruan (MAK), 그리고 같은 수준의 비형식교육기관으로 구성된다. 전기 중등교육은 3년 동안 중학교 및 이슬람 중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수료 시에는 국가 시험이 실시되며, 합격자에게는 후기 중등교육에 진학할 수 있는 전기 중등교육 수료증이 수여된다. 후기 중등교육은 3년 동안 보통 교육에 중점을 둔 일반 고등학교와 이슬람 고교, 그리고 직업 기술 교육에 중점을 둔 일반 직업고등학교와 이슬람 직업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며 수료 시 일반 고등학교와 이슬람 고등학교에서는 후기 중등교육 수료증이, 일반 직업고등학교와 이슬람 직업고등학교에서는 후기 중등 직업 교육 수료증이 수여된다. 또한 모든 종류의 학교에서 수료 시 국가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고등교육에 진학하기 위한 기초 요건이 되는 국가 수료증을 수여한다.

고등교육은 학사(sarjana) 및 석사 전문대학원 프로그램 및 박사 과정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은 유연한 시스템으로 제공된다. 고등교육기관은 아카데미, 폴리테크닉, 고등교육학교, 연구소 또는 대학의 형태가 있다. 무슬림을 위한 고등교육과정은 4년 과정이지만, 직업교육 고등기관은 1년 과정에서부터 4년 과정까지 있다. 고등교육(이슬람계 고등교육을 포함)은 종합대학 외에 기술 및 예술 분야에서 고등교육 및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대학, 하나의 전문 분야에서 고등교육과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컬리지, 특정 분야에서 응용 과학 교육을 제공하는 폴리테크닉 및 아카데미에서 담당한다. 입학 시에는 중등교육 수료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입학 시험이 실시된다. 종합대학에서는 통상 4년에 학사에 상응하는 S1학위, 2년 이상에 석사에 상응하는 S2학위, 3년에 박사에 상응하는 S3학위가 수여된다. 전문대학, 컬리지, 폴리테크닉 및 아카데미에서는 1~4년의 과정이 제공되고 있으며 1~3년에 D1~D4의 수료증, 4년에 학사에 상응하는 D4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종교교육을 실시하며 정부나 동일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 의해 제공된다. 종교교육은 학습자가 종교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고 종교학의 전문성을 습득하는 공동체 구성원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종교교육도 정규교육, 비정규 교육, 비형식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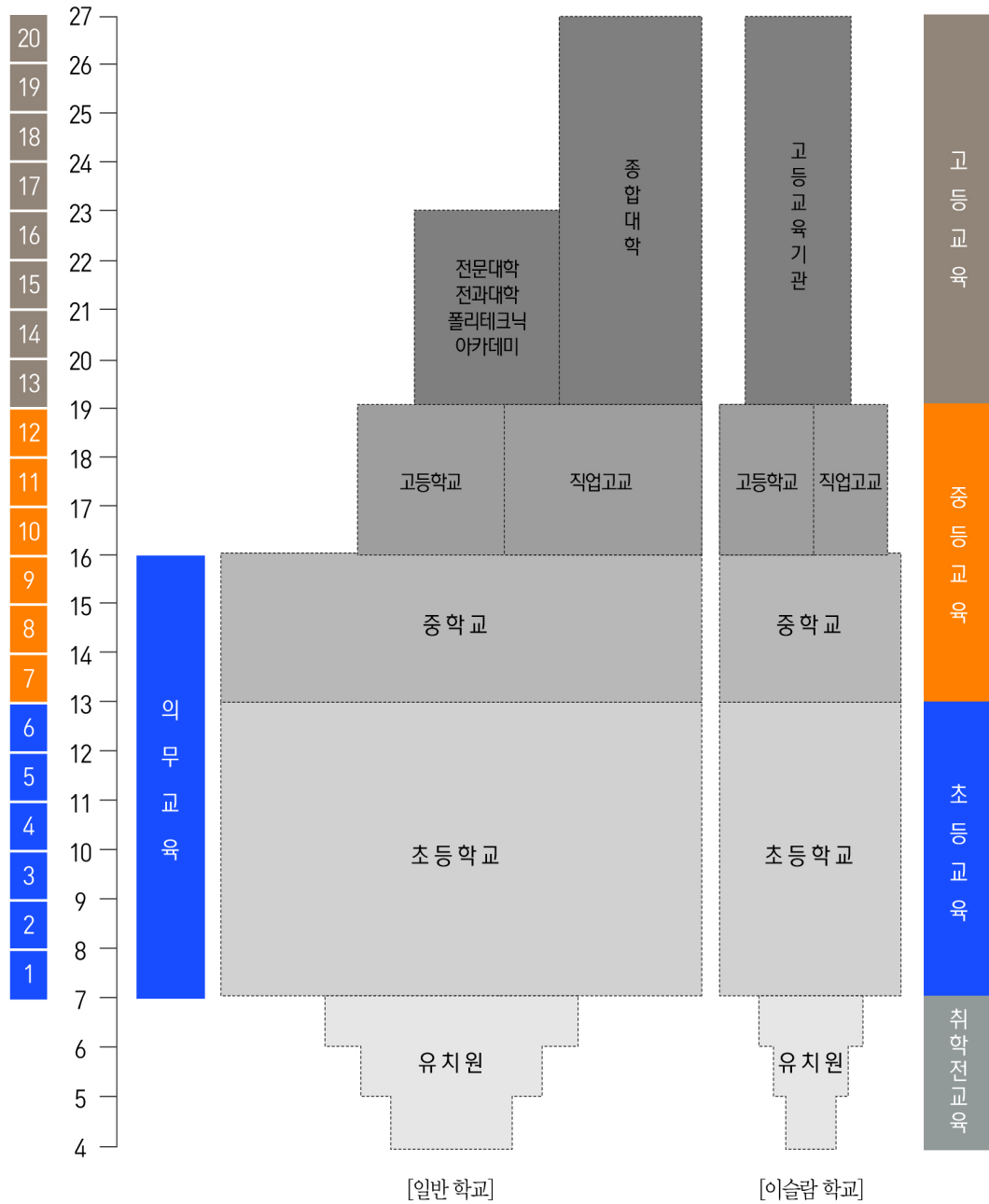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의 학교체제는 2003년법에 따른 것으로 정규교육은 유치원에서 고등교육까지 이어진다. 학교의 공식 명칭은 유치원(KG), 초등학교(PS), 중학교(JSS), 일반고등학교 (GSSS), 직업고등학교 (VSSS) 및 고등교육(HE) 등이다. 유치원(KG)의 재학기간은 2년이며, 초등학교(PS)는 6년이다. 중학교 과정(JSS)은 3년이다. 중학교(JSS) 졸업 후, 학생들은 3년 안에 일반고등학교 (GSSS)나 직업고등학교(VSSS)에 진학할 수 있다. 일반고등학교(GSSS) 졸업생은 졸업장이나 대학원 프로그램 또는 대학, 연구소, 고등교육학교, 학술 및 폴리 테크닉과 같은 고등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대학원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졸업 후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고 학위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전문가 과정 I과 II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2015/2016 학년도 기준으로 유치원(KG)은 85.5만 개이고, 학생은 440만 명, 교사는 366,600명이다. 특별학교(SLB)는 1,962개이고 학생은 114,100명, 교사는 26,800명이다. 초등학교는 147,500개가 있으며, 신규입학자는 420만 명이며, 남학생이 1,350만 명, 여학생이 1,230만 명으로 총 2천 5백 8십만 명이다. 이 중 73.80%인 1,910만 명이 초등학교의 공식적인 나이(7~12년)에 속한다. 졸업생 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430만 명 정도 많다. 반면 교사 수는 180만 명이고 여교사가(116만 명, 63.04%), 남교사가 66만명(36.96%)이다.

중학교(JSS)의 경우, 2015/2016 학년도 기준으로 학교는 37,000개로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더 많다(각각 60.71%와 39.29%). 신입생수는 3.4백만 명으로 94.90%가 초등학교(PS) 졸업생이다. 중학교의 수용인원은 50.90%, 여학생이 490만 명(49.10 %)으로 총 1,040 만 명이다. 졸업생 수는 3,2 천명이며 여성 졸업생은 남성 졸업생보다 많다. 여성졸업생은 50.30%(1.64백 만), 남성졸업생은 49.70 % (162 만명)이다.

2015/2016 학년도 기준으로 고등학교 수는 약 25만5천개로 일반고등학교가(GSSS)가 직업고등학교(VSSS)보다 약 3백개 정도 더 많으며, 중학교 졸업자의 76.3%인 310만 명이 입학한다.

학년 연령



진로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제 IV 장
채용 활동 현황과 전망

【그림 IV-30】 인도네시아의 교육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학년 연령



【그림 IV-31】 인도네시아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표 IV-16 인도네시아의 학교, 학생 및 교사수(2015/2016 학년도)

학교급	학교수	학생수	교사수
유치원	88,500	4,450,000	366,600
초등학교	147,500	25,800,000	1,800,000
중학교	37,000	10,400,000	681,400
고등학교	25,530	8,600,000	569,200

출처: Surya(2017).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and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donesia Country Report.

표 IV-17 인도네시아의 교육 보급 상황

교육 단계	연도	재적율	성별	
			남	여
취학 전 교육	2013년	54%	51%	58%
초등교육	2013년	106%	106%	106%
중등교육	2013년	82%	84%	81%
고등교육	2013년	31%	30%	33%

주) 보통 연령보다 빠르거나 또는 늦은 입학과 유급 등을 이유로 하는 해당 연령 외의 재적자를 포함.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2) 인도네시아의 진로교육 현황

가. 인도네시아 진로교육의 배경

Sruya(2017)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및 훈련 그리고 교육 및 진로지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세계화 및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이에 대응한 역량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형성됨으로써 인적자원에 있어서 경쟁우위를 잡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MEA는 4가지 영역, 즉 ‘1) 단일시장과 생산기지의 형성, 2) 높은 경쟁력, 3) 공평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 4) 세계경제와의 통합 영역’ 에서 1)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 2)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 3)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 4)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5) 숙련공의 자유로운

이동을 핵심요소로 하고 있다.

셋째, 생산연령인구(16-60세)가 인구통계학적인 장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인구통계학적 장점이 실현되는 시기는 2025년이다. 이를 위해 젊은 세대들이 생산적인 노동력과 우수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넷째, 인도네시아 노동력의 저급한 교육이 삶의 질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통계국청 자료(2015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40%가 초등학교(SD) 졸업이며, 24%는 중등학교(SMP) 졸업, 15%가 일반고등학교(SMA), 10%가 직업고등학교(SMK), 4%가 전문대학 I~III, 6%가 대학졸업자이다.

다섯째, 선진국의 노동에 비해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이 문제이다.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보면, 2008년에는 116달러였으며, 2011년에는 123.133 달러, 2010년 142달러, 2012년에는 153달러였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높은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졸업자의 3.44%, 중학교 졸업자의 5.76%, 일반고등학교 졸업자의 6.95%, 직업고등학교 졸업자의 9.84%, 전문대 졸업자의 9.84%, 대학 졸업자의 6.22%가 실업자이다.

일곱째, 여전히 중퇴자가 많고 상급학교 진학자 수는 적다. 약 2억5천만 명의 인구 중 빈곤층은 2,700만 명이고, 739만 명이 중퇴자이다. 2013/2014 학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68,066명의 초등학생, 51,541명의 중학생, 40,454명의 고등학생이 중퇴자였다. 게다가 초등학교 졸업생의 3.25%가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고 중학교 졸업생의 15.28%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생의 38.71%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나.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인도네시아는 교육 및 진로지도를 최적의 개발을 위해 학습자 개개인에게 제공하는 정신교육적 서비스라고 본다. 과학과 기술, 교육과 진로지도의 패턴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21세기의 요구에 맞춰 젊은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 “가족에 기반을 두며 종교적 가치와 결합된 그리고 교육과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조화에 뿌리를 두고 개인의 임파워먼트에 초점을 맞추는 총체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교육 및 진로지도는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심지어 대학에서까지 지속적, 통합적으로 시행되지만, 전략적으로 직업지도는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이나 성년기와 직업의 세계로 이행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노력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중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두 가지 형식, 즉 포괄적 형식과 배타적 형식이 있다. 포괄적인 형식의 진로지도는 교육과정 상에서 관련된 교과를 진로교육과 통합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방식은 교육 및 진로지도를 분리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담교사 및 관련 직원에 의한 활동 등이다.

일반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등학교 교육 및 진로지도는 학생들의 진학을 목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시민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대학에 진학할 역량을 갖추게 된다. 그렇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취업지원은 부족하다. Vocational Senior Secondary School(VSSS)은 폴리테크닉으로서 졸업 후 취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졸업생들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추거나 창업 능력도 가지고 있다. 자격이 있는 졸업생은 계속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다.

다. SMK(고등직업 중등학교)에서의 진로개발 및 역량강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에는 졸업후 SMK 대학(고등직업 중등학교/VSSS)에 진학할 수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진학을 위한 고등학교가 있다. SMK에서는 폴리테크닉과 직업교육을 시키며 졸업생은 숙련공이 되거나 기타 직업을 찾기 위해 준비한다. 2015/2016 학년도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은 1,268,000명, 직업고등학교 학생은 1,265,000명이었다.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진로지도 그리고 직업교육 및 훈련의 틀에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SMK/VSSS의 수를 늘려 SMA/GSSS의 40~60%의 비율을 달성한다는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노동시장의 기술수요에 맞춘 SMK/VSSS의 추가는 지역의 조건과 글로벌한 도전에 부합한 노력이다. SMK/VSSS의 구축은 다양한 측면과 차원에서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SMK/VSSS의 개발은 증가하는 국내외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전문분야에서 경쟁우위를 갖는 청소년노동자를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 규정에 따라 개발·설치된 SMK/VSSS는 9가지 전문기술그룹을 제공한다. (1) 기술 및 엔지니어링 62명, (2) 정보기술 전문가 7명, (3) 보건 전문가 6명, (4) 농업 전문가 16명, (5) 어업 및 해양 전문가 8명, (6) 경영관리 전문가 5명, (7) 관광전문가 7명, (8) 미술 및 공예 전문가 10명, (9) 예술공연 전문가 7명 등 총 140명이다.

SMK/VSSS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혁신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루어질 것이다.

- ① SMK/VSSS의 비전과 미션을 지역, 국가, 글로벌 차원에 조화되도록 설정한다.
- ② 다양한 측면과 차원에서의 SMK/VSSS 관리교육 프로그램 강화한다.
- ③ 독립성과 탁월한 경쟁력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과 사회를 위한 일자리를 창조해 내는 기업가 정신과 혼을 배양한다.
- ④ 2013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2015학년도에 시작한다. 2013년 개정 교육과정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신뢰롭고 생산적이며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며 영향력 있을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문명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 ⑤ 성인교육개발에 적절한 학습모델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자기계발을 위한 현대적인 교육기술을 습득하도록 지원한다.
- ⑥ 국내외 교육 및 연수를 통해 교사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한다.
- ⑦ 현재의 요구에 부합하는 더 많은 현대적인 도구를 활용한다.
- ⑧ 체험, 현장체험, 인턴십 등을 통해 실무능력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구축한다.
- ⑨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역량에 대한 국가시험을 도입한다.
- ⑩ 국내외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SMK/VSSS와 산업계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 ⑪ 시장에 진입하여 지역과 국가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한 단계 높은 제품을 생산한다.

라. 실업 청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

이들을 노동력의 잠재적 원천으로 보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훈련을 개발하고 있다.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은 정부와 비정부기구에 의해 시행되어 왔다. 노동부는 이들을 위한 많은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왔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센터를 통해서 시행된다. 현재 중앙정부에 속해 있는 19개 직업훈련센터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의 주정부 관리 하에 있는 261개의 직업훈련센터가 있다.

마. 경험사례

일반계 고등학교(SMA, General Senior Secondary School)에서의 진로교육 및 지도와 관련된 두 가지 예가 있다. 교과와 직업을 통합한 프로그램의 예이다.

(가) BINA SISWA SMA PLUS “고등학교 학생의 발달“(SDSSS)

이 사례는 반둥 서부 자바에 위치한 BINA SISWA SMA PLUS(고등학교 플러스 학생개발 “(SDSSS) 사례로 진로지도를 통합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한 사례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난한 가정 출신으로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졸업생들 교육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기관인 SMA (고등학교)의 보완 프로그램이었다. Bina Siswa Plus 학생들은 정규 SMA, 즉 SMA Negeri Cisarua (Cisarua State Senior Secondary School)에 등록 후 정규 SMA 학생으로서 정해진 수업에 모두 참여해야 하며 방과 후 기숙사로 돌아가서는 개발 및 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이렇게 해서 정규교육과 기숙사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특별서비스 간에 전체적인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일반 및 학술 교육을 위한 국가교육과정과 지역교육과정 추진되는 수업, 사회, 종교 및 기능기술교육 등이 통합을 이룬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개발 및 환경적인 요구와 연계되어 개발된다. 학습 활동, 종교적 관행 및 일에 관한 이론과 실천의 통합 그리고 통합교육의 측면에서 학습은 교실, 실험실, 회교교당, 기숙사, 도서관, 현장, 그리고 캠퍼스 내에 있는 기술홀에서 열린다. 또한 모든 학교 프로그램은 가족, 지역 사회 및 비즈니스 분야의 교육과 연계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20명의 학생 모두에게 각각 개별지도와 그룹활동을 지도하는 카운슬러 1명이 배정된다.

이와 같이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통합적 접근의 진로지도 서비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학습활동과 다른 사회적 상호 작용에 열의를 보이는 등 활발한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이로써 학업성취가 높아지고, 직업세계와 대학진학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무엇보다 성격의 기본 및 삶의 방식으로서의 가치가 강력하게 내면화된다. 지금까지 Bina Siswa Plus에서는 총13기에 걸쳐 720명이 졸업을 했고, 이들 모두 100%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한 426명의 졸업생(59%)이 장학금을 받았다.

(나) 보고르 씨비농(Cibinong, Bogor) SMA PGRI 플러스

이 학교는 단과대학(일반고등학교)을 준비하는 동시에 취업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하는 ‘하이브리드 고등학교’ 라고 불린다. 학교의 궁극적인 비전은 ‘국가개혁의 주체로서 성과, 글로벌 관점, 종교, 기업가 등 모든 면에서 품질과 성과가 뛰어난 학교’ 이다. 교육문화부가 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운영되며 학문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모두를 지향한다.

학문교육은 학생들이 대학진학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과목을 강화하는 등 학문교육에 더 초점을 맞추는 이른바 ‘학급 시드’ 를 통해 수행된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학생의

날'의 형태로 조직되고 관심과 재능을 육성하지만 학생들이 노동시장 진입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된다.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받는다. 음악, 연극, 영화촬영, 그림, 춤, 비서, 자동차, 전자, 컴퓨터, 방송, 언론, 미용, 패션, 요리 같은 수업을 선택한다. 한편 스포츠, 무술, 종교 포럼 등에서의 재능과 관심을 개발하도록 구성된다. 교육 및 진로지도는 e-러닝, 퀴즈 교수학습, 현장학습, 개별카운슬링 등 다양한 접근을 하는 교사와 함께 일하는 카운셀러에 의해 통합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이중적인 적용으로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하던 직업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누구나 하이브리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전문교사들의 지도를 받는 SMA PGRI Plus Cibinong에 등록한 학생은 1,770명이다. 지난 5년 동안의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는 열정적인 학생 수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2014년 졸업생의 경우 23%가 공립대학에, 71%가 사립대학에 진학했다. 요리분야의 자영업, 자동차, 언론 그리고 다양한 산업분야의 노동자로 진출하기도 하고 공무원, 민간고용자, 은행직원, 군인과 같은 직업군에서 성공하고 있다.

(3) 소결

다민족 국가인 만큼 통합이라는 주제가 교육에서 중요하다. 진로교육에 있어서 가족, 종교, 문화적 뿌리 같은 것들이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사회배경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학교체제도 복잡하다. 그러나 아직 대중교육시대로 접어들지는 못했다. 노동자들의 학력은 낮으며 중퇴율은 높고,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다. 이 같은 배경은 진로교육을 경제발전과 관련지으려는 강한 의지를 낳게 된다. 임파워먼트는 어느 나라에서나 진로교육이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이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일단은 취학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교육받은 인구의 증가가 경제부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학력과 경제력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인도네시아는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PWC(Price Waterhouse Coopers, 2017)가 2050년 인도네시아의 GDP 순위를 전세계 4위로 전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의 인도네시아는 아직은 생애개발 차원에서의 진로교육 단계로 접어들지는 못했다. 지금은 보편적인 교육의 확산과 직업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진로교육이 국가별로 어떻게 진화되어가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7) 인도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³⁰⁾

(1) 인도의 사회환경 및 교육현황³¹⁾

가. 인도의 사회환경

인도는 인구가 약 12억만 명이고, 면적은 328만 7,469평방 킬로미터³²⁾며 정치 체제는 공화제를 선택하고 있다. 언어는 연방 공용어로 힌디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 밖에 헌법에 공인된 21개 주 언어가 있다.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며, 루피라는 통화 단위를 쓰고 있고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은 1,581달러다.³³⁾

인도는 매우 다양한 하위문화로 구성된 방대한 나라이다. 12억이 넘는 인도는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약 18%를 차지한다(Population of the World, 2017,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 행정체제는 29개의 주와 7개의 연합지역이 있고 그 밑으로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사회경제적 상황을 보면, 빈부 격차가 그 어느나라보다도 크다. 인도에서 가장 부유 한 사람의 순 자산가치는 22조7천억 달러에 이른다(Arulmani et al., 2017).

표 IV-18 인도의 사회환경 주요지표

인구	면적	정치체제	언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도	통화단위
1,210,570,000	3,287,469km ²	공화제	힌디어 외 21개 주 언어	1,581달러	뉴델리	루피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30) 본 내용은 2017 NYPI & ARACD 국제학술회의에서 Arulmani 등이 발표한 'Career Education and Job Training in Asian Countries Country Paper from India' 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임.

31) * Australian Government Country Education Profiles

([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CEP/Subcontinent-](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CEP/Subcontinent-And-The-Middle-East/India/Pages/default.aspx)

[And-The-Middle-East/India/Pages/default.aspx](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CEP/Subcontinent-And-The-Middle-East/India/Pages/default.aspx)) (검색일=2016년7월,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 UNESCO, World Data on Education, 7th edition, 2010/11(2011년7월,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 渋谷英章 「インド」 (財) 学校教育研究所 『諸外国の教育の状況』 学校図書, 2006, 94401쪽,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32) 이 면적은 파키스탄, 중국과의 분쟁지역을 포함한 면적으로 인도정부의 통계에 의한 것이다.

33) <http://www.mofa.go.jp/mofaj/area/india/data.htm>_검색일=2016.10.10.,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나. 인도의 교육현황

(가) 인도의 교육시스템

표 IV-19 인도의 교육 보급 상황

교육 단계	연도	재적율	성별	
			남	여
취학 전 교육	2011년	58%	57%	60%
초등교육	2013년	111%*	105%*	117%*
중등교육	2013년	69%	69%	69%
고등교육	2013년	24%	25%	23%

주) 보통 연령보다 빠르거나 또는 늦은 입학과 유급 등을 이유로 하는 해당 연령 외의 재적자를 포함.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교육은 연방, 주, 지구(district) 이하 행정 단위의 세 레벨로 이루어진다. 헌법에 의거하여 연방과 주의 공통 관할 사항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주의 권한이 강하다. 연방에는 인적자원개발부가 설치되어 문해교육의 추진,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책정 및 품질 보증 등을 실시하고 있다. 주에는 주 교육국이 설치되어 학교 제도의 제정, 고등교육 기관의 설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구 이하의 행정 단위에서는 소관 지역 내의 초중등 교육 계획의 책정, 공립 학교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인도의 학교는 자유롭게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중등교육의 중앙위원회는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가장 일반적인 위원회이다. 인도 학교인증위원회 역시 중앙위원회지만 정부에서 운영하지는 않는다. 이 위원회는 고등학교 10학년과 12학년 수준의 중등교육의 자격증(ICSE)을 발부한다. 주위원회는 각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주교육위원회에 속한다. 국제위원회는 국제중등교육 일반증명서(IGCSE)와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으며 이들 위원회에는 대개 사립학교나 비원조 학교가 소속된다.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인도에서는 학교제도가 주마다 다르다. 1986년 전국교육정책(1992년 개정)에 의거하여 연방 전체에서 10-2제(초등·전기 중등교육 10년, 후기 중등교육 2년)로 통일되

었지만, 최초의 10년 동안은 5-3-2제 외에 4-4-2제, 4-3-3제, 5-2-3제 등 주에 따라 달랐다.

인도의 학교는 소유권과 예산의 출처에 따라서 크게 정부학교, 정부원조학교, 비원조학교로 나뉜다(Bhatnagar, 1997, Arulmani, 2017에서 재인용). 정부학교는 주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소유한 학교로 무상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무료 점심이 제공되며, 무상의 다른 지원도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 정부원조학교에 대해서는 교사의 임금 등 정부가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NGO, 트러스트 및 비영리 단체 등 사적인 기관에 있다. 학생에게는 명목상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비원조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사립학교이며, NGO, 트러스트 및 비영리 단체 등에 의해 운영된다.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며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야 한다. 수업료는 ‘저렴한’ 곳(예 : 연간 2,000 달러)에서 ‘매우 비싼’ (예 : 15,000 달러 이상, 1 년) 곳까지 다양하다. 주로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게 적절한 학교이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여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으로서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3~5세 아동에 대한 교육은 주로 유치원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의무교육은 6~14세의 8년이다. 무상 및 의무교육법상 아동의 권리보호는 2009년 교육법에 대한 권리(RTE)를 공포함으로써 시작됐다(MHRD, 2009, Arulmani, 2017에서 재인용).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학교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6세에서 14세 사이의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수수료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이 규정에 따라 모든 사립학교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25%의 정원을 할애하고 무상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무상교육 비용은 주정부가 학교에 상환한다.

초등교육은 6세에 시작하며,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약 3분의 2의 주에서는 전기와 후기를 합하여 8년이며 그 대부분이 5년제의 초등학교와 3년제의 상급 초등학교(5-3)를 설치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4-4제로 하고 있다. 나머지 주에서는 초등교육을 7년으로 하여 4-3제가 대부분이나, 5-2제를 실시하는 지역도 있다.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을 8년으로 하는 주에서는 4년, 7년으로 하는 주에서는 5년이다. 모두 전기, 후기로 나뉘며, 중등교육을 4년으로 하는 주에서는 2년제 중등학교와 2년제 상급 중등학교가, 5년으로 하는 주에서는 중등학제가 3년이며, 상급 중등학교는 2년이다. 중등학교 및 상급 중등학교를 수료할 때는 수료 시험이 실시되고 각 학교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이 밖에 고등교육기관인 폴리테크닉(Polytechnic)이 중등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중등교육 수준의 3년간의 직업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수료자에게 졸업 증서를 수여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졸업하는 학생은 2%에 불과하다(Annual School Census, 2014/15, Arulmani, 2017에서 재인용).

고등교육은 학위 수여 기관인 대학과 비학위 수여 기관인 폴리테크닉에서 실시된다. 대학에는 상급 중등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사 과정(일반적으로 3년) 외에 석사 과정(2년), 박사 과정(3년)이 있다. 또한 대학 졸업 증서 취득 과정(일반적으로 1년)이 있는 경우도 있다. 폴리테크닉에서는 2~5년의 직업 전문 교육을 실시하며 수료자에게는 졸업 증서를 수여한다. 이 밖에 대학원 수준의 대졸 인정 과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학년 연령



진로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채용활동 동향과 전망

제 IV 장

【그림 IV-32】 인도의 교육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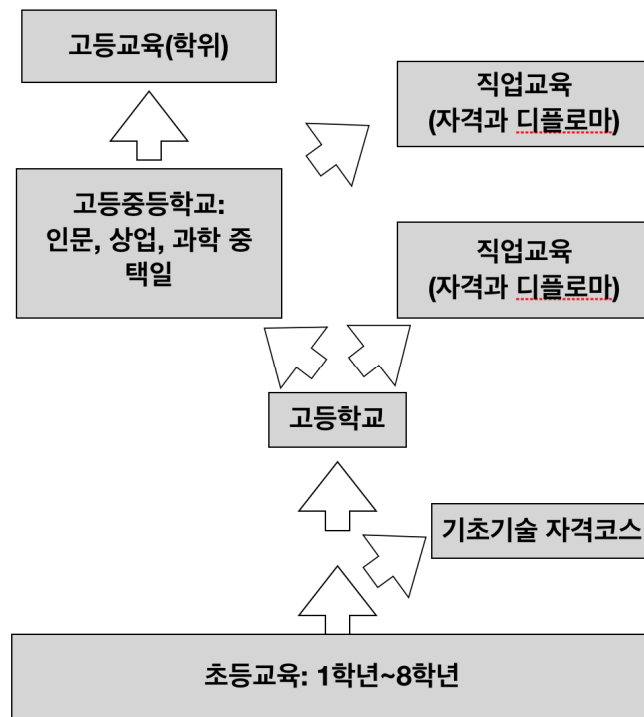
학년 연령



【그림 IV-33】 인도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그림 IV-34]는 대학과 직업교육의 경로를 거치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경로이다. 인문과 정에서 대학까지의 과정과 직업교육과정은 특히 입학단계에서는 상호 간에 거의 배타적이다. 몇 가지 교육경로를 통해 학생은 특정 수준의 직업 교육(예 : 엔지니어링)을 마친 후 “편입” 과정을 통해 대학진학 경로로 이동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로는 이 같은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경로에 진입하면 나중 단계에서 대학 진학 경로로 이동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 정부 전략(예: National Skills Development Corporation)은 국가직업자격(NVQ)을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림 IV-34】 인도의 대학 및 직업교육 경로

출처: Arulmani (2017). Career Education and Job Training in Asian Countries Country Paper from India.

(나) 졸업률과 중퇴율

학교 메인 스트림으로부터의 탈락은 인도에서 큰 골칫거리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같은 Sarva Shikash Abhyan(SSA-모든 인도인들을 위한 의무교육의 인도 버전: an Indian version of the Education for All mandate)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학교취학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http://ssa.nic.in/>). 그러나 취학율이 향상되었다고는 해도 중퇴율과 낮은 졸업율은 지속되고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사례이다.

- ① 어린이 100명 중 32명만이 적절한 연령기에 학교교육을 마친다(Annual School Census, 2014-15).
- ② 10학년 등록은 77%, 11학년 등록은 52%이다(Annual School Census, 2014-15).
- ③ 초등학교에서의 중퇴율은 2014/15학년도에 4.34%, 2015/16학년도에 17.85%이었고, 중등학교 중퇴율은 17.86%였다(Sampath, 2016,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

인도에서 학업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며 고도로 층화된 현상이다. 이미 밝혔듯이 지역, 문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아를마니 등의 연구(Arulmani & Nag-Arulmani, 2001 및 2005, Arulmani, 2009,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는 중퇴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인지를 보여준다.

인도의 경우 중퇴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현상이다. 모든 교육 단계에서 중퇴의 가장 명백한 이유는 가난이다. 돈을 벌어야 하거나 부모를 돕는 일로 인하여 학교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최근 부상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초등학교는 중고등학교와 다른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각 단계의 교육이 끝나면 부모는 자녀가 새로운 학교를 오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이동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자녀를 자퇴시키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가난한 집안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가게 되면 대체로 장남/장녀가 보육이나 집안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 가는 일이 불규칙해지고 점차 중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소녀들 사이에서 더 일반적이다. 소년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는 일로 종종 학교를 그만 둔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도 학교 중퇴의 또 다른 이유이다. 더 좋은 직업에 대한 기대와 농업 등 전통적인 직업의 어려움이 시골가정을 도시로 유인하며 도시로 이주한 후 학교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성용 화장실 등 학교시설부족도 중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 중퇴는 중간계층에서도 발생한다. 새로운 경제상황에서 아웃소싱으로 일자리가 늘어났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인도는 아웃소싱의 주요한 목적지이다. 지난 10년간 인도에서 일어난 두드러진 일 중의 하나는 학업을 중단한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이 아웃소싱 일자리(예:

BPOS)를 차지하고 있다. 들어가기는 힘들어도 초임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아웃소싱업소에서는 여전히 ‘착취’가 만연해 있다. Chatzichristou와 Arulmani (2014)가 지적한 것처럼 바느질이나 납땜 같은 단기간의 노동으로 근로자의 수입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기술이나 지식의 개발은 일어나지 않는다(Arulmani et al., 2017). 결국 상위 소득자들이 이머징 마켓에 많은 젊은이들을 유인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포기하게 하고 아웃소싱의 저숙련 노동으로 유도한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젊은이들에게 구체적인 진로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인도가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안고 있는 문제이다.

(2) 인도의 진로교육 현황

가. 인도의 진로교육 역사

이와 같은 사회배경 때문에 인도 전역에서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띤다. 따라서 하나의 수치로 인도의 진로교육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중도탈락률의 경우, 카르나타카(인도 남부의 한 주)는 2.3%로 가장 낮은 중퇴율을 보인다. 이는 전국 평균 중퇴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인도 북부에 위치한 라자스탄은 전국의 두 배인 8.39%이며, 마니푸르는 중퇴율이 18%로 전국 평균의 4배에 이른다(Sampath, 2016,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 이러한 차이에는 지역, 사회, 문화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상담과 지도에 대해서는 일찍이 1938년 Acharya Narendra Dev 위원회(Bhatnagar, 1997,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 때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후에도 1950년대 초부터 다양한 위원회가 국가차원에서 상담서비스를 공식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였다. Bhatnagar(1997)에 의하면, 1960~70년대에 인도에서 상담과 지도가 번성하고 성장했으나 80년대 후반과 90년대 후반에는 지도와 상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거의 20년간의 공백기를 보낸 뒤 지금은 다시금 상담과 지도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인도 정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담당 실무그룹은 청소년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Planning Commission, Government of India, 2005,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
- 2006년에 이루어진 국가교육과정 개정에서 상담서비스가 필수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았다(NCERT, 2006,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

- 학교에서의 상담이 가장 높은 관심사로 부상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위원회 중 하나인 중등교육 중앙위원회(CBSE)는 2001년 개최된 회의에서 모든 학교에 훈련된 학교 카운슬러 배치를 결정하였다.

나. 인도의 진로지도: 서비스 전달의 가능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진로 서비스는 주로 학교, 단과대 및 대학, 공공고용서비스(PES), 배치 및 기술 개발센터와 같은 서비스 기반 고용주, 민간 및 자원봉사 부문 등이다. Kumar (2015)는 인도에서 진로지도 상황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예를 제공합니다(Arulmani et a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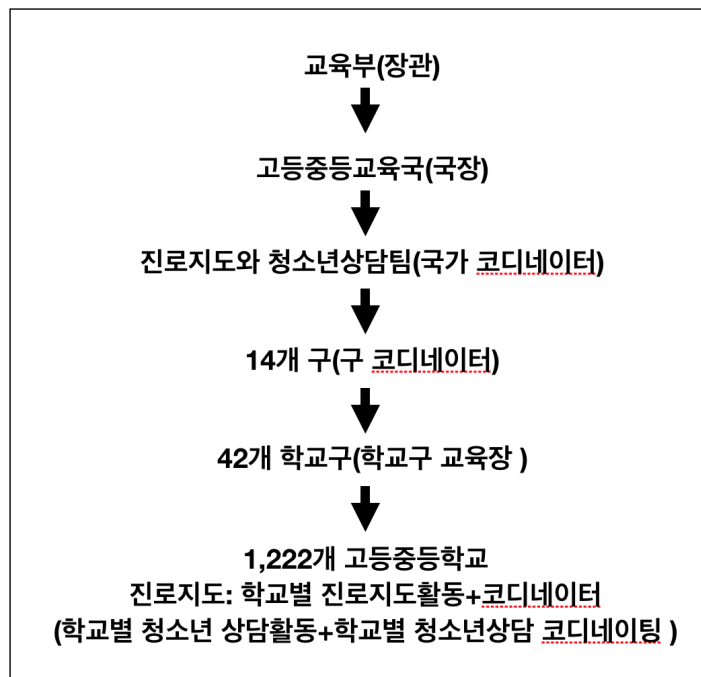
- 중등교육중앙위원회(CBSE, The Central Board of Secondary Education)는 SGAI(Student's Global Aptitude Index)를 개발했고,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사용했다.
- 농촌지역에 진로지도 및 상담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
- 지역학교 교육위원회는 진로지도를 위한 조항을 마련했다.
- 대학기금위원회(University Grants Commission)는 대학에서의 진로상담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고용 및 훈련 총국은 지역 취업교환국에 설치된 360개의 직업지도 단위부서와 82개의 대학교용 정보 및 지도부(UEIGBx)에 의해 훈련된 직원이 운영하는 938개의 취업교환 프로그램 네트워크를 통해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 최근 노동고용부(Ministry of Labour and Employment)는 NES(National Employment Service)를 대신해서 National Career Service(NCS)를 시작했다(DGET, 2014,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 NCS는 등록된 구직자의 취업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이행 프로젝트로 인식되어 왔다. NCS의 주요 수단은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연결하는 ICT 기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진로센터를 포함하여 100개의 모델진로센터(MCC)를 설립할 예정으로 장애인 각자에게 중앙정부기금으로부터 각각 5백만 INR이 지원된다. 1년 후에 주정부가 MCC를 운영하고 주에서 운영하는 다른 고용 교환 프로그램을 MCC연계사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산업연맹(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ies)은 Gurgaon, Chennai 및 Mumbai에서 3개의 MCC를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한 것도 또 다른 시도의 하나이다.

- 몇몇 NGO와 민간 상업기관이 흥미롭고 효과적인 시도를 해오고 있다.

다. 인도의 진로지도 : 케랄라(Kerala), 인도 남부 지역의 사례 연구

케랄라 사례연구는 주정부가 후원하는 진로지도가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2001년 고등중등교육부(Directorate of Higher Secondary Education)는 고등중등학교에서 진로지도수업(career guidance units)을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시범운영은 성공적이었다. 현재는 진로지도와 청소년상담이 고등중등교육부의 특수한 파트가 되었다. 이 지역 전체 학교의 85%인 1,222개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억 7천만 루피(2016/17)예산이 지원된다. [그림 IV-35]는 프로그램 운영의 행정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행정구조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음 알 수 있다.



【그림 IV-35】 케랄라의 진로지도 및 청소년 상담: 행정체계(인도)

출처: Arulmani et al.(2017). Career Education and Job Training in Asian Countries Country Paper from India.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수행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진로지도 세미나
- 자기이해 세미나
- 다음 번 커리어 가이드를 위한 강사 훈련
- 해당지구 모든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게시판’ 운영

케랄라(K-DAT)를 위한 별도의 적성검사가 제작되고 있다. 총 수혜자 수가 약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케랄라에서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추가적인 기술 습득 프로그램 (ASAP, Additional Skills Acquisition Programme)이다(<http://asapkerala.gov.in>). 이 프로그램은 고등 학생 및 대학생들에게 의사소통기술(100시간), 정보기술(80시간), 산업서비스 분야의 특정 분야 기술(83개 기술 과정 하나 당 120시간)등의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21개의 기술개발센터가 있으며 약 3만 여명의 학생(2015/16)이 참여하고 있다.

라. 인도의 직업 안내

최근 인도의 진로지도는 정부, 민간 및 자원 섹터에 의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서비스는 주로 일부 지역(예, 케랄라)에 한정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정한 관련 조항의 시행에 있어 중요한 공백이 계속 존재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학생의 글로벌 적성 지수(SGAI, Student's Global Aptitude Index) 구현은 단편적이고 산발적이다.
- 모든 대학이 이용 가능한 진로지도 기금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기금을 받는 대학이 기금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다.
- 대부분의 진로서비스가 진로의식을 향상시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몇몇 모델 진로센터만이 기능할 뿐이다.

요약하면, 인도에서는 진로지도가 새롭게 주목받고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아직 진로지도 및 상담의 전문성은 취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진로지도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었지만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자료는 거의 없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기술은 일반적으로 상담과 연계되어 있을 뿐 진로지도가 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마. 인도의 진로지도: 포괄적인 시행을 위한 요구되는 사항

세계화와 자유시장의 영향력으로 특징지어지는 후기 산업사회의 노동시장은 숙련된 교육과 직업 선택 역량을 요구한다. 인도는 가장 빠른 개발도상국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경제개혁의 상황에서 진로상담직업 상담의 보편적 시행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진로와 생계에 대한 계획을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면 ‘개발’ 을 통한 혜택은 소수에게만 적용되고 대량의 ‘값싼 노동력’ 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도는 노동력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 인도(Skill India)’ 라는 중요한 정책적 조치를 취했다. ‘기술 인도(Skill India)’ 는 인도의 노동력 개선에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최적화하기에는 아직도 심각한 격차가 존재한다. 다음의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 사람-코스 맞추기: 교육과정을 마친 노동력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과목을 선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당장 가능한 것이라면 뭐든지”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작 필요한 직업코스를 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진로지도는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개인-직업 매칭: 훈련과정을 마치고도 그들이 받은 훈련내용과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는 ‘사람-코스’ 의 적절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구직기술이나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장기적인 진로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진로지도는 학교에 있을 때부터 진로발달을 통해서 청년들이 일의 세계로 진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도의 진로지도는 ‘왜’ 진로지도인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개인의 잠재력 극대화와 사회에 대한 공헌이 개인의 번영을 가져온다는 문화적인 뿌리에 터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오랫동안 진로지도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제시되어 왔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진로지도 서비스 구현을 위해 문화적으로 타당하며 증거에 기반한 응용 지향적 모델
- 자기주도학습, 일의 세계에 대한 지식, 진로선택지의 개발과 진로준비 등을 촉진하기 위해 다중언어를 사용한 연령별 맞춤형 진로지도 교수학습 도구

- 이론 및 응용 분야의 진로지도 및 상담 전문가의 체계적인 역량강화
- 잘 짜여진 행정구조

바. 진로지도 및 생계계획을 위한 JIVA 접근법

Jiva는 Promise Foundation for India의 아룰마니(Arulmani, 2010,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가 개발 한 진로지도 시스템이다. 이 모델은 인도 젊은이들의 취업 및 진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지역별 조사(N = 8530, 13개 주에서 수집 된 데이터, 7개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학자, 교사, 카운슬러, 공무원 및 학교장로 구성된 진로심리학 국가자문회의에서 이 자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자문회의의 권고에 따라 Jiva 진로지도 방법이 구현되었다(Arulmani & Nag-Arulmani, 2005,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

Jiva는 대부분의 인도어에서 '삶'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로지도 접근방식은 일은 삶의 연장이라는 동양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대부분의 비서구 문화에서는 일과 직업이 개인의 삶 전체와 깊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Jiva는 인도의 문화적 상황에 바탕을 둔 5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Arulmani, 2014,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

(가) Jiva의 원리

- 원칙 1. 나선형의 경력: 삶의 순환성 원칙에 입각한 커리어 개발에 대한 비선형 접근
- 원칙 2. 냉철한 의사결정: 무언가에 동의하기 전에 억제력, 유연성 및 자기 중재 기반 위에 접근
- 원칙 3. '타인'에 대한 민감성: 자기자신과 지역사회 그리고 환경의 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진로 설정
- 원칙 4. 변화와 불변: 변화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불확실성에 대해 대처
- 원칙 5. 상부상조: 개인의 경력개발이 개인의 이익과 사회전반에 제공하는 서비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경력개발의 상호성

(나) Jiva 접근법 적용하기

Jiva의 지도 및 상담 방식은 문화 속에 뿌리내린 상징과 신념을 직업개발 워크숍에 활용한다. 워크숍에서는 자기자신과 직업세계를 배우고 직업대안을 개발하고 진로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직업상담활동이 이루어진다. Jiva의 핵심요소는 5가지 Jiva 원칙에 의거하여 경력개발활동을 준비한다는 것이다(Arulmani, 2011,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

(다) Jiva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요소

Jiva 프로그램은 주제별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직업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커리어 디스커버리(Career Discovery) 프로그램으로 9학년에서 12학년이 대상이다.

둘째, 경력관리 프로그램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Jiva 진로지도 워크샵은 다음의 네 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된다.

- ① 자기이해: Jiva는 관심사, 적성, 관심사와 적성 사이의 공통분모 및 진로신념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을 이해하는 내부지향적 접근방식을 취한다. Jiva는 살아있는 개인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강점과 성취 조사(SAQ, Strengths and Accomplishments Questionnaire)라는 평가도구와 심리측정을 병행한다(Arulmani, 2015).
- ② 직장세계의 이해: 워크샵의 이 부분은 교육경로, 진로정보 및 노동시장 과정을 이해하는 기술에 중점을 둔다.
- ③ 경력대안개발: 참가자는 추가적으로 4-5가지의 경력을 찾아내는 개인의 잠재력에 대한 정보사용법을 익힌다.
- ④ 직업준비: 참가자는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 본다.

(라) Jiva 및 생계계획

최근 들어 점차 경력과 생계라는 개념이 점점 더 평행선 산에 놓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간 활동에 대한 공통의 믿음은 생계가 생존의 필요와 관련이 있으며 농부, 장인, 숙련공 등 주로 농촌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에 진로는 더 나은 기회와 높은 소득을 위한 더 큰 잠재력이 있고, 도시나 중간이나 상위계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등학교와 대학에서의 교육은 진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전통적인 기술전달의 무형식 형태는 생계와 관련이 있다. 칼리안람(Kalyanram), 고팔란(Gopalan) 과 카막시(Kamakshi, 2014,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는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생계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명성을 위한 것이다. 시골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도시의 “더 나은

미래“를 찾아가는 경향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Jiva 생계계획 접근법은 진로개념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나 미치는 영향력이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정한다. 진로지도를 통해서 직업영역(예: 상업예술, 생명공학 또는 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사회가 전통적인 농업을 관리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바(Jiva)는 자신의 삶을 계획할 때 현대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폭 넓은 수준에서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Arulmani, 2009, Arulmani, 2017에서 재인용). 이것을 돕는 생계 카운슬러가 있으며 그 중 진로 카운슬러는 전통적인 직업구조를 현대적인 환경에 맞춰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한다(Arulmani, 2014, Arulmani et al., 2017에서 재인용).³⁴⁾

(3) 소결

인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 많은 식자들이 언급해왔지만, PWC는 2016년에 이미 인도는 GDP 순위가 세계 3위이며, 2050년에는 중국에 이어 2위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2억이 넘는 인구, 그리고 경제성장과 취학율의 증가로 인해 머지않아 인도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국제적 위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은 거의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진로교육의 역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오래되었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관심에서 멀어져 갔고 2000년대에 들어서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경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룰마니(Arulmani et al., 2017)가 지적한대로 진로교육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진로교육을 위한 전문성은 취약하며 진로교육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은 아직 불충분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글로벌화가 반드시 인도의 상황에 긍정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진로교육에도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진로교육 뿐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상황이 개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Arulmani가 지적한대로 진로교육이라는 말은 인도의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바(Jiva) 프로그램과 같이 인도라는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고 생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비록 수혜대상자가 많지는 않아도 인도 나름대로의 진로교육의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할지 모른다.

34) Jiva 접근방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www.thepromisefoundation.org 및 www.jivacareer.org 참조

8) 이란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³⁵⁾

(1) 이란의 사회환경과 교육현황³⁶⁾

가. 사회환경

이란의 인구는 7,910만 명이고, 면적은 1,648,195평방미터이며 수도는 테헤란이다. 언어는 페르시아어, 터키어, 쿠르드어 등을 사용하고 정치 체제는 이슬람공화제를 선택하고 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877달러며 통화 단위는 리알이다.³⁷⁾

표 IV-20 이란의 사회환경 주요지표

인구	면적	정치체제	언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도	통화단위
79,100,000	1,648,195km ²	이슬람 공화제	페르시아어, 터키어, 쿠르드어	4,877달러	테헤란	리알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35) 본 내용은 2017 NYPI & ARACD 국제학술회의에서 Saeid와 Tarkhan가 발표한 ‘A Report of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Iran’ 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임.

36) * Australian Government, Country Education Profiles
<https://internationaleducation.gov.au/cep/Subcontinent-and-the-Middle-East/Iran/Education-System/Pages/School-Secondary-Default.aspx> 검색일=2016.7.5.,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 Ministry of Science, Research and Technology, Islamic Republic of Iran. "Higher Education in Iran". (<http://en.msrtir/en/page/33/higher-education-in-iran>) (검색일=2016.8.23.)

*** UNESCO World Data on Education, 7th edition, 2010/11

**** 外務省, 「諸外国・地域の学校情報 (イラン・イスラム共和国)」 (검색일=2015.11)

이상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37) <http://www.mofa.go.jp/mofaj/area/iran/data.html> 검색일=2016.8.9.,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나. 교육현황

표 IV-21 이란의 교육 보급 상황

교육 단계	연도	재적율	성별	
			남	여
취학 전 교육	2014년	42%	43%	42%
초등교육	2014년	109%	107%	112%
중등교육	2014년	88%	89%	88%
고등교육	2014년	66%	68%	64%

주) 보통 연령보다 빠르거나 또는 늦은 입학과 유급 등을 이유로 하는 해당 연령 외의 재적자를 포함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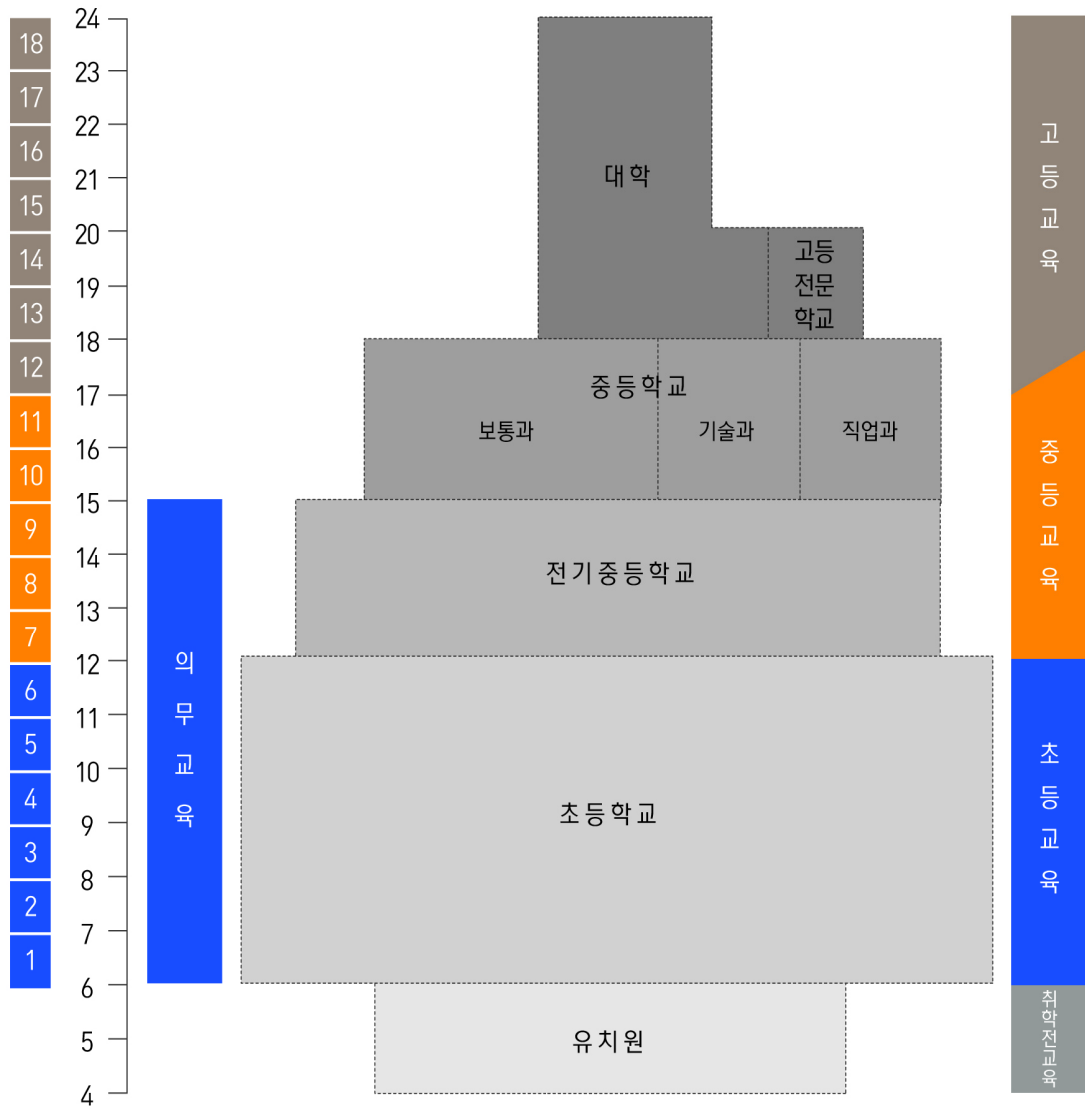
이란의 교육을 관장하는 중앙부서는 3부, 즉 교육부, 과학연구기술부, 건강의학교육부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을, 과학연구기술부는 고등교육을, 건강의학교육부는 의학 교육을 각각 관할하고 있다.

취학 전 교육은 4, 5세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에서 실시한다. 의무 교육은 6~15세의 9년이다. 초등교육은 6세에 입학하며 6년간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중등교육은 전기와 후기로 나뉜다. 전기 중등교육은 3년간 전기 중등학교에서 실시한다. 후기 중등교육은 3년제의 중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중등학교에는 보통과, 기술과, 직업과가 있고, 앞의 두 과를 졸업한 자에게는 중등학교 수료증이 수여되며, 직업과 졸업자에게는 직업 자격이 수여된다.

고등교육은 대학 및 고등 전문학교(2년제)에서 실시한다. 대학에는 준학사 과정(2년), 학사 과정(4~7년), 석사 과정(2년) 및 박사 과정(일반적으로 4~5년)이 있다.

학년 연령



【그림 IV-36】 이란의 교육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2) 이란의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현황

가. 이란의 TVET 발전 소개

이란에서 (도제훈련으로 알려진) 비공식 직업훈련은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그러나 공식적인 형태의 직업훈련은 1849년 ‘다르 알 푸눈(Dar ul-Funun)’의 설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³⁸⁾ 훗날 주요 도시에 다른 학교들이 설립되었다. 테헤란 간호대학(School of Nursing in Tehran), 라슈트 농업대학(Agricultural School in Rasht), 타브리즈 경영대학(Business School in Tabriz), 테헤란 산업대학(industrial school of Tehran)(Marjani, 1991, Saeid & Tarkhan, 2017에서 재인용) 등으로 모두 이란 최초의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1855)가 설립된 이후에 개교하였으며 이론 교육 외에도 기술 및 직업 훈련을 실시하였다. 최초의 기술학교는 독일의 지원으로 1907년 설립되어 ‘이란-독일 기술학교(Iran and Germany Technical School)’로 알려져 있다.

그 후 직업훈련은 독일의 표준을 따라 발전한 한편, 초·중등학교는 프랑스의 교육법을 모방하여 발전하였다. 1934년까지 이란에 10개의 직업학교가 설립되었다. 약 40년 후에 그 수는 매우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 1974년에 339개에 이르렀다(Ghasemi Pouya, 2010, Saeid & Tarkhan, 2017에서 재인용). 신규 직업기술학교의 설립은 1978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직업기술학교의 수가 4년 동안 770개까지 증가하였다(127% 성장). 이란의 이슬람혁명이 종료된 후, 직업기술학교의 설립은 계속되었고 기술학교, 대학교뿐만 아니라 비공식 TVET 센터도 다수 설립되었다.

평가에 따르면 이란의 직업기술학교는 사회적 요구를 수행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연구분야가 노동 시장과 연계되지 않고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였다(Azad, 2006, Saeid & Tarkhan, 2017에서 재인용).

나. 이란 TVET의 유형

이란에서 일반 교육제도와 특히 직업교육 제도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공식 교육과 비공식 교육이라는 2가지 하위제도로 이루어진다.

공식 TVET의 주요 목적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 ① 실력있는 기술자와 전문가로 성장시키는 훈련을 통해 지식, 기술, 태도를 발전시킴으로써 전문 역량을 향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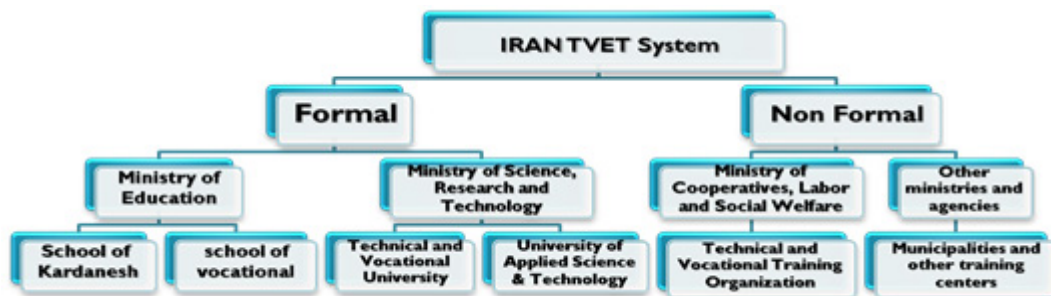
38) ‘다르 알 푸눈’은 이란 최초의 근대 대학교이자 고등교육기관으로 간주된다

- ② 노동에 관한 학문과 직업 피라미드를 수정하여 인적 자본을 상향조정하고 인적 자본의 권한을 강화한다.
- ③ 이란의 노동력과 세계 표준 노동력의 역량 간 차이를 좁힌다.
- ④ 신규 기술 및 신규 직업 창출에 발맞추어 인적 자원을 훈련한다.
- ⑤ 이란 TVET 제도에서의 기술 및 직업 교육훈련의 입지를 격상시킨다(Azad, 2006, Saeid & Tarkhan, 2017에서 재인용).

비공식 TVET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① 성인에게 생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한다.
- ② 경제산업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제공한다.
- ③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자본을 실현한다(이는 상기 2개 목표의 실현에 따른 것이다).
- ④ 소속 지역사회와 산업여건과 고용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훈련한다(이란 TVET 기구 홈페이지 참조: <http://irantvto.ir>, 2017, Saeid & Tarkhan, 2017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식·비공식 형태의 기술 교육은 모두 신규 직업 창출에 발맞춘 인적자원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림 IV-38】 이란의 TVET 시스템

출처: Saeid & Tarkhan (2017), A Report of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Iran,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공식 TVET에는 교육부와 연계된 직업학교, 특히 “카르다네쉬(Kardanesh)” (문자 그대로

“일과 지식”이라는 의미)라 불리는 직업학교, 그리고 과학연구기술부(Ministry of Science, Research and Technology)와 연계된 응용과학기술대학교와 직업기술전문대학이 포함된다. 이란 노동부(Ministry of Labor) 산하 TVET 기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은 비공식 TVET 교육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공식 교육과정은 직업학교의 디플로마(전문대학위)와 준학사학위(associate's degree), 응용과학기술대학교와 기술직업대학의 학사학위, 석사학위, 심지어 박사학위 등의 공식 학위 취득으로 연결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유사하게 비공식 교육으로 분류된 TVET 기구의 훈련을 수료하면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서 고유의 국제 코드를 부여하여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비공식 기술교육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NGOs) 등 타 기관에서 제공된다. 이와 같은 훈련의 특징은 소규모의 인원을 교육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예: 아동을 대상으로 이웃집에서 제공하는 훈련과정,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을 위한 특별 과정 등). 이 훈련의 또 다른 특징은 사람들의 역량강화만을 목적으로 할 뿐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은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 교육부의 직업기술 훈련 및 교육

교육부 산하에서의 기술교육은 “카르다네쉬(Kardanesht)”로 불리는 직업학교와 직업기술학교라는 두 가지 형태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전문 기술이나 예술적 기교를 배우려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1년을 마친 후에 직업학교로 진학한다. 직업학교는 3년 과정의 기술 과정과 예술 과정을 실시한다. 현재 직업기술학교에서는 산업, 서비스, 예술, 농업에 관한 41개 분야를 다룬다.

또한 “카르다네쉬”라는 직업학교에서는 산업, 서비스, 예술, 농업에 관한 153개 분야를 다룬다. 한편 직업기술학교의 졸업생들은 대학예비과정(pre-university courses)을 통과하지 않고도 준학사 학위(Associate's degree) 입학시험 응시자격을 얻는다. 원한다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할 수도 있다. 오늘날 이란에는 7,100개의 직업학교가 있으며 이 곳에서 약 76만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전국 학생의 37%). 카르다네쉬 형태의 직업학교 4,400개가 전국적으로 약 45만 명의 학생들에게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점이다(이란 교육부 홈페이지 참조: <http://www.medu.ir>, 2017, Saeid & Tarkhan, 2017에서 재인용).

카르다네쉬 직업학교와 직업기술학교의 차이점

직업기술학교와 카르다네쉬 직업학교는 매우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도 존재한다. 다음은

그 차이점에 관한 설명이다.

- 직업기술학교의 입학이 카르다네쉬 직업학교보다 어렵다.
- 직업기술학교의 교육과정이 카르다네쉬 직업학교에 비해 더 어렵다(그러나, 카르다네쉬 직업학교의 실습과정과 연수시간은 직업기술학교에 비해 수준이 높다).
- 직업기술학교에 비해 카르다네쉬 직업학교의 학습 분야가 더 다양하다.
- 직업기술학교 졸업생의 고용 전망이 더 밝다.
- 직업기술학교의 수업시간이 더 길다.

카르다네쉬 학교 학생들에게는 의무 통과가 면제된 일부 과정을 직업기술학교의 학생들은 통과해야만 한다(Azad, 2004, Saeid & Tarkhan, 2017에서 재인용).

현재 직업기술학교에서 실시하는 일부 연구 분야에서는 산업, 서비스, 농업별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서비스 분야:

보건 하위분야: 육아

가정학 하위분야: 가정학

및 재무 하위분야: 비즈니스 회계

컴퓨터공학 하위분야: 컴퓨터

예술 하위분야: 애니메이션, 영화, 공예, 재봉 디자인

산업분야:

전기기술 하위분야: 전자공학, 전기공학

해양과학기술 하위분야: 해양 전자공학 및 커뮤니케이션, 해양 엔진 기계공학, 해운

토목공학 하위분야: 구조, 측량공학

금속공학 하위분야: 도예, 화학산업, 섬유산업, 금속공학, 광업

기계공학 하위분야: 시설, 제조 및 생산, 철강산업, 목재 및 펄프 산업, 자동차 공업, 일반 도안, 인쇄

농업 분야:

가축사육, 농업 및 원예, 식품산업, 농기계 등 하위 분야

현재 카르다네쉬 직업학교에서 실시하는 일부 연구분야는 산업별, 서비스별, 농업별로 다음 분야를 포함한다.

산업분야

전자공학, 도예, 화학, 토목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해양부문, 목공 등 하위분야

서비스 분야

교통, 사회 서비스, 식품 서비스, 의료보건, 컴퓨터, 재무 및 행정, 예술, 의류, 공예 등 하위 분야

농업 분야

원예, 가축 및 가금류, 농업, 농기계, 유익한 곤충, 어업, 식품 가공, 산림 및 목초지 등 하위 분야

라. 과학연구기술부의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

앞서 기술한대로 과학연구기술부는 응용과학기술대학교와 직업기술전문대학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을 제공한다.³⁹⁾

마. TVET 기구의 비공식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

이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기구(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VET) Organization of Iran)는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r, Cooperatives and social welfare) 산하에 있다. 이 기관은 1980년, 그 당시 노동사회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교육훈련펀드(Training Fund), 교육훈련협회(Training Society)의 직업훈련 부서 3개가 통합된 형태로 설립되었다. 전신의 명칭은 기술훈련노동기구(Technical Training and labor Organization)였으며, 직업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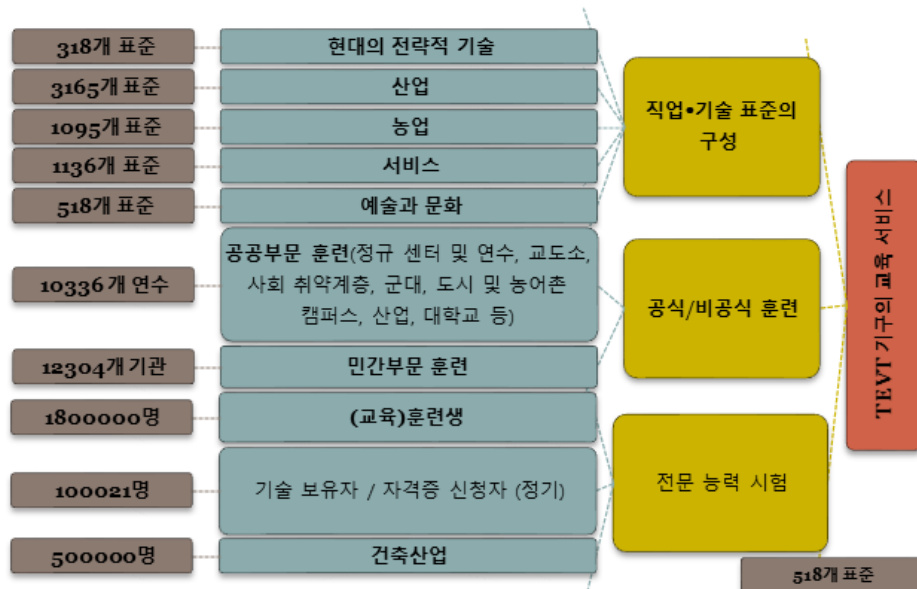
39) 과학연구기술부의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Saied & Tarkhan (2017). 「이란의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훈련 현황」을 참조할 것.

교육 및 훈련과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타 노동 및 노동시장 관련 문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1981년 노동부에서 분리된 후 내각위원회(Council of Ministers)의 승인으로 이 기관의 명칭은 기술 직업 교육 및 훈련 기관(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rganization)으로 개명되었다.

‘제5차 경제, 사회, 문화 발전계획에 관한 법안(Fifth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Plan Act)’에 따라 이란 TVET 기구는 농업 산업 서비스 분야에 관한 단기 직업기술교육훈련을 관리감독하며 최고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란에서 가장 포괄적인 교육기구로서 TVET기구는 헌법에 명시된 목적과 목표를 해당 범위 내에서 달성하고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며 교육 활동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강조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기술이 현대기술에 발맞추어 나가도록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Khalaghi, 2011, Saeid & Tarkhan, 2017에서 재인용).

현재 연간 약 650명의 학생들에게 장·단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576개의 비공식 TVET 센터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TVET 기구 공식 홈페이지 참조, 2017).

이란 TVET 기구에서는 [그림 IV-39]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IV-39] 이란의 TVET 기구의 서비스

출처: Saeid & Tarkhan (2017). A Report of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Iran,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기구의 목표집단

TVET 기구의 목표집단은 아래와 같으며 각 집단은 범주 별로 세분화 된다. 또한 2016-2017년을 기준으로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비공식)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다.

구직자(농어촌, 도시)

피고용인 (회사, 협회, 조합 등)

재학생 및 대학교 졸업생

노동력이 필요한 단체, 기관, 기업

재학생(특히 직업학교 학생)

주부

외국인 강사 (기술 향상 및 완벽한 기술 습득)

장애인

농어촌 주민 및 유목민

빈곤지역 및 국경지역 거주자, 비공식 주거지

군인

수감자

회복된 중독자

사회 취약계층

취약집단 (보호자가 없는 여성, 고아, 아동노동자 등)

난민 (존엄한 귀향을 할)

2016-2017년에 해당하는 공공부문의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비공식)의 성과는 <표 IV-22>와 같다.

표 IV-22 이란의 공공부문 직업기술교육 및 훈련(비공식)의 성과(2016-2017) (단위: 명)

교육부문	참가자수	교육부문	참가자수	교육부문	참가자수
정규 특별 농업 연수	2,495	테헤란캠퍼스연수 (도시-이동식 연수)	55,959	학문적 추가 연수	38,239
비공식 주거지 (도시 외곽지역)	12,136	산업 및 조합 연수	36,987	유목민 연수	3,959
군부대 연수	25,074	산업 연수 - 통합 연수	3,360	제15조	3,769
정규 도시 연수	377,696	산업 연수 - 추가 연수	26,226	산업공단 기술 향상 센터	427
농어촌 연수	109,695	산업 연수 - 직업훈련	61,857	고급 특수기술 센터	3,571
교도소 연수	55,736	현대식 도제 연수	3,402	의무 치료센터	3,282
합계			823,870		

출처: Saeid & Tarkhan (2017), A Report of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Iran

(3) 소결

이란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제도의 다양성(공식/비공식 제도 등) 덕분에 교육 성과와 피교육자의 다양성을 기준으로 고려한 명백한 성과들이 이루어졌다. 이란 TVET의 장점과 약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약점은 이란에서 다수의 직업훈련센터를 설립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초기 평가는 이란의 직업기술학교가 사회적(때로는 정치적) 요구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아직은 직업기술교육훈련 센터의 발전을 위한 종합설계를 의도하기보다 정부 투자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이 훈련센터의 설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훈련센터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영구적인 직장에 취직하는 확률이 높지 않다.

일부 분야에서는 직업기술 훈련과 지리적 위치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비공식 교육에서는 일부 직종 훈련생들의 직업교육과 대학교 학위 간의 연계성이 없다. 한편, 직업교육의 효과성 결여를 지적하는 몇 가지 문제도 있다. 기본적인 기술을 갖춘 졸업생들의 노동시장 진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과 혁신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일부 분야에서는 학위중심 문화로 인해 (직업기술학교의) 낮은 수준의 기술훈련 수강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Mohammad Ali, 2010, Saeid & Tarkhan, 2017에서 재인용).

강점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에 다양한 직종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공식/비공식) 직업기술 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많이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술훈련에 대한 형평성이 실현되었다. 모든 훈련 과정이 최소한의 교육비로 제공된다(직업상담과 실습시험: 합계 5달러). 일부 직종과 관련된 직업기술교육훈련의 접근법 중 일부가 국제표준보다 수준이 낮지만, 이 훈련은 이란에서 직업기술교육훈련 제공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시설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9) 파키스탄의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현황⁴⁰⁾

(1) 파키스탄의 사회환경과 교육현황⁴¹⁾

가. 파키스탄의 사회환경

파키스탄의 인구는 1억 8,802만 명이고, 면적은 79.6만 평방 킬로미터고 수도는 이슬라마바드다. 정치 체제는 연방공화제를 선택하고 있으며, 우르두어(국어)와 영어(공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통화단위는 파키스탄 루피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약1,398달러이다.⁴²⁾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은 남아시아에 속하며 인구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인구대국이며 절대 중산층 인구에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 4위를 차지한다(ADB). 파키스탄은 인구의 60%가 15세~45세이며, 68%가 30세 이하이다. 이는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주수입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만 1억8천만명을 넘는 세계 6개국 하나로 2020년까지는 2억 천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파키스탄은 높은 소비시장을 제공하며 특히 가정내 소비품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23 파키스탄의 사회환경 주요지표

인구	면적	정치체제	언어	1인당 국민총소득 (GNI)	수도	통화단위
188,020,000	796,000km ²	연방공화제	우르두어, 영어	1,398달러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 루피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40) 본 내용은 2017 NYPI & ARACD 국제학술회의에서 Abbas가 발표한 'Career Education and VET for Youth in Asia: Pakistan- Overview & Career Education Initiatives' 의 내용을 재구성 한 것임.

41) * 連邦教育・職業訓練省ウェブサイト(<http://moent.gov.pk/>) (검색일=2016.8.1.).

** UNESCO, World Data on Education, 7th edition, 2010/11

*** UNESCO ISCED Mappings, 2011

**** Ministry of Education, Pakistan Education for All: Review Report, 검색일=2015, 2014. 6,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42) <http://www.mofa.go.jp/mofaj/area/pakistan/data.html>, 검색일=2015.11.20., 文部科学省 (2017)에서 재인용.

나. 파키스탄의 교육현황

표 IV-24 파키스탄의 교육 보급 상황

교육 단계	연도	재적율	성별	
			남	여
취학 전 교육	2014년	70%	74%	66%
초등교육	2014년	94%	101%	86%
중등교육	2014년	42%	46%	37%
고등교육	2014년	10%	10%	11%

주) 보통 연령보다 빠르거나 또는 늦은 입학과 유급 등을 이유로 하는 해당 연령 외의 재적자를 포함.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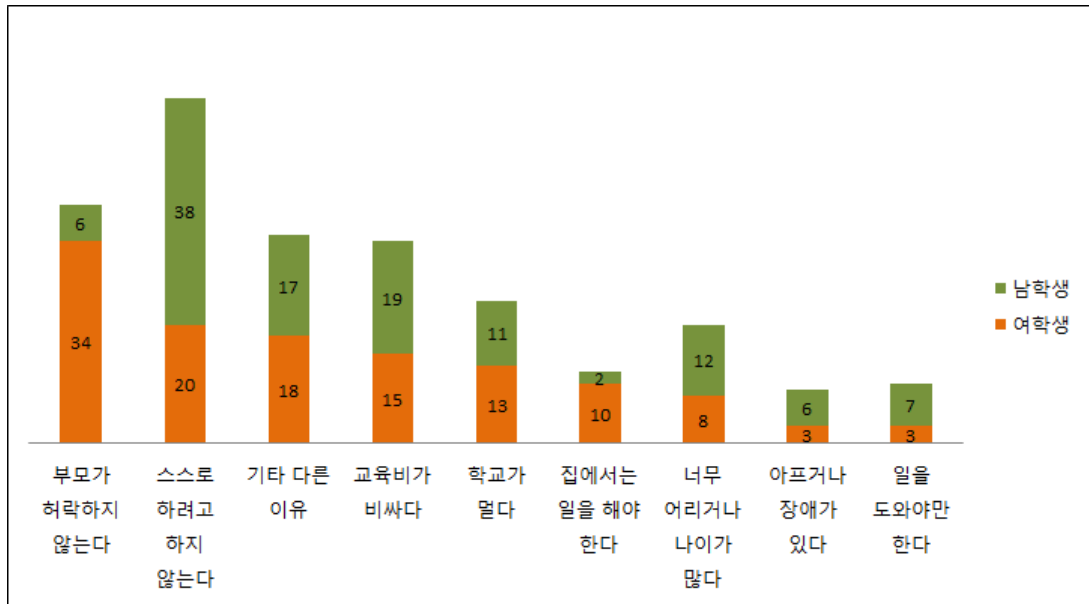
중앙에는 연방교육직업훈련성(Ministry of Federal Education and Professional Training)이 설치되어 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 성인의 식자 교육, 국제 협력 등 교육 관련 연방 수준의 정책 전반을 관할하고 있다.

지방에는 주 교육부와 지방교육 사무소, 지구교육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전국은 네 개의 주 및 두 개의 중앙정부 직할 지역으로 나뉘어 있고 주 정부에는 주 교육부가 설치되어 해당 지역의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직업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각 주는 여러 개의 교육 행정구로 나뉘며 지방교육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방교육 사무소 산하에는 지구교육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취학 전 교육은 3, 4세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보육학교, 초등학교 부설 취학 전 학급에서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5~15세의 10년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실시되고 있지는 못하다. 초등교육은 5세에 입학하여 5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학교에 다니지 않는 남아시아 어린이들 중 거의 3분의 1이 파키스탄에 산다. 소년들보다 소녀들이 더 많다. 최근(2013/2014)에는 초등학교 학령의 인구 중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616만명으로 감소했다고 하지만 이 아동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불충분하다. 교육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소녀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중요하다. 빈곤한 소녀의 14%만이 우르두어, 신디어 또는 파슈토로 된 책을 읽을 수 있다. 교육의 질은 인프라 및 교재의 부족과 교사 훈련 및 평가시스템의 취약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부유한 도시 소녀의 81%가 학교에 다니는 것에 비해 농촌 가정의 소녀 중 20%만이 학교에 다닌다. 가난한 농촌 소녀는 평균 1년의 교육만을 받을 뿐이다. 겨우 60%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다닌다. 학업중단이 문해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5학년이 되기 전에 학교를 그만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교육을 하는 비공식 학교들은 파키스탄어로 된 교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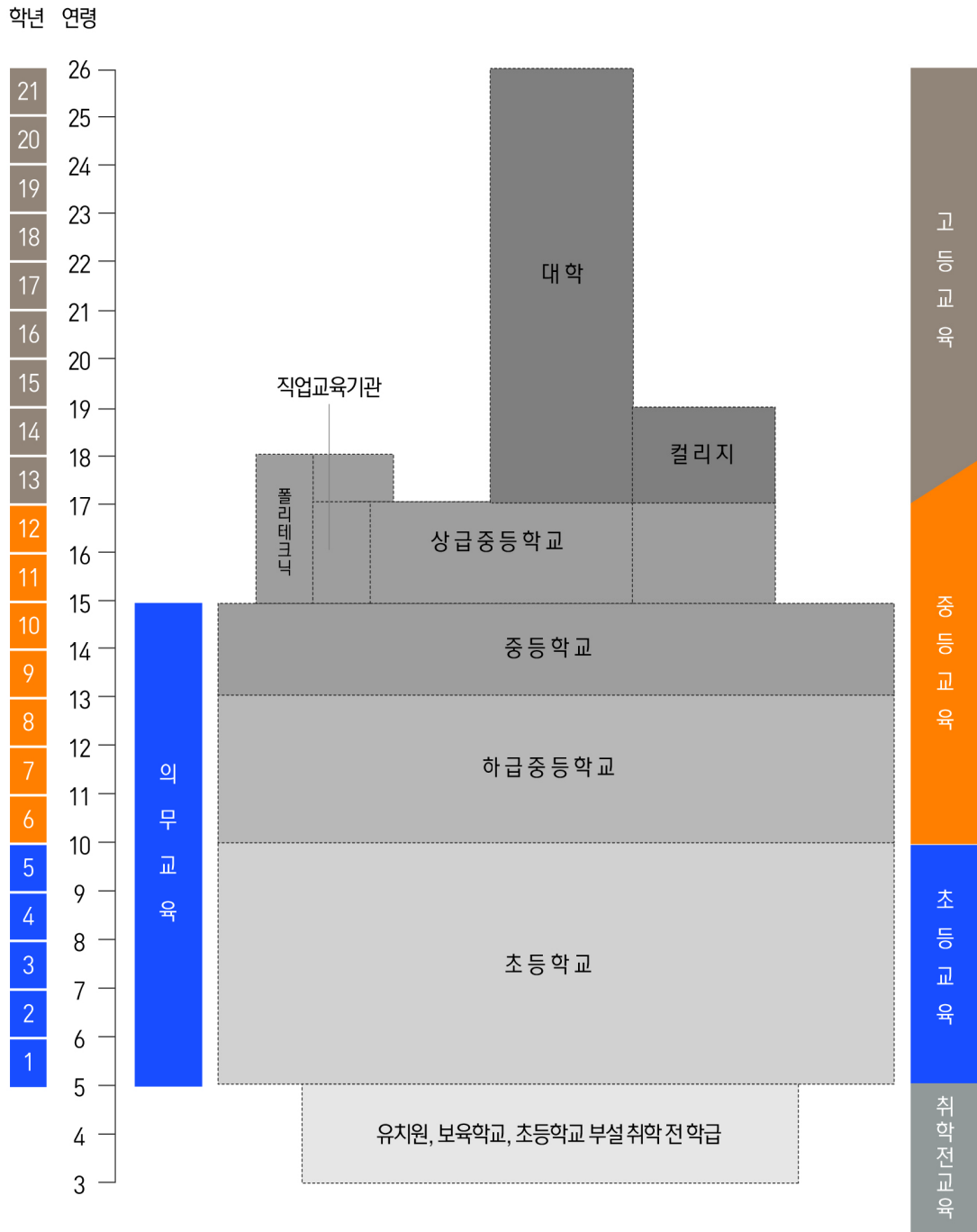
【그림 IV-40】 파키스탄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유

출처 : <http://www.alifailaan.pk/> , Raza, 2017에서 재인용.

중등교육은 전기, 중기, 후기의 3 단계로 나뉘어 있다. 전기 중등교육은 3년간 하급 중등학교에서 실시한다. 중기 중등교육은 2년간 중등학교에서 실시한다. 후기 중등교육은 2년간 상급 중등학교와 컬리지 등에서 실시한다. 또한 직업교육기관은 중등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1~2년의 직업 교육을 제공한다. 폴리테크닉은 중등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3년의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중등교육 수료 시에는 수료시험이 실시되며 합격자에게는 중등학교 수료증이 수여된다. 상급중등교육 수료 시에도 역시 수료 시험이 실시되며 합격자에게는 상급 중등학교 수료증이 수여된다. 직업교육기관 수료자에게는 각종 수료증(1~2년)이 수여된다. 또한 폴리테크닉 수료자에게는

수료증 혹은 졸업 증서(3년)가 수여된다. 직업교육은 파키스탄의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기관이 관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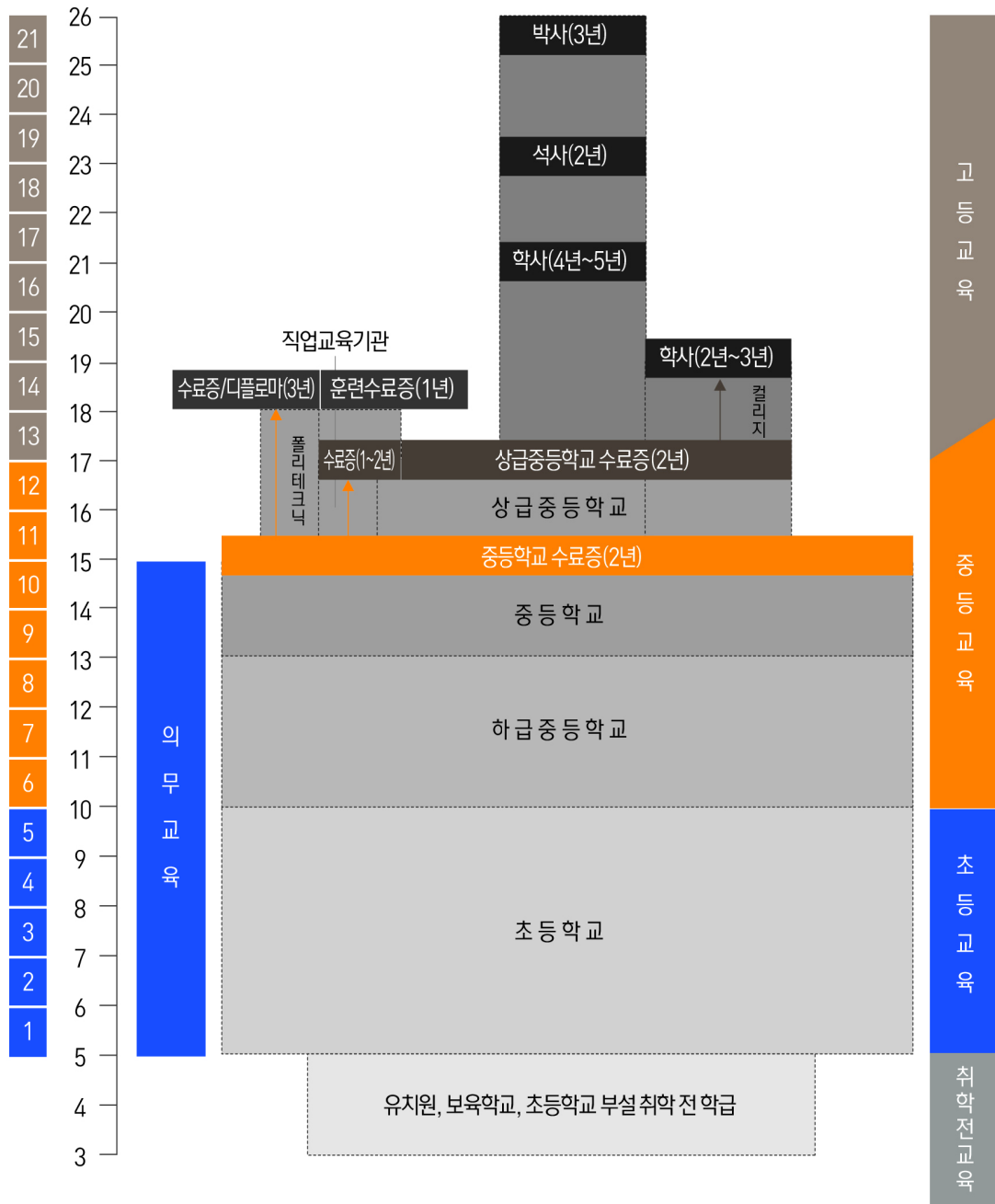
파키스탄인 중 약 8%만이 고등교육 진학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9%만이 고등교육을 받는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0년까지 20%로 늘리려고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대학과 컬리지가 있다. 입학 자격은 상급 중등학교 수료증 취득자에게 주어진다. 대학에는 4~5년제의 학사 과정이 있으며 수료자에게는 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또한 학사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2년제의 석사 과정, 석사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박사 과정이 있어 수료자에게는 각각 석사, 박사 학위가 수여된다. 컬리지에는 상급 중등학교의 과정(2년)과 통합하는 형태로 2~3년제의 학사 과정이 있다. 합계 4년(2년+2년) 혹은 5년(2년+3년)의 과정을 수료하면 학사 학위가 수여된다. 그 밖에 직업교육기관에는 상급 중등학교 수료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1년 과정이 있고, 수료자에게는 훈련 수료증이 수여된다.



【그림 IV-41】 파키스탄의 교육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학년 연령



진로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제 IV 장
채용 활동 동향과 전망

【그림 IV-42】 파키스탄의 자격 및 학위 시스템

출처: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2) 파키스탄의 진로교육 현황

가. 청소년 진로교육의 현황

교육과 관련된 의사 결정은 학교와 대학생의 진로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이나 파키스탄의 학교와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극히 제한된 정보 밖에는 알지 못하며,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분야도 제한되어 있다. 즉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을 파악하여 적절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파키스탄에는 직업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은 매우 적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 대학 및 대학생들에게 진로상담,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종합적인 국가 차원의 정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청소년 이행 지원 기관 및 프로그램

다음은 청소년의 이행을 지원하는 기관과 프로그램들이다.

- 중소기업개발(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velopment, SMEDA): 중소기업 창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가에게 금융 및 법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www.smeda.org).
- 기술개발위원회(Skill Development Councils, SDC): 산업 및 다른 조직에서의 기술자격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을 교육한다(www.sdc.com.pk).
- 해외취업공사(Overseas Employment Corporation, OEC): 정부에 의해 1976년에 설립되었으며 고용촉진이 주업무이다. 37년 동안 전 세계 55개국에 135,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했다(www.oec.gov.pk).
- 국립 인턴십프로그램(National Internship Program): 연방지역의 교육받은 청소년에게 매월 10,000루피를 지급한다(www.nip.gov.pk).
- 국가인재발굴프로그램(National Talent Hunt Program, NTHP): 몇몇 부유한 파키스탄 지방의 재능있는 학생들을 선별하여 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영어문법 및 작문, 수학 및 프레젠테이션,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 교육하여 역량을 지원한다(www.nthp.com.pk).

다. 국무총리 청소년 프로그램(<http://youth.pmo.gov.pk>)

- ① 국무총리 청소년 사업대출 체계: 실업청소년에게만 제한되지 않으며 특히 교육받은 청소년들이 기업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자격기준은 전산화된 국민신분 카드 소지자(CNIC 소지자)로 21~45세인 자를 지원하며 역량을 갖

웠거나 기업가적 잠재력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http://youth.pmo.gov.pk/Youth-Business-Loan-Scheme.php>).

- ② 무이자 대출: 미소금융(마이크로 파이낸스)은 향후 5년 안에 250만 명에서 5백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ttp://www.pfaf.org.pk/>).

- ③ 청소년 훈련 계획: 개인 및 공공 부문 사무실에서 인턴십을 통해 청소년을 훈련 시킨다

(<http://youth.pmo.gov.pk/Youth-Training-Programme.php>).

- ④ 기술 개발 프로그램: 실업상태의 청년을 훈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http://youth.pmo.gov.pk/Youth-Skills-Development-Programme.php>).

- ⑤ 청소년 랩탑 계획: 기술혁명을 일으키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들 사이에 컴퓨터 사용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http://youth.pmo.gov.pk/Youth-Laptop-Programme.php>).

- ⑥ 국무총리 수수료 상환 계획: 낙후지역의 학생들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입학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http://youth.pmo.gov.pk/Fee-Reimbursement-Scheme.php>).

라.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

공식화된 진로교육정책은 없지만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는 직업교육정책도 눈에 띄만한 것은 없다. 청년의 실업율은 높아지고 고용률은 낮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투쟁하는 상황이다. 부와 소득불평등도 커지고 있다. 경력경로가 매우 불확실하며 교육과 훈련, 그리고 직업세계와 기업의 경력개발 실무자 간에 단절의 골이 깊다. 이런 사회경제적 배경 때문에 특히 중등교육에서의 직업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직업 훈련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지 않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효과적인 조치는 없었다. 직업훈련기관은 변화하는 산업의 요구, 국가 및 세계적인 경향에 지속적으로 부응하고 직업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이 남아도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

2009년에 재편된 파키스탄의 교육정책은 기술 및 직업교육(TVE)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 산업, 농업, 서비스 분야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핵심 이해 관계자들이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TVE의 모든 현재와 미래개혁에 포함되도록 한다.
- 다양한 훈련 기관의 격차를 줄이고 수평/상향 이동성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며 공식적인 영역으로의 진입을 위한 비공식 부문의 견습생의 평가 및 인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국 TVE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 국가교육재단, 지방문해력담당부서, 관련 NGO가 지역의 노동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술 기반직업훈련과정을 제공하도록 TVE를 확장한다.
- 중등 학교수준까지 일반교육의 일부로 포함시키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의 개입의 실패를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 농업과 가축, 모두를 다루는 농업 기반 직업기술을 포함한다.
- 시장의 요구와 미래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우발적인 적응을 위한 유연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 방학 중에 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기술변화를 학습시킨다.
- TVE 교육체제 하에서 상거래 흐름을 소개한다.

마. 파키스탄에서의 직업 훈련 조직

국가직업기술훈련위원회(National Vocational and Technical Training Commission, NAVTTC)라는 연방정부 차원의 중앙기관이다. NAVTTC는 파키스탄의 직업 기술 훈련(VTT)에 대한 정책 방향을 표준화하고 전달하는 것과 ‘모든 사람을 위한 기술, 고용능력을 위한 기술’을 비전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방향, 지원 및 실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응용공학교육 컬리지(Colleges of Diploma of Associate Engineering)는 응용기술을 가르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실강의, 워크샵 과제, 실험실 실험, 산업 프로젝트 및 산업투어 등 정기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3년 과정이다.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기계, 화학, 생물 의학, 석유, 컴퓨터 IT, IPC 등 26 개 분야에서 DAE(Diploma of Associate Engineer)가 수여된다. 향후 연구 목적인 HSSC nter-Science(예비 공학)와 동등한 지위가 인정된다.

폴리테크닉(Polytechnic Institutes)은 3년 동안 다양한 지역 분교에서 학위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10학년 표준시험결과에 따라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입학한다. 폴리테크닉, 견습, 정부 훈련

및 직업 훈련 기관과 사설 교육 기관에서 다양한 기술을 훈련하지만, 전통적으로 비공식적인 교육 시스템이 지배적이다.

바. 파키스탄의 성공적인 직업교육 프로젝트

파키스탄의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그나마 민간에서는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Pathway Global Career Institute가 운영하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다.

(가) 제도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및 교사

파키스탄의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의 진로지도,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은 깊이 있게 다루지지 않는다. 전문적인 진로지도 카운슬러나 진로담당 교육자로부터의 상담기회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 게다가 교사와 카운슬러는 점점 더 많은 업무에 직면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진로지도, 직업 교육 및 진로 상담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청소년의 숨겨진 역량을 파악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제도화된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파키스탄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며, 제도화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능한 진로 카운슬러와 교육자를 교육시키고 육성함으로써 교사와 청소년 공동체 사이에 희망을 불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진로상담,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숙련된 진로전문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학교, 대학, 고용주, 학부모, 교육경력자, 상담 및 지도교사,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다.

제도화된 프로그램은 40시간의 진로 상담과 진로지도 및 경력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각각 20시간씩 운영한 학교 소속 교원에게 2시간의 진로상담, 진로지도 및 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 기술, 적성 및 기질에 따라 청소년의 직업 분야를 파악하고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포함한 문화콘텐츠로 구성된 총 40시간의 직업교육, 경력상담 및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10만 명 이상의 소외계층 청소년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행됐다.

(나) 학부모 진로지도 및 어린이의 진로대화 워크숍

아시아의 지역 문화적 맥락에서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주체라는 점에 착안한 프로그램이다. 선도적인 학부모 직업지도의 필요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범연구는 부모에게 희망을 불어 넣고 파키스탄의 다양한 직업 분야의 현실을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을 의미 있고 숙련된 직업으로 이끌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예비조사연구의 대상은 공립 및 사립학교 8학년 또는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이 연구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다양한 경력 분야에 대해 알려주고 전망이 밝은 새로운 직업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몇몇 분야의 진로선택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향후 진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부모가 인식하도록 한다.

이 예비조사연구는 앞으로 직업상담,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이 강화될 것이며 아시아 문화를 공유하는 아시아 전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다.

8-11학년의 학부모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업기반의 학부모 직업지도 워크숍을 개발하여 새로운 직업분야에 대한 직업교육 인지도를 높이고 가족뿐 아니라 청소년의 관심, 기술, 적성 및 기질 및 선호도에 따라 타국가에서 활용가능하도록 범용화했다.

(다) 희망 중심 워크숍

더 많은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 희망중심의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파키스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청소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늘날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희망중심 워크숍은 문화와 영적 신념 체계 전반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희망을 개념화하고 평가하며 구축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을 사용한다. Anthony Scioli 박사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인지행동주의적 훈련과 철학적 사상 및 명상 최면술을 결합한 ‘전뇌’ 접근 방식의 워크숍이다. 2개의 고정 모듈과 숙달, 생존 및 영적 희망 등 모두 5개의 모듈로 되어 있다. 또한 워크숍 전과 후에 포괄적인 자기보고 희망 척도가 제시된다.

파키스탄의 파일럿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가 입증되었다. 질적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얻었는데 능력향상(숙달), 더 큰 개방성(애착), 개선된 자기규제와 대처(생존)에 대한 희망, 그리고 영적 필요에 대한 인식의 고양 등이 확인되었다.

“나는 매우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워크숍을 시작했는데, 현재 나의 사고방식은 처음 시작할 때와 비교해서 매우 다르며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를 돌리는 작업장을 희망합니다” (Anushay Hussain, 학생)

“워크숍은 절망적인 암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노력이다” (Verda Butt)

“파키스탄에서 드문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생각은 독특하면서 열정적이었다. 좋은 학습 경험이었다. 지금 내 삶과 직업에 희망이 많다. 희망이 있다. 미래의 파키스탄과 다른 지역에서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Ilfrah Shah, 강사)

희망중심 워크숍은 민첩한 사고, 자신감과 자신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문화와 영적 신념 체계 전반에 걸쳐 사용될 수 있는 희망을 개념화하고 평가하고 구축하기 위한 통합적인 접근법의 프로그램이다.

(3) 소결

파키스탄의 일자리 창출은 최근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였으며 은행, 통신, 미디어, IT, 건설, 개발, 식품 서비스 분야와 같이 고용이 잘되고 있는 산업도 포함된다. PWC의 경제전망도 희망적이지만 파키스탄의 현재 경제 및 교육상황은 좋지 않다. 취학률은 낮고 중퇴율은 높으며 진로교육정책은 물론 직업교육정책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나 직업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진로교육정책 및 직업교육정책을 포함한 공공의 정책은 매우 부진하다.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오히려 민간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양상이다. 몇몇 민간에서의 직업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성공적인데 특히 아시아의 지역·문화적 맥락에서 부모가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 진로교육은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한 자녀 진로에 대한 부모의 인식전환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진로교육 기회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또한 사회의 인식 변화 및 개선, 현재 부족한 공공부문에서의 진로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이어져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3. 아시아 국가 진로교육 현황의 종합적인 비교 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외 9개 지역의 진로교육현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직업교육 및 훈련(TVET) 중심의 정책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진로교육으로 확장된 형태의 정책을 추진하느냐의 기준이다.

둘째, 진로교육 또는 직업교육이 교과 또는 교육과정과 분리되어 추진되는가, 아니면 통합적으로 추진되는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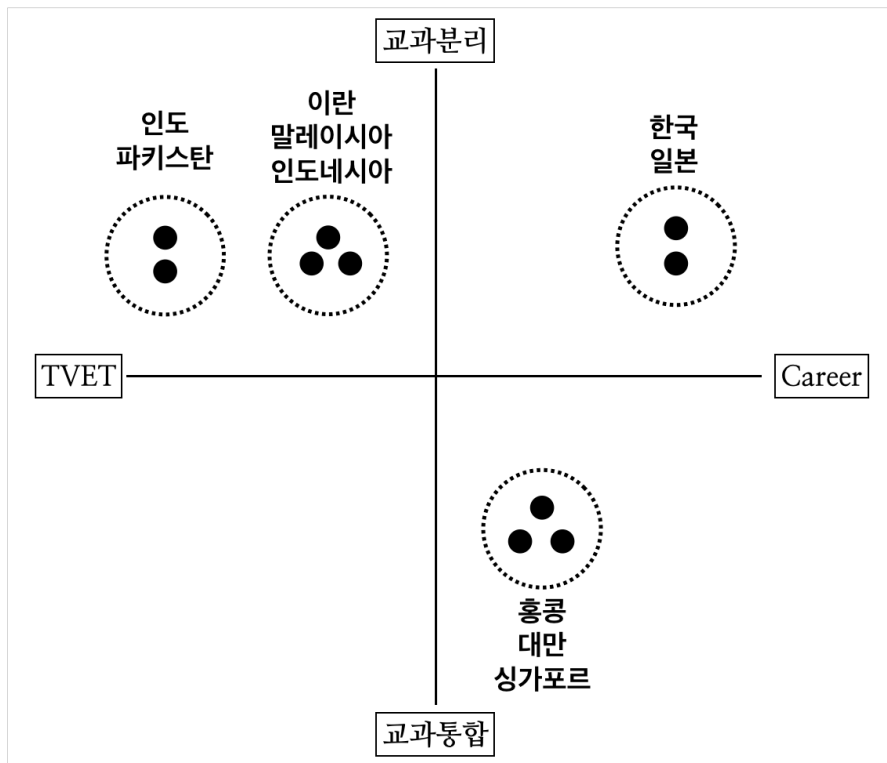
셋째, 2012 PISA조사결과에서 주목한 진로체험활동(또는 직업교육 및 훈련)이 직업역량개발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느냐이다.

1) 직업교육의 비중과 교과통합 또는 분리 정도

진로교육이 TVET 중심이나 아니면 분리된 형태이냐의 기준은 각 국가의 진로교육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TVET의 수준을 넘어 진로교육을 강조하는 유형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반면 이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은 TVET에 역점을 두고 있는 유형의 국가이다. 달리 말해 아직 진로교육 발달 상에 있어서 직업교육이나 훈련 중심의 정책에서 진로교육으로까지 확대되지 않는 국가들이다. 이들 두 개 그룹의 구분은 대체로 중등학교 취학률과도 관련있다.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는 중등교육 취학율이 90%를 넘어가는 대중교육사회이고, 고등교육 취학율도 높다. 반면, 나머지 5개국은 대학 입학률은 물론 중등학교 입학률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아직 대중교육사회에 진입하지 못했다. 단 이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대중교육사회에 근접해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중등학교 취학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업중단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른 하나는 진로교육이 교과와 분리되었느냐, 아니면 통합되었느냐의 기준에 따른 분류이다. 이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TVET 중심의 진로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교과분리형이다. 게다가 인도와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는 중등학교 취학율을 높이는 일 자체가 관건이다. 이와 같은 나라에서 진로교육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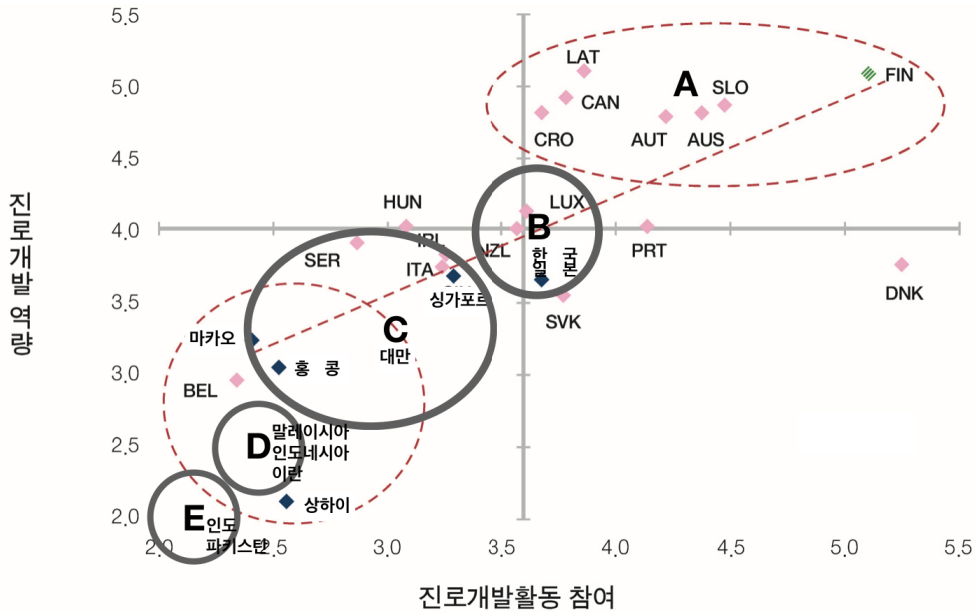
결과이다. 이 나라들은 진로교육으로 이행하지 못했거나 진로교육으로의 이행을 천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가들이다. 한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진로교육을 교과통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만 성과는 아직 미진하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진로교육을 교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교과통합적인 유형의 국가(홍콩, 대만, 싱가포르)들도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보다는 생애개발차원에서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역량의 개발을 강조하며 학교 내 교육개혁을 중요시 한다. 또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교과와 통합된 형태의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은 일본보다도 진로교육을 분리해서 추진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교과교사가 아닌 진로담당교사로 배치되어 담당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교과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다른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진로교육을 추진하는 경향이 강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교육이 교과로부터 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가별 상황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IV-43]과 같다.



【그림 IV-43】 아시아 국가별 진로교육 유형 분류

2) 진로체험활동 경험율과 직업역량개발과의 관계

2012 PISA 조사에서 국가 간 비교기준으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던 진로체험활동과 직업역량과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보여줄 조사자료는 없지만 각국의 진로교육 상황을 통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IV-44】 진로체험의 양과 진로개발역량의 관계(아시아 국가 비교)

[그림 IV-44]에서 보듯이 그룹을 2개의 축(진로개발참여, 진로개발역량)으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예상되는 비교국의 위치를 추정하였다. 2012 PISA 조사자료를 분석한 Sweet 등(2014)이 제시한 두 개 그룹에 세 개의 그룹을 추가하였다. A그룹은 Sweet의 분석에서 제시된 기존 국가들의 위치와 그룹 그대로이다. A그룹은 핀란드를 포함한 ‘체험의 양(고)-역량(고)’ 그룹으로 현재 아시아 국가 중 여기에 속하는 국가는 없다. B그룹은 한국, 일본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룹으로 ‘체험의 양(중)-역량(중)’ 그룹에 속하며, 룩셈부르크를 포함한다. C그룹은 ‘체험의 양(저)-역량(저)’ 그룹으로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 여기에 속한다. D그룹 역시 ‘체험의 양(저)-역량(저)’ 지만 C 그룹보다 한 단계 낮은 위치에 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란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 E 그룹은 ‘체험의 양(최저)-역량(최저)’ 그룹9인도, 파키스탄)이다.

표 IV-25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 유형

A 체험의 양(고) -역량(고)	B 체험의 양(중) -역량(중)	C 체험의 양(저) -역량(저)	D 체험의 양(저) -역량(저)	E 체험의 양(최저) -역량(최저)
해당국 없음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인도 파키스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한국과 함께 B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진로교육정책의 추진방법이 매우 유사하며, 이미 2006 PISA 조사에서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두 국가 간 다소의 시차는 있지만 2006년 이후 양국 모두 중학생 직업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던 점 등으로 미뤄보건대, 진로체험활동의 양의 수준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2012 PISA 조사를 보면(4장 2절 ‘일본의 진로교육현황’ 참조) 일본은 수학과 관련한 도구적 동기 점수에서 한국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둘째, 대만은 홍콩과 함께 C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 대만과 홍콩은 한국이나 일본과 같이 진로교육이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학교교과의 연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측컨대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의 양은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은 또 하나의 그룹이 될 수 있다. 대만 청소년들의 직업역량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힘들지만 교과통합적인 접근이라는 점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싱가포르와 홍콩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C그룹의 낮은 위치에 위치하거나 D그룹의 높은 위치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 이란은 서남아시아 국가 중 중등교육 취학율이 높고 거의 대중교육사회에 근접해 있어 최소한 D그룹의 높은 위치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단 세 나라 모두 진로교육으로의 이행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TVET 중심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들 국가 청소년들은 충분한 진로체험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도와 파키스탄은 D그룹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거나 더 낮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파키스탄은 가장 낮은 위치에 위치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의 중등교육 취학률은 낮고 TVET 중심의 정책도 아직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공공정책보다 민간이 이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3) 종합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 IV-44]와 <표 IV-25>의 분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의 진로교육의 현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B그룹과 C그룹은 결국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이다. 이 다섯 나라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취학율이 높고 국제학업성취 점수도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등의 공통점이 많다. 싱가포르는 지리적으로 남아시아에 속하지만 인구학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인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문화적으로 다섯 나라는 이른바 동아시아적인 문화를 공유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우선, 각 그룹별로 나누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B그룹인 한국과 일본은 2006 PISA 결과에서도 유사한 위치라는 점이 확인되었고 2012 PISA 조사의 진로교육 부가조사에 일본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수학과 과학의 도구적 동기(즉 예를 들어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장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서 한국과 함께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두 나라를 같은 그룹에 위치시키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더욱이 일본이 2004년부터 「커리어 스타트 워크」로 중학생을 중심으로 한 직장체험활동을 추진하고 한국이 2009년 교육과정 개정 이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과 「자유학기제」 도입 등의 진로체험활동 중심 진로교육정책을 추진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같은 그룹에 속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물론 유사한 학제 등 교육제도의 유사성도 높다. 한국과 일본을 ‘교과분리’ 형으로 구분한 것은 진로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도 진로체험활동이 교과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2 PISA 조사결과에 따르면 B 그룹은 C그룹보다 ‘체험의 양-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어느 쪽이 더 좋은 모델인지는 판가름하기 힘들다. 만일 한국이 체험의 양에 비해서 역량의 수준이 낮다는 평가(이지연, 2015)가 타당하다면 일본에 대해서도 비슷한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두 나라 모두 최근 몇 년 사이 진로체험활동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장과 4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진로교육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본대로 어느 정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지만 매우 강한 근거가 입증되지는 않았다. 다만, 두 나라 모두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양적인 접근에서 질적인 접근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지역이나 학교에서 좋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교육이 질적으로 약진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러한 사례들은 본 연구보고서 별권 ‘한국과 일본의 진로교육 사례’에 수록하였다.

C그룹에 속한 싱가포르, 대만, 홍콩은 한국, 일본과는 달리 진로교육정책을 교과통합형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세 나라는 교육개혁이나 교육과정의 개혁 아니면 교수학습 상의 개선을 통해서 진로교육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한국, 일본과 다르다. 교과통합형의 진로교육을 추진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비해 진로체험활동의 경험율이 다소 낮기는 하지만,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덜 강조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등 D그룹은 진로교육에 역점을 두고자 하지만 충분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TVET에 보다 역점을 두는 유형의 국가이다. 이 그룹은 중등교육이 거의 대중교육사회에 접어든 나라라는 특징을 공유하기도 한다. E그룹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무엇보다 중등교육 취학율이 낮으며 따라서 진로교육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지역적 편차가 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반면, 파키스탄은 비교국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단 파키스탄의 경우 민간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는 좋은 사례가 된다. 이러한 노력이 이후 공공정책으로 확산된다면 진로교육에 있어서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각국의 비교를 통해서 볼 때 진로교육이 개선되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취학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진로교육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직업교육 및 훈련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의 큰 흐름이다. 어느 정도 취학율이 높아지면서 점차 진로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적어도 중등교육 취학율이 90%를 넘어서는 대중교육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면 한계에 부딪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D그룹이나 E그룹의 경우 취학을 및 학력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인 나라는 경제발전의 동력으로서 진로교육이 강조되는 측면이 강하다. B그룹과 C그룹은 동시에 지나친 학력경쟁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진로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나친 학력경쟁이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제 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제 V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아시아 각국의 진로체험활동 현황을 비교하였다. 최근 한국의 진로교육이 진로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2006, 2012 PISA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에 매우 희소한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발달은 아시아진로개발학회(ARACD)와의 협업에서 시작되었다. 2015년에 일본 츠크바에서 열린 국제진로교육학회(IAVGE) 산하 학회인 ARACD가 아시아 국가간 비교를 위한 특별세션을 마련하였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을 대표하여 학회에서 한국의 진로교육현황을 발표하였다. 이 자리를 계기로 2년 뒤인 2017년에 한국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최로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현황을 비교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과제는 2017년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해서 아시아 국가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현황을 비교하는 연구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경위로 2017년 5월에 서울에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고,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파키스탄 등 총 10개국(9개국과 1개 도시)이 참가하여 각국의 진로체험활동 현황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2일차에는 개인발표 세션과 함께 한일 진로교육 비교 세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일 양국의 사례를 공유하였다. 이 자료들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을 비교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었다. 국가간의 보고서 내용이 비교가능한 수준에서 구성되도록 발표주제와 내용을 범위를 미리 조정하였으나 각국의 사회·경제·교육 등의 상황에 편차가 크다 보니 보고내용은 다소 균형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보고서 내용은 지금까지 없었던 비교 가능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간 진로교육현황 자료로서 매우 가치가 높다. 이 자료를 시작으로 각국간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교가능한 자료를 축적해 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처음에는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각국의 사정이 크게

다르고 따라서 진로체험활동만을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비교의 범위를 직업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 진로교육현황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아시아 국가간의 비교를 위한 틀과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진로체험활동과 관련된 기존연구들을 검토하였다. 진로체험활동이 매우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뒷받침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1차 년도 연구와 2차 년도 연구를 통해서 진로체험활동의 이론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내용들은 그로부터 도출된 내용들이다.

첫째, 진로체험활동은 진로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체험 그 자체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진로체험활동의 양적인 도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진로교육이론들이 진로체험활동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진로체험활동의 의미는 진로교육이론보다는 경험학습이나 체험과 관련된 전통적인 이론, 예를 들면 존 듀이나 콜브 등의 체험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론들을 종합해보면 체험은 중요하고 기존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지만, 모든 체험이 교육적이거나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흥미나 동기 또는 자발적이거나 자기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체험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활동의 설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고전적인 진로이론인 개인-직업매칭이론에서 혼돈이론적인 관점 등을 응용한 이론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의 진로발달과정이나 생애진로발달과정은 단순한 경로라기보다는 복잡한 경로인데 4차 산업혁명 등의 급격한 사회환경과 직업세계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생애과정의 변화 등 많은 요인들로 인해 생애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성을 발견해서 평생직업으로서의 특정 직업을 매칭하는 일은 더 이상 설명력이 약하다. 또한 진로발달의 궁극적인 목표의 하나인 진로성숙이나 진로자기효능감 같은 변인은 반드시 진로체험활동과 같은 투입요인에 의해서만 달성되지 않고 진로체험활동 이외의 다양한 체험활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달성되기 때문에라도 개인-직업매칭이론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보다 다양한 경험의 기회가 중요하고 동시에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이 같은 이론의 변화는 진로교육실천의 변화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진로체험활동 진흥정책이 어떤 경위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어떤 변화를 겪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 참여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진로개발 활성화 5개년 계획」 및 「진로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창의적 체험활

동 및 자유학기제의 도입, 진로교육법 제정 등 일련의 진로교육활성화 정책을 통해 한국의 진로체험활동 인프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충되었다. 온오라인의 인프라는 물론 전문인력 및 지원인력, 진로체험활동 지원 전담기관(센터)의 설립,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지원정책과 사업을 비롯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등 다양한 인프라가 확충되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자유학기제의 도입이 진로체험활동의 기회를 증대시켰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둘째, 이러한 정책 추진에 힘입어 청소년들은 진로체험활동 참여기회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체험활동의 질적인 향상에 대한 욕구도 강하다.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으며 진로체험활동 참여를 통해 직업역량이 개발되었다고 인식하는 경향도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일부 강연이나 심리검사와 같은 체험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고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낮게 나왔다. 또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고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는 직접체험활동은 간접체험활동에 비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청소년들이 원하거나 관심이 있는 활동이 더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질 높은 직접체험활동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현황 비교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직업역량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시아 국가들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대체로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많은 나라가 직업역량도 높은 경향이 있음 확인하였다. 여전히 이 같은 결과에 대한 해석은 신중해야 하지만, 대체로 진로체험활동이 활발한 나라들은 사회문화적, 교육적 환경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진로체험활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적어도 진로체험활동이 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이와 관련한 공공정책을 추진하지 않거나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나라의 경우에는 진로체험활동의 기회도 부족하고 결국은 진로역량개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진로체험활동의 양이 진로역량과 비례한다고 해서 진로체험활동이 진로역량에 반드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략적이고 평균적인 경향일 뿐이다. 한국과 일본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보다 더 많은 진로체험활동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부터 얻어지는 직업역량도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홍콩, 대만, 싱가포르 두 그룹 중 어느 그룹이 더 효과적인지를 가늠하기 힘들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는 진로체험의 양은 많으나 교과활동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교과와의 통합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교과와 경험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이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취학율이 높은 이른바 대중교육사회의 경우에는 두 가지 모델이 가능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 체험의 양에 비해서 역량의 수준이 높지 않다는 평가는 어쩌면 교과와의 통합적인 접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교과통합을 통해서 교과와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진로체험활동의 질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일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해진다면 진로체험활동은 더 좋은 진로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간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은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만큼 두 나라의 비교는 흥미롭다. 진로체험활동의 양적 확충의 문제는 일본에서도 가끔은 논쟁거리가 된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모든 학교와 모든 지역이 원만하게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학교와 좋은 지역의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우수사례를 모아 별권 「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사례집」을 발간하였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부분적으로 본 보고서의 국가별 진로교육현황에 소개되어 있다.

2. 정책제언

1) 정책제언 도출과정

지금까지의 연구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제언은 결국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한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정책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내실화 방안 도출을 위한 근거로는 이론의 검토, 정책현황분석 및 설문조사결과,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의,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현황 비교분석, 사례조사결과 등이 활용되었다.

둘째, 아시아 진로교육연구와 진로교육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국가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이다. 아시아 국가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방안 도출의 근거로는 아시아 각국의 진로교육현황 비교분석자료와 함께 국제학술회의를 준비하는 과정과 사후에 ARACD 이사회에서 제기된 의견이 활용되었다. <표 V-1>는 두 영역의 정책제언 도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전자를 위해서는 한 마디로 진로교육의 질적인 도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를 시작으로 중앙부처의 진로교육정책이 다각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이미 2016년에 발표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 향후에 추진될 많은 진로교육정책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정책들을 안착시키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지금의 정책방향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또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는 중앙부처 차원의 대안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 지역의 지원기관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중앙부처 수준에서는 교육부 이외에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부 관할의 수많은 청소년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제시하였다.

후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이라든가 매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국제학술회의의 주최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아시아진로개발학회(ARACD)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표 V-1 정책제언 영역별 도출 근거

정책영역	정책제언 도출 근거	
① 한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정책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	1. 이론적 검토	> 개인-직업 매칭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래직업세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진로체험활동이나 직업체험활동 이외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진로발달의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 진로체험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참여자들의 흥미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전문적인 인력의 개입도 필요하다.
	2. 정책현황분석	> 추가적인 진로체험활동 관련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설문조사	> 청소년들의 요구(흥미와 관심)에 부응하는 진로체험활동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간접체험활동보다는 직접체험활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
	4. 자문회의 및 정책협의회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 민간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인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 진로체험활동이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지역에서의 예산확보, 특히 지자체의 교육경비 확보가 필요하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아시아 국가 비교	> 교과(또는 프로그램)와 통합된 진로체험활동이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6. 사례조사	> 지역을 단순히 자원으로 활용하는 진로체험활동이 아닌 지역생태(마을)를 만들어가는 마을과 함께 하는 진로체험활동이 필요하다. > 진로체험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이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하루 또는 일회적인 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일 이상의 장기적인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② 아시아 진로교육연구와 진로 교육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국가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1. 아시아 국가 비교결과	>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 관련 국제비교조사나 데이터 베이스가 없었으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ARACD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아시아간 교류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2. ARACD와의 협의	> 향후 아시아 각국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ARACD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축적해야 한다.

〈표 V-1〉에 제시된 정책제언 도출근거를 실천주체나 내용별로 재배치하면, 〈표 V-2〉와 같다. 단 특정 개선사항은 여러 주체들이 공동으로 개선해 가야할 내용들이다.

표 V-2 정책제언 영역별 도출 근거

정책영역	정책제언 도출근거
<p>① 한국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정책을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p>	<p>〈중앙부처 정책방향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직업 매칭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미래직업세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추가적인 진로체험활동 관련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 하루 또는 일회적인 체험의 한계가 명백하며, 3일 이상의 장기적인 진로체험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p>〈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 민간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참여를 유인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 지역에서의 예산확보, 특히 지자체의 교육경비 확보가 필요하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p>〈지역사회 참여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단순히 자원으로 활용하는 진로체험활동이 아닌 지역생태(마을)를 만들어가는 마을과 함께 하는 진로체험활동이 필요하다. <p>〈단위학교 또는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또는 프로그램)와 통합된 진로체험활동의 제공이 확대되어야 한다.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야 한다. ▶ 진로체험활동이나 직업체험활동 이외에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진로발달의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 ▶ 진로체험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참여자들의 흥미와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전문적인 인력의 개입도 필요하다. ▶ 진로체험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들이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진로체험활동이 소규모인원으로 운영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청소년들의 요구(흥미와 관심)에 부응하는 진로체험활동 위주로 운영되어야 한다. ▶ 간접체험활동보다는 직접체험활동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p>② 아시아 진로교육연구와 진로 교육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국가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 관련 국제비교조사나 데이터 베이스가 없었으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ARACD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아시아간 교류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 향후 아시아 각국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ARACD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축적해야 한다.

◎ 정책의 방향 ◎

- 지금까지 개인-직업 매칭이론에 의존하여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변화하는 미래 직업세계를 반영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 앞으로 진로체험활동 관련 인프라가 추가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특히 농산어촌 뿐만 아니라 도농복합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한다.
- 향후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진로전담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미 제2차 진로계획 5개년 기본계획에 진로담당교사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진로체험활동이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진로체험활동이 일회성 또는 일일체험으로 그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국내 일부 지역과 일본의 많은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3일 이상의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① 진로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노력: 직업매칭을 넘어서 지역교육생태 조성으로

- ① 이미 진로교육에서 지역교육생태 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진로교육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지역사회생태조성에 있다는 점을 진로교육의 목표로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일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교사(예, 완주군, 세종시, 서울시 성북구 등) 사업을 진로교육의 주력사업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
 - 지역의 사례전파를 위해서 지역사회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 마을교사사업을 운영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매뉴얼이나 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지역에서 마을교사 사업을 보다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우수사례발표회」나 「진로교육페스티벌」 등의 기회를 통하여 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역할을 체험처 발굴 중심에서 지역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업무치짐 변경을 통해서 이들의 주역할이 체험처 발굴 매칭 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지역네트워킹 등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한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단순 체험처 발굴 업무가 아닌 보다 고도의 업무(컨설팅, 수퍼바이징, 모델개발 등)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교육연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교육연수 프로그램으로는 상호 간에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학습네트워크 형태의 방식을 활용하고,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 초연결사회로 특징지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정책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나 관련 제품에 익숙해지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공학적인 초연결사회, 즉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교육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책의 비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드론, 3D 프린팅, AR과 VR,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을 확충함과 동시에 이들 프로그램들의 단순 체험활동이 아닌 창의적이고 참여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사회변화, 즉 노동조건이나 일자리 감소, 사회전반적인 과급효과, 고령화에 따른 생애교육적 가치 등에 대해서도 사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체험활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혼돈이론적인 접근의 수용이 필요하다. 즉, 특정

체험활동이 반드시 직업과의 매칭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역량을 계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업무도, 학교의 진로교육 운영방식도 결국은 사회적 초연결, 즉, 촘촘하게 연결된 지역사회생태계 조성이라는 공유된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교육(지원)청, 지자체, 학교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목표를 공유해야 한다.

○ 진로교육법 제1조에 지역교육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현행 진로교육법 제1조(목적)을 보면 “이 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되어 있어 지역사회연계라는 개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 다시 말하면 현행 진로교육법 제1조는 개인-직업매칭이라는 전제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제1조에 지역교육생태계 조성 또는 지역사회 연계 등을 강조하여 개인의 역량이 아닌 지역의 교육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동법 제1조(목적)을 “이 법은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사회의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2017년 현재 17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구 지역 맞춤형 특화벨트 사업)도 장기적으로는 콘텐츠 특화사업에서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생태조성사업으로서 성격을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의 컨소시엄 형태가 아닌 지역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 또는 사업(예를 교육혁신지구사업, 도지재생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한다.
-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컨소시엄 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컨설팅 등의 방법을 통해서 유도해야 한다.

- 연말에 개최하는 지역사회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발표회에서 우수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우수지역연계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여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생태조성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② 교사들의 진로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새로운 시도

①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수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교사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교장, 일반교원, 예비교사 등에 대한 연수, 교육대학원에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율연수나 상호학습 또는 자조적인 모임의 기회를 확장하는 것이다.
 - 강의식 연수보다는 상호교수 방식, 또는 워크숍이나 사례발표회 같은 형식으로 연수를 전환해 갈 필요가 있다.
 - 진로진학상담교사들도 지역협의회를 통하거나 시군구 단위에서의 소모임 조직을 장려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 진로교육 관련 연수 이외에 다양한 분야의 연수를 통해서도 진로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교사나 진로교육 전문가 이외에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② 교사들이 직접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다.

- 진로담당교사 뿐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직접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교사들의 진로교육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 오끼나와 히야네초등학교는 교장을 포함한 교사 전원이 기타나카구스쿠 지역에 새롭게 건립된 대단위의 이온몰 견학투어를 참관하여 진로상담교사 뿐 아니라 모든 교사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사례집」참고).

- 교사들이 직접 직업체험을 체험함으로써 진로체험활동의 실제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직업체험처의 사정을 알게 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것이 진로교육을 위한 지역생태조성을 위한 토대가 될 수가 있다.

③ 컨설팅 강화 및 지역의 학습조직화

- 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로 컨설턴트단의 운영을 통해서 현장의 진로교육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 컨설턴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구성원을 확대하여 사회전반적인 진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컨설턴트단은 컨설팅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컨설턴트의 역량강화는 진로전문가를 확산하는 토대가 된다.

- ② 컨설팅의 방법을 전통적인 방법에서 그룹간 간담회나 워크숍 방식으로 운영하여 컨설팅 장면이 지역사회연계의 한 방편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컨설팅을 받은 기관이 컨설팅 후 컨설팅 내용을 실천하는 방식보다는 컨설팅 시 지역 내 필요한 인력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워크숍 형태의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컨설팅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해 당사자들 간에 서로의 필요사항이나 요구사항을 교환함으로써 상호간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컨설팅은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고,

- 그룹간 간담회는 센터담당자나 교사 등 특정 그룹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닌, 예를 들어 체험처담당자들과 교사들간의 간담회 방식으로 소그룹 미팅을 통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④ 프로그램 질 제고를 위한 새로운 시도

- 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식을 ‘앱스토어 방식’을 도입하여 프로그램 개발 동기를 자극하고 공유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 간단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를 온라인 상에 올리고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오픈 소스 방식의 앱스토어 시스템을 구축해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개발자는 아이디어 또는 사례를 덧붙여 온라인상에 올리고, 다수의 사용자들은 제안된 프로그램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사용후기를 올리며 개발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좋고 특정수 이상의 사용후기가 누적된 경우 평가단의 평가를 통하여 개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인증형 앱스토어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 프로그램 개발자는 일정 수준의 요건을 갖춘 프로그램을 평가단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고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프로그램 인증제이지만 인증의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인증형으로 운영하더라도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② 3일 이상의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 일회성 체험을 지양하고, 3일 이상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 3일 이상의 체험은 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으나 오히려 행정업무를 줄일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하루씩 3일을 체험하는 것보다 3일간 체험함으로써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 3일 이상의 체험활동은 무엇보다 심층적인 체험이 가능하여 교육적 효과가 높다(별권 「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사례집」 참조할 것).
 -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겠지만 3일 이상의 체험일수록 체험인원은 소수로 운영해야 효과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확산해야 한다.

○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로컬푸드점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참여형 프로그램은 좋은 예이다.

- 일본 조에츠시의 사례(「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사례집」 참조)처럼 청소년들이 지역의 농산물 판매를 직접 기획해서 파는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

○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협동조합을 만들어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방식의 활동은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매점을 운영하는 과정 등 모든 과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구성할 때 필요한 몇몇 행정적 조치들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조합원의 50%이하일 경우에는 신원조회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으나 각 자치구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교육부가 일괄로 타결하여 학교협동조합을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협동조합을 만들지 않더라도 청소년들이 매점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동아리형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전국에 900여 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있지만 상당수가 법적인 협동조합이 아니라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런 경우에는 쉽게 해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동시에 쉽게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II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에 대한 제언

◎ 정책의 방향 ◎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조관계는 해당 지역 진로교육의 성패를 가름할 정도로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 진로체험활동이 원활하게 잘 운영되는 지역은 양자간의 협력이 잘 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양자간의 불협화음이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진로교육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고 협력해야 하며 더 많은 지역에서 양자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민간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은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의거하여 진로체험활동에 참여해야 할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으나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특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반드시 조세감면이나 재정이 소요되는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보상책도 있다.
- 지자체 또는 교육(지원)청은 지자체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중 예산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된 경우는 대부분 지자체의 교육경비가 일정 규모 이상 지원된 경우이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예산확보를 위한 첫걸음이 된다.

Ⅰ 지자체는 지역사회만들기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진로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진로교육정책을 지역내 청년사업과 연결하여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미래전망을 가질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사회의 건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가장 쉬운 예가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카페의 운영이다. 사회적 기업 형식으로 청년들이 기존의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카페를 만들어 운영할 있도록 하고 이 공간을 청소년들의 진로체험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 이와 같은 사례는 아직은 매우 드물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사회복지관과 같은 공간을 이용하면 용이하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이들 시설에 카페가 설치되어 있으나 학교처럼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드물다.

- 이와 같은 사업도 학교협동조합 사례처럼 지원센터를 만들거나 시설협동조합 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 기타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기업을 청소년의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관련 사회적 기업을 청소년의 직업체험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 또는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이미 몇몇 지자체(서울시 강동구, 강서구, 동작구, 송파구, 부산해운대구 등) 또는 교육청(경기도 교육청, 대구광역시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등)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는 센터의 운영을 안정화하여 결국은 지역에서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정책을 활성화시킨다.

○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센터의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고 인력의 안정적인 운영도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센터의 전문성이 확보된다.

㉔ 지역내 진로교육 관련 사업의 통합적 추진

① 청소년정책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의 진로교육정책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진로교육은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관련 사업,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 진로교육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일종의 조정기구나 담당관이 운영하면, 진로교육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별도의 기구나 담당자를 두지 않고 청소년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치하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조정역할을 할 수도 있고 기타 시민의정참여단이나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②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와 교육청 평가 또는 교육청의 진로교육정책 평가에 상호간 협력유무 또는 협력정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하면 가장 손쉽게 양자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은 상호간에 파견제도를 도입하여 상호협조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에 장학사를 파견하고 있다. 파견된 장학사들이 양자간의 조정역할을 할 수도 있다.

- 거꾸로 지자체 공무원을 교육청에 파견하여 양자간의 조정역할을 추진할 수도 있다.

◎ 정책의 방향 ◎

- 학교의 노력여부에 따라서 진로체험활동의 질은 크게 좌우된다. 진로체험활동을 형식적이거나 파편적으로 운영하면 교육적 효과는 미미하여 소모적인 활동에 그치게 된다. 학교는 진로교육이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보다 효과적인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는 최대한 지역사회와 연계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사회의 자원을 단순히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호호혜적인 입장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 학교에서의 진로체험활동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리고 위의 두 가지 사항, 즉 교육과정과의 유기적인 연계와 사회와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학교 내 조직의 유기적인 협조이다. 특정 업무가 특정 교사에게만 몰리거나 교원들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혁신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는 구성원들이 협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민주적으로 시행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 단위학교는 통합적인 진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이다.

- 교육과정의 목표를 진로교육으로 설정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전략이다.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목표는 진로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예는 「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사례집」의 일본사례 중 스와다이 중학교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더 낮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교과와 진로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것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가장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 최소한의 장치로는 진로체험활동 하나 하나를 특정교과에서 다루는 내용과 연계하여 단순히 학생들이 인식하는 정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PISA 조사에서 꾸준히 낮은 점수를 보이는 영역이기도 하다.

② 교육과정의 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려면 학교 내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교장의 리더십으로 조직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가면 되지만 합리적 운영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

- 조직문화를 바꾸는 일을 행정적으로 표현하면 합리적인 업무분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개혁을 위해서는 업무분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사례 역시 「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사례집」의 일본사례 중 스와다이 중학교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② 지역사회와의 열린 관계

① 학교는 학부모 등 자원봉사단을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나 자원정도로 여기지 말고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자원봉사단을 마을교사라고 불러도 좋고 또 그럴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교육과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 자원봉사단으로 시작하여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거나 협동조합 등 지역사회 전문가로 활약하는 사례도 많다.

② 지역사회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전문인력을 단순히 가용한 자원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전문성을 가진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대우해줘야 한다.

- 이들에게도 ‘마을교사’ 라는 명칭 등 나름의 명칭으로 대우해줘야 하며 청소년들이 평상시에 지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학교 내 공식적인 행사에서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같은 예로 「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사례집」 중 일본 스와다이 중학교 사례를 들 수 있다.

○ 학교에서는 지역사회의 전문인력과 지역사회 자원을 관리하는 학교 나름대로의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직업체험처의 경우라도 데이터 베이스를 꿈길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인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의 데이터 베이스란 별도의 온라인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정보관리 파일 정도의 수준을 의미한다.

- 데이터 베이스에는 직업체험처의 연락처, 접근방법, 운영자에 대한 기본정보 등 기본적인 내용을 물론 체험처를 활용했을 때마다 시행한 평가에 대한 요약적인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정책의 방향 ◎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전국에 설립되면서 센터가 지역 진로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센터는 단순히 매칭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지역전체를 네트워킹하고 필요에 따라 학교나 체험처를 컨설팅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여 일종의 수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센터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센터는 적어도 이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이외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 이를 테면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들과의 양질의 매칭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만들기 또는 지역 생태 조성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의 체험처들도 단순히 직업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의 마을교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교육생태를 조성하는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나 학교도 체험처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체험처들은 초기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점점 익숙해질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필요가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노하우를 체험처에 전수하는 일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나 학교, 지역 진로전문가들의 몫이다.
- 종종 지역의 진로교육 담당 당사자들,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 담당장학사, 센터의 담당자, 담당교사, 체험처의 담당자들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그간에 기울여온 노력과 노하우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특정인이 역량과 관심에 의해서만 진로교육이 운영됨으로써 자칫 소실될 수 있는 지역의 자산을 지속가능한 자산으로 존속시키길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소셜 매치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 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단순히 체험처를 발굴하고 매칭하는 역할을 넘어서 지역사회 내 슈퍼바이저 또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체험처를 발굴하고 매칭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센터 인력만으로 관내 모든 학교를 지원할 수는 없다. 센터의 역할은 보다 상위수준의 업무에 집중되어야 한다.
 - 1차적으로 어느 정도의 체험처가 발굴되었다면 이후에는 각 단위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체험처를 발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센터는 부분적으로는 체험처 발굴의 업무를 지속하면서 단위학교의 어려움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사례집」의 조에츠시 사례 참조).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자체, 교육청, 체험처, 시민, 청소년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들과 소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②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소셜 매치메이커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해야 할 매칭은 체험처와 학교와의 매칭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걸친 매칭이어야 한다. 즉 소셜 매치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만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단순 매칭을 벗어나 일종의 네트워크형 잡월드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네트워크형 잡월드란 상설의 시설에 설치된 부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직업인들 또는 체험처를 네트워킹하여 만든 일종의 거대한 잡월드를 말한다.
 - 고양시가 추진하는 실리콘밸리 3로 진로페스티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사례집」 참조).

- ②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
- ①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무엇보다도 자기주도적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 청소년들이 단순히 체험자로 참가하기보다는 스스로 기획하고 탐구하며 경험하는 자기주도적 진로체험활동 모델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 체험처에서는 대부분 청소년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적고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을 이끌어내는 데는 더욱 서툴 수 있다. 따라서 체험처별 또는 멘토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을 자기주도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고 교육시켜야 한다.
- ② 일회성 체험활동 이외에 3일 이상 진로체험활동 등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 3일 이상의 체험활동 운영이 가능한 체험처와 학교를 발굴하여 3일간 체험활동모형을 만들 필요가 있다.
 - 3일 체험이라도 학교급별로 다른 체험모듈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급별로 또는 업종별로 3일 이상 직업체험활동이 가능한 노하우를 찾는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 일본의 경우 1일 체험보다는 3일 체험이 3일 체험보다는 5일 체험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과 일본의 진로체험활동 사례집」 참조).

◎ 정책의 방향 ◎

- 청소년정책 중 청소년활동정책은 내용적으로는 대부분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진작시키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의 청소년활동정책과 정책사업들이 추진되어 왔지만 진로교육을 표면에 내세워오지 않았으며 청소년활동정책 추진의 근거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도 진로교육이나 진로체험활동은 다루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가 규정하는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직업체험활동이 들어가 있고 「청소년육성기금공모사업」이나 다양한 정책사업을 통해서도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은 꾸준히 운영되어 왔다.
- 더욱이 전국에 설치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중 1/3 정도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어(대부분 청소년수련시설이다) 진로교육에 대한 청소년수련시설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기관에 따라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는 형태는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서 독립적인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탁운영의 장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관이 위탁운영하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진로교육 플랫폼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2018년부터 시행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진로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간에는 몇 개의 사업단위 수준에서 진로교육이 강조되었다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진로교육을 청소년활동정책 사업에서 그 어느 때보다 비중 있게 다룰 필요가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진로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① 청소년활동정책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① 청소년기본법 상 청소년활동의 개념에 진로체험활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 이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안에 직업체험활동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청소년활동은 아직까지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 전국에 설치된 219개(2017년 9월 현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30% 가량을 청소년수련 시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소년활동정책 안에서 진로교육 또는 진로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②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진로체험활동지원정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 하며 청소년활동정책추진계획 안에 명확하게 진로체험활동 지원계획을 담아야 한다.

○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시설을 활용한 진로체험활동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각 국립시설은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해양, 우주, 농업 등)에 맞는 진로체험활동 지원계획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김제청소년농생명 센터는 스마트 팜 관련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연수기능이 있는 만큼 교과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원 및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활동 관련 특화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국립시설과 연계하여 모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컨설팅 역할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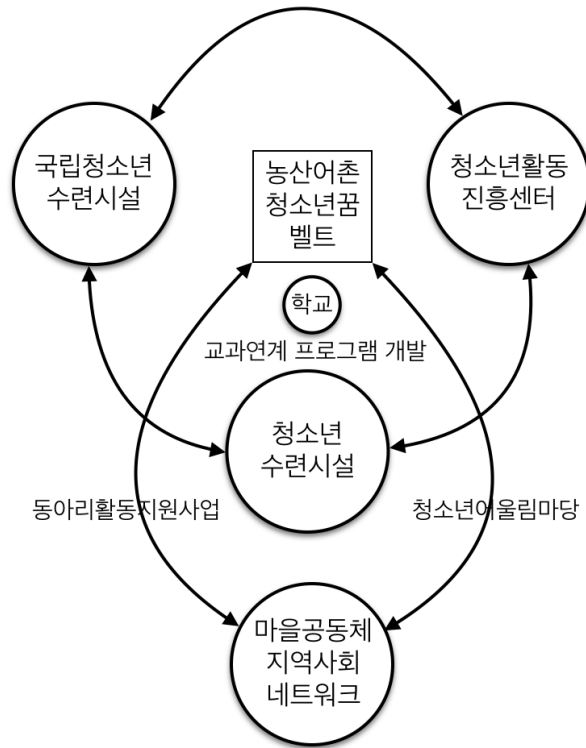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정책사업수행 비중을 줄이고 지역의 컨설팅 및 지원사업 중심 기관으로 전환해 가며 동시에 진로교육지원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청소년활동사업 안에서 진로교육과 관련 사업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이나 청소년어울림마당은 각각 독립적인 사업들이지만, 진로교육이라는 개념 하에서 연계될 수 있다. 동아리활동은 폭넓은 의미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진로체험활동이다. 어떤 특정한 영역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청소년들의 집단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동아리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청소년들의 자신들의 끼를 발산하는 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한 진로체험활동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두 사업이 진로교육과 연계되는 지점을 찾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반드시 진로교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활동정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청소년수련시설이 학교와 연계하는 방식을 다양화해야 하며 교과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 학교와 연계 시에는 ‘상호동등성의 원칙’에 의하여 연계·협력해야 한다.
 - 학교와 연계 시 ‘상호동등성의 원칙’에 의하여 연계·협력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하며, 점진적으로 교과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반드시 단독으로 개발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지역의 교사들과 협업하여 개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인력들이 이와 같은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신규사업으로서 청소년친화지역사업(가칭)을 추진하여 청소년수련시설들이 지역에서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특히 농산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청소년친화지역사업을 청소년꿈벨트(가칭) 사업으로 특화하여 지역사회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림 V-1]처럼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하고, 동아리활동 사업이나 청소년어울림마당사업과 연계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 단, 교육부의 지역사회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지역 맞춤형 특화벨트 사업)과 중복되는 지역은 두 사업을 연동하여 추진한다. 서천지역 등 이미 일부 청소년수련시설은 콘소시엄을 통해서 지역사회 진로체험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림 V-1】 진로교육 지원 중심 청소년꿈벨트 사업 추진체계

③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심으로 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의 정도에 따라서 지역간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 여성가족부가 진로교육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따라서 앞에서 논의한 동아리활동 사업이나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을 진로교육과 연계하거나 또는 청소년공모사업에서의 비중을 확대하는 정도가 손쉽게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다. 물론 단순히 예산만으로 진로교육의 비중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활동사업을 진로교육과 연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청소년기관들이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단계에서는 이 같은 방법이 더 현실적이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험터밭굴과 매칭 사업을 중심으로 한 센터 본연의 업무에만 치중하지 말고 다양한 지역사회 사업,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 또는 마을공동체 사업 및 평생교육관련 사업, 교육혁신지구사업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 내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면 그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받거나 더 많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확보하지 않더라도 청소년기관들이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단계에서는 이 같은 방법이 더 현실적이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 타기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청소년수련시설이 지역공동체 또는 마을공동체 사업 및 평생교육관련 사업, 교육혁신지구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청소년수련시설이 추진 중인 사업을 이들 사업과 연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지역 내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교육경비 등의 예산지원이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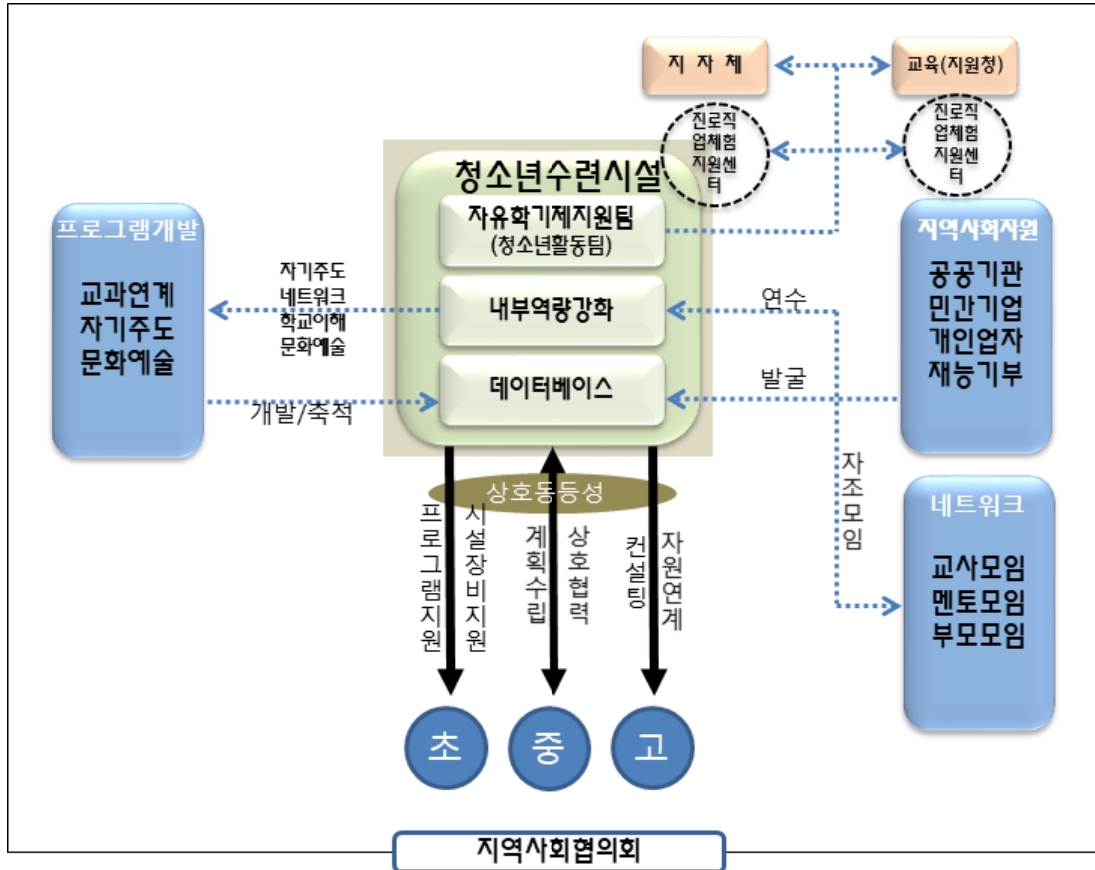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거나 설립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어울림마당, 동아리활동사업 등의 사업, 그리고 타부처 및 지자체 또는 민간의 공모사업과 연계하거나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서 학교예산지원 또는 자부담을 통해서 진로체험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을 독려해야 한다.

- 청소년 진로체험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시설평가 지표에 진로체험활동 운영사항을 반영하거나 여성가족부 지자체 평가지표에 진로교육 관련 사업 추진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① 내부조직으로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센터를 중심으로 진로체험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되 장기적으로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연계사업, 마을교육공동체사업 등 보다 포괄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지자체로부터 더 많은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타기관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에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연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당지역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③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예정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한다.
- ④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지원할 경우 학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교과연계, 자기주도, 문화예술영역 등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과 외부자원과 프로그램을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학교에 제공한다.
- ⑤ 청소년수련시설은 학교와 연계할 때, 반드시 상호동등성의 원칙 하에 협력하고 학교연간교육계획수립 등의 자유학기제 관련 계획수립에 공동으로 참여하며 장기적으로 학교 내의 모든 체험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컨설팅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

- ⑥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학 등 공공 및 민간의 지역사회자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교사모임, 진로멘토, 학습멘토 등 멘토단모임, 학부모코치와 같은 학부모모임을 조직하는 등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림 V-2】 청소년수련시설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체계

◎ 정책의 방향 ◎

-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들의 진로교육 관련 국제비교조사나 데이터 베이스가 없었다. 이에 2017년에 개최된 국제학술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진로개발학회(ARACD)와의 협조 하에 아시아 국가간 교류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아시아 국가간 청소년 진로교육 현황 국제비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예산이 뒷받침 되거나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진로개발학회(ARACD) 및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나 아시아진로개발학회(ARACD)의 홈페이지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아시아진로개발학회(ARACD)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국가 간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① 아시아 국가 간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 아시아진로개발학회(ARACD)와 2017년 학술회의에 참가한 말레이시아 푸트남대학(UPM) 산하 사회정책연구원은 WARDY 회원국이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말레이시아 사회정책연구원은 아시아진로개발학회(ARACD)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 회원기관이므로 향후 ARACD와 WARDY 협력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국가 간 진로교육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말레이시아 푸트남대학(UPM) 사회정책연구원 이외의 ARACD 회원기관도 WARDY 회원기관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WARDY와 ARACD의 연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아시아 진로교육 연구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② 아시아 국가 간 데이터 베이스 축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2017년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국가보고서 및 개인보고서를 기초로 해외 출판사를 통해 단행본을 출판하고, 매 2년마다 개최되는 ARACD 국제학술회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출판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연구협력체제를 갖춘다.

- 2017년 국제학술회의 결과보고서는 영국 캠임브릿지 스칼러 출판사로부터 출판제의를 받은 상황으로 출판을 준비 중에 있다. 이를 토대로 아시아 국가 간 진로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장기적으로는 공동조사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현재로서는 마련되어 있는 예산이 없고, 향후에도 예산확보의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각국의 자부담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한 후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의 조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② 2017년 국제학술회의 이후 지속적인 연구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 2018년에 12월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일본진로교육학대회에서 2017년 국제학술회의에서 한국과 일본간 특별세션의 후속으로 2차 한일 특별세션을 준비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진로교육 연구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018년 일본진로교육학대회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및 ARACD와 공동주최함으로써 아시아 국간 진로교육 연구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2017년 국제학술회의에서처럼 연구자 이외에도 한국과 일본의 현장전문가(교사 및 지역사회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상호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 2019년에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제13회 ARACD 국제학술회의를 2017년 국제학술회의의 연속선 상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국제학술회의를 공동주최함으로써 아시아 진로교육 연구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 말레이시아 국제학술회의는 말레이시아 비전 2020의 성과로서 추진되는 만큼 말레이시아와의 연구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5.04.28.). 지역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체계 마련. 보도자료.
- 교육부 (2016.4.5.).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6).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진로체험 매뉴얼.
- 교육부 (2016.4.28.). 2016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유학기제 체험처 지원 현황(국무회의 보고). 보도자료.
- 교육부(2017).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단) 현황(10월23일기준) 자료(내부자료).
- 김경근 (2004). 한국의 사회변동과 교육. 서울: 문음사.
- 김경동 (2011). 아시아란 무엇인가? 인식과 정체 의식. 아시아 리뷰, 1(1), 37-58.
- 김기현, 맹영임. (2011). 지역사회 진로체험 활성화 및 연계협력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홍준, 오병돈 (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 손진희, 강혜영, 김지현, 유정이, 임은미, 손은령 (2015). 진로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김승보, 진미석, 한상근, 이지연, 이윤진 (2013). 초·중등 진로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승보, 김기홍, 김영식 (2015). 2015년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운영사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승보, 주희정, 김영식 (2016).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활동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신영, 최운실 (2014). 진로체험학습에서 학생·교사의 주도성이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7(4), 71-93.

-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 (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재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 김현철 (2002). 급변하는 일본의 청년노동시장 - ‘후리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제13권 제1호, 43-78.
- 김현철, 황여정, 민경석, 윤혜순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2013).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정책의 방향모색: 일본의 청소년 체험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NYPI 기획세미나.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백혜정, 이지연 (2016).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체부·교육부 (2016. 6. 29.). 자유학기제 연계 ‘오늘은 예술학교’ 본격 추진(보도자료).
- 손은령 (2009). 진로선택과정에서 우연 혹은 기회의 역할 고찰. 상담학연구, 10(1), 385-397.
- 송창용, 장현진, 김나라, 김민경, 윤수린, 박봉남 (2014). 2014년도 학교진로교육실태조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현중 (1999). 아시아적 가치와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무역학회, 37-59.
- 어윤경 (2015). 진로체험 중심 자유학기제의 진로성숙도 향상 효과. 공주대학교교육연구소 교육연구, 30(1), 27-49.
- 엄문영, 차성현, 박성호, 최수진, 박종효, 신혜숙 (2013). 아시아 국가 대상 교육 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여성가족부 (2014). 2014 청소년백서.
- 유영란, 김정삼, 주수원, 박주희, 이정현, 박준호, 손미향 (2015). 창의적 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실행중심 체험 ROAD 발굴 및 적용 방안 수립. 성남: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지연 (2014). 기업참여형 진로탐색 지원 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 3차 진로교육국제포럼.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윤수린, 유미애, 양정은, 강민우 (2014). 안전한 진로체험 안내서(교사용).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2015). 학생의 꿈과 끼를 맞추는 진로교육: 한국의 학교 진로상담(지도) 종합

- 지원체제. 2015년 제4회 진로교육 국제포럼 자료집.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 (2016). 한국의 진로체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미발간 자료).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지연 (2017). Country Report for Career Education in Korea.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현립, 손향숙 (2006). 다중지능 이론을 적용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5(2), 101-116.
- 임언 (2009). OECD 국가의 직업교육 유형별 진로지도 현황 비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희진, 송병국 (2014).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현진, 김민경, 류지영, 윤수린, 유미애 (2015).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현진, 윤형한, 김민경, 류지영, 이지은, 유미애 (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 2016.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현진, 정윤경, 김나라, 임건주 (2014).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윤경, 이지연, 이영대, 최동선, 김나라 (2010).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로교육 운영모델 구축(Ⅲ).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의석 (2013).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진로교육법 제2조, 제5조, 제13조, 제20조.
- 진미석, 손유미, 김도협 (2102). 주요국의 진로교육정책: 교육과 고용구조의 연계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윤정 (2012). 중학생들의 진로교육 경험에 의한 진로교육 개입 유형 탐색 및 유형별 성과 차이. 진로교육연구, 25(2), 21-41.
- 최창욱, 문호영, 김진호 (201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 여성가족부 (2015). 2015 청소년 통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뛰어난 학업성취와 성공적인 교육개혁.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계획 분석 2016년도 2학기.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7a).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활성화 및 대상기관별 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 매뉴얼.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7b).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활성화 및 대상기관별 컨설팅을 위한 컨설턴트 매뉴얼 참고자료집.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진로교육학회 (2000). 진로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16-S2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참여실태조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Guide Book.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6). 2015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결과.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황매향 (2016). 진로체험활동의 효과성.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세미나 자료집, 16-S2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bbas, Raza (2017). Career Education and VET for Youth in Asia: Pakistan- Overview & Career Education Initiatives.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rulmani, G. (2015). A Livelihoods Approach to Career Guidance in Asia. IAEVG International Conference in Japan, 2015.
- Arulmani, G., Sachin Kumar, Jyothis Paul (2017). Career Education and Job Training in Asian Countries Country Paper from India.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Census reports and other statistical publications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 Fujita, Teruyuki (2017).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n Japan.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8). Role of Family Experience in Career Exploration: a life-span perspective.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 Halsey, Albert Henry, 강순원 역 (2011). *우리 시대를 위한 교육사회학 다시 읽기*. 한울아카데미.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database.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orld Telecommunication/ICT Development Report and database.
- Jordaan, J. P. (1963). Exploratory Behavior: The Formation of Self and Occupational Concepts.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pp.42-78.
- KBS (2017). *명견만리*. 서울: 인플루엔셜.
- Krauss, Steven (2017). Career Education and VET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in Malaysia.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Matsuda, Shigeki (2017), *アジアで進行する少子化の特徴と背景要因. アジアにおける少子化・教育・雇用の関連ー日本・韓国・シンガポールの比較研究 (公開セミナー資料集)*. 東京: 慶應義塾大学.
- Mimura, Takao (2015). 일본의 커리어 교육.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제1회 동북아청소년포럼 일본 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미나 자료집, 15-S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OECD National Accounts data.
- Price waterhouse Coopers (2017). *The Long View How will the global economic order change by 2050*. PricewaterhouseCoopers.
- Pryor, Robert & Bright, Jim (2011). *The Chaos Theory of Careers*. Routldge.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Various years). *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Report*.
-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base.
- Ripley, Amanda, 김희정 역 (2014). *무엇이 이 나라 학생들을 똑똑하게 만드는가*. 서울:

- 부키.
- Saeid, Safaei Movahhed & Tarkhan, Reza Ali (2017). A Report of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Iran.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Samuel P. Huntington, 이희재 역 (1997).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tatistics and Demography Programme.
- Simon, H., 배진아 역 (2014). 히든 챔피언 글로벌 원정대. 서울: 흐름출판.
- Surya, Mohamad (2017).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AND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DONESIA COUNTRY REPORT” .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Sweet, R., Nissinen, K. & Vuorinen, R. (2014). An analysis of the career development items in PISA 2012 and of their relationship to the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schools, students and families. The European Lifelong Guidance Policy Network Research Paper No. 1.
- Schwab, Klaus, 송경진 역 (2016). 제4차 산업혁명. 서울: 새로운현재.
- Tien, Hsiu-Lan Shelley (2017). Career Education in Taiwan.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World Bank.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database.
-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 World Bank staff estimates based on age/sex distributions o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 Yin, Tan Soo (2017). Career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Singapore.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Yuen, Mantak & Flora S.Y. YAU, Joe Y.C. TSUI, Joseph C.T. TSANG, Brian S.F. LEE (2017). Career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in Hong Kong.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www.oecd.org/dac/stats/idsonline.
- www.ilo.org.

- 文部科学省 (2017). 世界の学校体系. 東京: ぎょうせい.
- 荻谷剛彦 (1991). 教育の経済学から「経済の教育社会学」へ. 東京: 日本教育社.
- 金鉉哲(2005). 日本の学歴社会・学歴主義の歴史—韓国との比較. 渡辺秀樹外(2005). 現代二本の社会意識—家族・子ども・ジェンダー. 東京: 慶應義塾大学出版部.
- 大塚様(2017). 小中高生のキャリア発達段階(미발간자료).



부 록

부 록

부표-1 **각국의 총인구(Population, total)**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42,869,283	47,008,111	48,683,638	49,054,708	49,307,835	49,554,112	49,936,638	50,199,853	50,428,893	50,746,659	51,014,947	51,245,707
일본	123,537,000	126,843,000	128,001,000	128,063,000	128,047,000	128,070,000	127,833,000	127,629,000	127,445,000	127,276,000	127,141,000	126,994,511
대만	-	-	-	-	-	-	-	-	-	-	-	-
홍콩	5,704,500	6,665,000	6,916,300	6,957,800	6,972,800	7,024,200	7,071,600	7,154,600	7,187,500	7,241,700	7,305,700	7,346,700
말레이시아	18,038,321	23,185,608	26,625,845	27,111,069	27,605,383	28,112,289	28,635,128	29,170,456	29,706,724	30,228,017	30,723,155	31,187,265
싱가포르	3,047,132	4,027,887	4,588,599	4,839,396	4,987,573	5,076,732	5,183,688	5,312,437	5,399,162	5,469,724	5,535,002	5,607,283
인도네시아	181,436,821	211,540,429	232,989,141	236,159,276	239,340,478	242,524,123	245,707,511	248,883,232	252,032,263	255,131,116	258,162,113	261,115,456
인도	870,133,480	1,053,050,912	1,179,681,239	1,197,146,906	1,214,270,132	1,230,980,691	1,247,236,029	1,263,065,852	1,278,562,207	1,293,859,294	1,309,053,980	1,324,171,354
파키스탄	107,678,614	138,523,285	160,332,974	163,644,603	167,049,580	170,560,182	174,184,265	177,911,533	181,712,595	185,546,257	189,380,513	193,203,476
이란	56,226,185	66,131,854	72,031,103	72,845,542	73,687,565	74,567,511	75,491,582	76,453,574	77,435,384	78,411,092	79,360,487	80,277,428

*(1)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 Census reports and other statistical publications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3)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4)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Report (various years), (5)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base, and (6)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tatistics and Demography Programme.

부표-2 각국의 인구 연령대 0-14세(총인구 대비 %)(Population ages 0-14(% of total))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25.6	21.0	17.9	17.5	16.9	16.2	15.8	15.2	14.7	14.3	14.0	13.8
일본	18.3	14.6	13.6	13.5	13.4	13.3	13.2	13.1	13.0	12.9	12.9	12.8
대만	-	-	-	-	-	-	-	-	-	-	-	-
홍콩	21.5	17.2	12.9	12.5	12.2	12.1	11.8	11.8	11.8	11.9	12.0	12.3
말레이시아	37.1	34.1	29.4	28.7	28.0	27.4	26.8	26.4	25.8	25.4	25.0	-
싱가포르	21.5	21.5	18.5	18.2	17.8	17.3	17.0	16.6	16.2	15.9	15.5	15.3
인도네시아	36.4	30.7	29.3	29.1	28.9	28.9	28.6	28.4	28.2	28.0	27.7	27.5
인도	37.9	34.7	32.1	31.7	31.3	30.9	30.5	30.1	29.6	29.2	28.8	28.4
파키스탄	43.0	41.1	37.2	36.9	36.5	36.2	36.0	35.7	35.4	35.2	35.0	34.9
이란	45.4	34.9	24.5	24.0	23.7	23.5	23.4	23.4	23.4	23.5	23.6	23.6

*World Bank staff estimates based on age/sex distributions o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부표-3

각국의 인구 연령대 15-64세(총인구 대비 %)(Population ages 15-64(% of total))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69.4	71.7	72.2	72.2	72.4	72.7	72.8	72.9	73.0	73.0	72.9	72.7
일본	69.7	68.2	65.5	65.0	64.4	63.8	63.2	62.6	62.0	61.4	60.8	60.3
대만	-	-	-	-	-	-	-	-	-	-	-	-
홍콩	69.8	71.8	74.7	75.1	75.2	75.0	74.9	74.6	74.1	73.6	73.0	72.1
말레이시아	59.3	62.0	65.9	66.6	67.1	67.7	68.1	68.3	68.8	69.0	69.1	-
싱가포르	72.9	71.2	72.8	73.0	73.3	73.6	73.6	73.5	73.3	73.1	72.8	72.4
인도네시아	59.8	64.6	65.8	66.0	66.1	66.2	66.4	66.6	66.7	66.9	67.1	67.2
인도	58.2	60.9	63.0	63.3	63.6	64.0	64.3	64.6	65.0	65.3	65.6	65.8
파키스탄	53.1	54.8	58.4	58.7	59.1	59.4	59.6	59.8	60.1	60.3	60.5	60.6
이란	51.3	60.8	70.6	71.1	71.4	71.6	71.7	71.7	71.6	71.5	71.3	71.1

*World Bank staff estimates based on age/sex distributions o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부표-4 각국의 인구 증가율(연간 %)(Population growth(annual %))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1.0	0.8	0.5	0.8	0.5	0.5	0.8	0.5	0.5	0.6	0.5	0.5
일본	0.3	0.2	0.1	0.0	0.0	0.0	-0.2	-0.2	-0.1	-0.1	-0.1	-0.1
대만	-	-	-	-	-	-	-	-	-	-	-	-
홍콩	0.3	0.9	0.9	0.6	0.2	0.7	0.7	1.2	0.5	0.8	0.9	0.6
말레이시아	2.8	2.3	1.8	1.8	1.8	1.8	1.8	1.9	1.8	1.7	1.6	1.5
싱가포르	3.9	1.7	4.2	5.3	3.0	1.8	2.1	2.5	1.6	1.3	1.2	1.3
인도네시아	1.8	1.4	1.4	1.4	1.3	1.3	1.3	1.3	1.3	1.2	1.2	1.1
인도	2.1	1.8	1.5	1.5	1.4	1.4	1.3	1.3	1.2	1.2	1.2	1.1
파키스탄	2.9	2.3	2.0	2.0	2.1	2.1	2.1	2.1	2.1	2.1	2.0	2.0
이란	2.6	1.6	1.1	1.1	1.1	1.2	1.2	1.3	1.3	1.3	1.2	1.1

*(1)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 Census reports and other statistical publications from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3) Eurostat: Demographic Statistics, (4) United Nations Statistical Division. Population and Vital Statistics Reprot (various years), (5)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base, and (6) Secretariat of the Pacific Community: Statistics and Demography Programme.

부표-5 각국의 5세 미만 사망률(출산 1,000명당)(Mortality rate, under-5(per 1,000 live births))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7.1	6.1	4.8	4.5	4.3	4.1	4.0	3.8	3.7	3.6	3.4	-
일본	6.3	4.5	3.5	3.4	3.3	3.2	3.4	3.0	2.9	2.8	2.7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	-	-	-	-	-	-	-	-	-
말레이시아	16.6	10.2	8.0	8.0	8.0	8.0	7.9	7.7	7.5	7.2	7.0	-
싱가포르	7.7	4.0	2.9	2.8	2.8	2.8	2.8	2.8	2.8	2.8	2.7	-
인도네시아	84.7	52.3	37.9	36.2	34.7	33.1	31.7	30.4	29.3	28.2	27.2	-
인도	125.8	91.2	68.5	65.6	62.7	59.9	57.2	54.5	52.1	49.8	47.7	-
파키스탄	138.6	112.3	97.4	95.5	93.7	91.8	89.9	87.8	85.6	83.3	81.1	-
이란	57.5	34.7	22.8	21.4	20.2	19.2	18.3	17.5	16.8	16.1	15.5	-

*Estimates Developed by the UN Inter-agency Group for Child Mortality Estimation (UNICEF, WHO, World Bank, UN DESA Population Division) at www.childmortality.org. Projected data are from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and may in some cases not be consistent with data before the current year.

부표-6 각국의 국내총생산(현재 미국 달러)(GDP(current US\$))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279,349,355,714	561,633,125,940	1,122,679,154,632	1,002,219,032,988	901,994,953,365	1,094,499,338,703	1,202,463,682,634	1,222,897,284,465	1,305,604,981,272	1,411,333,996,201	1,392,764,027,114	1,411,245,589,977
일본	3,139,974,483,543	4,887,519,680,745	4,515,284,514,431	5,037,908,465,114	5,231,382,674,594	5,700,088,114,744	6,157,459,594,824	6,203,213,121,334	5,155,717,066,271	4,949,733,415,524	4,393,076,298,082	4,999,393,909,875
대만	-	-	-	-	-	-	-	-	-	-	-	-
홍콩	76,928,230,842	171,688,164,083	211,397,405,594	219,279,678,430	214,046,415,026	228,637,697,575	246,513,617,677	282,629,441,493	275,666,879,835	291,459,356,995	309,403,880,389	320,912,235,499
말레이시아	44,024,178,343	93,789,736,842	193,547,824,063	230,813,597,938	202,257,566,288	255,016,609,233	297,951,990,784	314,442,825,683	323,276,841,537	338,099,990,833	286,283,190,373	296,369,118,755
싱가포르	36,152,027,883	95,833,932,715	179,981,288,567	192,225,881,688	192,408,387,762	238,421,782,178	275,589,459,374	289,162,119,909	302,510,688,904	308,142,766,948	268,840,704,102	296,966,712,342
인도네시아	106,140,727,357	166,021,012,078	432,216,737,775	510,228,635,279	539,590,683,938	755,094,160,363	892,989,107,923	917,869,910,106	912,524,136,718	890,814,755,233	861,256,351,277	932,299,177,765
인도	316,697,337,895	462,146,799,338	1,201,111,768,410	1,168,932,757,636	1,323,940,295,874	1,666,617,073,125	1,827,049,927,772	1,827,637,859,136	1,666,722,121,394	2,035,393,459,980	2,111,751,098,165	2,263,522,518,124
파키스탄	40,010,424,929	73,932,374,970	152,366,716,312	170,077,814,106	168,152,775,283	177,406,854,515	213,587,413,184	224,383,620,630	231,216,567,179	244,330,888,751	271,049,886,673	283,699,990,688
이란	124,813,263,926	109,591,707,802	337,474,465,087	397,189,565,319	388,978,104,575	467,790,215,915	592,037,800,187	567,239,399,683	511,620,875,087	425,326,088,423	399,436,064,442	-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부표-7 각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연간 %)(GDP growth(annual %))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9.8	8.9	5.5	2.8	0.7	6.5	3.7	2.3	2.9	3.3	2.8	2.8
일본	5.6	2.8	1.7	-1.1	-5.4	4.2	-0.1	1.5	2.0	0.3	1.2	1.0
대만	-	-	-	-	-	-	-	-	-	-	-	-
홍콩	3.8	7.7	6.5	2.1	-2.5	6.8	4.8	1.7	3.1	2.8	2.4	2.0
말레이시아	9.0	8.9	9.4	3.3	-2.5	7.0	5.3	5.5	4.7	6.0	5.0	4.2
싱가포르	10.0	8.9	9.1	1.8	-0.6	15.2	6.2	3.9	5.0	3.6	1.9	2.0
인도네시아	7.2	4.9	6.3	6.0	4.6	6.2	6.2	6.0	5.6	5.0	4.9	5.0
인도	5.5	3.8	9.8	3.9	8.5	10.3	6.6	5.5	6.4	7.5	8.0	7.1
파키스탄	4.5	4.3	4.8	1.7	2.8	1.6	2.7	3.5	4.4	4.7	4.7	5.7
이란	13.6	5.8	9.1	0.9	2.3	6.6	3.7	-6.6	-1.9	4.3	-1.5	-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각국의 국민총소득, 구매력평가(현재 국제 달러)(GNI, PPP(current international \$))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354,233,652,170	843,935,336,789	1,350,407,461,951	1,405,611,759,231	1,333,108,423,292	1,506,811,930,387	1,588,631,167,034	1,627,811,703,472	1,666,512,666,183	1,712,088,775,987	1,760,796,787,229	1,833,914,820,185
일본	2,420,018,424,281	3,447,333,163,144	4,552,453,877,818	4,573,232,767,880	4,341,888,350,309	4,597,756,491,033	4,702,730,270,933	4,973,844,260,933	5,133,797,407,300	5,194,333,040,033	5,398,627,972,066	5,443,942,511,825
대만	-	-	-	-	-	-	-	-	-	-	-	-
홍콩	96,681,544,571	181,149,337,760	338,920,821,024	330,059,064,102	315,542,532,292	338,039,930,966	363,860,139,588	372,149,796,922	391,614,405,369	410,310,871,990	423,772,182,347	444,694,625,652
말레이시아	117,787,050,827	275,425,124,784	507,989,335,607	530,284,982,511	526,171,291,937	562,877,603,821	609,994,394,639	646,332,525,265	680,303,940,767	744,539,187,047	794,510,075,707	833,887,728,043
싱가포르	66,950,965,000	164,043,424,234	286,477,494,812	288,155,811,228	289,219,610,382	366,613,931,124	378,463,275,660	396,210,739,042	424,418,207,644	450,823,220,722	455,510,722,930	476,878,339,646
인도네시아	515,746,781,330	939,921,597,570	1,588,282,556,784	1,705,066,026,407	1,793,540,893,346	1,950,593,278,416	2,111,380,502,277	2,278,686,916,080	2,439,994,219,935	2,598,232,030,843	2,756,304,214,271	2,929,424,936,497
인도	973,824,792,016	2,080,137,770,622	4,088,617,642,337	4,328,532,646,371	4,731,152,186,851	5,254,841,992,431	5,731,190,432,499	6,136,929,000,933	6,629,512,567,107	7,259,123,288,289	7,926,291,796,265	8,594,226,312,333
파키스탄	221,779,117,897	378,922,806,811	688,832,178,112	694,939,407,533	714,272,628,426	743,097,870,835	784,383,239,309	822,217,599,799	883,026,219,766	945,196,149,733	1,004,336,006,256	1,078,211,516,519
이란	370,613,648,275	620,740,147,824	1,116,726,188,883	1,149,820,224,482	1,180,975,843,770	1,274,633,804,070	1,349,720,661,110	1,287,183,283,935	1,282,406,681,804	1,361,807,973,055	-	-

*World Bank,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database.

부표-9 각국의 공적개발원조 순수액(국민총소득 대비 %)(Net ODA received(% of GNI))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0.0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
대만	-	-	-	-	-	-	-	-	-	-	-	-
홍콩	0.1	-	-	-	-	-	-	-	-	-	-	-
말레이시아	1.1	0.1	0.1	0.1	0.1	0.0	0.0	0.0	0.0	0.0	0.0	-
싱가포르	0.0	-	-	-	-	-	-	-	-	-	-	-
인도네시아	1.7	1.1	0.2	0.2	0.2	0.2	0.0	0.0	0.0	0.0	0.0	-
인도	0.4	0.3	0.1	0.2	0.2	0.2	0.2	0.1	0.1	0.1	0.2	-
파키스탄	2.7	1.0	1.5	0.9	1.6	1.6	1.6	0.9	0.9	1.4	1.3	-
이란	0.1	0.1	0.0	0.0	0.0	0.0	0.0	0.0	0.0	0.0	-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Financial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database. Data are available online at: www.oecd.org/dac/stats/idsonline.

부표-10 각국의 모바일 무선전화 가입수(100명당)(Mobile cellular subscriptions(per 100 people))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0.2	58.3	93.3	95.3	99.5	104.8	107.7	109.4	111.0	115.7	118.5	-
일본	0.7	53.1	84.4	86.7	91.3	96.8	104.3	110.9	116.3	122.2	126.5	-
대만	-	-	-	-	-	-	-	-	-	-	-	-
홍콩	2.3	79.7	155.0	166.2	179.8	195.7	215.5	229.2	235.6	233.6	228.7	-
말레이시아	0.5	21.9	87.1	101.5	108.5	119.7	127.5	141.3	144.7	148.8	143.9	-
싱가포르	1.7	70.1	125.2	132.3	138.7	145.4	150.1	152.1	155.9	146.9	146.5	-
인도네시아	0.0	1.8	40.4	60.0	68.9	87.8	102.5	114.2	125.4	128.8	132.3	-
인도	0.0	0.3	20.2	29.5	44.1	62.4	73.2	69.9	70.8	74.5	78.1	-
파키스탄	0.0	0.2	38.3	52.7	55.5	57.3	61.8	67.1	70.1	73.3	66.9	-
이란	0.0	1.5	41.5	59.2	71.5	72.6	74.3	76.1	84.2	87.8	93.4	-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World Telecommunication/ICT Development Report and database.

부표-11

각국의 여성 실업(여성 노동력 대비 %)(Unemployment, female(% of female labor force)(modeled ILO estimate))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3.5	2.5	2.6	2.9	3.3	3.0	2.9	2.8	3.4	3.5	3.4
일본	-	4.5	3.8	3.9	4.8	4.6	4.1	4.0	3.7	3.4	3.1	2.9
대만	-	-	-	-	-	-	-	-	-	-	-	-
홍콩	-	4.0	3.4	3.0	4.3	3.5	2.8	2.7	2.9	3.0	2.9	3.0
말레이시아	-	3.1	3.4	3.6	4.0	3.7	3.3	3.1	3.4	3.2	3.4	3.6
싱가포르	-	3.7	4.3	4.4	4.7	3.4	3.1	3.0	2.9	3.0	1.8	1.9
인도네시아	-	6.5	10.9	9.7	8.5	8.7	8.9	6.7	6.4	6.4	6.7	6.3
인도	-	4.2	3.8	4.3	3.9	4.4	4.3	4.2	4.2	4.0	3.9	3.8
파키스탄	-	16.0	8.8	8.8	9.5	9.8	9.4	9.4	9.6	9.0	10.2	10.5
이란	-	18.1	16.0	16.9	17.1	20.8	18.6	18.3	15.6	19.4	19.3	18.9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database. Data retrieved in March 2017.

부표-12 각국의 남성 실업(남성 노동력 대비 %)(Unemployment, male(% of male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5.0	3.7	3.6	4.1	4.0	3.7	3.4	3.3	3.6	3.7	3.8
일본	-	4.9	4.0	4.1	5.3	5.5	4.8	4.5	4.2	3.8	3.6	3.3
대만	-	-	-	-	-	-	-	-	-	-	-	-
홍콩	-	5.6	4.5	4.1	6.1	5.0	4.0	3.8	3.8	3.6	3.6	3.8
말레이시아	-	2.9	3.1	3.1	3.5	3.2	3.0	2.9	2.9	2.6	2.9	3.1
싱가포르	-	3.7	3.6	3.6	4.0	2.9	2.7	2.6	2.7	2.6	1.6	1.7
인도네시아	-	5.8	8.0	7.6	7.5	6.2	6.6	5.8	6.0	5.6	5.6	5.1
인도	-	4.3	3.7	4.1	3.9	3.3	3.3	3.4	3.4	3.4	3.4	3.3
파키스탄	-	5.6	4.2	4.0	4.4	4.4	5.0	5.0	5.3	4.6	4.7	4.5
이란	-	10.6	9.3	9.1	10.8	11.9	10.9	10.8	9.2	8.6	9.2	9.6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database. Data retrieved in March 2017.

부표-13 각국의 총실업(총노동력 대비%)(Unemployment, total(% of total labor force) (modeled ILO estimate))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4.4	3.2	3.2	3.6	3.7	3.4	3.2	3.1	3.5	3.6	3.7
일본	-	4.7	3.9	4.0	5.1	5.1	4.5	4.3	4.0	3.6	3.4	3.1
대만	-	-	-	-	-	-	-	-	-	-	-	-
홍콩	-	4.9	4.0	3.6	5.3	4.3	3.4	3.3	3.4	3.3	3.3	3.4
말레이시아	-	3.0	3.2	3.3	3.7	3.4	3.1	3.0	3.1	2.9	3.1	3.3
싱가포르	-	3.7	3.9	4.0	4.3	3.1	2.9	2.8	2.8	2.8	1.7	1.8
인도네시아	-	6.1	9.1	8.4	7.9	7.1	7.5	6.1	6.2	5.9	6.0	5.6
인도	-	4.3	3.7	4.2	3.9	3.5	3.5	3.6	3.6	3.5	3.5	3.5
파키스탄	-	7.2	5.1	5.0	5.5	5.6	5.9	6.0	6.2	5.6	5.9	5.9
이란	-	11.8	10.6	10.5	12.0	13.5	12.3	12.2	10.4	10.6	11.1	11.3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database. Data retrieved in March 2017.

부표-14 각국의 여성 노동력(총노동력 대비 %) (Labor force, female(% of total labor force))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39.7	40.5	41.4	41.5	41.2	41.4	41.5	41.5	41.6	41.7	41.7	41.7
일본	40.8	40.6	41.4	41.5	41.9	42.4	42.1	42.2	42.7	42.9	42.9	42.9
대만	-	-	-	-	-	-	-	-	-	-	-	-
홍콩	36.5	41.9	45.9	46.5	46.9	46.8	47.2	47.2	47.4	47.6	47.5	47.4
말레이시아	34.5	34.9	35.4	35.2	35.5	35.4	35.9	36.4	37.5	37.6	37.6	-
싱가포르	39.1	40.7	42.5	43.1	42.9	43.5	43.9	44.1	44.3	44.3	44.2	44.2
인도네시아	38.4	37.5	37.5	37.8	37.7	38.1	38.0	37.8	37.7	37.7	37.8	37.8
인도	27.6	27.8	27.7	26.8	25.9	25.1	24.6	24.1	24.2	24.1	24.2	24.3
파키스탄	12.7	15.2	19.3	19.8	20.7	21.6	21.8	21.8	21.8	21.9	22.1	22.2
이란	10.4	15.6	19.2	17.7	18.4	18.4	18.4	18.3	18.2	18.1	18.1	18.1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database, using World Bank population estimates. Labor data retrieved in March 2017.

부표-15 한국의 총노동력(Labor force, total)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19,155,599	22,666,298	24,419,559	24,600,787	24,663,848	25,038,790	25,449,149	25,861,828	26,198,258	26,424,022	26,668,184	26,886,359
일본	63,825,704	67,605,187	66,906,669	66,805,734	66,612,468	66,798,579	65,649,665	65,361,148	65,720,666	65,964,804	65,671,238	65,428,708
대만	-	-	-	-	-	-	-	-	-	-	-	-
홍콩	2,847,664	3,351,031	3,667,352	3,687,418	3,704,106	3,676,969	3,731,860	3,797,233	3,855,318	3,872,070	3,881,323	3,864,446
말레이시아	7,020,445	9,633,618	11,347,511	11,547,757	11,908,326	12,214,647	12,755,951	13,289,161	13,948,040	14,265,725	14,584,498	-
싱가포르	1,554,218	2,068,131	2,480,261	2,639,328	2,734,404	2,819,921	2,904,047	3,013,460	3,053,774	3,100,451	3,139,341	3,180,834
인도네시아	75,661,558	98,908,483	111,542,914	113,387,801	115,518,774	117,486,994	119,212,457	120,760,580	122,223,209	123,812,098	125,748,956	127,410,171
인도	328,399,741	405,045,655	468,073,271	469,008,242	469,841,130	470,578,019	473,606,539	476,562,393	484,178,803	491,547,279	500,844,101	510,053,514
파키스탄	31,031,072	41,610,647	53,624,807	54,919,971	56,930,889	58,803,880	60,471,580	61,839,330	63,249,849	64,606,741	66,349,268	68,052,003
이란	14,011,804	18,948,474	24,696,410	23,947,978	24,574,159	24,624,389	25,095,372	25,545,290	26,157,873	26,561,857	26,996,426	27,394,347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database, using World Bank population estimates. Labor data retrieved in March 2017.

부표-16 각국의 여성 청소년 실업률(15-24세 여성 노동력 대비 %)(Unemployment, youth female(% of female labor force ages 15-24)(modeled ILO estimate))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8.7	6.8	7.7	8.3	8.8	7.9	8.3	8.8	9.0	9.9	9.7
일본	-	7.9	7.2	6.9	8.4	8.1	7.1	7.4	6.1	5.4	5.2	5.1
대만	-	-	-	-	-	-	-	-	-	-	-	-
홍콩	-	10.4	7.2	6.9	10.1	10.3	7.7	7.7	7.7	8.1	7.8	7.9
말레이시아	-	8.5	11.3	11.5	12.6	12.0	10.8	11.1	12.1	11.8	12.5	13.3
싱가포르	-	6.9	10.9	12.1	12.0	9.7	9.0	8.9	9.0	8.6	5.5	6.1
인도네시아	-	18.4	27.3	25.3	23.1	21.7	24.1	19.9	22.0	21.3	21.4	20.0
인도	-	10.1	8.7	10.2	9.7	11.5	11.5	11.5	11.5	10.8	10.3	10.0
파키스탄	-	29.4	9.0	10.7	12.0	12.2	14.2	14.0	13.5	13.4	15.0	15.1
이란	-	31.2	29.7	33.4	32.0	40.7	37.8	38.3	33.2	41.4	41.1	41.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database. Data retrieved in March 2017.

부표-17

각국의 남성 청소년 실업 (15-24세 남성 노동력 대비) (Unemployment, youth male % of male labor force ages 15-24) (modeled ILO estimate)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13.1	10.8	11.2	11.4	10.9	11.8	9.5	9.6	11.0	11.1	11.5
일본	-	10.2	8.4	7.9	10.1	10.5	8.9	8.6	7.5	7.1	6.0	5.8
대만	-											
홍콩	-	11.9	11.0	10.4	15.1	14.0	11.0	10.9	11.2	10.3	10.2	10.7
말레이시아	-	8.5	10.3	10.0	10.9	10.4	9.4	9.9	9.4	9.4	10.4	11.3
싱가포르	-	3.8	6.7	6.4	6.4	5.1	4.8	4.7	5.4	5.1	3.0	3.2
인도네시아	-	18.0	23.8	21.7	21.7	20.7	22.5	19.6	21.1	19.7	19.3	17.8
인도	-	9.9	8.9	9.9	9.6	9.7	9.9	10.3	10.3	9.9	9.7	9.5
파키스탄	-	11.2	7.2	7.1	7.9	8.1	9.9	10.1	10.7	9.8	9.7	9.4
이란	-	20.8	19.7	19.9	22.3	25.1	23.6	23.9	20.7	20.1	21.4	22.6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database. Data retrieved in March 2017.

부표-18 각국의 성별 실업률(15-24세)(Unemployment rate by sex and age(15-24))

국기명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총	10.5	10.2	10	8.8	9.3	9.9	9.8	9.6	9	9.4	10	10.5	10.7
	남자	12.2	12.3	11.7	11.4	11.5	11.9	11.2	12.1	9.7	9.8	11.2	11.3	11
	여자	9.4	9	9	7.2	7.9	8.6	9	8.1	8.5	9	9.2	10	10.5
일본	총	9.5	8.7	8	7.7	7.2	9.1	9.4	8.4	8.1	6.9	6.3	5.5	5.1
	남자	10.9	9.9	8.8	8.3	7.9	10.1	10.4	9.4	8.8	7.6	7.1	6	5.7
	여자	8.3	7.4	7.2	7.1	6.9	8.4	8	7.3	7.5	6.2	5.4	5.1	4.5
대만	총	10.9	10.6	10.4	10.6	11.8	14.5	13.1	12.5	12.7	13.2	12.6	12	12.1
	남자	-	-	-	-	-	15.6	13.6	12.6	12.7	13.3	13	12.4	11.7
	여자	-	-	-	-	-	13.5	12.7	12.3	12.6	13.1	12.2	11.6	12.5
홍콩	총	12.1	10.7	10.4	9	8.5	12.6	12.2	9.3	9.3	9.4	9.2	10.5	-
	남자	15.1	13.8	12.9	11	10.4	15.2	14	11	10.9	11.3	10.4	11.5	-
	여자	9.2	7.9	8.1	7.2	6.9	10.1	10.4	7.7	7.7	7.8	8.1	9.6	-
말레이시아	총	-	-	-	10.9	10.9	11.9	11.4	10	10.3	10.4	10.2	10.7	-
	남자	-	-	-	10.5	10.3	11.5	11	9.4	9.8	9.3	9.3	9.9	-
	여자	-	-	-	11.5	11.8	12.5	12	10.8	11	12	11.6	11.8	-

국가명	성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싱가포르	총	10.9	-	8.9	8.8	9.2	-	-	-	-	-	-	-	-
	남자	6.8	-	6.4	6.9	6.4	-	-	-	-	-	-	-	-
	여자	15.3	-	11.6	11.2	12.2	-	-	-	-	-	-	-	-
인도네시아	총	29.6	32.4	30.6	25.1	23.3	22.2	21.5	20	-	21.6	-	22.6	19.5
	남자	-	-	-	23.8	21.8	21.6	21.1	19.3	-	21.2	-	22.3	19.8
	여자	-	-	-	27.3	25.5	23	22	21	-	22.1	-	23.1	19
인도	총	-	10	-	-	-	-	10.3	-	-	-	-	-	-
	남자	-	9.8	-	-	-	-	9.8	-	-	-	-	-	-
	여자	-	10.4	-	-	-	-	11.5	-	-	-	-	-	-
파키스탄	총	-	-	-	-	-	-	-	-	10.1	-	-	-	-
	남자	-	-	-	-	-	-	-	-	9.5	-	-	-	-
	여자	-	-	-	-	-	-	-	-	12	-	-	-	-
이란	총	11.7	-	8.7	7.5	7.7	-	1.3	1.7	-	5.9	4	6.6	-
	남자	11	-	8.4	7.1	7	-	1.3	1.8	-	6.1	4	5.7	-
	여자	14.9	-	9.7	8.9	10.5	-	1.1	1.3	-	5.4	3.9	9.4	-

*www.ilo.org

부표-19 각국의 취학전 교육기관(전체 %)(School enrollment, preprimary(% gross))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55.5	-	-	-	-	-	-	-	91.6	92.8	93.6	-
일본	48.0	84.5	88.9	89.6	89.7	88.2	87.3	87.8	89.9	89.3	-	-
대만	-	-	-	-	-	-	-	-	-	-	-	-
홍콩	79.1	-	99.5	102.9	106.2	106.7	109.4	-	-	-	-	-
말레이시아	34.3	51.4	62.2	73.5	75.3	77.7	-	83.4	87.9	91.0	93.9	-
싱가포르	-	-	-	-	-	-	-	-	-	-	-	-
인도네시아	17.1	24.1	40.8	43.3	45.4	41.3	43.0	50.0	54.4	58.2	-	-
인도	2.9	-	7.0	8.5	7.5	7.2	7.7	7.9	9.6	11.7	12.2	-
파키스탄	-	65.9	81.4	87.6	83.5	-	-	78.3	78.0	70.2	72.3	-
이란	11.7	17.4	54.0	53.1	42.9	41.5	41.5	35.1	38.1	42.4	50.8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 20 **각국의 초등학교 등록(전체 %)(School enrollment, primary(% gross))**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106.0	101.3	105.8	103.3	101.4	101.9	102.5	101.4	99.0	99.0	99.0	-
일본	101.6	101.0	102.0	101.5	102.0	102.2	102.6	102.3	101.6	101.2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	-	-	-	-	-	-	-	-	-
말레이시아	92.7	98.1	100.4	100.2	100.1	100.1	100.7	101.9	103.4	102.8	101.8	-
싱가포르	-	-	-	-	-	-	-	-	-	-	-	-
인도네시아	114.4	108.8	109.1	107.5	108.1	108.7	108.6	108.7	106.3	105.7	105.9	-
인도	91.8	94.6	110.2	110.9	109.6	109.2	108.4	109.8	110.6	107.9	108.6	-
파키스탄	58.7	74.0	91.2	92.2	94.0	95.7	92.0	91.4	89.8	93.6	92.7	-
이란	106.3	100.1	104.9	106.2	107.1	105.8	105.4	105.3	118.4	109.2	108.9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21 각국의 중학교 등록(전체 %)(School enrollment, secondary(% gross))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92.6	98.4	99.4	99.2	98.4	96.1	95.7	96.2	97.7	98.5	98.9	-
일본	95.6	101.8	100.4	100.6	100.9	101.6	101.8	101.8	101.9	101.7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83.0	84.7	86.2	88.0	87.2	107.2	101.0	100.6	100.8	-
말레이시아	54.7	66.2	66.2	66.1	65.6	66.9	66.5	69.6	69.7	77.7	77.6	-
싱가포르	-	-	-	-	-	-	-	-	-	-	-	-
인도네시아	46.6	55.1	70.6	69.7	74.7	76.5	79.2	80.4	82.5	82.5	85.8	-
인도	-	45.1	57.5	60.6	59.8	63.3	66.4	69.2	68.9	74.3	74.0	-
파키스탄	22.0	-	34.7	35.2	35.3	35.8	36.7	38.3	39.8	41.6	44.5	-
이란	53.2	78.6	77.5	81.0	82.8	82.0	85.1	87.6	86.6	88.4	89.2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22

각국의 고등학교 등록(전체 %)(School enrollment, tertiary(% gross))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36.9	78.4	92.6	95.3	98.0	99.7	99.5	97.2	95.3	94.2	93.2	-
일본	29.7	48.7	57.8	57.6	57.7	58.1	59.9	61.5	62.4	63.4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41.5	54.4	55.4	58.5	60.5	60.6	67.3	68.8	68.5	-
말레이시아	7.2	25.7	30.3	33.8	35.8	37.1	35.4	35.9	36.4	27.6	26.1	-
싱가포르	-	-	-	-	-	-	-	-	-	-	-	-
인도네시아	8.4	14.9	17.8	20.7	23.1	24.2	26.5	30.7	31.3	31.1	24.3	-
인도	6.0	9.5	13.2	15.1	16.1	17.9	22.9	24.4	23.9	25.5	26.9	-
파키스탄	3.1	-	5.6	5.6	6.9	-	8.7	9.9	10.4	10.4	9.9	-
이란	-	19.3	29.7	36.0	36.4	42.6	48.5	54.9	57.8	66.0	71.9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각국의 성인 문해능력 총비율(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Literacy rate, adult total(% of people ages 15 and above))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	-	98	-	-	-	-	-	-	-	-
일본	-	-	-	-	-	-	-	-	-	-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88.7	-	-	-	93.1	-	-	-	-	94.6	-
싱가포르	89.1	92.5	-	-	-	95.9	96.2	96.4	96.5	96.7	96.8	-
인도네시아	81.5	-	-	92.2	92.6	-	92.8	-	-	95.1	95.4	-
인도	-	-	-	-	-	-	69.3	-	-	-	72.2	-
파키스탄	-	-	-	55.5	54.9	55.4	54.7	56.8	55.6	-	56.4	-
이란	-	-	-	82.0	-	-	-	83.6	84.6	-	87.2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24 각국의 초등학교 등록(순수 %)(School enrollment, primary(% net))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99.6	99.5	99.4	98.9	98.2	98.9	98.9	96.3	96.5	98.2	-
일본	-	100.0	100.0	100.0	100.0	99.9	99.9	99.9	99.9	100.0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97.8	97.5	97.2	97.3	96.6	96.7	97.7	98.8	98.4	98.1	-
싱가포르	-	-	-	-	-	-	-	-	-	-	-	-
인도네시아	-	-	93.6	92.9	93.4	93.8	93.3	92.4	90.2	89.7	89.7	-
인도	-	79.8	91.3	91.0	90.8	91.0	90.4	91.6	92.3	-	-	-
파키스탄	-	-	71.1	71.9	73.3	74.7	71.7	71.3	70.1	73.0	73.8	-
이란	-	85.2	99.4	-	99.5	99.6	99.7	99.5	98.7	99.2	99.2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25 각국의 중학교 등록(순수 %)(School enrollment, secondary(% net))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95.0	98.3	97.4	97.0	94.6	94.5	94.8	96.2	96.8	96.6	-
일본	-	-	97.7	98.0	98.3	99.0	99.1	99.1	99.2	99.0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75.4	76.9	78.3	79.8	79.0	90.1	88.4	88.2	88.1	-
말레이시아	-	66.0	66.0	65.8	65.2	66.4	65.6	67.7	67.5	68.0	68.5	-
싱가포르	-	-	-	-	-	-	-	-	-	-	-	-
인도네시아	-	-	64.9	64.1	64.9	66.7	73.0	74.1	75.2	75.0	75.5	-
인도	-	-	-	-	-	-	-	-	61.8	-	-	-
파키스탄	-	-	34.4	34.8	34.9	-	36.3	37.8	39.3	41.2	44.0	-
이란	-	-	-	-	78.4	77.6	80.6	83.0	80.3	80.7	72.7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26 **각국의 초등교육 총완료율(배당 연령대 대비 %)(Primary completion rate, total(% of relevant age group))**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99.2	103.6	107.5	102.4	100.6	98.7	101.7	109.1	103.2	96.5	101.6	-
일본	103.4	102.4	104.3	-	101.4	100.6	102.1	102.1	-	-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	-	-	-	-	-	-	-	-	-
말레이시아	87.9	100.6	99.7	101.7	102.9	100.0	101.4	107.2	102.8	101.9	101.2	-
싱가포르	-	-	-	-	-	-	-	-	-	-	-	-
인도네시아	93.3	-	96.5	96.6	98.3	100.2	97.5	102.5	100.6	102.9	102.0	-
인도	-	71.8	-	95.0	95.9	-	92.9	-	96.2	97.5	-	-
파키스탄	-	-	64.0	64.1	65.2	69.4	68.2	72.4	73.2	73.7	71.9	-
이란	85.3	92.0	95.1	98.2	102.9	104.8	104.2	102.2	-	-	101.8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27 각국의 중학교 진학(여성, %)(Progression to secondary school, female(%))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99.3	99.9	100.0	-	100.0	-	99.6	99.6	99.5	-	-
일본	100.0	-	-	-	-	-	-	-	-	-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99.9	99.7	-	99.6	99.9	99.9	99.5	99.6	-	-
말레이시아	-	99.4	96.9	95.4	94.4	94.1	92.1	90.6	88.6	87.7	-	-
싱가포르	-	-	96.6	93.9	-	-	-	-	-	-	-	-
인도네시아	-	-	95.0	92.8	-	96.4	96.2	91.8	-	95.7	-	-
인도	-	88.4	-	-	-	92.4	-	-	91.2	-	-	-
파키스탄	-	-	73.2	74.0	76.8	74.8	79.8	75.3	80.0	77.9	-	-
이란	84.2	91.9	98.8	98.7	96.2	96.9	96.8	-	-	-	-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28 각국의 중학교 진학(남성, %)(Progression to secondary school, male(%))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99.4	99.9	100.0	-	100.0	-	100.0	99.8	99.8	-	-
일본	99.9	-	-	-	-	-	-	-	-	-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100.0	-	-
말레이시아	-	99.1	98.7	97.2	96.6	95.4	93.8	90.9	89.5	87.3	-	-
싱가포르	-	-	89.6	88.0	-	-	-	-	-	-	-	-
인도네시아	-	-	88.3	91.3	-	84.1	96.6	91.5	-	88.0	-	-
인도	-	92.1	-	-	-	91.6	-	-	91.1	-	-	-
파키스탄	-	-	76.3	75.7	76.7	74.9	80.4	78.4	82.3	79.0	-	-
이란	90.6	92.7	96.8	100.0	96.7	97.8	97.2	-	-	-	-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29 각국의 학생-교사 비율(초등교육)(Pupil-teacher ratio, primary)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36.3	32.1	25.6	24.1	22.4	20.9	19.0	17.9	16.9	16.5	-	-
일본	21.2	20.7	18.5	18.3	18.1	17.8	17.5	17.1	16.7	16.4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21.5	16.9	16.5	15.9	15.2	14.8	14.4	14.0	13.8	13.7	-
말레이시아	20.4	19.6	15.0	14.4	13.1	12.6	12.3	12.0	11.8	11.4	11.5	-
싱가포르	25.8	-	20.4	19.3	17.4	-	-	-	-	-	-	-
인도네시아	23.3	22.1	18.8	20.7	19.8	19.0	19.0	18.6	16.1	16.6	-	-
인도	-	40.0	-	-	-	-	35.2	-	32.3	31.3	31.5	-
파키스탄	41.1	33.0	40.0	40.7	39.7	40.5	39.8	41.4	42.5	46.5	46.3	-
이란	-	26.1	21.8	21.3	20.5	-	-	-	25.7	25.9	26.8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 30 **각국의 학교 밖 아이들(초등, 여성)(Children out of school, primary, female)**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73	2,767	3,279	18,168	23,315	20,568	19,126	52,963	49,498	19,085	-
일본	-	-	-	-	-	2,036	1,658	1,849	1,633	1,617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32,597	24,021	41,064	19,489	51,382	44,043	32,561	16,509	29,446	24,327	-
싱가포르	-	-	-	-	-	-	-	-	-	-	-	-
인도네시아	674,600	-	670,689	677,076	611,359	380,792	227,611	556,230	855,416	1,043,640	1,352,002	-
인도	17,687,004	13,416,546	2,248,144	1,406,158	1,865,020	1,688,497	1,695,210	1,384,677	931,474	-	-	-
파키스탄	-	-	3,379,106	3,266,771	3,085,492	2,962,060	3,194,221	3,216,427	3,402,004	3,300,032	3,309,514	-
이란	476,684	661,766	4,670	-	-	-	-	-	-	-	-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31 각국의 학교 밖 아이들(초등, 남성)(Children out of school, primary, male)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9,854	8,553	7,609	13,554	11,042	10,810	10,474	48,266	45,886	15,001	-
일본	-	-	-	-	-	1,888	1,767	1,628	1,715	1,699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34,849	55,723	48,296	67,990	59,303	61,300	40,247	20,687	21,101	33,937	-
싱가포르	-	-	-	-	-	-	-	-	-	-	-	-
인도네시아	298,715	-	221,386	472,064	363,925	508,983	803,276	736,408	1,044,680	964,574	1,292,525	-
인도	6,207,504	5,637,621	1,542,717	2,380,111	3,636,203	3,137,944	3,690,124	2,458,114	1,954,726	-	-	-
파키스탄	-	-	2,314,618	2,270,772	2,158,957	1,998,710	2,351,961	2,471,386	2,649,285	2,311,760	2,289,556	-
이란	139,695	559,438	22,290	-	-	-	-	-	-	-	-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32 각국의 교육관련 정부 총지출(정부 지출 대비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total(% of government expenditure))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	-	-	-	-	-	-	-	-	-	-
일본	-	9.9	10.0	10.3	-	9.5	9.7	9.5	9.6	9.3	-	-
대만	-	-	-	-	-	-	-	-	-	-	-	-
홍콩	18.5	-	22.6	22.9	23.8	20.2	20.1	18.6	20.3	17.6	18.6	-
말레이시아	-	21.4	16.1	14.0	18.5	18.4	21.0	19.9	19.5	19.7	19.7	-
싱가포르	-	18.3	20.0	19.9	17.2	17.2	19.9	21.2	20.0	-	-	-
인도네시아	-	-	14.9	13.7	19.3	16.7	18.0	18.1	17.6	17.7	20.5	-
인도	-	17.5	-	-	10.8	11.7	13.7	14.1	14.1	-	-	-
파키스탄	-	8.5	15.4	14.1	11.9	11.9	10.9	11.0	11.5	11.3	13.2	-
이란	-	20.6	19.9	20.6	18.0	18.8	19.1	17.4	21.7	19.7	18.6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33 각국의 교육관련 정부 총지출(국내총생산 대비 %)(Government expenditure on education, total(% of GDP))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3.0	-	4.0	4.5	4.7	-	-	4.6	-	-	5.1	-
일본	-	3.5	3.3	3.3	-	3.6	3.6	3.7	3.7	3.6	-	-
대만	-	-	-	-	-	-	-	-	-	-	-	-
홍콩	2.5	-	3.5	3.3	4.4	3.5	3.4	3.5	3.8	3.6	3.3	-
말레이시아	-	6.0	4.4	4.0	6.0	5.0	5.8	5.7	5.5	5.2	5.0	-
싱가포르	-	3.3	3.0	2.8	3.0	3.1	3.1	3.1	2.9	-	-	-
인도네시아	-	-	3.0	2.9	3.5	2.8	3.2	3.4	3.4	3.3	3.6	-
인도	-	4.3	-	-	3.3	3.4	3.8	3.9	3.8	-	-	-
파키스탄	2.5	1.8	2.6	2.7	2.6	2.3	2.2	2.1	2.5	2.5	2.6	-
이란	3.8	4.0	4.7	4.1	4.0	3.9	3.7	3.2	3.2	3.0	2.9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 34

각국의 초등학생 1인당 정부 지출(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Government expenditure per student, primary(% of GDP per capita)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	15.9	18.2	21.5	-	-	22.0	23.5	24.5	29.4	-
일본	-	20.7	20.9	20.9	-	22.9	22.6	22.8	23.0	22.5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12.3	12.4	13.5	14.7	14.7	14.2	14.7	14.9	14.9	-
말레이시아	-	12.6	10.8	13.0	14.2	12.3	14.9	17.3	16.0	15.8	16.1	-
싱가포르	-	-	-	9.5	10.6	11.0	-	-	-	-	-	-
인도네시아	-	-	11.5	11.4	13.5	10.0	-	11.5	11.9	12.3	13.2	-
인도	-	14.5	-	-	7.6	7.6	9.1	9.4	9.8	-	-	-
파키스탄	0	-	-	-	-	-	-	-	8.0	8.1	7.7	-
이란	-	-	16.5	14.2	12.9	12.5	13.0	10.7	8.0	8.2	8.0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부표 35 각국의 중학생 1인당 정부 지출 (1인당 국내총생산 대비 %)(Government expenditure per student, secondary(% of GDP per capita))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	20.7	21.7	22.0	-	-	22.5	23.3	23.3	28.1	-
일본	-	20.3	21.6	21.6	-	23.5	24.5	24.7	24.6	23.9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15.8	14.9	16.0	17.1	17.3	17.1	18.7	19.3	20.4	-
말레이시아	-	21.9	13.8	12.0	21.3	18.0	19.1	20.8	20.1	18.9	18.4	-
싱가포르	-	-	-	14.1	15.7	16.7	-	-	-	-	-	-
인도네시아	-	-	9.5	9.4	11.0	8.3	-	10.3	9.8	9.9	10.5	-
인도	-	24.8	-	-	13.7	14.3	15.4	15.7	16.8	-	-	-
파키스탄	-	-	-	-	-	-	-	-	10.3	13.2	15.2	-
이란	-	-	19.4	17.4	18.1	19.0	14.7	14.1	18.5	15.6	15.1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국가명	1990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한국	-	-	8.5	9.5	12.2	-	-	10.7	12.9	14.6	16.0	-
일본	-	16.9	19.4	20.3	-	24.4	23.4	24.5	24.2	24.6	-	-
대만	-	-	-	-	-	-	-	-	-	-	-	-
홍콩	-	-	37.4	27.5	54.7	25.7	25.4	30.2	34.8	24.6	23.4	-
말레이시아	-	81.6	47.9	-	59.4	45.3	58.7	44.0	44.1	49.9	50.4	-
싱가포르	-	-	-	-	27.5	27.4	26.1	25.9	22.4	-	-	-
인도네시아	-	-	23.7	17.0	21.0	21.8	-	23.3	21.6	19.5	28.5	-
인도	-	94.9	-	-	78.1	72.3	61.5	54.3	49.2	-	-	-
파키스탄	-	-	-	-	-	-	-	-	74.4	51.6	59.7	-
이란	-	-	24.2	17.7	19.0	16.0	18.0	15.2	12.6	13.6	14.0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areer education trend of Asian countries and draw an improvement plan for South Korean students'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f each Asian country. To this end, the study in year 1 analyzed social environment of major Asian countries in terms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and conducted a survey on Korean students' participation in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n year 2, the study hel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by inviting 10 Asian countries, and collected and analyzed documents related to their career experience programs. Based on that, the study proposed measures to boost career counseling.

As in the 2012 survey result of the PISA, this study found that Asian countries providing many career opportunity options also tend to have high vocational competence. The favorable sociocultura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ose countries seem to have positively affected the quality and quantity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n contrast, other nations such as India, Indonesia, Pakistan and Iran that have few public policies for career experience and fail to efficiently implement such policies were found to have a lack of opportunities to experience career activities and negatively affect developing career competencies as well.

Even if the amount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s proportional to career capabilities, it cannot be concluded that the amount always has a positive impact on fostering career capabilities without fail. The findings were just the average tendency. South Korea and Japan offer more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than Hong Kong, Taiwan and Singapore, and show higher vocational capabilities subsequently obtained from such opportuni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group of the countries have more effective career path education.

The amount of career experience was high in South Korea and Japan, but the career activities were mostly run separately from curricular activities. In contrast, the curriculum and activity programs in Hong Kong, Taiwan and Singapore were more closely interconnected through an integrated academic approach. These five countries with high school enrollment ratio of secondary and tertiary education have two types of education models - one that focuses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and the other that emphasizes integrated curriculum.

South Korea and Japan with a focus on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had relatively low career capabilities compared to their input amount of experience because they might have difficulties in taking an integrated curricular approach. In other words, enhancing the quality of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is important for high-quality career education, but systematically connecting curriculum and experience is also equally important. If both goals can be met,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will be able to serve as a better tool of career education.

In conclusion, this study made largely two policy proposals. First, it suggested measures to invigorate and enrich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of South Korean youths. To this end, it proposed creating a regional ecosystem for career education, enhancing teachers' career education capability, building learning organization readiness among consultants and experts across the regions, sharing value on the need for forming the regional ecosystem, seeking integrated career education by schools and improving fundamentals of career centers. Second, it suggested establishing a joint research network for Asian countries in a bid to vitalize cross-border exchanges and cooperation, while forging a sustainable research cooperation system based on research outcome of the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Keywords: Comparison among Asian countries, career experience activities, research network for career education in Asia, and regional ecosystem for career education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7-R01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황여정
- 17-R02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지연 · 정소연
- 17-R02-1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정소연
- 17-R03 아동 · 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기업-아동 · 청소년 NPO-정부의 파트너십 구축 / 임지연 · 김한별
- 17-R04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 · 강영배
- 17-R05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 황세영 · 최정원
- 17-R06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 배상률 · 박남수 · 백강희
- 17-R07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김정주 · 김혁진
- 17-R08 아동 · 청소년 · 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 ·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서정아
- 17-R09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09-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이윤주 · 유설희
- 17-R10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임희진 · 문호영 · 조남영
- 17-R10-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Ⅳ - 기초분석 보고서 / 임희진 · 문호영
- 17-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 오해섭 · 최인재 · 염유식 · 김세광
- 17-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총괄보고서 - / 양계민 · 강경균
- 17-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다문화 · 청소년의 발달 추이 분석 - / 연보라
- 17-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Ⅴ - 정책제언 - / 양계민
- 17-R13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Ⅲ / 김경준 · 정은주
- 17-R14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Ⅱ / 윤철경 · 성윤숙 · 최홍일 · 유성렬 · 김강호
- 17-R15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7-R15-1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 심화분석보고서 -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관련 정보접근성과 인권의식 / 김진석
- 17-R15-2 아동 · 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인권실태 2017 통계 / 김영지 · 김희진
- 17-R16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최용환 · 정은진 · 정유미 · 한지형
- 17-R16-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연구성과분석보고서 / 최용환 · 박상현 · 한지형
- 17-R16-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 수면시간의 긍정적 효과 - / 정은진 · 하형석 · 고강혁 · 정유미
- 17-R16-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Ⅷ :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18 기초연구 / 하형석 · 정은진 · 최승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초·중·고등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보고서 - / 장근영·성은모·이경상·진성희·최효선·김균희 (자체번호 17-R17-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Ⅳ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 김태준·홍영란·김홍민 (자체번호 17-R17-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39-05 IEA ICCS 2016 조사틀(Assessment framework) / Schulz, W·Ainley, J·Losito, B·Agrustii, G (자체번호 17-R17-4)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김현철·백혜정·이지연 (자체번호 17-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7-40-0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Ⅱ -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운영사례집 / 김현철·백혜정 (자체번호 17-R18-1)

연구개발적립금

- 17-R19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연구(2018년 4월 발간) / 황진구·유민상
- 17-R20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2018년 4월 발간) / 이유진·김영한·윤옥경

수시과제

- 17-R21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 연구 / 이창호
- 17-R22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조진우·이윤주
- 17-R23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 한국사례분석 / 이창호·김기현
- 17-R24 현장적용 제고를 위한 자유학기제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분석 / 임지연
- 17-R25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특성 연구 / 이윤주
- 17-R26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 황세영·김기현
- 17-R27 청소년동반자 활성화 방안 연구 / 장근영·진은설
- 17-R28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 / 황진구

수 탁 과 제

- 17-R29 2017년 4개국(한일중미) 청소년 의식조사 / 김기현
- 17-R30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계획 수립연구 / 장근영 · 황진구
- 17-R31 2016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32 2016년도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배상률 · 김동일 · 유홍식
- 17-R33 화랑마을 운영관리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임지연 · 좌동훈 · 한상철 · 신상구 · 박시현
- 17-R34 다문화 교육 종합 발전방안 / 양계민
- 17-R35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1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세미나 자료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2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국내외 사례요약집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5-3 SDGs 시대 청소년 역량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활동 개발 및 활용 방안 - 정책리포트 / 황세영 · 이윤주 · 조성화
- 17-R36 지식협력단지 초 · 중학생 기업가정신 교육 모듈 교재 개발 / 강경균
- 17-R36-1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2 (초등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6-3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학생용 워크북) / 강경균
- 17-R36-4 (중학생) 기업가처럼 생각하기(교사용 매뉴얼) / 강경균
- 17-R37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초 · 중 · 고등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중심으로 / 성윤숙 · 김경준 · 최정원
- 17-R37-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매뉴얼 개발 연구 / 정제영 · 김성기 · 선미숙
- 17-R37-3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 범죄 실태와 예방 대책 연구 / 안동근 · 박병식 · 김영옥
- 17-R38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2017년 청년정책포럼 / 김기현 · 한지형
- 17-R39 청년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 이윤주 · 김기현 · 하형석
- 17-R40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백혜정 · 임희진 · 김현철 · 유성렬
- 17-R41 201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 · 최인재 · 정은주 · 김영지
- 17-R42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모형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혜정
- 17-R43 제5 · 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연구 / 김영지 · 이윤주 · 유설희
- 17-R44 시립청소년시설 적정 위탁운영비 배분을 위한 모형개발 연구 / 최용환 · 이재완 · 박정배
- 17-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2017 / 김희진 · 정윤미
- 17-R46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사회 · 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이경상 · 이창호
- 17-R47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성과측정 체계연구 / 황세영 · 강경균
- 17-R48 청소년용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이성혜
- 17-R49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49-2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지연 · 유민상 · 이상정

- 17-R50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 이윤주·하형석·한지형
- 17-R51 국립강진청소년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 김영한·이유진·정은진·강동영
- 17-R52 20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연구사업 / 서정아·연보라
- 17-R53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 운영/ 장근영
- 17-R54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7-R55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5-1 학업중단 숙려제 특화 프로그램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7-R56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결과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7-S01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의 의미 및 과제 (2/9)
- 17-S0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심화 워크숍 (2/13~14)
- 17-S03 제7차 청년정책포럼 (2/23)
- 17-S04 제8차 청년정책포럼 (4/20)
- 17-S05 유엔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보고서 공청회 (3/7)
- 17-S06 2016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3/31)
- 17-S07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1권역 (4/4)
- 17-S08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2권역 (4/7)
- 17-S09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3권역 (4/11)
- 17-S10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담당자 연수 : 제4권역 (4/12)
- 17-S11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1권역 (4/14)
- 17-S12 2017년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 : 제2권역 (4/18)
- 17-S13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 교육 2차 심화 워크숍 (3/31)
- 17-S14 2017년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1)
- 17-S15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4/13)
- 17-S1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1권역) (4/20)
- 17-S17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기초 연수(2권역) (4/28)
- 17-S18 2017년 제1회 대안학교장 협의회 (5/12)
- 17-S19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청소년 진로교육 국제학술회의 아시아 청소년 진로교육과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5/17)
- 17-S20 2017 NYPI & ARACD INTERNATIONAL CONFERENCE – Career Education and VET(Vocational Education & Trainig) for Youth in Asia : Special Roundtable for Comparing career edu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5/18)
- 17-S21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5/22)
- 17-S22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5/24)
- 17-S23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5/29)
- 17-S24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5/30)
- 17-S25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청소년정책 (5/31)

- 17-S26 세계시민교육 사례 공유를 통한 청소년 활동 활성화 방안 논의 (5/26)
- 17-S27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Ⅴ 콜로키움 (6/22)
- 17-S28 SDGs 청소년 역량 환경교육 (6/26)
- 17-S29 2017 13th citizED International Conference Global citizenship and youth work: educational meanings, possibilities and practices (6.29~7.1)
- 17-S30 다문화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 방안(통합과 선별) (9.22)
- 17-S31 청소년활동 중심 행복마을 운영 모형 및 지원방안 (7.28)
- 17-S32 2017년 한·러 차세대 전문가 세미나 - 한국과 러시아의 성인기 이행 : 청년 자립 '결혼 출산 현황 및 정책' (7.27)
- 17-S33 2017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 모니터링 위원 워크숍 (8.18)
- 17-S34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8.28)
- 17-S35 2017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담당자 연수 (8.29)
- 17-S36 2017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중·고교) 담당교원 협의회」 (9.1)
- 17-S37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9.14)
- 17-S38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9.15)
- 17-S39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토론회 세미나 (9.9, 9.16)
- 17-S40 4차 산업혁명 및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역량증진의 방향 (9.13)
- 17-S41 국제심포지엄 2017 [무업청소년(NEET) : 국제적 동향과 대응] (9.25)
- 17-S42 한-중 국제세미나 (10/31)
- 17-S43 청소년의 디지털 역기능(사이버범죄) 예방과 대책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11.3)
- 17-S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성과발표 및 우수사례발표 워크숍 (11.17)
- 17-S45 청소년의 노동권 관련 법제 현황과 주요 입법 과제 (11.2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1호(통권 제8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2호(통권 제8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3호(통권 제8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87호)

기 타 발 간 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7호 : 청소년정책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8호 :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79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0호 :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1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참여기구 실태 및 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2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2013-2016)' 의 성과와 향후 연구방향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3호 :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정치참여 활성화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4호 :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5호 : 탈북청소년 지원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6호 :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7호 : 청소년 분야 SDGs 이행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8호 : 청소년 동반자 활동 효율화 방안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89호 : 지역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 운영 특성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0호 : 인터넷사회의 부모와 자녀관계에 관한 한·중·일 비교: 한국사례 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1호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와 과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2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3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연구성과분석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4호 : 자유학기제 등 학교-청소년시설의 협업지침 활용방안

NYPI Bluenote 통계 33호 : 청소년 차별 실태 연구
NYPI Bluenote 통계 34호 : 2016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NYPI Bluenote 통계 35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Bluenote 통계 36호 : 청소년 수면과 비만의 종단적 변화
NYPI Bluenote 통계 37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로 살펴본 청소년 관련 국정과제
NYPI Bluenote 통계 38호 : 청소년의 학습습관 통제능력, 성적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 -KCYPs 초 4패널-

연구보고 17-R18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II

인 쇄 2017년 12월 23일

발 행 2017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81-3 94330

979-11-5654-149-3 (세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7-40-01
연구보고 17-R18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1813
ISBN 979-11-5654-181-3
ISBN 979-11-5654-149-3 (세트)